

濟州大學校博物館遺跡調查報告 第2輯

濟州島遺跡

—先史遺跡地表調查報告—

李清圭

1986

濟州大學校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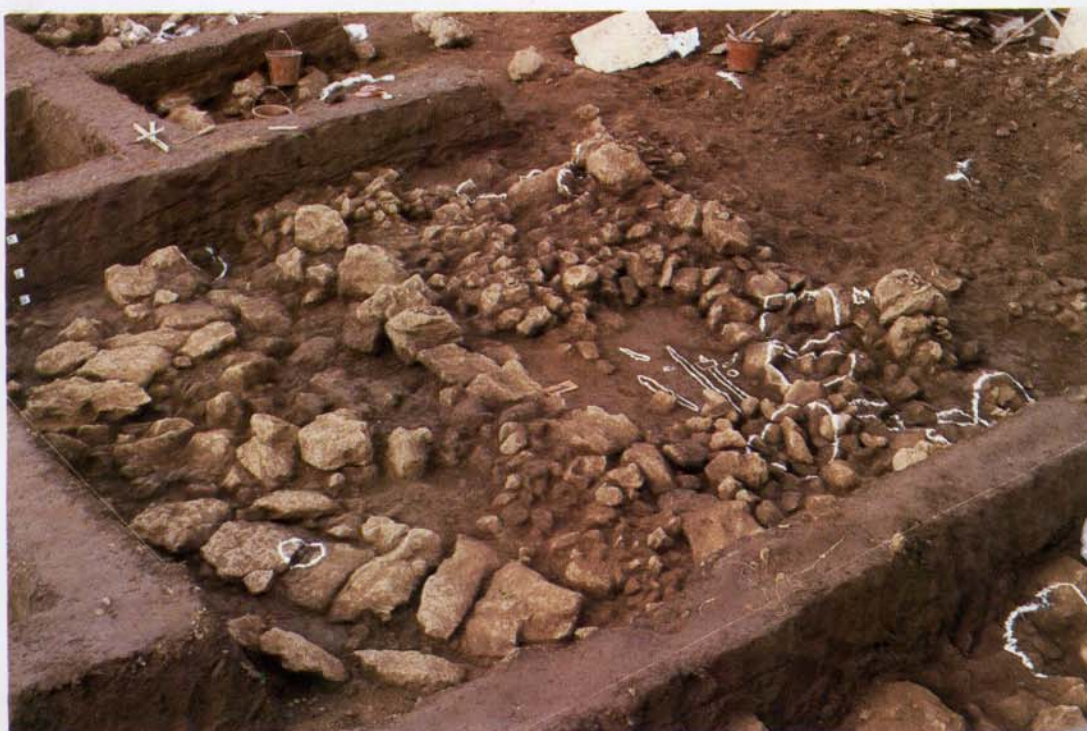
1. 北村里 rock-shelter 유적 전경



2. 北村里 rock-shelter 유적 내부



3. 龍潭洞 甕棺유적 발굴광경



4. 龍潭洞 甕棺유적의 상황

發 刊 辭

濟州大學校博物館은 1967年 民俗博物館으로 發足한 이래, 지금까지 20年間 濟州島를 중심으로 한 民俗 및 遺跡·遺物資料를 蒐集 保存하고 調查研究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濟州島의 傳統文化를 研究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성장하여 왔고, 금년에는 다시 새롭게 移轉·擴張되면서 展示室의 규모도 크게 늘리는 한편, 보다 綜合的이고도 體系의인 調查研究를 위하여 研究室도 따로 갖추어 놓았으니, 이제는 名實共히 博物館으로서의 機能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탕이 이루어지고, 또한 濟州道의 지원에 힘입어, 이제「濟州島 遺跡—先史遺跡地表調查報告—」가 博物館遺跡調查報告 第2輯으로 出刊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濟州島의 文化를 밝히는 데는 여러 분야의 연구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記錄이 없거나 거의 傳하여지지 못하는 古代의 文化를 밝히는 데는 當代 先住民들이 남긴 유적·유물자료를 수집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濟州大博物館은 1979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중의 하나로 알려진 鐵器時代의 遺跡, 涯月邑 郭支里貝塚에 대해서 考古學의 發掘調查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고, 그 이후 수년간, 北濟州郡 朝天邑 北村里 新石器時代 遺跡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 대해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있어 각종 개발·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요즈음에 와서는 유적·유물의 파괴 훼손의 정도가 날로 심하여져, 이제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에 대해 깊이 있는 발굴조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全島的으로 무슨 遺跡·遺物이 어디에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삼음과 동시에, 綜合的인 保存對策을 樹立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後代에 가서 先住民의 文化 或은 歷史를 알 수 있도록 길이 지켜주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지금보다 월등한 수준의 學門的인 方法으로 調查·研究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世代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趣旨에서 이 調查報告書는 꾸며졌으므로, 이 책자가 비단 專門學者를 포함한 各界에서 活用된은 물론, 先史時代의 文化뿐만 아니라, 民俗·歷史·美術 등 여러 分野의 傳統文化를 아끼고 지키는 認識이 擴大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욱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1986 年 12 月 日

濟州大學校博物館長

梁 重 海

차 례

발간사

| | |
|-------------------------------|-----|
| 제1장 머리말 | 1 |
| 제2장 제주도의 자연환경 | 3 |
| 제3장 제주도에 대한 고대 문헌 기록 | 7 |
| 제4장 동굴 및 rock-shelter유적 | 12 |
| 제5장 패총 및 유물산포지 유적 | 43 |
| 제6장 무덤 유적 | 100 |
| 제7장 기타 | 139 |
| 제8장 종합고찰 | 156 |
| 제9장 결 | 159 |

제주도 고고학 관계문헌 및 자료

사 진

범 려

1. 유적지도에 ▲표시는 rock-shelter 또는 동굴유적지이고, ●표시는 패총 혹은 유물산포지이며, ■표시는 고인돌, 그리고 굵은선 표시의 안은 유물산포지의 범위임.
2. 유적지도에 번호는 본문의 각 유적 설명 번호와 일치함.

제 1 장 머 리 말

제주도에 있어서 선사 및 고대문화에 대한 고고학적인 관심은 1928년 濟州市 健入洞 山地港 축조공사 때 암벽 아래에서 중국 漢代 화폐, 銅鏡등의 일괄유물이 발견됨으로써 비롯된다.

그러나 정식학술조사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959년 濟州市 龍潭洞, 吾羅洞 일대의 고인돌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체계적인 발굴조사는 아니나 崔夢龍이 涯月邑 郭支里 고인돌 4기를 조사하였고, 宋錫範은 고인돌 지표조사에 대한 보고를 1966년, 1973년 간략히 한 바 있으며, 任孝宰는 Pearson과 함께 1970년 제주도 일대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1973년 鄭永和는 涯月邑 於音2里 속칭 빌레못굴에서 중기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기유물 및 동물뼈를 발견하였다. 같은 해 宋錫範은 江坂輝彌와 함께 郭支里 패총 유적을 확인하였고, 역시 같은 해 文基善은 朝天邑 北村里 속칭 고두기 언덕에서 표토채집한 토기유물을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조사연구의 노력은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유도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래서 1973년 鄭永和는 빌레못굴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1979년 李白圭가 발굴책임 맡은 濟州大學校博物館 팀은 1979년 郭支里貝塚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1980년대에 이르러, 濟州大學校博物館에서는 도내 각 시기 유적의 구체적인 문화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적인 발굴조사를 확대해 나갔다. 1984년 7월에는 郭支里貝塚에 대한 2차 발굴조사, 1984년 12월과 1985년 1월에는 濟州市 龍潭洞 월성부락 소재 甕棺墓 유적에 대한 긴급구제발굴 조사를 실시하였고, 1985년 9월과 10월에는 제주시 龍潭洞과 外都洞의 고인돌 2기에 대한 발굴, 같은 해 11월에는 광지신용협동조합 신축공사의 광지리 패총에 대한 구제발굴 조사를 하였다.

금년에는 北村里 속칭 고두기 언덕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여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제주도에서의 신석기시대 문화의 실재를 분명하게 입증시켜 주었다.

이처럼 제주도에서의 고고학적인 연구조사는 다른 지방에 비해 뒤떨어진 감이 있지만, 1960년대의 초보적인 조사단계를 거쳐 1970년대의 발굴조사의 초기 단계를 넘어, 이제 1980년대에 이르러 집중적인 발굴조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축적된 조사자료도 이제 상당량 이르게 되었다.

제주도의 유적, 유물의 분포상에 대해서는 任孝宰, 宋錫範, 李白圭, 鄭永和의 종합적인 보고가 있어 이 지방의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해 준다.

이처럼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성과와 최근에 濟州大學校博物館과 濟州大學校史學科팀에 의해서 새로이 수집되는 자료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양적인 팽창이 있게 되었다. 그와같은 제주도 전체 유적, 유물의 종합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수준에서나마 이 지방의 고고학적인 연구조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종합개발계획을 서두르는 요즈음에 있어 유적의 훼손과 파괴의 정도가 날로 심하여지므로 그 보존대책과 학술조사계획을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마침 濟州道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제 때에 직시하여 제주도 선사유적 정밀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발간하는 계획을 세워 濟州大學校博物館에 학술용역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濟州大學校博物館은 조사단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하여 1986년 7월 1일부터 현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 3개월간에 걸쳐 유물실측 및 사진촬영과 원고작성을 하여 제주도 선사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보고서를 내게 되었다.

조사 단 장: 濟州大學校博物館長 梁 重 海 教授

지도 위 원: 文化財研究所長 金 正 基 博士

前 濟州大學校 史學科 金 宗 業 教授

책임조사원: 濟州大學校 史學科 李 清 圭 教授

조사보조원: 濟州大學校 史學科 4년 姜 昌 和

濟州大學校 史學科 3년 玄 文 弼

濟州大學校 史學科 2년 高 才 元

濟州大學校 史學科 2년 張 齊 根

濟州大學校 美術教育科 3년 李 昶 錫

조사 초기에 있어서는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沈汝澤 教授(전 제주대학교 박물관장)가 조사단장으로 수고하였으며, 서무는 濟州大 博物館 李鳳晚씨가 담당하였고 이밖에도 사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보고서는 서술하는데 있어 우선 제주도의 자연환경 및 지리적 조건을 설명하여 환경적 적응양태로서 선사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제2장에서는 고대 제주도에 대한 문헌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유적, 유물을 통해 본 선사문화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되도록 하였다. 이 장은 따로 떼 내어 같은 사학과 소속의 高昌錫교수가 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그 다음 제4장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 각 유적과 그 유적에서 출토하는 유물을 살펴보는 데 유적은 유형별로 나누어 서술한다. 우선은 가장 오랜 주거 형태인 rock-shelter유적을 제5장에서 살펴보고 제6장에서는 패총유적을 포함한 유물산포지를, 그리고 제7장에서는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무덤유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8장에서는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기와의 매장문화재 신고품을 비롯한 박물관 및 개인 소장품을 소개하여 제주도 선사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제9장에서는 지금까지 유적을 유형별로 살펴본 것을 각 시대별로 다시 분류, 정리하여 설명함으로써 그 시기별 변천상을 살펴본다.

제 2 장 제주도의 자연환경

濟州島는 한반도의 서남단, 동지나해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동서길이 73km, 남북길이 31km, 총면적 1,820km²로서 한반도와는 130km 떨어져 있다.

기후적으로 볼 때 연평균 강우량 1,400~1,800cm, 평균 15°C로서 온난다습한 아열대 몬순운형의 기후지역에 속하며, 한편으로는 주변해역을 흐르는 쓰시마난류 때문에 寒暑의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은 해양성 기후를 보여준다. 그리면서 또한 해발 1,950m를 정점으로 한 산악형 地勢의 영향을 받아, 해발고도에 따라 난대, 온대, 한대의 기후대를 갖기도 한다.

지형을 볼 때 漢拏山을 主峰으로 하여 東西斜面은 3°-5°의 매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남북방향에서는 급한 斜面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형의 대체적인 모양은 신생대 제4기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즉 제주도 지반의 형성은 제3기말에 끝나고 그 지반 위에 제4기에 들어서 2회에 걸친 용암의 분출로 용암대지가 형성되고, 그 후 다시 2회에 걸친 용암의 분출로 오늘날 제주도 지형이 완성된 것이다.

지형이 이처럼 화산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주도 토양의 70%는 화산재 토양으로 구성되며 이 토양은 화학, 물리적 성질로 보아 본질적으로 여러가지 농업생산의 저해요인을 갖고 있다. 또한 이 토양에 화산쇄설물이 많고 그렇게 형성된 토층의 두께도 얇아 농업생산성은 더욱 낮다.

한편 화산재토는 保水性이 아주 약하고 그와 동시에 제주도 지하층은 節理構造를 갖기 때문에 滲水狀態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물이 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하천은 항상 물이 흐르는 永久流水川인 경우가 드물며 그나마 漢拏山을 정점으로 하여 긴 사면과 넓은 용암대지가 발달한 동서사면 쪽으로는 그 발달이 빈약하고 주로 남쪽과 북쪽 사면에 많이 분포한다. 그와 동시에 생활용수로 많이 이용되는 湧川水 또한 동서해안보다는 남북해안 지방에 주로 분포하여 있으며, 본래 물이 귀한 제주도에 있어 이러한 용수분포가 선사시대부터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입지 요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경작지의 대부분이 풍화작용의 진전도가 높아 토양이 비교적 비옥하며 평탄지대가 많은 해발 100m이하의 해안지방에 조성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지형 및 토양 여건 때문에 자연히 촌락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자연환경의 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까지도 그러하지만, 제주도는 선사 시대에 있어 식량은 어로활동 및 수렵활동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농경은 발농사 수준에 그칠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의 動物相은 기본적으로 區北滿州亞區에 속하므로 한반도 남부지방과 거의 일치된다고 본다. 그래서 당대주민의 수렵대상이 되었던 포유류 동물은 남해안 여러 패총유적에서도 발견된 멧돼지, 대륙사슴, 노루 등이고 목축의 대상으로 소가 있었음이 당연하며 실제로 괘지패총 유적 발굴조사에 있어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제주도는 그 자체가 섬이어서 바다로 둘러 있는 바, 수심 100m 내외의 대륙붕이 너르게 뻗어 있고, 세계 최대 난류의 하나인 쿠로시오해류의 支流인 쓰시마해류가 제주도 서쪽을 우회하고 있어, 어류 및 조개류 번식에 극히 좋은 여건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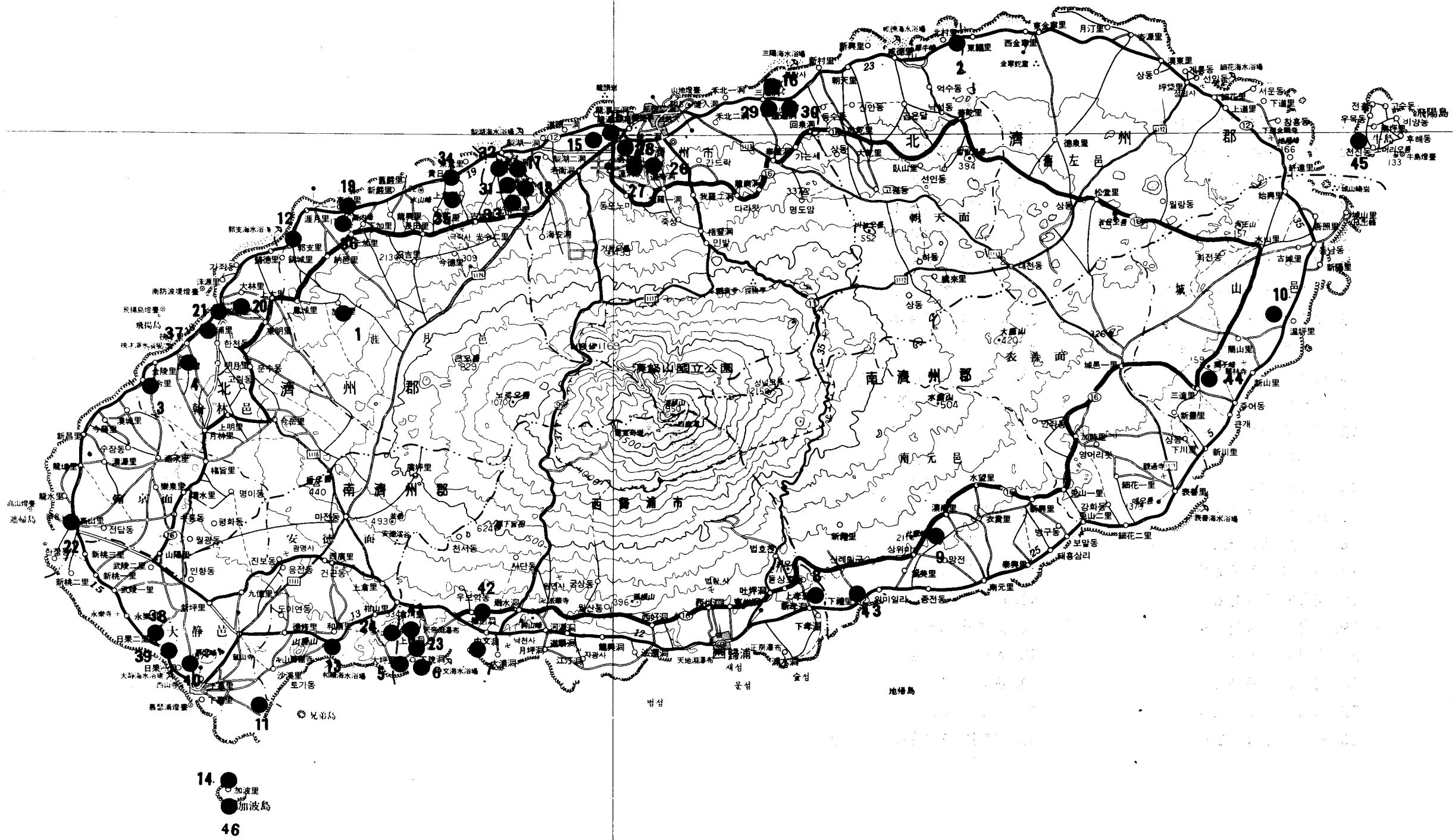
근래에 잡히는 주요 水族을 보면 魚類로 멸치, 고등어, 삼치, 돔 등과 조개류로는 소라고동, 전복, 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 충적세 이후의 선사시대에도 이와 비슷하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어로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에는 해안에서 주로 조개류를 많이 채취하여 식량으로 이용하였으리라 생각되며, 그러한 증거가 신석기 시대의 北村里 유적, 청동기시대의 上墓里 유적 그리고 철기시대의 郭支里 유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제주도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및 철기시대의 주요유적지의 분포상을 살펴보면 제주시에서부터 서쪽의 해안지방을 따라 大靜邑 및 安德面에 이르기까지의 북서 및 남서해안 지방에 밀집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지도1)

이 지역은 제주도내에서 특히 농경 및 용수여건이 유리한 지역이 된다.

즉 제주도를 4개의 토양군으로 나누었을 때 東貴·舊巖·龍興 土壤群에 속하는 바, 토층의 두께가 평균 40-50cm이고 자갈이 35%미만으로, 가장 경작하기에 좋은 지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에 湧泉이 잘 발달해 있는 지역인 것이다.



(지도1) 濟州島 遺跡 분포도(1/250,000)

1. 於音里 빌레못동굴 유적
2. 北村里 rock-shelter유적
3. 月令里 한들굴 유적
4. 挾才里 동굴 유적
5. 猊來洞 rock-shelter유적
6. 穡達洞 동굴 유적
7. 中文洞 rock-shelter유적
8. 下禮里 rock-shelter유적
9. 漢南里 rock-shelter유적
10. 溫坪里 동굴 유적
11. 上摹里 貝塚 및 유물산포지
12. 郭支里 貝塚 및 유물산포지
13. 和順里 貝塚 및 유물산포지
14. 加波島 貝塚
15. 龍潭洞 유물산포지
16. 三陽洞 유물산포지
17. 外都洞 유물산포지
18. 光令里 유물산포지
19. 高內里 유물산포지
20. 東明里 유물산포지
21. 明月里 유물산포지
22. 高山里 유물산포지
23. 猊來洞 유물산포지
24. 創川里 유물산포지
25. 龍潭洞 고인돌群
26. 道南洞 고인돌
27. 吾羅洞 고인돌(1)
28. 吾羅洞 고인돌(2)
29. 三陽洞 고인돌群
30. 道蓮洞 고인돌
31. 外都洞 고인돌群(1)
32. 外都洞 고인돌群(2)
33. 光令里 고인돌群
34. 貴日里 고인돌群(1)
35. 貴日里 고인돌(2)
37. 甕浦里 고인돌
36. 高內里 고인돌
38. 東日里 고인돌群
39. 日果里 고인돌
40. 下摹里 고인돌
41. 創川里 고인돌群
42. 穡達洞 고인돌
43. 新禮里 고인돌
44. 新山里 고인돌
45. 牛島 고인돌
46. 加波島 고인돌群 및 선돌

제 3 장 제주도에 대한 고대 문헌 기록

제주도에 대한 문헌상의 최초의 기록은《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末尾의「州胡」에 관한 내용을 들 수 있다.

「또 州胡라는 지역이 있는데, 馬韓의 西海中 大島上에 있다. 그 곳 사람들은 키가 조금 작고 言語는 韓과 같지 않으며, 모두 머리를 깎아서 마치 鮮卑族과 같다. 다만 가죽옷을 입었으며 소와 돼지를 즐겨 기른다. (그런데) 그 옷은 有上無下이어서 나체와 다를 바 없다. 배를 타고 中韓에 왕래하며 交易을 한다.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豬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中韓)

위의 기사를 요약 정리하여 轉載한《後漢書》에는「州胡」를「州胡國」이라 하였는데, 이는「섬 오랑캐(나라)」의 뜻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四夷觀에 연유한 것이다. 이 記事의 내용은 저술 연대인 기원후 3세기로 부터 그 이전에 관한 것이며 本土의 原三國時代 내지 古代國家 초기가 이에 해당된다. 考古學上으로는 철기시대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제주도에도 族長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형태가 형성되었을 것이며, 그것이 이른바 耽羅國의 모체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州胡(國)」의 위치를《三國志》에는「馬韓의 西海中」으로 비정했으나 실은 南海에 있었던 것이며,「키가 조금 작다」거나「언어는 韓과 같지 않다」는 것은 今後 體質人類學이나 言語學에서의 비교 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 옷은「가죽옷을 입되 有上無下이어서 나체와 다를 바 없다」고 하여 원시 상태를 다소 과장하여 묘사하고 있으나 가죽옷은 冬衣, 有上無下는 夏衣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皮衣는 수렵이나 목축을 통해서 얻어진 문화 소산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 예로 同書 挹婁條에,

「그들의 풍습은 돼지 기르는 것을 좋아 해서 그 고기를 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겨울에는 돼지 기름을 몸에 바르는데, 여러 분(分)이나 되게 하여 바람과 추위를 막았으며, 여름에는 발가벗고 한 자쯤 되는 베조각으로 앞뒤만 숨겨 형체를 가린다.」(其俗 好養豬 食其肉 衣其皮 冬以豬膏塗身 厚數分 以禦風寒 夏則裸袒 以尺布隱其前後 以蔽形體)

고 한 夏衣의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잠방이 같은 것을 분명히 입었을 것이다.

또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했으므로 농경도 따라서 행해졌을 것이고「배를 타고 中韓에 왕래하며 교역을 한다」고 하여 당시 本土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고 있다. 1928년 제주시 山地港 공사 때에 발견된 중국 漢代의 一括遺物도 결국 이러한 本土와의 교류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다. 즉 대륙의 금속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제주도에까지 流傳된 것이다.

다만 「모두 머리를 깎아서 鮮卑族과 같다」는 「髡頭」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것이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하겠다.

다음 《魏書》 100, 高句麗傳에는,

「正始中에 世宗이 東堂에서 그 나라 사신 芮悉弗을 引見하였다. 芮悉弗이 나아가 말하기를 “高句麗가 帝庭에 誠款을 맺자 여러代 정성을 오로지하며 땅에서 나는 산물로 (일찌기) 朝貢을 어긴 일이 없었다. 다만 黃金은 扶餘에서 나고, 珂玉은 涉羅에서 산출되는데, 지금 扶餘는 勿吉에게 쫓기고 涉羅는 百濟에 併合되었으며, 國王 雲(文咨王)은 오직 끊어진 義理를 이으려고 모두 境內로 옮겼다. 두 가지 물품을 王府에 올리지 못하는 것은 실로 兩賊이 놓여있기 때문이다.”하니, 世宗이 말하기를 “高句麗는 대대로 帝室의 도움을 받아 海外를 專制하고 九夷의 교활한 놈들을 죄다 정복하게 되었다. 瓶酒의 乏絶은 疊의 치욕이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나. 前日의 朝貢의 不如意한 것은 그 책임이 連率(太守 즉 지방장관)에 있었으니, 그대는 마땅히 나의 뜻을 그대의 임금에게 알리어 그로하여금 힘써 威懷의 方略을 써 나쁜 놈들을 없애고 東方의 人民을 편안케 하며 두 나라로 하여금 舊墟를 회복하게 하여 土毛의 常貢을 잃지 않게 하라” 하였다.」(正始中 世宗於東堂引見其使芮悉弗 悉弗進曰「高麗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餘 珂則涉羅所產 今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國王臣雲 惟繼絕之義 悉遷于境內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世宗曰「高麗世荷上將 專制海外 九夷黠虜 實得征之 瓶罄罍耻 誰之咎也 昔方貢之愆 責任連率 卿宜宣朕旨於卿主 務盡威懷之略 擯披害羣 輯寧東裔 使二邑 還復舊墟 土毛無失常貢也」)

고 한 기사가 보인다. 즉 北魏(後魏)에 사신으로 간 高句麗의 芮悉弗과 北魏의 世宗 사이에 오고간 대화의 내용이다. 그 중 “黃金은 扶餘에서 나고 珂玉은 涉羅에서 산출되는데, 지금 부여는 勿吉에게 쫓기고 섭라는 百濟에 合併되어 두 가지 물품을 바치지 못한다”고 한 내용의 涉羅는 곧 耽羅이며, 이때 高句麗는 耽羅産의 珂玉(貝類)을 수입하여 北魏에 朝貢해 왔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高句麗와 耽羅國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交易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耽羅國이 百濟에 合併된 뒤로는 중단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사는 《北史》 94, 高麗傳과 《三國史記》 19, 高句麗本紀 文咨王條에도 보인다.

당시 耽羅國과 百濟와의 관계는, 기록상으로는 文周王 때부터 비롯되었다. 즉 《三國史記》 26 百濟本紀 文周王 2년(476) 4월조에,

「耽羅國이 方物을 바치니 王이 기뻐하여 使者를 拜하여 恩率을 삼았다.」(耽羅國獻方物 王喜 拜使者爲恩率)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恩率은 百濟의 16 官等 중에서 제3위에 속하는 것이다. 당시 百濟는 高句麗

長壽王의 南下政策으로 父王인 蓋鹵王이 戰死하고 首都 漢城이 함락되어 熊津(公州)으로 천도한 때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耽羅國이 使臣을 파견하여 왔다는 것은 文周王의 입장에서는 百萬 援軍을 만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고, 때문에 耽羅國 使者에게 恩率이란 벼슬까지 내렸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 후 耽羅國에서 貢賦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東城王은 무력 정벌을 계획하고,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武珍州(光州)까지 내려왔는데 이때 耽羅國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사신을 파견하여 사죄하므로 정벌이 중단 되었다고 한다. 즉 前揭書 東城王 20년(498) 8월조에,

「王은 耽羅가 貢賦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친히 정벌코자 武珍州에 이르니 耽羅가 이를 듣고 사신을 파견하여 사죄하므로 이에 그만 두었다」(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耽羅即耽牟羅])

라고 하였다. 이는 耽羅國이 百濟에 대한 貢賦, 즉 交聘 관계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高句麗와는 交易 관계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생각된다. 高句麗 文咨王의 사신 芮悉弗이 北魏에 가기 약 6년전에 있었던 일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耽羅國은 百濟의 屬國으로 化했던 것이며, 그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陳을 평정하던 해에 한 戰船이 표류하여 海東의 耽牟羅國에 도착했다가 그 배가 돌아갈 때 百濟의 境域을 지나게 되었다. 이때 昌(威德王)은 이 배에 물건을 많이 주어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고 겸하여 사신을 보내어서 表文을 올려 陳을 평정한 것을 치하하였다. 이에 高祖는 이를 좋게 여기어 詔書를 보내어 말하기를 “백제왕이 이미 陳을 평정했다는 말을 듣고 멀리서 사신을 보내어 表文을 보내 왔는데, 왕복하기가 지극히 어려워 만일 풍랑이라도 만난다면 혹 몸이나 상할까 걱정된다. 백제왕의 마음세가 순박하고 지극한 것은 내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 서로의 거리가 비록 멀지만 우리의 일은 한 가지이고 말하는 것도 같은 터에 어찌 자주 사신을 보내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해마다 공물을 바쳐올 것이 없고 나도 또한 사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 왕은 그렇게 알라”고 했다. 이에 사신으로 갔던 자는 기뻐서 춤을 추고 돌아왔다.」(平陳之歲 有一戰船漂至海東耽牟羅國 其船得還 經于百濟 昌資送甚厚 并遣使奉表賀平陳 高祖善之 下詔曰「百濟王既聞平陳 遠令奉表 往復至難 著逢風浪 便致傷損 百濟王心迹淳至 朕已委知 相去雖遠 事同言面 何必數遣使來相體悉 自今以後 不須年別入貢 朕亦不遣使往 王宜知之」使者舞蹈而去。)《隋書》81 百濟傳.

이와 같은 기사는 《北史》94, 百濟傳과 《三國史記》27, 威德王條에도 보인다. 즉 수나라가 南朝의 陳을 평정할 때 (開皇 8년 : 588) 戰船 한 척이 표류하여 耽羅國에 도착했다가 돌아갈 때 威德王은 심히 厚待하고 아울러 사자를 파견하여 陳을 평정(中國統一) 한 것을 치하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당시 耽羅國이 百濟의 세력하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며, 同書末尾에 또

「그 나라에서 남쪽 바닷길로 석 달을 가면 耽牟羅國이 있다. 이 나라는 남쪽과 북쪽이 천여 리나 되고 동쪽과 서쪽이 수백 리나 된다. 그 곳에는 麋鹿이 많으며 百濟에 붙어 지낸다.」
(其南海行三月 有耽牟羅國 南北千餘里 東西數百里 土多麋鹿 附庸於百濟.)

고 하여, 耽羅國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 漂流 사건의 결과로 알려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남쪽으로 석 달을 간다는 「3月」은 「3日」의 잘못으로 보아지며, 동서·남북의 거리 계산도 오히려 바뀌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麋鹿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들 麋鹿은 당시 수렵의 대상물이었을 것이며, 그러한 결과가 오늘날 여러 유적지에서 표출되고 있는 獸骨 유물이 아닌가 한다.

그 후 百濟가 羅唐 연합군에게 멸망하자 耽羅國은 거취에 적지 많이 망설인 것 같이 보인다. 그것은 唐과 日本, 新羅 등에 각기 使臣을 파견하여 교섭을 벌인데에서도 알 수가 있다.

唐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新唐書》 320, 僂羅傳에,

「龍朔初에 僂羅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 儒李都羅가 사신을 보내어서 入朝하였다. 그 나라는 新羅의 武州 남쪽 섬 위에 있고, 풍속은 질박하고 비루해서 옷은 개나 돼지의 가죽으로 만들어 입는다. 집은 여름에는 가죽으로 해 인 집에서 살고, 겨울에는 굴속에 들어가서 산다. 땅에서는 오곡이 나지만 땅을 가는 데는 소를 부릴 줄 모르며 쇠로 쇠스랑을 만들어 땅을 판다. 이 나라는 처음에 百濟에 소속되었었는데, 麟德年中에 그 추장이 입조하여 帝를 따라 太山에 이르렀으며 그 뒤로는 新羅에 소속되었다.」(龍朔初有僂羅者 其王儒李都羅 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犬豕皮 夏居草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

고 한 기사가 있다. 여기서는 耽羅를 僂羅라 했으며, 그 국왕 儒李都羅가 龍朔初에 사신을 파견하여 入朝하였다고 하였다. 龍朔은 唐 高宗의 연호(661~662)이며, 《唐會要》나 《冊府元龜》에는,

「龍朔元年 8월에 朝貢 사신이 이르렀다.」(龍朔元年 八月 朝貢使至.)

《唐會要》 100, 耽羅國條.

「龍朔 元年 8월에 多蔑國王 摩如失利·多福國王 難修強宜說·耽羅國王 儒李都羅 등이 모두 사신을 파견하여 來朝하고 각각 方物을 바쳤는데, 3국은 모두 林邑 남쪽에 있는 邊海小國이다.」
(龍朔元年 八月 多蔑國王 摩如失利 多福國王 難修強宜說 耽羅國王儒李都羅等 竝遣使來朝 各貢方物 三國皆林邑之南 邊海小國也.) 《冊府元龜》 970, 外臣部 朝貢條.

라고 하여 元年(661) 8월로 기록하였다. 「풍속은 질박하고 비루하여 개나 돼지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하였으나 실은 사냥과 목축을 해서 그 가죽으로 겨울을 지내기 위해 모자나

겉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을 말하며, 그러한 遺風은 아주 후대에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여름에는 가죽으로 두른 집(革屋: 지상가옥)에서 살고 겨울에는 굴속(웁집 또는 동굴)에 들어가 산다」고 한 革屋은 역시 짐승 가죽으로 지붕과 주위를 덮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오히려 草屋의 誤가 아닌가 한다.

또한 당시의 농경 상태를 오곡이 나지만 밭갈이에는 소를 부릴 줄 몰랐으며 쇠로 쇠스랑을 만들어 땅을 판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新羅의 경우 智證王 3년(502)에 牛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난 뒤에도 耽羅國에는 牛耕이 보급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토질이 돌이 대부분인 척박한 상태였으므로 우경을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시가 용이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보다는 오히려 쇠스랑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손쉬웠을 지도 모른다. 때문에 우경의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麟德年中에 그 추장이 입조하여 帝를 따라 太山에 이르렀다」는 麟德(664~665) 역시 高宗의 연호이며, 《舊唐書》'84, 劉仁軌 傳에는

「麟德 2년에 泰山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劉)仁軌가 新羅와 百濟, 耽羅 및 倭의 酋長을 거느리고 赴會하였다.」(麟德二年 封泰山 仁軌領新羅及百濟耽羅倭四國酋長赴會 高宗甚悅 擢拜大司憲.)

이라 하여, 麟德 2년(665)의 일로 기록하였으나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 同年條에는

「이때에 劉仁軌는 新羅의 使者와 百濟·耽羅·倭人の 네 國使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 본국에 돌아가서 泰山에 會祠하였다.」(於是 仁軌領我使者及百濟耽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 以會祠泰山.)

라고 하여, 酋長이 아니라 使臣이 간 것으로 되어 있어 분명치가 않다. 더우기 이에 앞서 文武王 2년(662) 新羅에 來降한 耽羅國主 徒冬音律(津)과 1년 앞서 唐나라에 사신을 파견했던 儒李都羅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今後의 연구 과제라 하겠다.

제 4 장 동굴 및 rock-shelter 유적

1. 於音里 빌레못동굴 유적 (지도1 : 사진12)

1971년 제주도 산악회 夫宗休씨의 발견으로 비롯되어 1973년 제주대학의 朴行信교수가 동물뼈 화석을 발견하고 金元龍, 鄭永和에 의해 확인된 구석기시대 유적이다.

유적은 북제주군 涯月邑 於音2리에 위치하며 애월읍에서 어음리로 가는 버스를 타고 어음2리 종점에서 내려 한라산 쪽으로 20여분 올라가면 나오는데, 해안에서 직선거리 4km, 해발 200m의 완경사면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현재 잡초로 뒤덮혀 있고 간간히 소나무와 활엽수 숲이 형성되어 있다. 빌레못 동굴은 화산이 폭발한 후 용암이 흘러 지표에서 굳기 시작할 때, 내부의 덜 굳은 부분이 경사면을 따라서 서서히 이동하면서 이루어진 일종의 터널식 동굴로서 입구에서 유적지 현장까지는 약 900m 정도 들어가야 된다.

鄭永和는 동굴의 옛날 입구를 찾기 위해 Trench 및 Pit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유적의 층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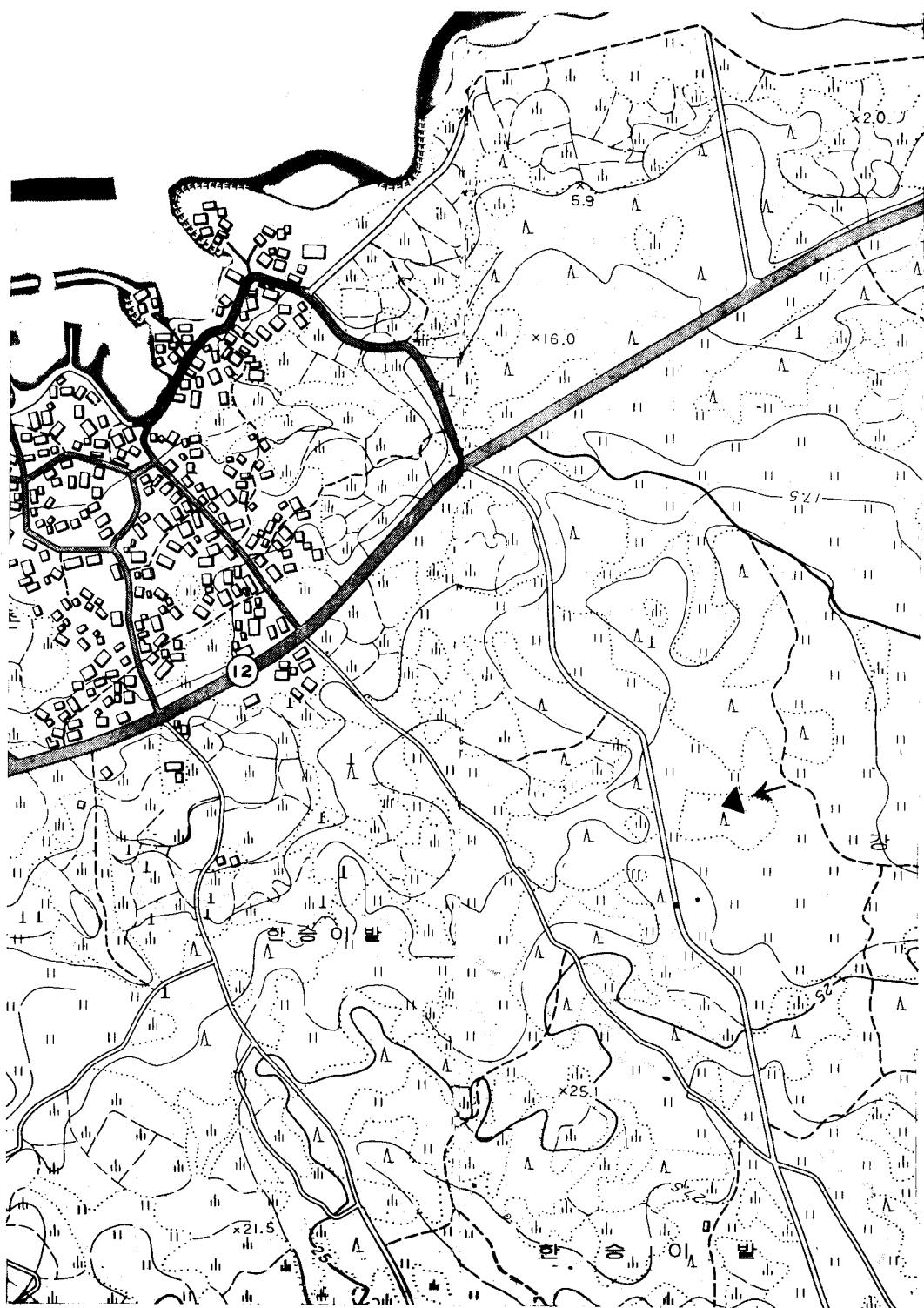
1) 표토층은 직경이 30cm정도 되는 현무암 덩어리들이 깔려 있고 두께가 30-50cm가량이다. 밑부분에는 작은 돌이 많이 보인다.

2) 그 다음 제1문화층은 층의 윗 부분에서는 동물화석들이 발견되며 타제석기도 출토된다. 두께는 2-95cm의 변화를 보이며 고운 진흙과 잔돌, 때로는 직경이 20cm가 넘는 큰 돌도 섞여 있는 층이다.

3) 제2문화층은 직경이 10cm미만의 잔돌과 고운 진흙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층의 압력으로 비교적 단단한 상태이다. 이 층에서는 타제석기만 출토되며 바닥부분은 동굴의 암반과 접촉되어 있다.

모두 84점의 석기유물과 동물뼈가 수집되었는데, 석기 중에는 긁개, 돌칼, 홈날, 톱니날 등이 있어 석기제작기술상 구석기시대 중기로 추정되는 것들이고, 동물화석으로는 중기 홍적세에 해당하는 갈색곰(Brown Bear)의 턱뼈 및 다리뼈가 발견되어 당시 제주도가 連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이밖에도 鄭永和는 구석기유적으로 西歸浦市 天池淵에서 1975년 긁개, 돌날 등의 7점의 구석기를 지표 채집하였는데, 정확한 것은 발굴을 해야 알겠지만 대체로 후기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지도3) 北村里 rock-shelter 위치(1/5,000)

유적은 정면길이 11m, 천장 최대높이 2.5m, 바닥면의 입구에서 안쪽 끝까지의 거리 3m인 전형적인 rock-shelter로서 입구는 정남향으로 트였다.

바닥면 서쪽은 천장에서 무너져 내린 큰 암반으로 평탄면을 이룬 반면, 동쪽에서는 원래 무질서하게 천장에서 떨어져 내린 잔돌에 인위적으로 잡석을 깔아 면을 평탄하게 다듬었다. 이렇게 고른 동쪽의 잡석층 위 여러 지점에 시꺼멓게 탄 흙과 재가 묻쳐 있었고, 갈판, 갈돌 등의 製粉用 도구와 탄화된 좁피열매가 발견되어 이 구역에서 부엌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에 착수할 때 이미 유적은 근래에 와서 심하게 교란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위낙 퇴적층위가 얇은데다 층위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부 교란 당하지 않은 지점을 중심으로 5개의 층위를 구분할 수가 있었다.

층위는 다음처럼 구분된다.

(1) 제1층

표토층으로 지하 15-25cm까지로 조개 및 동물뼈 파편이 비교적 많은 양이 혼입된 흑갈색토층이다. 근래에 버려진 유물도 포함된 교란층이나 원래는 삼국시대 문화층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제2층

갈색 砂質土層으로 표토 아래 30-45cm까지로 두께는 15-35cm이다. 역시 조개 및 동물뼈 조각이 많이 섞이고, 1984년 및 1985년 발굴의 광지리패총 III, IV지구 출토 적갈색 硬質의 深鉢形 토기와 같은 형식의 토기편이 다량 출토하였다. 그밖에도 1979년 발굴의 광지리패총 II지구 출토 廣口外反口緣 항아리형 무문토기 파편도 출토되나, 이 토기 형식은 기본적으로 다음 제3층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층위 바로 밑으로 3층과의 사이에, 회갈색의 곱고 푸석푸석한 재층과 씨꺼먼 목탄층이 3-6cm 두께로 일부 間層을 이루고 있다.

(3) 제3층

표토아래 35-55cm로서 두께는 15-25cm정도인 다소 밝은 흑갈색점토층이다. 조개 및 동물뼈는 소량 혼입되어 있으며, 주로 광지리패총 II지구 출토 郭支式 무문토기 항아리파편이 출토되었다.

(4) 제4층

표토아래 52-72cm이고, 두께는 12-27cm로 밝은 갈색 점토층으로서 조개편이 3층보다 다소 많아진다. 이 층위에서의 유물은 거의 없으나 수점의 공렬토기편과 입술면에 톱날장식이 있는 골아가리토기편이 이 층위에서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1) 北村里 rock-shelter 실측도

(5) 제5층

맨아래층으로 밝은 갈색의 사질토층이며, 조개편은 서로 엉켜 붙어 化石化 과정에 있는 固形物로 되어 있는 층위이다.

표토 아래 67-83cm까지이며, 그 두께는 25-37cm이다.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原狀으로 출토되는 층위로, 바로 밑바닥으로는 신석기시대 당시의 주거바닥으로 이어진다.

2) 유 물

출토유물의 내용을 보면 토기유물, 석기 및 골각기류의 인공유물과 조개류와 동물뼈등의 자연유물이 상당량 출토되었다. 여기서는 이 유적의 문화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물만 골라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신석기시대 토기

① (그림2-1,2,3: 사진6-1,2,3)

口緣部 아래에 3열 혹은 4열의 삼각점렬무늬를 押印手法로 장식한 것으로, 삼각 위 끝이 보다 심하게 눌러 있고 아랫면이 희미한 것을 보아, 삼각끝의 突刺具를 이용, 비스듬히 눌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삼각점렬무늬는 다른 지방에서 보기 어려운 특징적인 토기로 濟州島式이라고 할 수 있다. 3점 모두 토기 안쪽면에 가로줄의 粗痕무늬가 역력하다. 두께 0.7cm 내외

② (그림2-4 : 사진6-4)

위의 토기편은 삼각끝이 위로 향한 것인데에 반해, 이것은 삼각끝이 왼쪽옆으로 향하고 2열로 되어 있다. 施文具는 같은 종류로 생각되며 역시 안쪽면에 가로줄의 粗痕무늬가 있다. 두께 0.7cm

③ (그림2-5,6 : 사진6-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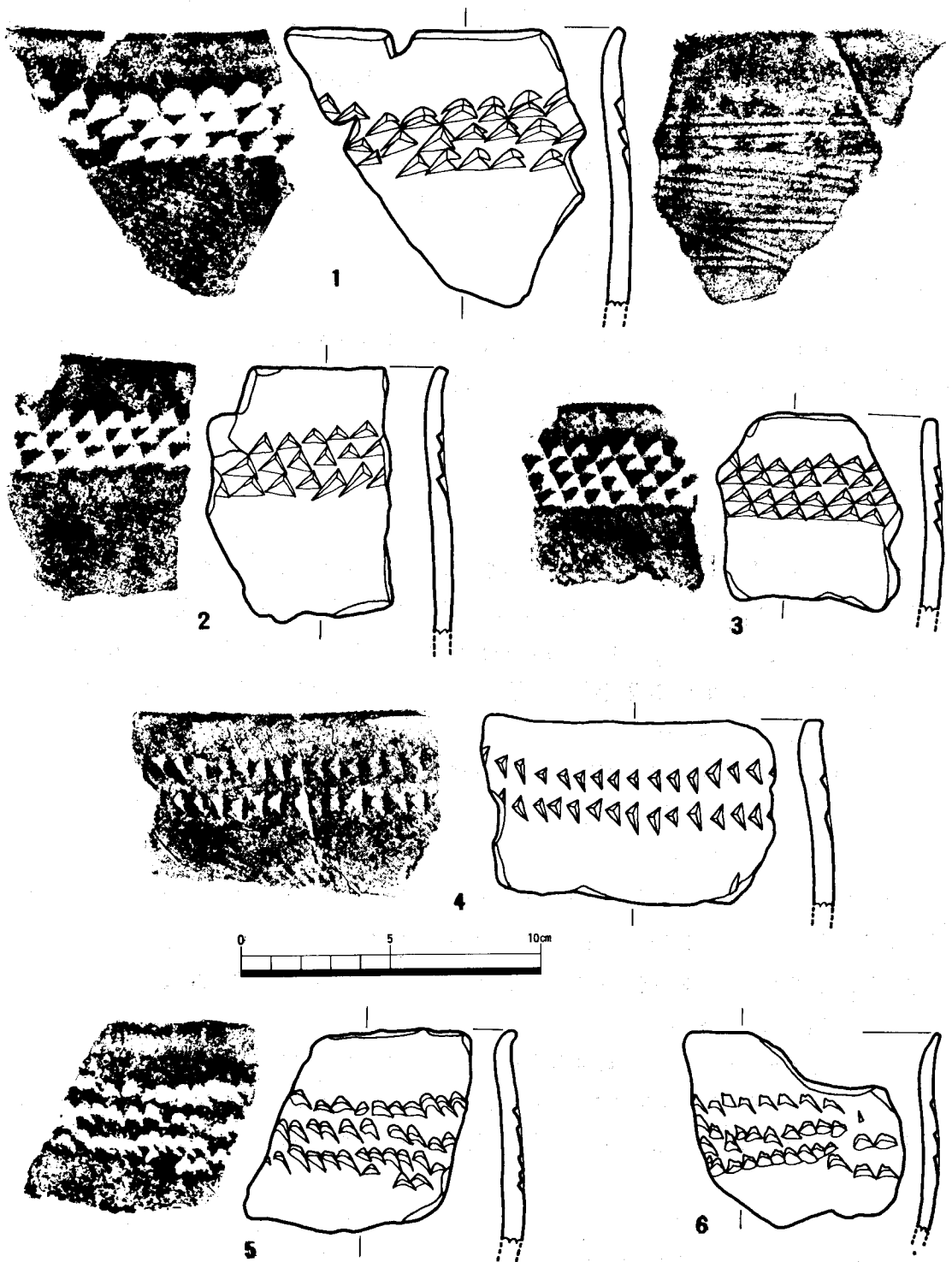
약간 끝이 外反된 구연부 형태나 삼각끝의 突刺具를 눌러서 시문한 수법이 위의 토기와 같으나 삼각모양이라든가 줄이 정연치 못하다. 태토 또한 앞서의 토기가 고우면서 겉면이 매끄럽게 손질되었는데 반해, 굵은 화산암 알갱이가 섞여 있고 거친 편이다. 두께 0.6~0.7cm

④ (그림3-1,2 : 사진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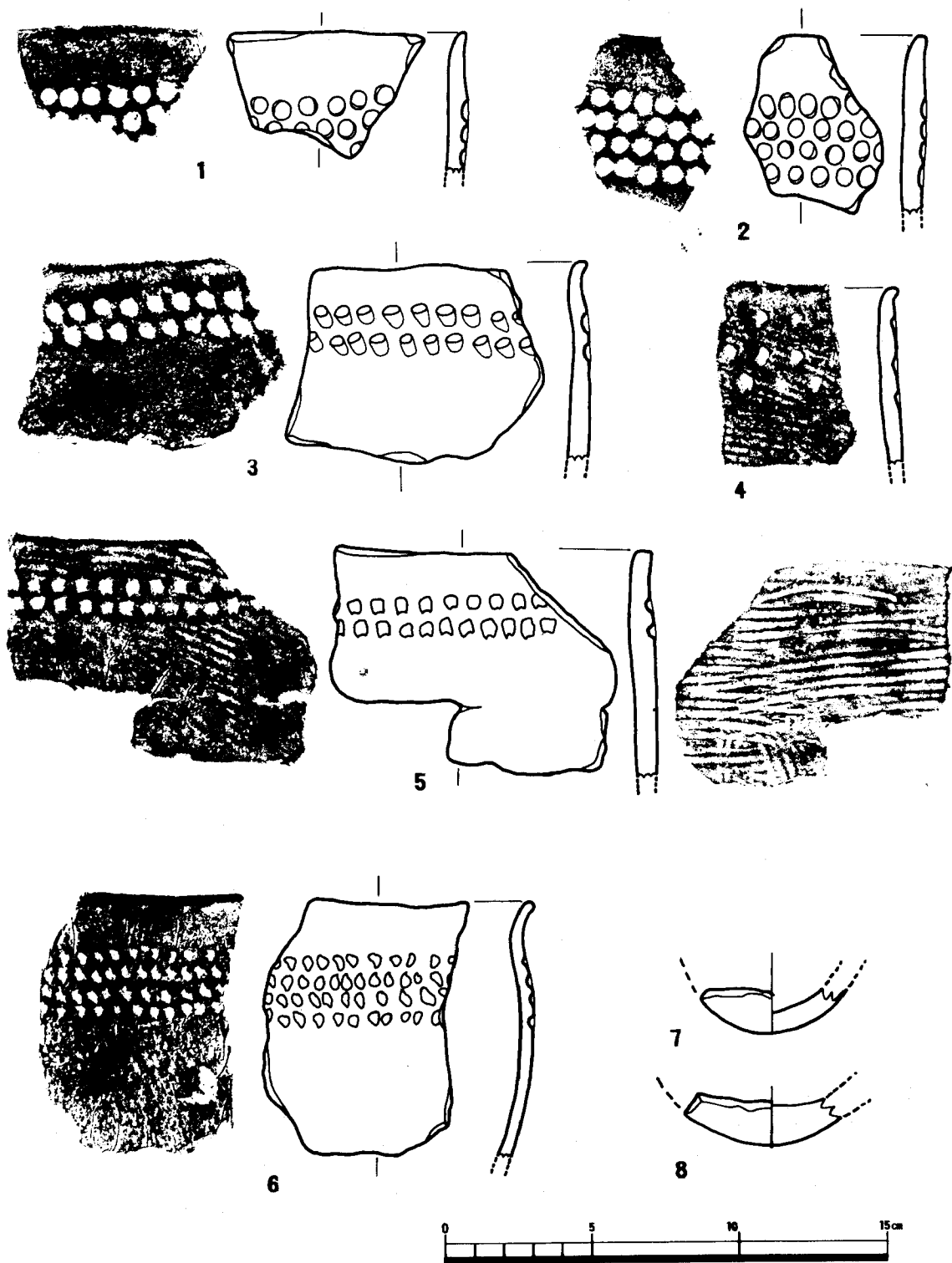
둥근 모양의 횡단면을 가진 새다리뼈 등으로 눌러 장식했으리라 생각되는 것으로, 구연부 밑으로 돌아가면서 원형점렬무늬가 4열 지어 깊게 押印 장식되었다. 삼각점렬무늬토기와 달리 突刺具를 토기면에 대해 수직으로 눌렀기 때문에, 눌러 들어간 면이 평평하다. 두께 0.8cm

⑤ (그림3-3 : 사진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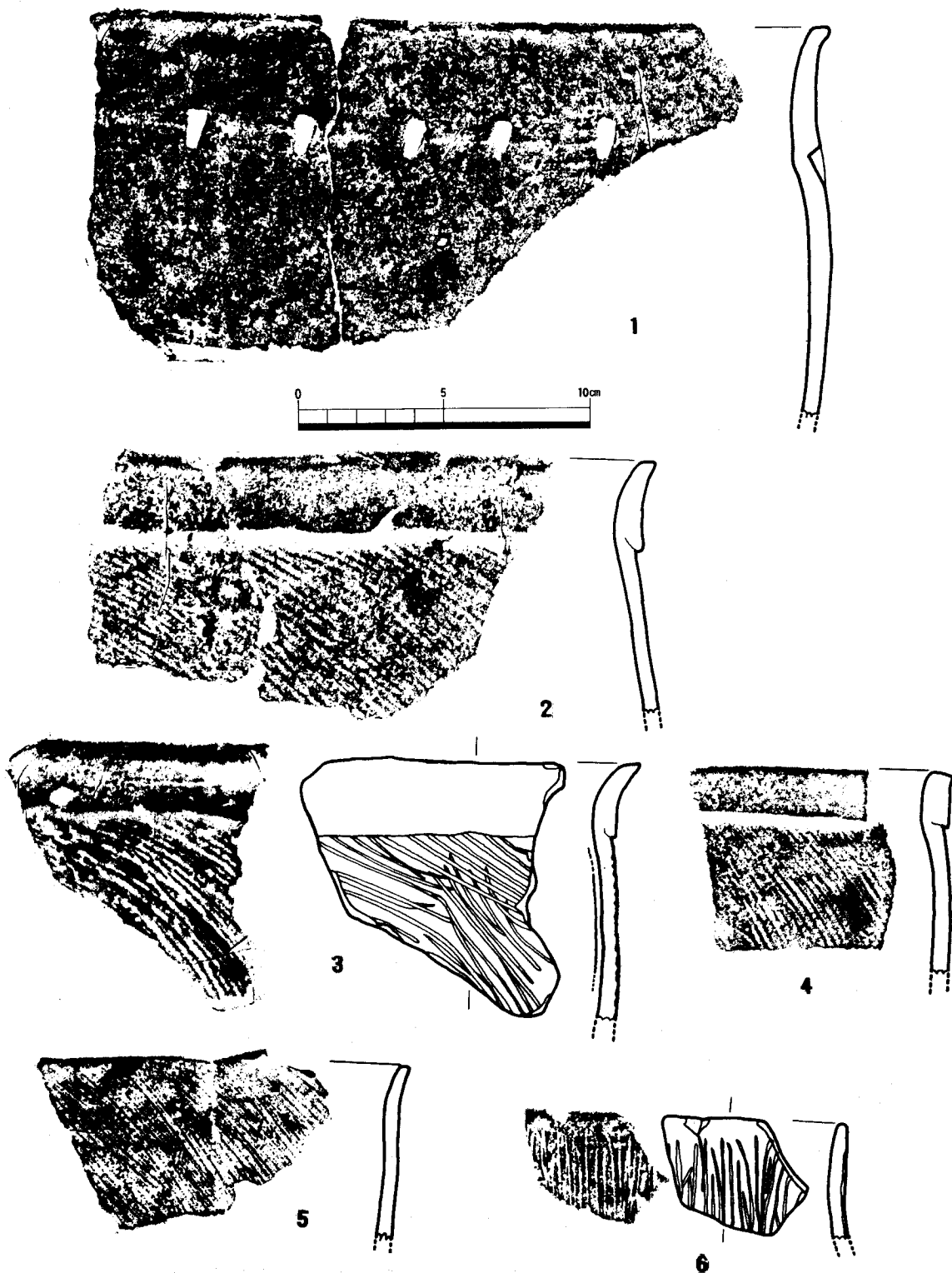
역시 원형 끝의 돌자구를 이용했으나, 수직으로 누르지 않고 비스듬히 눌렀기 때문에 무늬 자체는 반원형이 되고, 아래쪽으로 희미하게 여운이 생겼다. 두께 0.7cm



(그림2)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신석기시대 토기편(1)



(그림3)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신석기시대 토기편(2)



(그림4)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신석기시대 토기편(3)

⑥ (그림3-4 : 사진7-4)

그릇 겉면을 빗질정면하고, 뿔쪽끝의 시문구를 이용 누르는 듯 살짝 파내어 3열의 점렬무늬를 만들었다. 두께 0.7cm

⑦ (그림3-5 : 사진7-5)

끝이 네모꼴인 돌자구를 다소 비스듬히 눌러 무늬를 장식한 것으로, 2열로 되어 있고 그릇 안쪽면에 평행 粗痕文이 있다. 두께 0.7cm

⑧ (그림3-6 : 사진7-6)

다소 심하게 밖으로 휘인 구연부에 두께가 얇은 편으로, 끝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突刺具를 눌러 4줄의 점렬무늬를 만든 것으로, 겉면을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다듬었다. 두께 0.4cm

⑨ (그림3-7,8 : 사진7-7,8)

이 유적 출토의 신석기시대 토기가 둥근 바닥의 것임을 보여주는 바닥편이다. 바닥두께는 각각 0.7cm와 1.5cm

⑩ (그림4-1 : 사진8-1)

입이 다소 바깥으로 휘인 구연부에 끝이 네모꼴인 시문구로써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릇겉면을 깊게 파내어 만든 무늬가 한줄 뿐이다. 시문수법이 특이한 예로서 밝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두께 0.7cm

⑪ (그림4-2,3,4 : 사진8-2,3,4)

접아가리의 구연부편으로 겉면을 왼쪽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귀얄질 한 자국이 뚜렷하다. 접구연에는 이 흔적이 없음을 보아, 이러한 整面질을 끝낸 다음 아가리를 바깥으로 말아 붙인 것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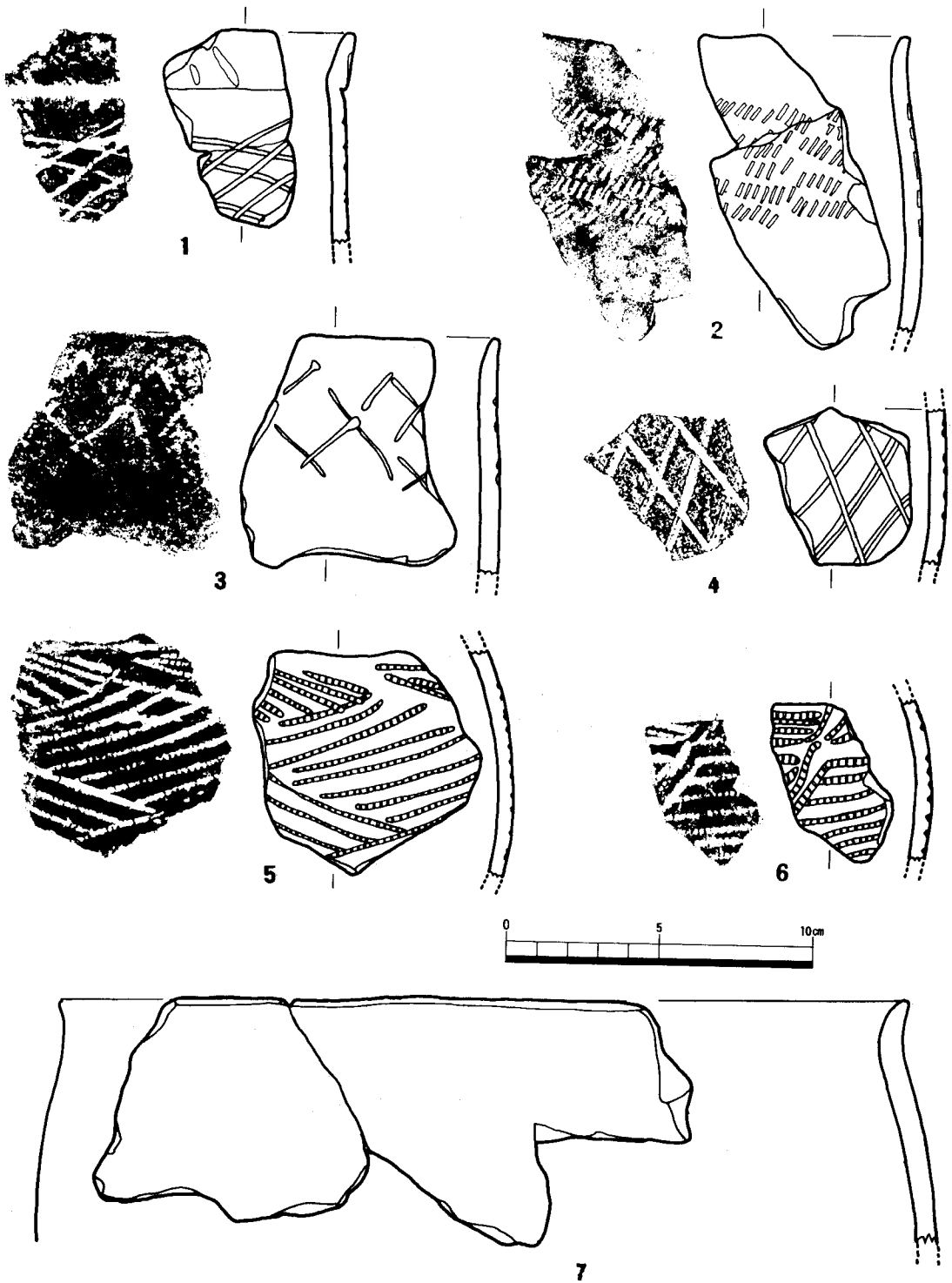
안쪽면에 粗痕文이 있는 것은 앞서 토기 예와 같으며, 이러한 二重口緣의 토기는 전남 黑山島패총, 경남 金海 水佳里패총, 부산 金谷洞 유적 등지에서 출토된 바가 있다. 두께 0.5cm 내외

⑫ (그림4-5 : 사진8-5)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내려쉴은 귀얄자국이 선명한 直立의 흘구연 토기편이다. 두께 0.5cm

⑬ (그림4-6 : 사진8-6)

역시 직립의 흘구연 토기로서 위아래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내려 그은 線刻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비슷한 장식수법의 토기편은 김해 水佳里 패총의 최상층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두께 0.5cm



(그림5)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신석기시대 토기편(4)

⑭ (그림5-1 : 사진9-1)

앞서의 토기들이 현무암 계통의 모래가 胎土에 혼입된 것과는 달리 석영, 운모, 장식의 모래가 섞인 토기로서, 남한지방에서 유입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중 구연의 아래에 斜格字線무늬가 그어져 있는 토기이다. 두께 0.5cm

⑮ (그림5-2 : 사진9-2)

구연부에 短斜線무늬가 4줄 혹은 5줄이 장식된 것으로 押印수법으로 불규칙하게 施文되어 있지만, 전형적인 후기빗살무늬토기 형식을 갖추고 있다. 두께 0.6cm

⑯ (그림5-3 : 사진9-3)

직립구연에 희미하게 사격자선 무늬가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압인수법으로 시문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돛자리무늬를 연상케 한다. 두께 0.7cm

⑰ (그림5-4 : 사진9-4)

동체부편으로 살짝 굽는 수법으로 사격자무늬를 만들었다. 두께 0.6cm

⑱ (그림5-5,6 : 사진9-5,6)

조갯날같은 突刺具를 연속적으로 비스듬히 눌러 만든 무늬가 장식된 동체부편으로 魚骨무늬를 연상케 한다. 두께는 2점 모두 0.6cm

⑲ (그림5-7 : 사진9-7)

살짝 外反된 구연부 형태를 갖춘 것으로 무늬가 없다. 민무늬의 신석시대토기는 김해 水佳里패총 및 부산 金谷洞에서도 출토된 바가 있다.

⑭~⑱의 토기와 마찬가지로 안쪽면에 가로줄의 粗痕무늬가 없으나 태토성분, 硬度 등에서는 앞서의 토기편과 통한다. 입지름 30cm, 두께 0.8cm

(2) 신석기 시대 골각기(그림6 : 사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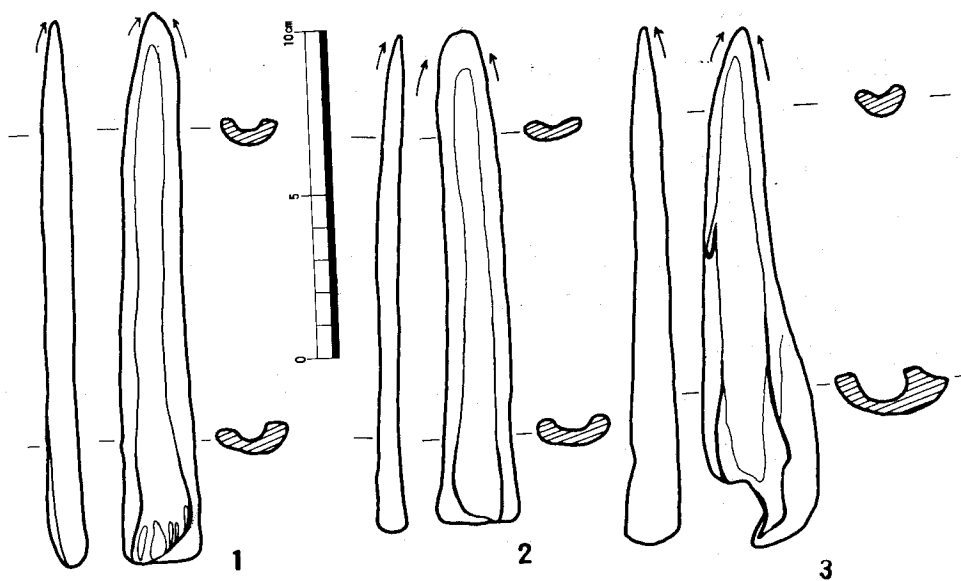
긴 管狀의 동물뼈를 세로로 쪼개고 마연수법으로 마치 긴 주걱모양의 도구를 만든 것으로 15점이 출토하였다. 끝은 둥그스름하면서 납작하게 다듬었기 때문에, 이 끝을 이용한 도구임이 분명한데 확실한 용도 추정에는 금후의 과제이다.

이와 같은 골각기로 김해 水佳里패총에서 사슴 다리뼈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 다량 출토된 바 있다. 길이 15.5~17cm, 폭 2.7~3.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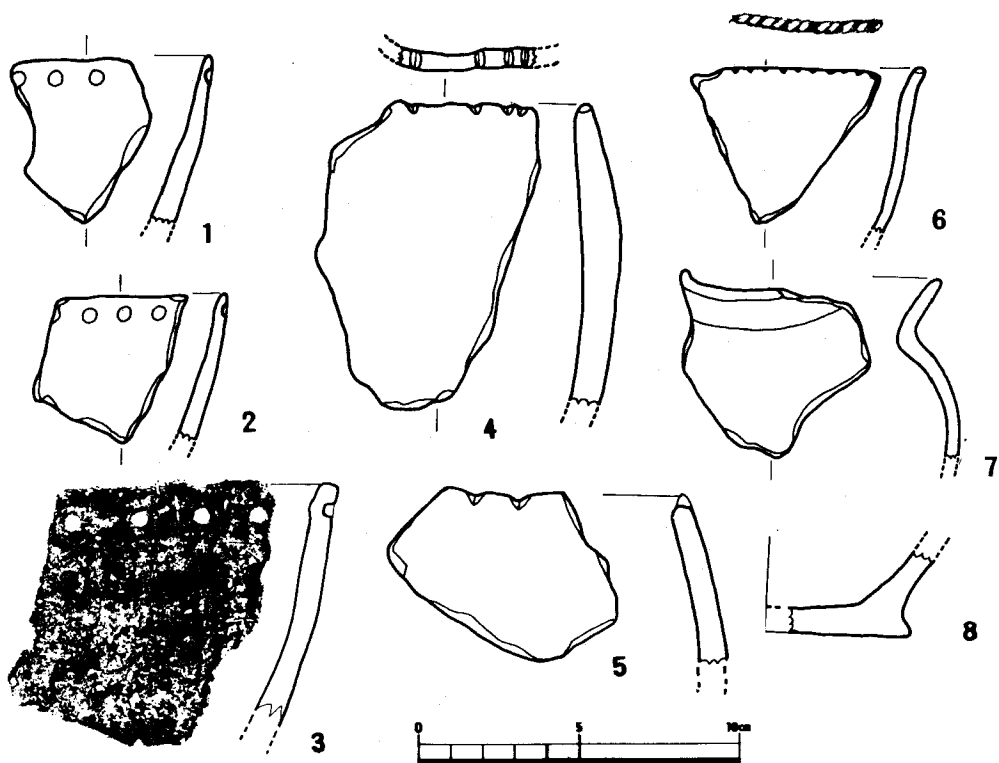
(3) 청동기 시대 토기

이 시대에 속하는 이 유적 출토의 무문토기는 적은 양이나 기본적으로 한반도 동북부-중부-동남부 지역에 분포하는 공렬토기, 골아가리토기 및 갈색마연토기로 제주도의 이 시기 토기문화의 계통을 잘 말해주는 예이다.

① (그림7-1,2,3 : 사진11-1,2,4)



(그림6)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신석기시대 골각기



(그림7)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

3점 모두 그릇 바깥에서 안쪽으로 공렬무늬를 장식한 것으로 구멍깊이가 얇은 반관통 형식이다. 구연부 형태를 보면 역시 세점 모두가 전체 器形이 바리모양으로 추정되는 바, 남한 지방의 공렬토기와 같다. 그릇 두께는 각각 0.6cm, 0.8cm, 0.9cm

② (그림7-4,5,6 : 사진1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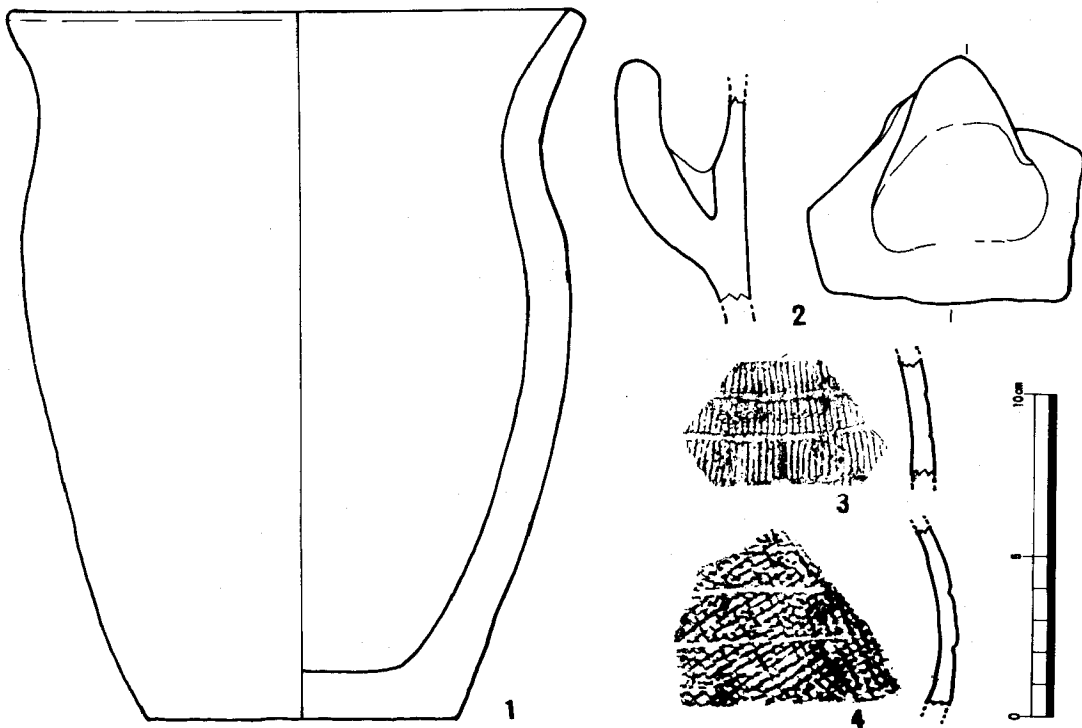
직립구연의 입술면에 톱날같은 장식을 한 골아가리 토기로 그림7-4,5는 톱날장식이 정연하지 못하나, 7-6은 그릇두께도 얇으면서 톱날장식이 정연하여 서로 대조가 된다. 두께는 각 1cm, 0.9cm, 0.4cm

③ (그림7-7 : 사진11-6)

갈색마연토기로 태토가 고운 점토이면서 얇은 두께를 가진 외반구연의 작은 단지 모양의 토기 파편이다. 두께 0.4cm

④ (그림7-8)

작은 바리 모양의 토기 바닥편으로 몸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바깥면에서 축약되었다. 바닥두께 0.9cm



(그림8)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

4) 철기시대 토기

이 시대 토기는 rock-shelter바닥의 퇴적층에서 뿐만 아니라 굴 입구 혹은 주변의 돌무더기에서도 다량 출토되었다.

① (그림8-1 : 사진12)

이 토기는 굴입구 돌무더기 사이에서 출토된 것으로 파편으로 된 것을 복원한 것이다. 짙은 회색토질의 제주도 곳곳에서 출토된 이 시기 적갈색 무문토기와 같이, 外反口緣에 입지름이 넓고 胴體로 올라가는 걸면이 축약되지 않은 底部 형태와, 혼입된 모래가 비교적 크고 두텁고 단단한 태토가 특징적인 전형적인 郭支式 무문토기이다. 입지름 18.4cm, 높이 22cm, 그릇두께 1.3cm

② (그림8-2,3,4 : 사진13)

金海式 土器의 손잡이 및 파편이다. 적갈색 軟質, 회색 瓦質 및 灰青色 硬質 등 태토의 색깔과 硬度가 여러가지이며, 손잡이편은 소빨 모양을 납작하게 하고 가운데 길쭉한 홈을 파낸 것으로 이 시대 남한 각지에서 보는 전형적인 김해식 토기 손잡이이다.

(5) 삼국시대 토기

이른바 原三國時代를 지나 삼국시대 혹은 이 지방의 耽羅國時代에 속하는 유물로 1984, 85년에 발굴한 짙은 회색토질 III, IV지구 적갈색 硬質의 深鉢形土器片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그 器形과 胎土 등이 그와 흡사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3. 月令里 한들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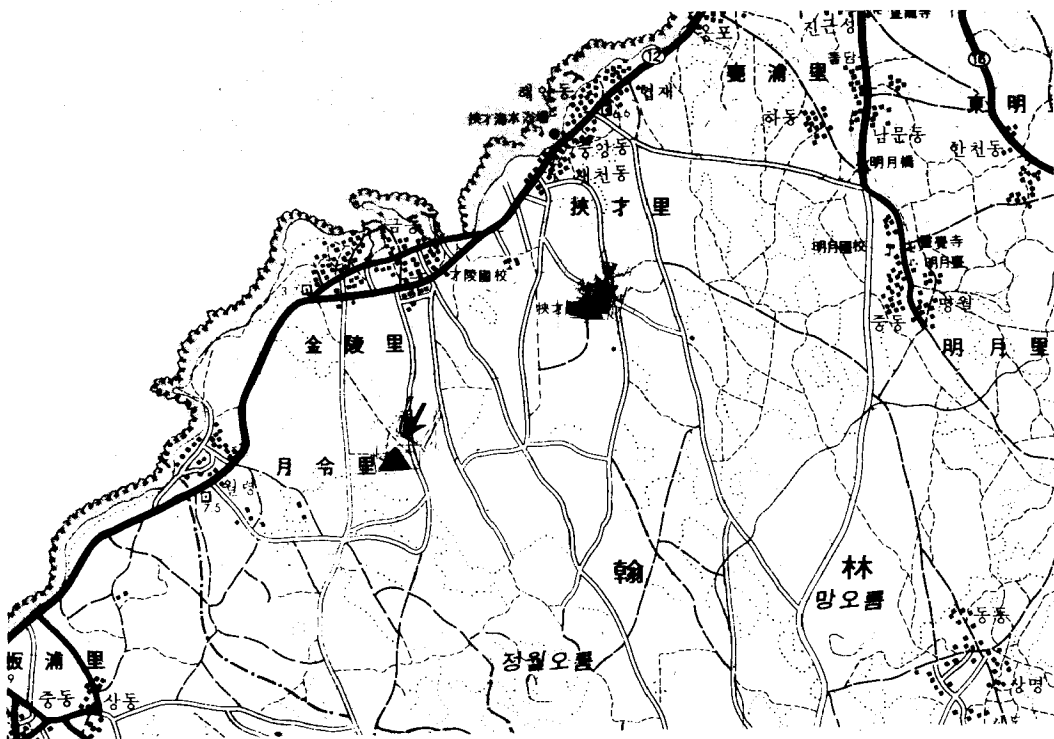
1) 유 적(지도4 : 사진14)

북제주군 翰林邑 月令里 산13 번지에 있으며, 일명 한들굴이라고 불리는 유적지로, 해안일주도로변의 金陵里에서 산간부락인 조수로 가는 비포장도로를 1.2km정도 가면, 도로 오른쪽으로 10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점은 해안에서 직선거리 1.2km, 해발 80m의 소나무숲이 덮힌 구릉지대로 鄭永和교수가 답사하여 보고한 바 있다.

굴 입구는 천정부가 무너져 큰바위로 상당한 부분이 가리워져 있는데, 한들굴 역시 용암동굴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총길이가 1.4km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유적의 범위는 입구에서 25m 안쪽까지이고 입구는 남동방향으로 트였으며, 그 범위는 남북길이 25.7m, 동서길이 16.3m이다. 천장은 굴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급격히 낮아지나 유적 중앙부의 천장높이는 4.5-5m 내외이다.

용암암반층의 바닥면 위로는 협재해안에서 바람에 의해 옮겨와 퇴적된 모래가 30-40cm 두께로 쌓여 있는데, 굴 가장자리로 따라가는 부분에서 모래층 바로 밑에 시커먼 재와 유물(조개, 동물뼈, 토기 등)이 혼입된 흑갈색사질토층이 나타나나, 굴 한가운데 바닥은 용암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지도4) 月令里 한들굴 및 挾才里 동굴 유적 위치(1/50,000)

2) 유 물

북촌리 유적처럼 당시 주민이 먹다버린 조개 및 동물뼈가 다량 검출되고, 인공유물로는 비단 신석기 시대의 것만이 아니고 철기시대 및 그 이후의 유물도 있으나, 여기서는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의 일부를 토기를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자연유물에 있어 동물뼈의 비중이 北村里 유적보다 많아진 것은 해안에서 보다 멀리 떨어졌거나 이 유적 주변이 보다 짐승들이 서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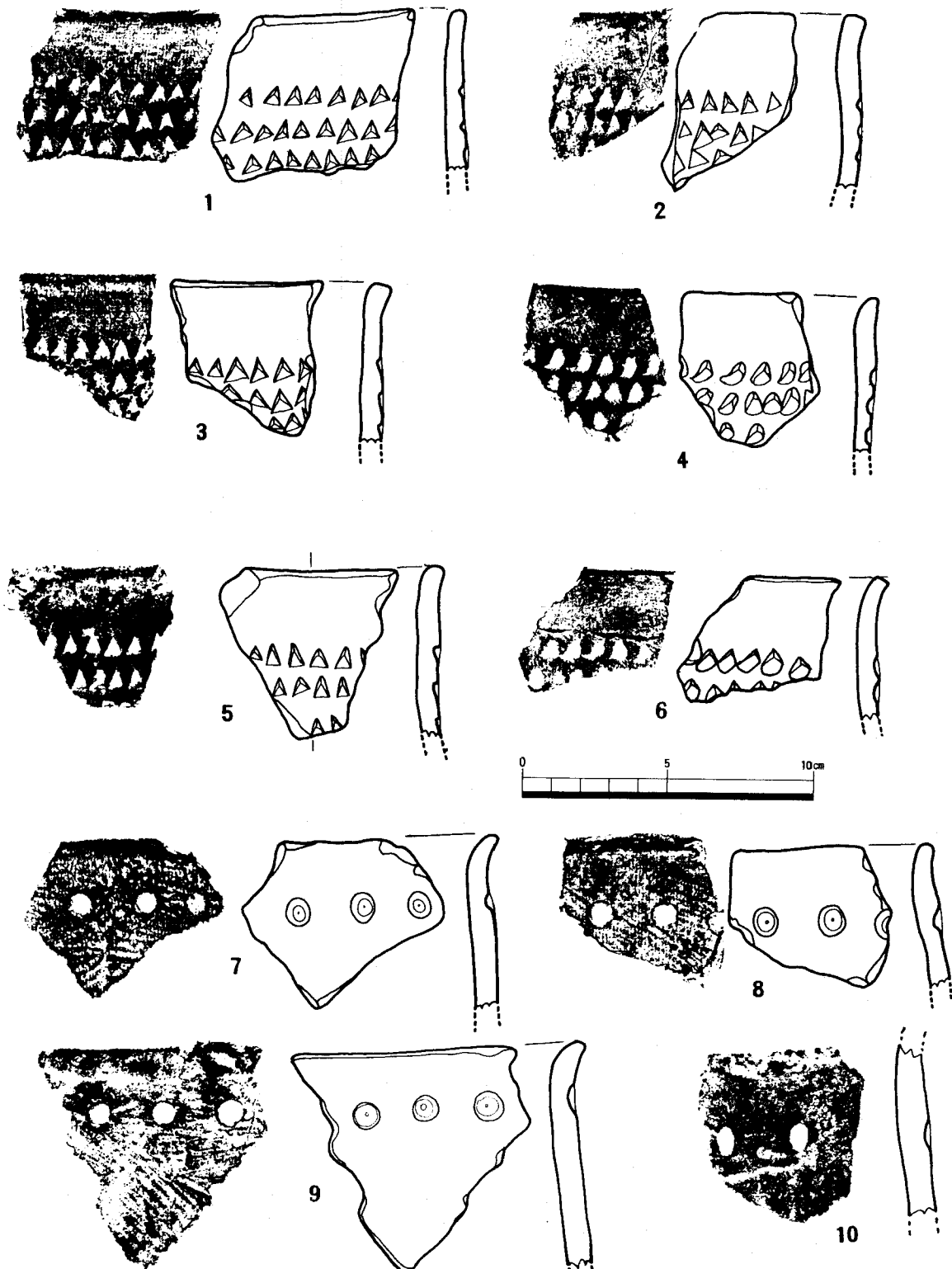
① (그림9-1~6 : 사진16-1~6)

아가리 끝이 다소 바깥으로 휘었으나 대체로 직립구연을 하고 있으며 구연부에서 일정한 간격을 띠고 삼각형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시문수법이나 무늬모양은 北村里 유적과 기본적으로 통하나 다소 간략화되었다. 북촌리 토기에서 보이는 안쪽면의 粗痕 무늬는 보이지 않는다. 두께 0.6~0.7 cm

② (그림9-7~10 : 사진16-7~10)

구연부 아래로 일정한 간격을 띠고 원형무늬가 한줄 장식된 것으로 둥근 끝의 施文具를 살짝 회전시키면서 눌러서 무늬를 만들었다.

구연부 단면은 다소 外反된 형태를 보이며 겉면에 비스듬히 빗질정면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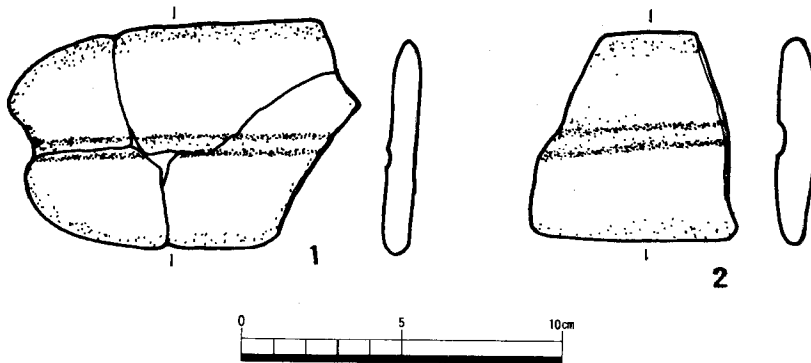
(그림9) 月令里 한들굴 유적 신석기시대 토기

10은 안쪽면에 粗痕무늬가 있다. 두께 1cm

③ (그림10-1,2 : 사진15-1,2)

土製品으로서 타원형 원판의 한쪽면 가운데에 긴 홈을 낸 것으로, 양쪽 끝을 움푹하게 때내어 마치 그물추를 연상케 하는 것이나 확실한 용도는 알 수가 없다.

현재길이 11.4cm, 6.5cm, 폭 7cm, 6.5cm, 두께 1cm, 1.2cm



(그림10) 月令里 한들굴 유적 출토 土製遺物

4. 挾才里 동굴 유적

1) 유 적(지도4 : 사진17,18)

북제주군 翰林邑 挾才里에 있는 것으로 鄭永和교수가 발견한 유적이다. 협재굴 관광지 서쪽 담장을 끼고 올라가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일주도로에서 약 300여m 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얼마 안떨어진 곳의 담장 안쪽 관광지 경내에 유적으로 들어가는 굴입구가 나온다.

굴입구는 후대에 모래가 쌓여 사람이 겨우 들어가고 나갈 정도의 공간뿐이며 주변은 소나무 숲으로 빽빽히 차 있다. 해안에서의 직선거리는 500m이고, 해발 30m높이에 있다.

鄭永和교수가 1975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적으로 이르는 동굴입구는 6개가 있으며 중앙에 자리한 길이 14.4m, 폭 10m, 높이 3-5m 정도의 큰 홀의 유적지점에 이르려면 입구에서 100여m 들어가야 한다.

2) 유 물(사진31)

여기서는 주로 동물뼈 등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에는 소,말의 뼈도 포함되고 전복, 백합등의 조개류도 출토되었다.

인공유물로는 철기시대 郭支式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조개, 동물뼈 등이 녹아 석회질이 되어 토기겉면에 두텁게 씌워 굳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5. 獬來洞 rock-shelter

1) 유 적(지도5,6 : 사진19,20)

이 유적은 西歸浦市 獬來洞 1501-1번지의 하천 하류 연변의 절벽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변의 중문 관광단지 종말처리장으로부터 북쪽으로 150m 되는 지점에 있는데, 이 일대는 한천의 하천계곡이 지그재그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의 구릉지대에 유물산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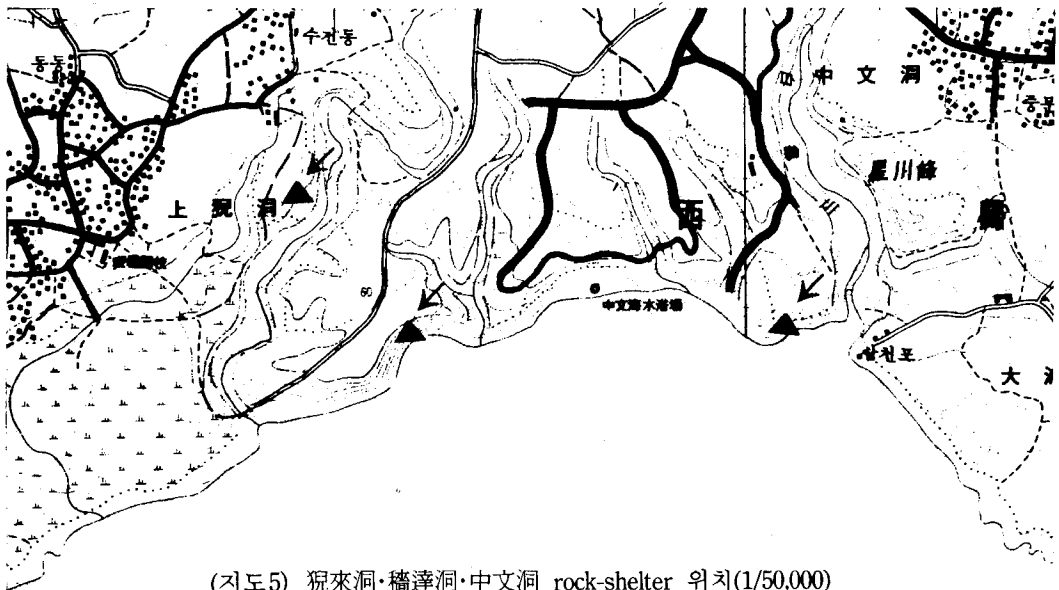
유적이 형성된 하천절벽은 계속 바위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며 따라서 원래는 유적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컸으리라 생각된다. 유적은 현재 그 입구가 동쪽으로 트이고 전면 길이 3.5m, 안쪽까지의 길이 2m, 천장높이 1.5m의 크기를 갖고 있다.

1985년 사학과 康昌和 학생이 처음 발견했을 당시, 유적 바닥에 쌓인 퇴적토층의 지표상에서 完形의 적갈색 硬質의 深鉢形 토기를 발견하였으며, 하천에 잘려나간 토층의 단면을 보면 크게 흑갈색, 황갈색토층 및 암갈색토층으로 나뉘는데, 전체 층위두께는 70cm 내외로 제2층의 단면에 토기편과 목탄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2) 유 물

이미 유적의 많은 부분이 잘려 나갔으므로 출토유물의 양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토기유물 뿐이었으나 다행히 완형의 토기 1점이 발견되어 이 유적의 시대적 성격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1 : 사진 32)가 바로 이 토기로 입지름 10.7cm, 바닥지름 12.7cm, 높이 18.1cm, 두께 0.7cm로서 전체 器形이 深鉢形을 이루며, 바닥을 따로 만들어 동체부와 접합한 수법 등이 꼭지패총 III, IV지구 출토 삼국시대 이후의 적갈색 경질토기와 흡사하다.



(지도5) 獬來洞·檣達洞·中文洞 rock-shelter 위치(1/50,000)



(지도6) 猯來洞 rock-shelter · 유물산포지 및 檣達洞 동굴 유적 위치(1/5,000)

6. 檣達洞 동굴 유적

1) 유 적(지도5,6 : 사진21,22)

西歸浦市 檣達洞 3249번지 해안 절벽의 중턱에 있는데, 猊來洞 하천 하류의 종말처리장에서 동쪽 해안절벽을 따라 약 200m 정도 가면 나온다.

이 일대의 해안절벽은 서귀포 서쪽에서부터 和順里 동쪽 해안으로 이어지는 해안단구의 일부로 동굴은 해식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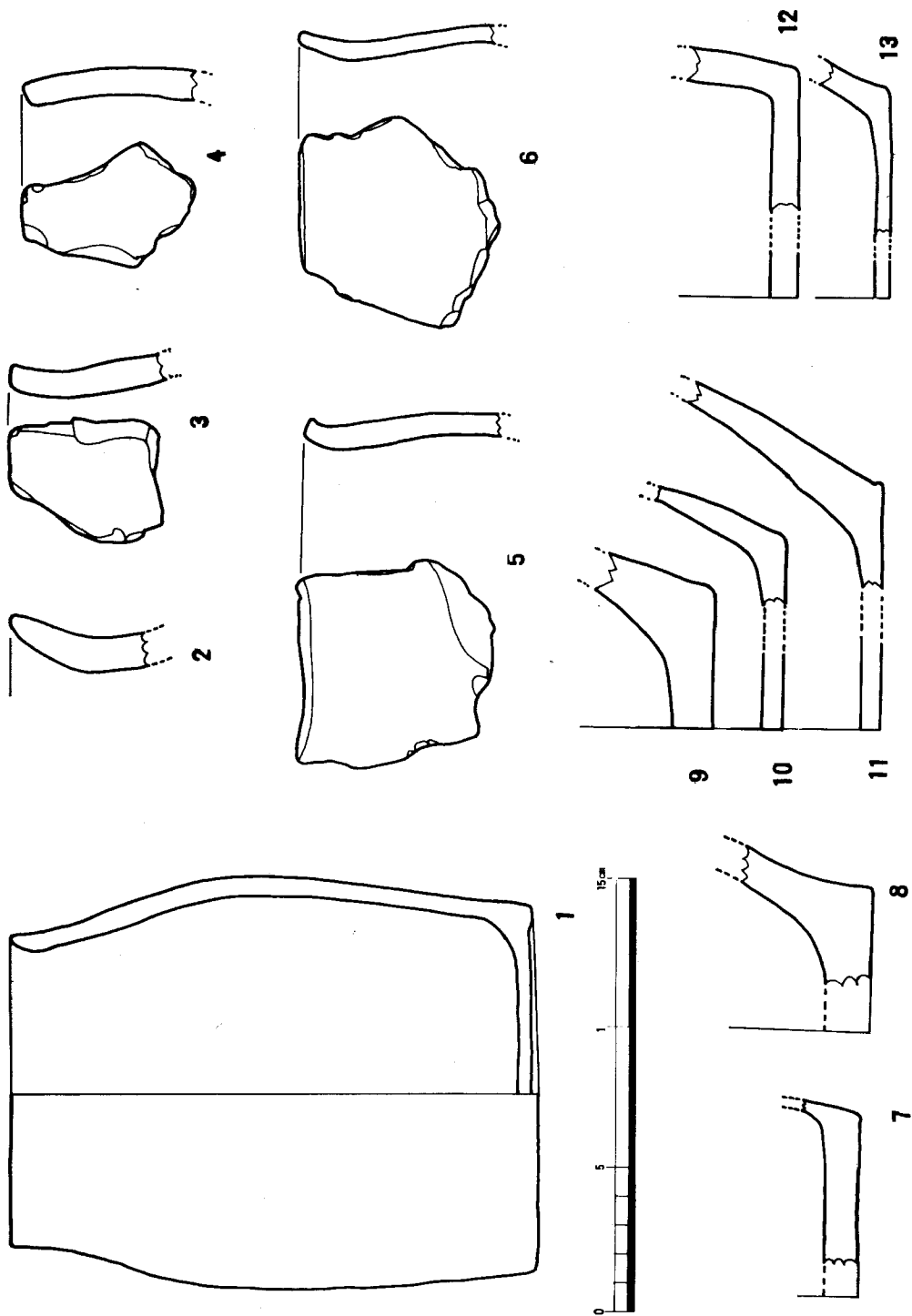
유적의 트인 방향은 남쪽을 가르키고 있고, 입구 동서길이 3.5m, 높이 3m이며 굴이 거의 막히는 부분까지는 입구에서 약 20m 들어간다. 바닥에는 상당한 깊이로 퇴적층위가 형성되어 있고, 이 유적을 1985년 1월에 발견한 제주대 사학과 졸업생 姜昌龍이 1m정도 깊이로 파낸 핏트에서 토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 유 물(그림11-2,7 : 사진33)

유물로서는 수점의 토기편 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광지패총 II지구 廣口 外反口緣 항아리와 같은 형식이다. 그림11-7의 바닥편은 삼국시대 적갈색 심발형 경질토기의 형식에 속한다.



(지도7) 中文洞 rock-shelter 위치(1/25,000)



(그림11) 各地 rock-shelter 및 동굴유적 출토토기

7. 中文洞 rock-shelter

1) 유 적(지도5,7 : 사진5,7,23,24)

이 유적은 중문해수욕장 동편 300여미터 지점 로얄 마린파크 바로 남쪽 해안단구 절벽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서귀포시 中文洞 3376-14번지에 위치한다.

海蝕에 의해 형성된 이 유적의 입구 전면에는 절벽에서 떨어진 큰 落盤石이 가로막고 있어 유적의 隱居地로서의 모양을 더욱 갖추어 주고 있다.

정면은 남쪽 바다쪽으로 트이고 아아치형의 입구 너비는 8.6m, 높이 1.7m이며 입구에서 안쪽까지의 깊이는 3.35m이다.

바닥에는 자갈한 낙반석과 바다자갈이 모래와 섞여 있었으며, 그 퇴적층위의 두께는 50cm 정도이다.

2) 유 물

역시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조개와 함께 토기, 석기 및 철기편이 수점 출토되었다.

① (그림11-3,9 : 사진34-1,2,3)

적갈색 경질의 외반구연부 토기편으로 꼭지패총 3,4지구 출토 토기형식과 기본적으로 통하며 그림11-9는 바닥지름 13cm, 두께 0.9cm의 바닥편으로 적갈색 무문토기 계통이다.

② (그림11-10,11 : 사진34-4,5, 35-1)

打撈무늬 平底 陶質土器계통의 바닥편으로 유적의 소속시기를 분명하게 해 주는 자료가 되겠다.

③ (사진35-2)

전형적인 현무암계 갈돌로 횡단면이 반원형이다. 현재길이 12.5cm, 폭 8.7cm, 두께 5.6cm

④ (그림1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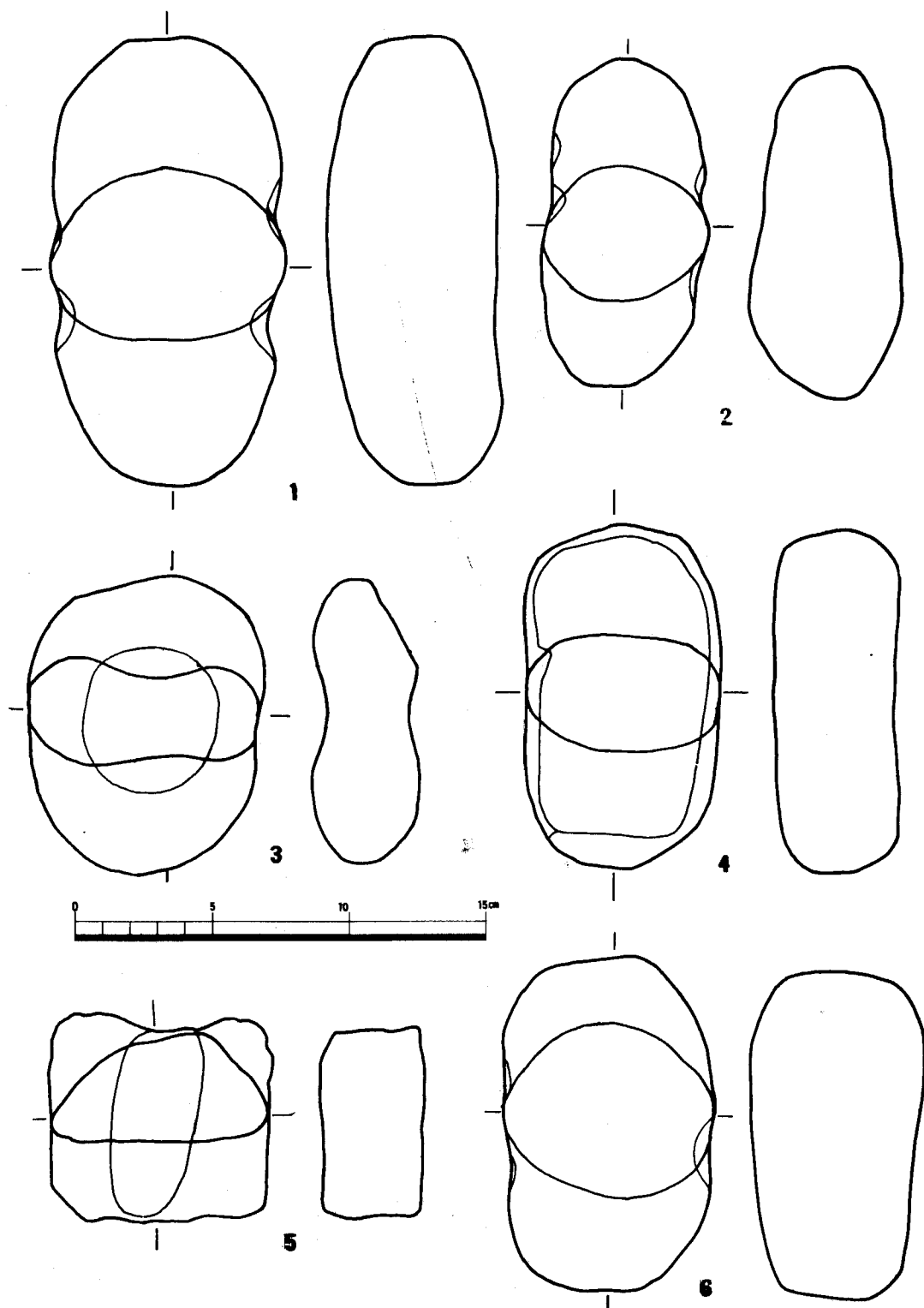
둘다 확실한 전체 형태를 알 수는 없으나 강철제품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혹시 후대에 속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크기는 각각 길이가 4.7cm, 4cm

8. 下禮里 rock-shelter

1) 유 적(지도8,9 : 사진25,26)

서귀포시 下孝洞과 南元邑 下禮里의 경계 하천인 효례천을 따라 북쪽으로 350m정도 올라가서 냇가 동쪽 절벽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南元邑 下禮里 403번지로 하천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아아취형 rock-shelter 유적이다.

유적의 정면길이 7.5m, 높이 4m, 입구에서 안쪽 끝까지는 5.3m 길이의 규모로, 트인 방향은 다른 유적과 달리 북서쪽을 가르킨다. 바닥에는 천정에서 떨어진 돌과 냇가돌이 깔려 있는데



(그림12) 下禮里 rock-shelter 출토 석기

요즈음에 와서도 이 곳은 마을 사람들이 여름에 빈번히 이용함으로 해서 당시의 정확한 생활면을 확인할 수가 없다.

2) 유 물

바닥의 돌무더기층 곳곳에서 수집된 유물은 그 대부분이 석기종류이며 토기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① (그림12-1,2,6 : 사진37-1,2,3)

양끝을 타격면으로 이용한 공이 혹은 망치돌로서 몸통옆을 돌아가며 두줄의 홈을 만든 것이 특징적이다. 종단면은 장타원형, 횡단면은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길이 16cm, 11.7cm, 12.2cm, 폭 8.3cm, 6cm, 7.7cm, 두께 6cm, 5.6cm, 6.4cm

② (그림12-4 : 사진37-4)

위아래끝을 타격면으로 한 공이다. 길이 12.5cm, 폭 7.2cm, 두께 4.5cm

③ (그림12-4 : 사진38-1)

등근 원판형 자갈돌의 앞뒷면의 한가운데를 쪼아서 움푹 패이게 한 홈돌이다. 길이 10.5cm, 폭 8.5cm, 두께 4cm

④ (그림12-5 : 사진38-2)

횡단면 반원형, 종단면 장방형의 전형적인 제주도 현무암제 갈돌이다. 현재길이 7cm, 폭 8.2cm, 두께 3.8cm

9. 漢南里 rock-shel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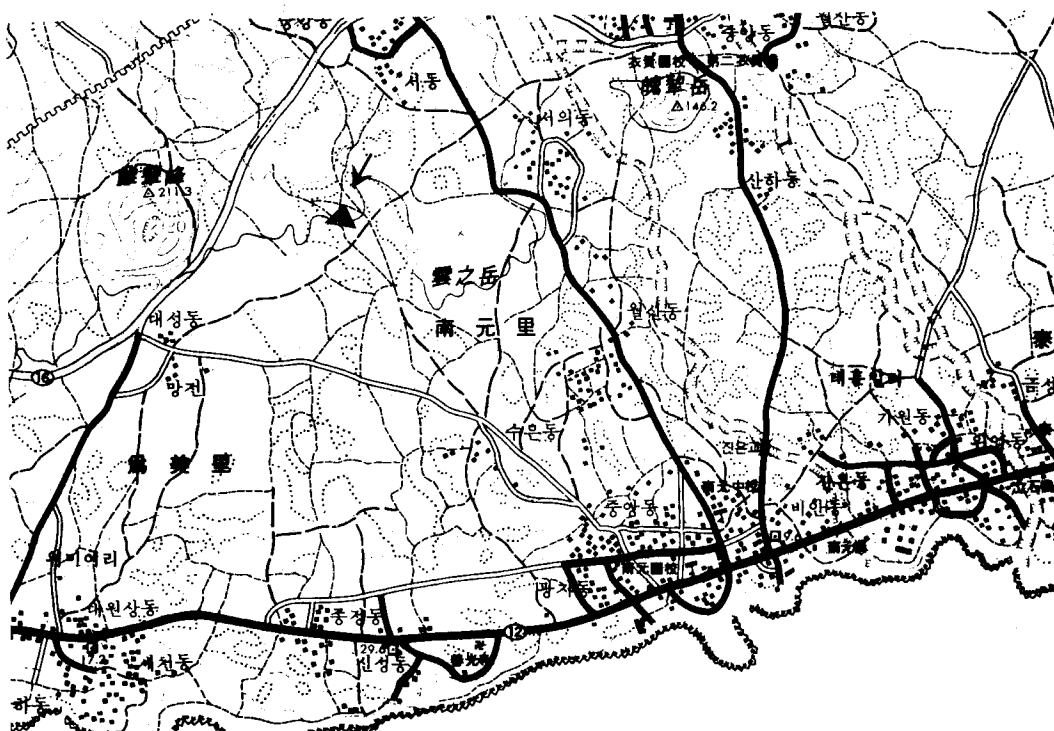
1) 유 적(지도10,11 : 사진27,28)

이 유적은 南元1里의 해안일주도로에서 북쪽 산간으로 3.5km정도 올라간 구릉지대에 있는데 南元邑 漢南里504번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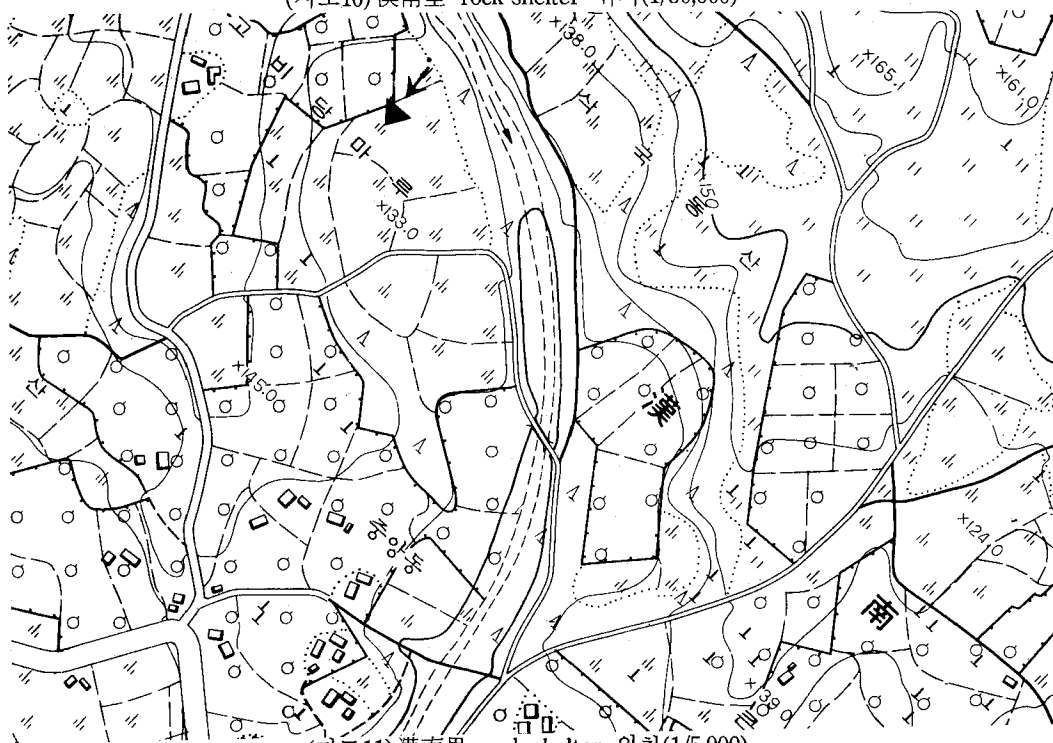
해안에서의 직선거리가 3.5km 정도이어서,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중에서 가장 내륙으로 멀리 들어간 예 중의 하나이며 유적 인근에 작은 규모의 乾川이 있다.

유적은 용암이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다가 식어 주름진 곳에 턱이 지면서 빈 공간이 마련된 곳에 형성되었다.

유적의 정면은 아아치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면 길이 3.5m, 높이 1.65m, 안쪽까지의 깊이는 2.3m이다. 트인 방향은 정남향을 가르키고 있고 바깥에는 용암암반층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면서 천정에서 떨어진 낙반석이 드문드문 깔려 있는데, 그러한 바닥면에서 많은 양은 아니나 조개 및 동물뼈와 토기 및 석기유물이 수습되었다.



(지도10) 漢南里 rock-shelter 위치(1/50,000)



(지도11) 漢南里 rock-shelter 위치(1/5,000)

2) 유 물

① (그림11-4,5,6 : 사진36-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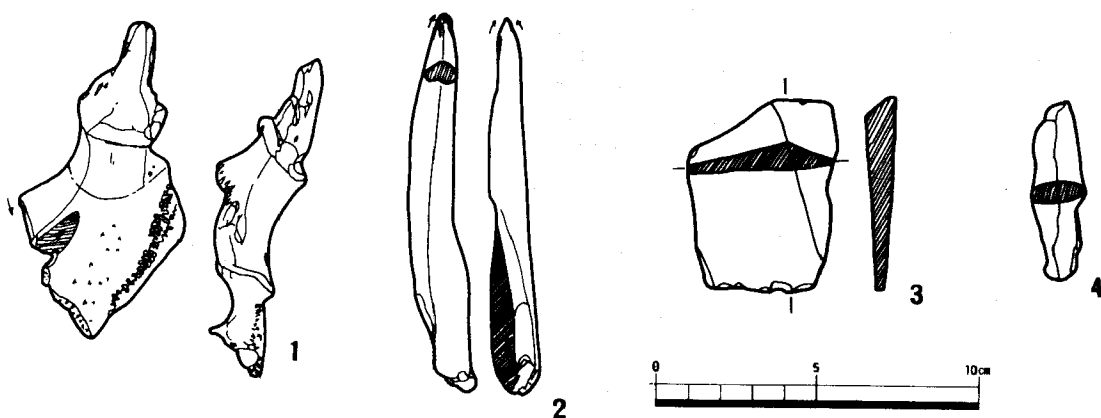
다소 외반된 구연부 형태로 두께가 일정하고 경질의 적갈색 심발형 토기이다.

② (그림11-12,13 : 사진36-4,5,6)

토기 바닥편으로 앞서 구연부편과 같이 광지패층 III, IV지구 출토 赤褐色 硬質 深鉢形 土器에 속하는 것으로 바닥두께가 얇고 동체부의 접합면이 뚜렷하다. 두께 1cm 내외

③ (그림13-1,2)

동물뼈의 뼈에 손질을 가한 흔적이 보이는 것과 동물 다리뼈의 끝부분을 뽕족하게 다듬은 골각기이다.



(그림13) 漢南里 및 中文洞 rock-shelter 출토 유물

10. 溫坪里 동굴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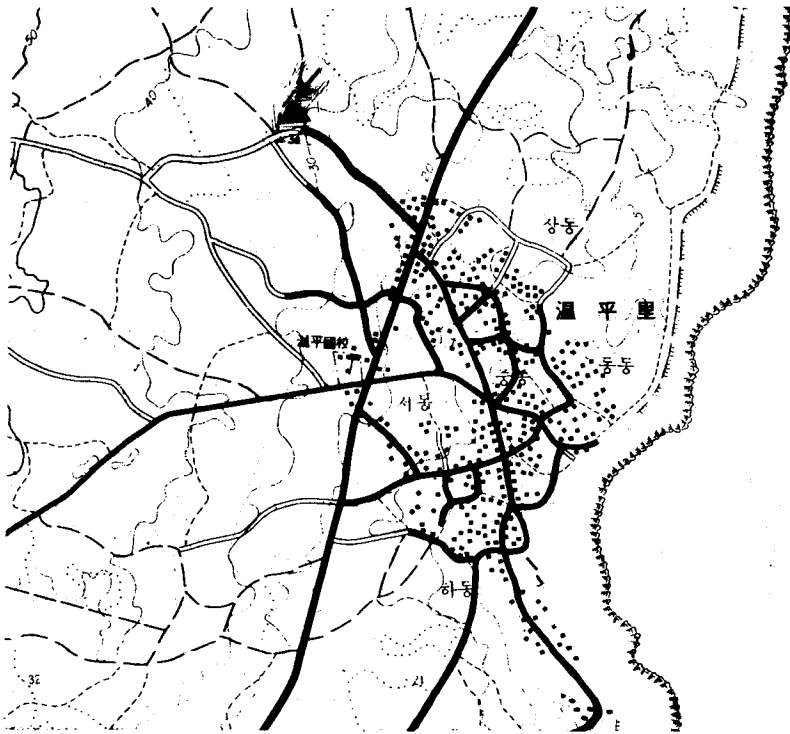
1) 유 적(지도12,13 : 사진29,30)

城山邑 溫坪里 1725-2번지의 婚姻池 동편 50m 지점에 있다. 주변은 완만한 구릉지대로서 해안에서 직선거리 1.5km, 해발 60m의 위치에 있으며, 용암동굴의 천정부가 무너져 입구가 형성되고 또한 은거지가 생겼다. 돌계단이 만들어진 남쪽으로 트인 굴입구를 들어가면 세 방향으로 굴이 나 있는데, 그 중 맨 오른쪽 굴 가운데 홀에서 적은 양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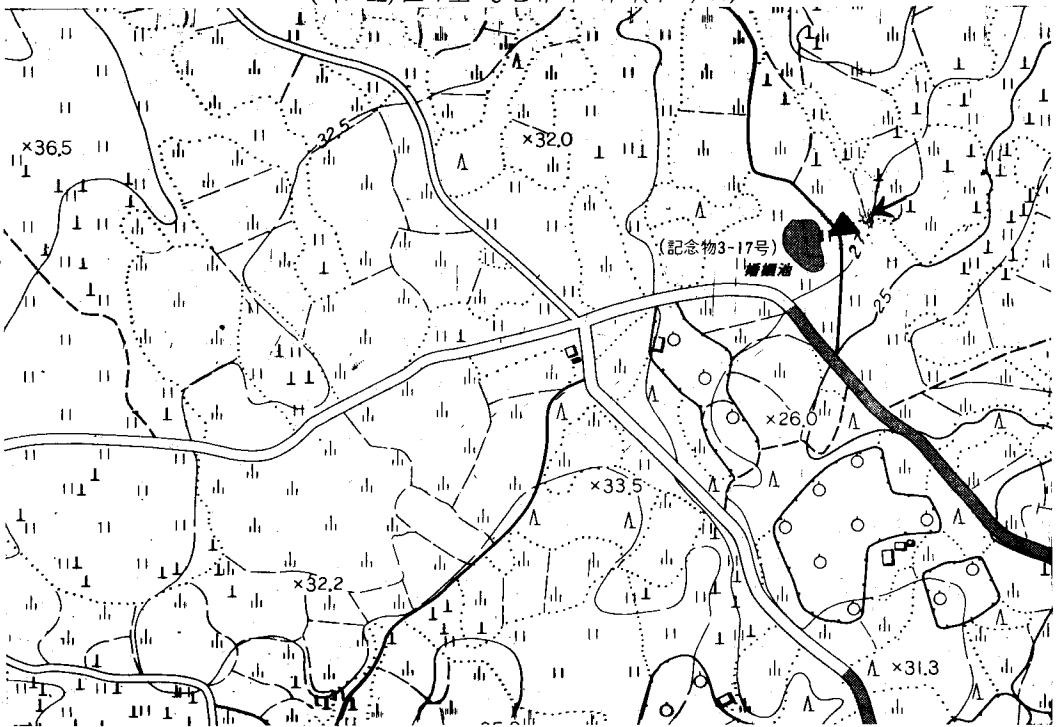
이 홀의 크기는 동서길이 5.3m, 남북길이 6.2m, 높이 1.3-1.8m이고, 바닥은 용암 암반층 거의 그대로이고 일부 5-10cm의 얇은 두께로 흙이 쌓였을 뿐이다.

2) 유 물(사진39)

수습된 유물은 적갈색 무문토기편 뿐으로 굵은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되고 두께는 1-1.7cm 정도로서, 구연부편, 바닥편이 수습되지 않아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郭支貝塚 II지구 출토 외반구연 무문토기 계통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도12) 溫坪里 동굴유적 위치(1/25,000)



(지도13) 溫坪里 동굴유적 위치(1/5,000)

제 5 장 패총 및 유물산포지 유적

3. 上摹里 산이수동 貝塚 및 遺物散布地

1) 유 적(지도14,15 : 사진40-43)

이 유적은 大靜邑 上摹里의 松岳山에서 山房山으로 이어지는 해안지대 중 산이수동 부락 동편에 형성된 것이다.

유적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는데 산이수동 부락에 가까운 서쪽으로는 당대 생활유적지로서 유물산포지이고, 그 동편으로는 沙丘層이 발달하였는데 이 곳에 두께 1m 내외의 패총이 형성되어 있다.

유물산포지의 경우, 1984년 上摹里~保城里 국도 연변의 화단을 조성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이곳의 흙을 채취하는 바람에, 상당한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고 일부가 남아 있다. 원래의 유적범위는 대략 길이 100여m, 폭 15m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패총 또한 그 대부분이 이미 파괴되고 그 일부만 남아 있는데, 패총유적의 전체길이는 150m 정도이다.

이 곳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경기도 한강유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팽이형토기와 공렬토기의 혼합형식의 토기로, 이 계통의 토기가 나오는 유적이 남한지방에서 대부분 강변 구릉상에 위치하는 것과 달리 제주도에 와서는 해안지역에 패총까지 형성했다는 사실이 특이하며, 또한 유적의 위치가 한반도와는 반대되는 제주도 최남단인 점이 주목할만하다.

유적은 유물산포지, 패총할 것없이 계속되는 풍우로 심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어서 제주도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발굴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적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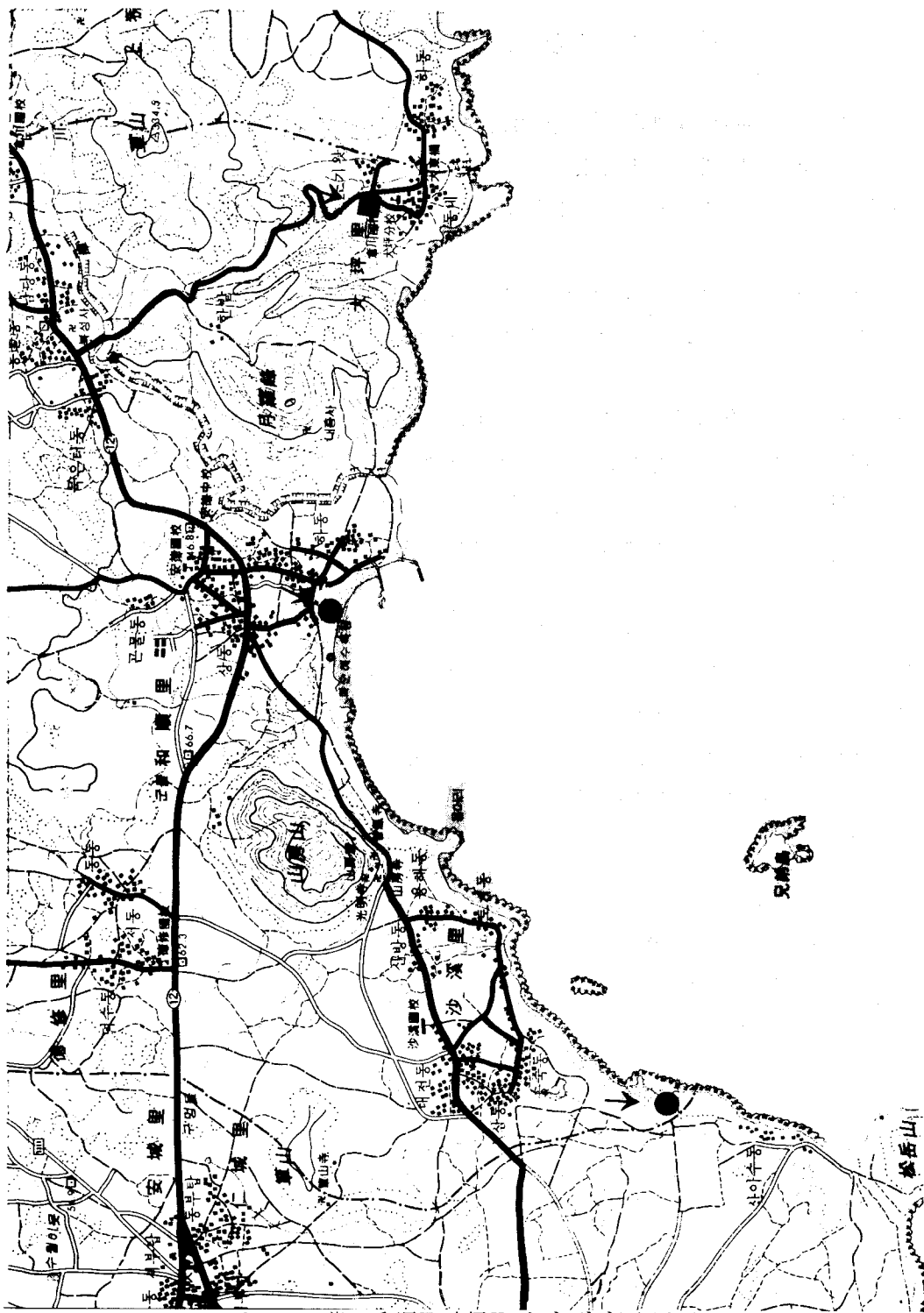
2) 유 물

유물산포지와 패총 두 구역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대부분은 무문토기이고 일부 토제 및 석기유물이 이에 포함된다. 패총에는 각종 조개류와 동물뼈가 있는데 이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은 다음으로 미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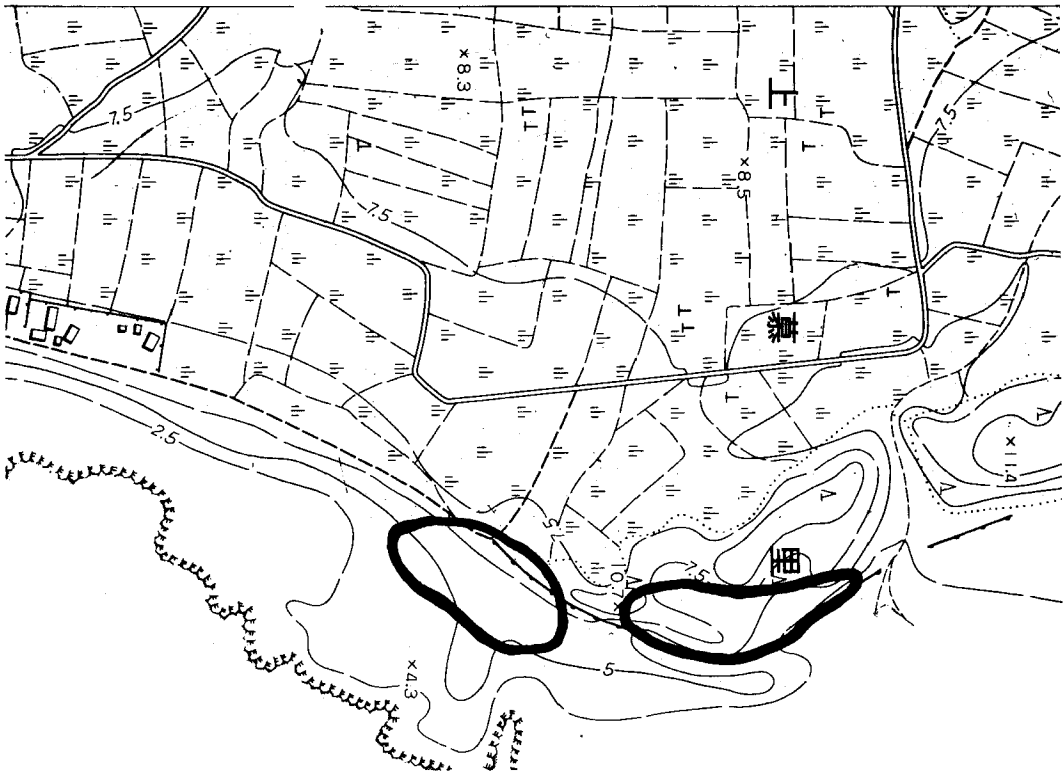
(1) 토 기

① (그림14-2 : 사진44-2)

두터운 二重口緣에 短斜線무늬가 정연하게 장식되어 있고 공렬장식은 그릇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뚫었는데, 이처럼 이중구연과 단사선무늬의 팽이형토기 屬性과 공렬장식의 공렬토기 속성이 복합된 토기는 경기도 麗州郡 欣岩里 유적과 경북 月城郡 内南里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다. 형식상으로 남한지방의 예와 흡사할 뿐만 아니라, 태토성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제주도産의 무문토기처럼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는 것과 달리 석영, 운모, 장식의 모래가 혼입되어



(지도14) 上幕里·和順里·大坪里 유적 위치(1/50,000)



(지도15) 上幕里 유물산포지 및 패총 위치(1/5,000)

있어 남한지방에서 직접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토기이다. 두께 1cm

② (그림14-1,4 : 사진44-1,4)

역시 일반적인 제주도産의 무문토기와 달리 태토에 석영, 운모, 장석의 모래가 섞인 남한지방계통으로, 다소 외반하는 듯한 직립구연에 팽이형토기 속성인 이중구연과 단사선무늬, 그리고 공렬토기 속성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은 공렬장식과 입술면의 톱날장식이 모두 복합된 토기이다.

이처럼 두 계통의 네가지 속성이 한 토기에 표현된 예는 이 上幕里 유적 말고는 출토된 바가 없는 바, 그것은 두 계통의 토기 유형이 복합되는 최종단계에 출현하는 형식이 되겠다. 두께 0.6cm, 0.7cm

③ (그림14-3 : 사진44-3)

태토성분은 위와 같으며 직립구연에 短斜線장식만 있다. 두께 0.7cm

④ (그림14-5 : 사진44-5)

적색 슬랏이 입혀진 마연토기계통으로 태토가 고운 점토이면서 두께가 얇은 外反口緣의 구연부이다. 두께 0.5cm

⑤ (그림14-6 : 사진44-6)

흑색마연토기 동체부편으로 그릇겉면에 두줄로 그은 線文帶 안에 삼각선무늬를 넣은 문양대가 두 줄 있는 것으로 특이한 예이다. 두께 0.5cm

⑥ (그림15-1,2,3 : 사진45-1,2,4)

이중구연에 단사선무늬가 정연하게 장식된 예로서 순수 팽이형토기 형식인데, 이러한 예는 지금까지 남한지방에서는 한강유역에서만 발견되었다.

태토의 성분은 앞서의 토기와 달리 현무암 알갱이가 섞여 있으며 이후에 소개할 토기가 전부 제주도에서 제작한 것이 분명하다. 두께 0.7cm

⑦ (그림15-4 : 사진45-3)

이중구연과 단사선 장식의 팽이형토기 속성에, 새로이 공렬토기의 속성으로 입술면에 톱날 장식이 부가된 토기편이다. 두께 0.6cm

⑧ (그림15-5 : 사진45-5)

短頸壺의 구연부로서 입술면에 톱날장식이 가해진 것이다. 남한지방에서도 항아리형 무문토기에는 공렬장식이 있는 예는 거의 없고 이와 같이 골아가리 토기가 대부분이다. 두께 0.7cm

⑨ (그림15-9 : 사진45-9)

深鉢形토기의 구연부로 공렬장식만 있는 형식으로 바깥쪽에서 반관통형식으로 施文하였다. 제주도 공렬토기의 대부분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공렬장식을 하였던 바, 남한 지방의 공렬토기의 대부분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은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며, 또한 앞서의 남한에서 직접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①, ②항의 토기가 역시 안쪽에서 뚫은 것과 비교가 된다. 두께 0.8cm

⑩ (그림15-6,7,8 : 사진45-6,7,8)

입술면에 톱날장식이 있고 구연부에 공렬장식이 가해진 것으로 그림15-8의 토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반관통 형식으로 뚫었다. 후자의 토기는 外反口緣壺의 구연부로서 앞서의 두 토기가 심발형토기의 직립구연부인 것과 차이가 난다. 두께 0.7cm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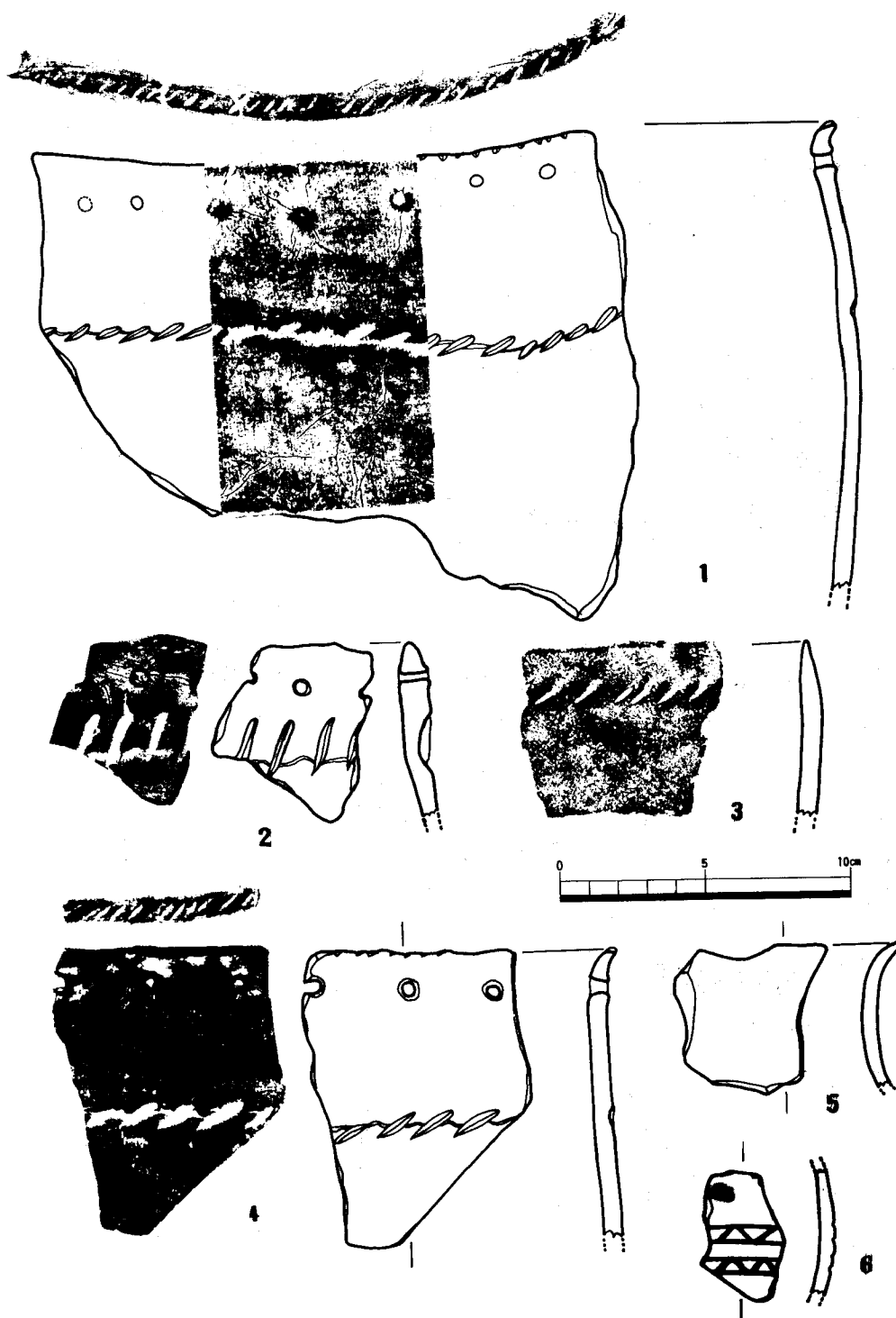
⑪ (그림16-1,2,3,4 : 사진46-1,2,3,4)

앞서 7항의 토기처럼 이중구연과 단사선 장식의 팽이형토기 속성에 공렬토기 속성으로서 톱날장식의 입술면을 가진 것이나, 보다 형태 변화를 하여 이중구연의 폭이 넓어지면서 얇아지고, 그러면서 단사선무늬도 정연한 맛이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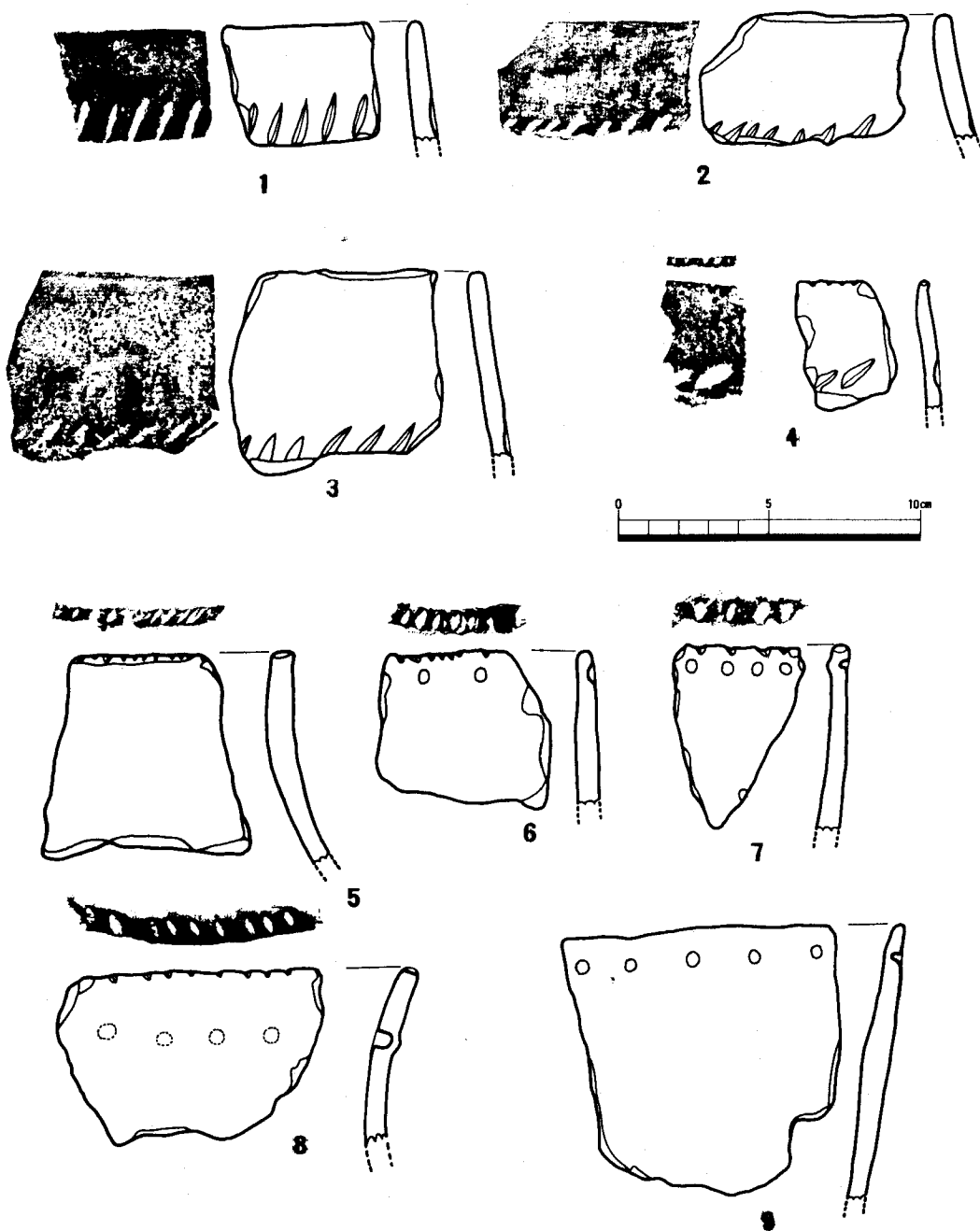
이러한 형식의 토기는 충남 夫餘 松菊里에서도 출토된 바가 있다. 두께 0.6~0.7cm

⑫ (그림17-1,2,3 : 사진47-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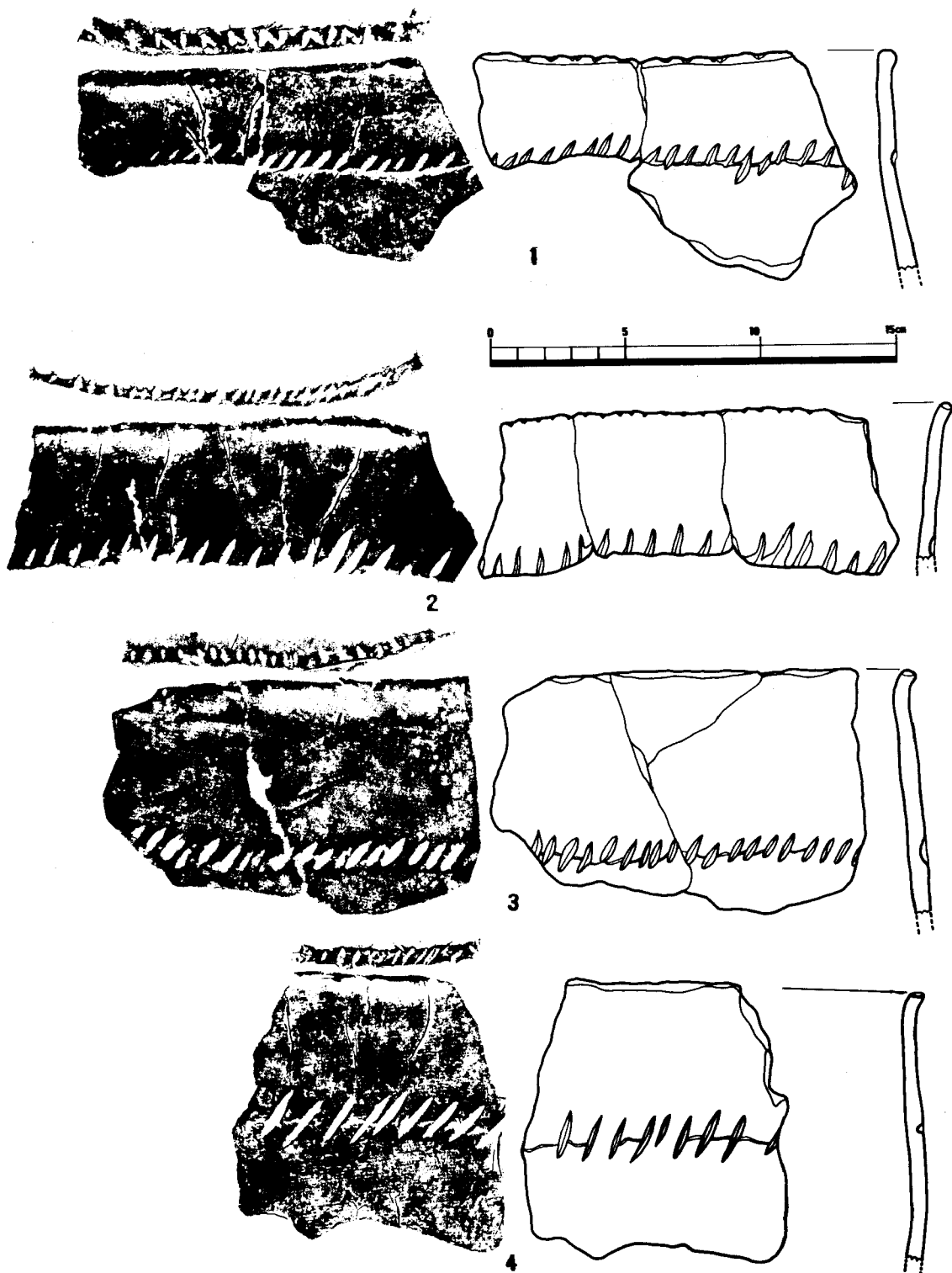
②의 토기처럼 이중구연에 단사선무늬의 팽이형토기 속성과 입술면의 톱날장식 및 공렬장식의 공렬토기 속성이 모두 복합된 토기형식으로 다만 공렬장식이 바깥쪽에서 가해진 것만이 다르다. 물론 태토에는 제주도 특유의 현무암 알갱이가 섞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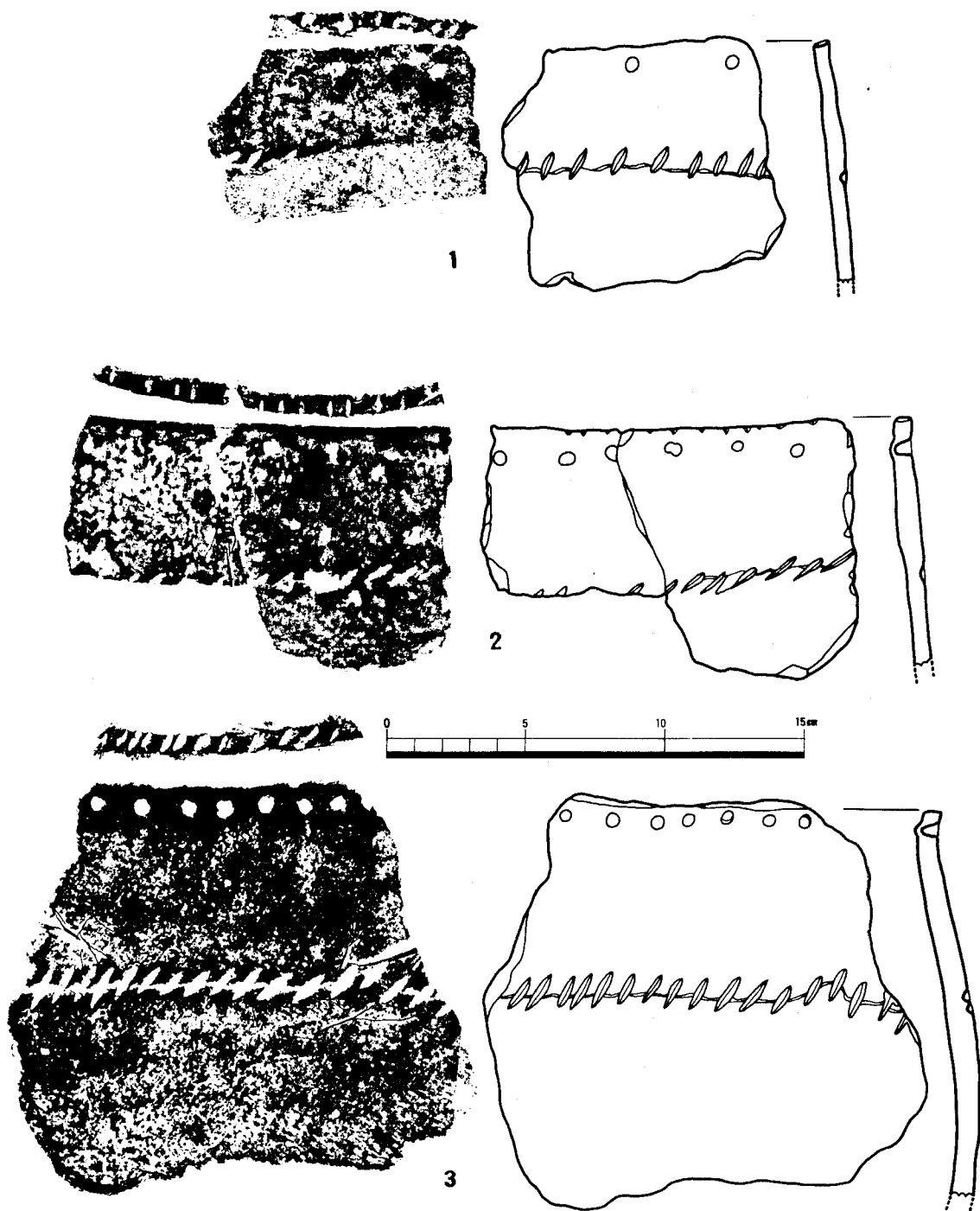
(그림14) 上幕里 산이수동 유적 출토 무문토기 口緣部片(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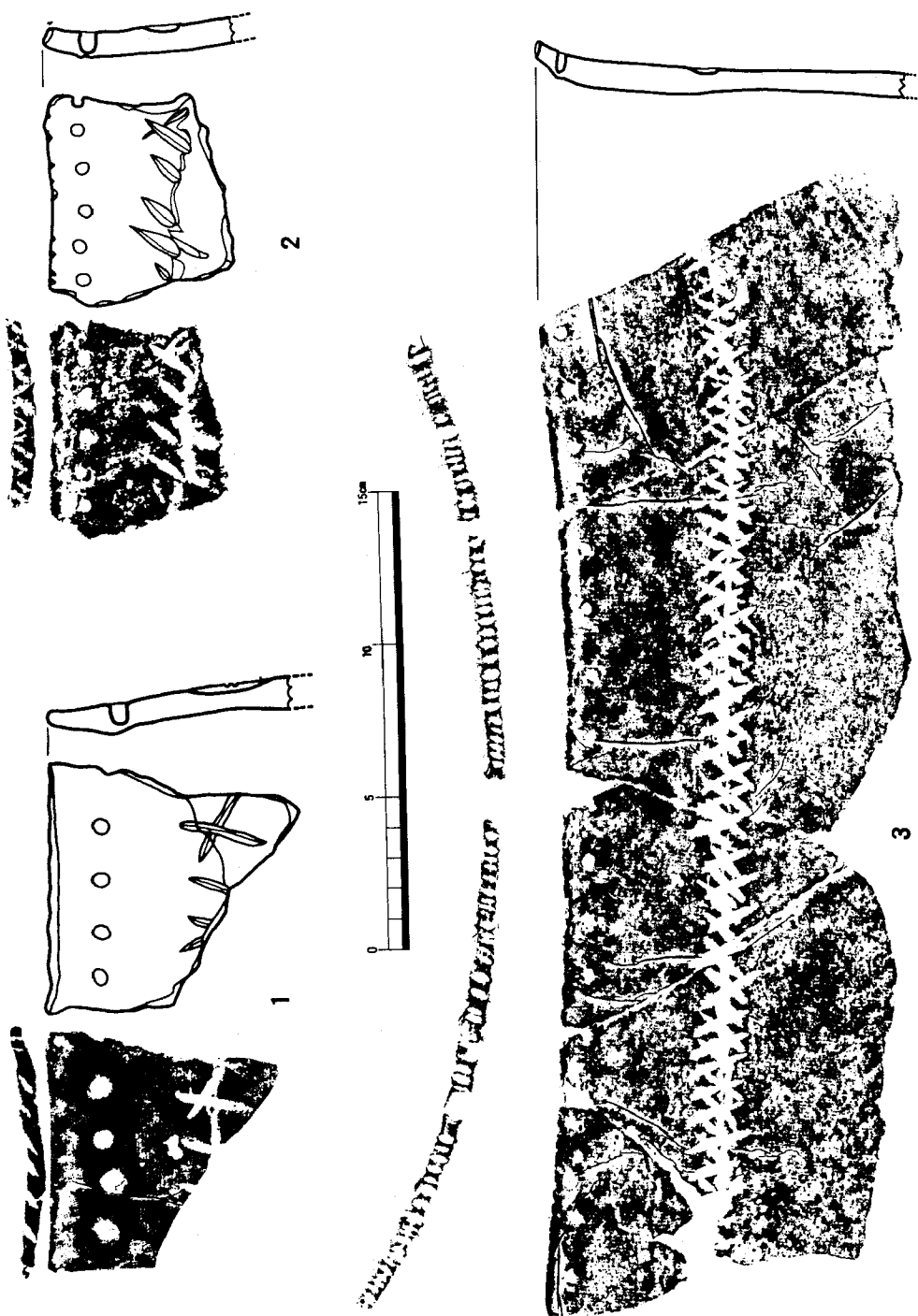
(그림 15) 上墓里 산이수동 유적 출토 무문토기 口緣部片(2)



(그림16) 上幕里 산이수동 유적 출토 무문토기 口緣部片(3)



(그림 17) 上幕里 산이수동 유적 출토 무문토기 口緣部片(4)



(그림18) 上幕里 산이수동 유적 출토 무문토기 口緣部片(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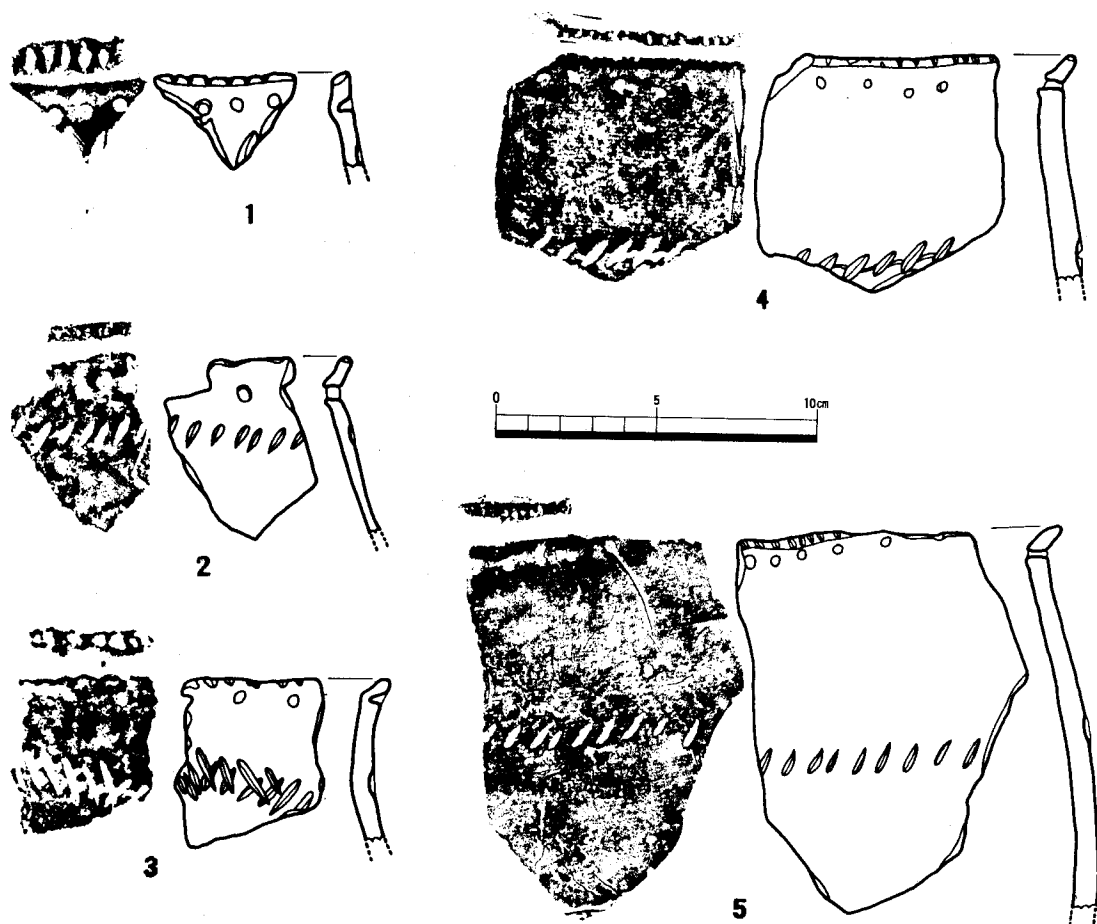
그림 17-3의 경우는 이중구연의 이음새가 胴體下端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이 앞서의 토기와 다르고 口緣은 이제 거의 평면화된 것이 두드러진다. 두께 0.7~0.9cm

(그림18-1,2,3 : 사진48-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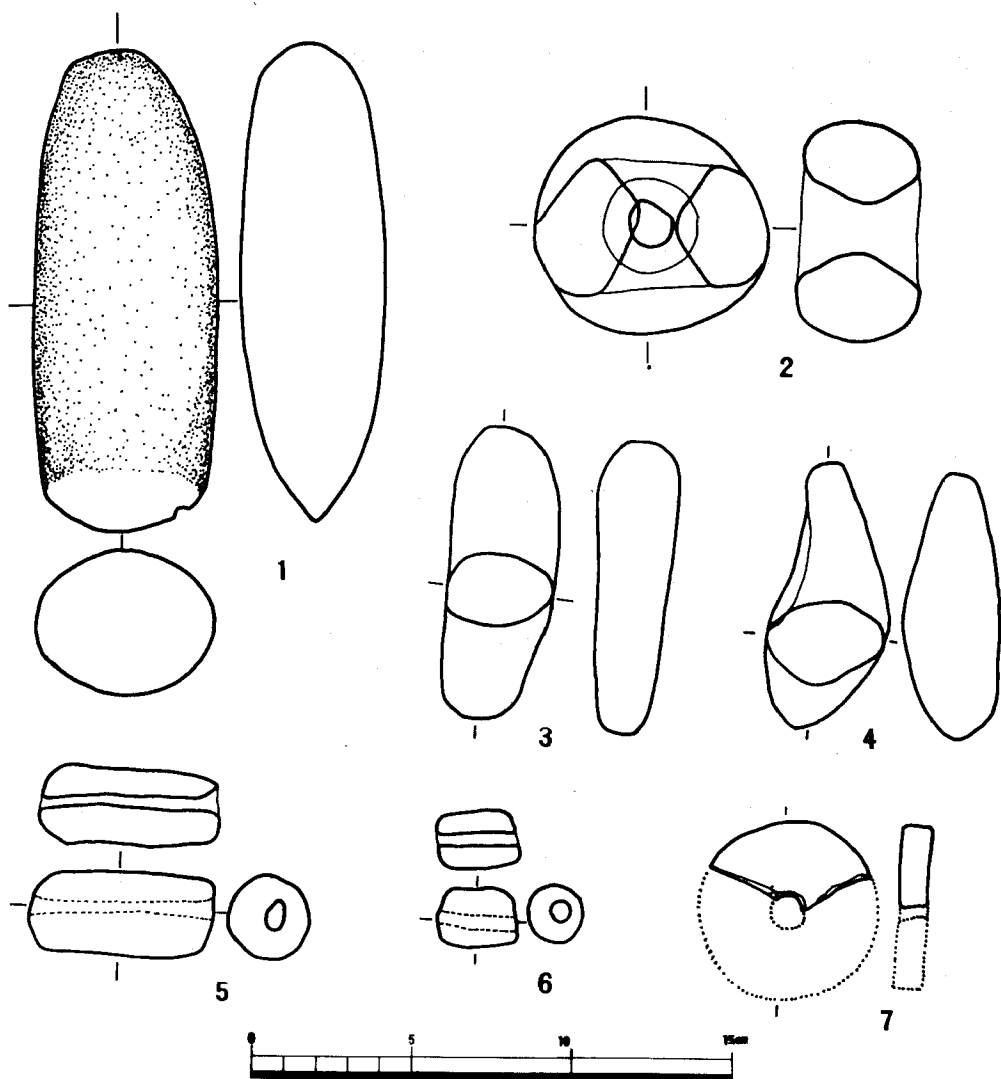
⑫ 항의 토기형식과 기본적으로 통하나 단사선무늬가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두번 시문되어 X자형의 문양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틀리다. 그림 17-2의 경우는 입술면의 톱날장식도 X자형으로 되어 있다. 두께0.8~0.9cm

(그림19 : 사진48-4,5,6 및 49-1,2)

이 유적 출토 무문토기 중 형식변화가 가장 진전된 단계의 것으로, 구연부 끝이 심하게 외반되고 공돌크기는 작아지며 이중구연은 이제 거의 퇴화하여 동체부와의 접합경계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릇두께는 0.7cm 미만이다.



(그림19) 上幕里 산이수동 유적 출토 무문토기 口緣部片(8)



(그림20) 上幕里 산이수동 유적 출토 유물

(2) 토제 및 석제유물

① (그림20-1 : 사진49-3)

이 유적에서 채집된 유일한 마제석기로 전형적인 조갯날 도끼이다. 몸통은 쪼으기 수법으로 정교하게 다듬었고, 날부분은 마연수법으로 갈아 정연한 조갯날을 만들었다. 횡단면은 타원형을 이루며 날부분에는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다. 길이14.5cm, 폭5.8cm, 두께4.6cm

② (그림20-2 : 사진49-6)

현무암제 그물추로 직경 7.5cm, 폭 6.5cm, 두께 3.8cm이다.

③ (그림20-3,4 : 사진49-4,5)

작은 공이로 다소 좁은 한 끝을 타격면으로 이용하였다. 길이 9cm, 8cm

④ (그림20-5,6 : 사진49-7,8)

管狀의 土製그물추로 길이 5.8cm, 2.7cm, 직경 2.7cm, 0.8cm

⑤ (그림20-7 : 사진49-9)

원판모양의 토제 방추차로서 복원직경 5.6cm, 두께 1cm이다.

2. 郭支里 貝塚 및 遺物散布地

1) 유 적(지도16,17 : 사진50,51)

유적의 분포범위는 동쪽으로 郭支里의 郭錦국민학교에서 서쪽으로는 錦城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쪽으로 해안일주도로변에서 남쪽으로 광지리 윗마을을 포함한 동서 1km, 남북 0.5km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는데, 패총지대와 유물산포지가 섞여 있다.

이 지역은 土層의 두께가 제주도내에서 가장 두터운 지역중의 하나로서 경작에 유리하며, 앞서 말한 錦城川이 유적 가까이에 있고, 해안지대를 포함하여 湧泉水가 잘 발달한 지역이므로 取水가 용이하다.

그 뿐만 아니라 해안과의 거리가 불과 0.5~0.8km 정도에 불과한 해발 30~40m의 낮은 구릉지대로서 어로생활에 보다 용이한 바, 이러한 여러 좋은 입지조건 때문에 일찍부터 큰 취락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제주도내에서 가장 넓은 유적지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현재 유적의 대부분은 경작지로 되어 있으며 그중 貝塚에 대해서는 1973년 宋錫範 씨와 일본의 江坂輝彌교수가 처음 발견하였고, 그후 1979년, 1984년, 1985년 각기 다른 지점에서 濟州大學校博物館이 발굴 조사한 바 있다.

여기서는 앞서 말한 濟州大學校博物館의 세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지점별로 유적·유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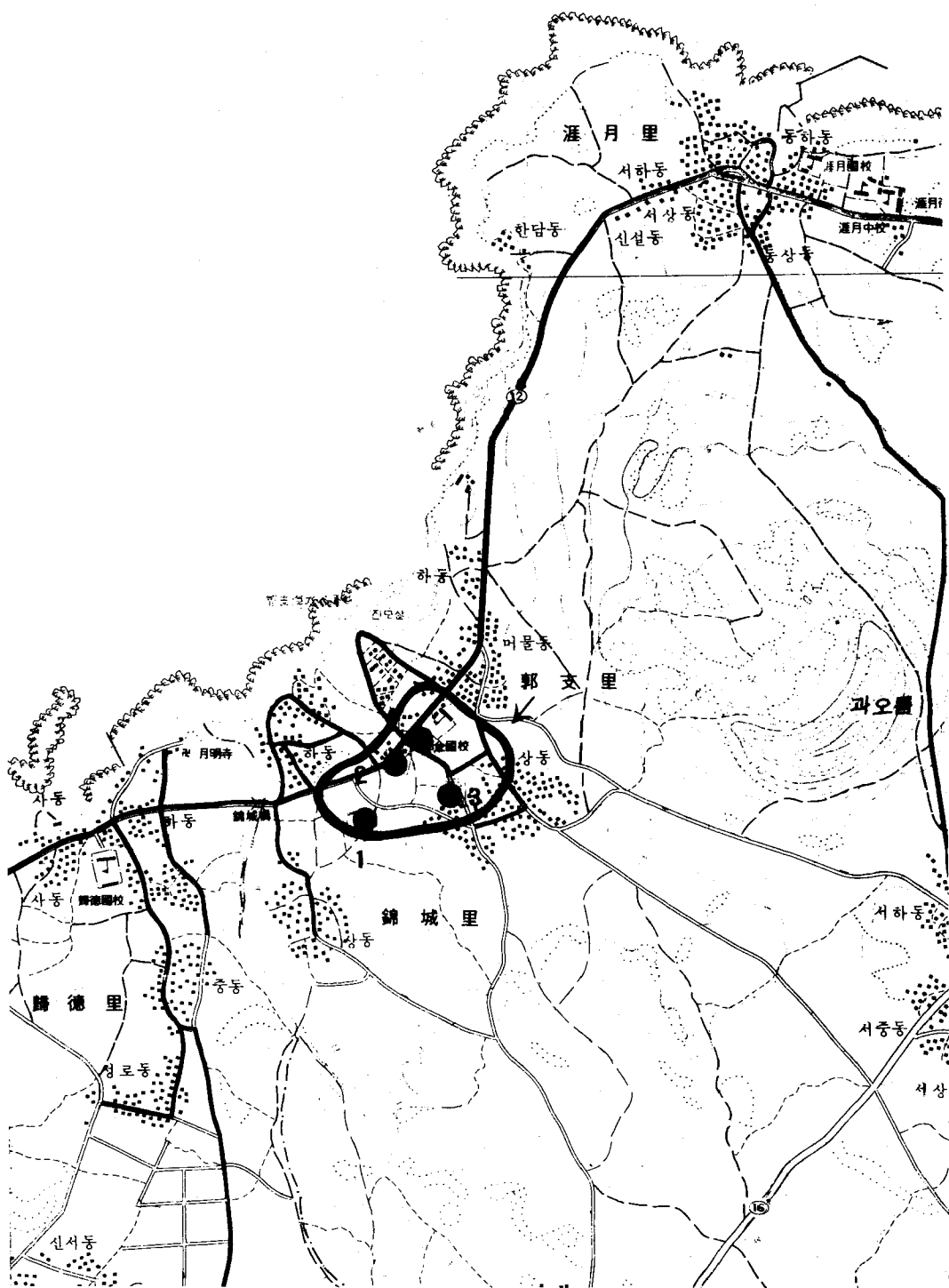
가) 1979년 발굴지점(제II지구)(사진52)

(1) 유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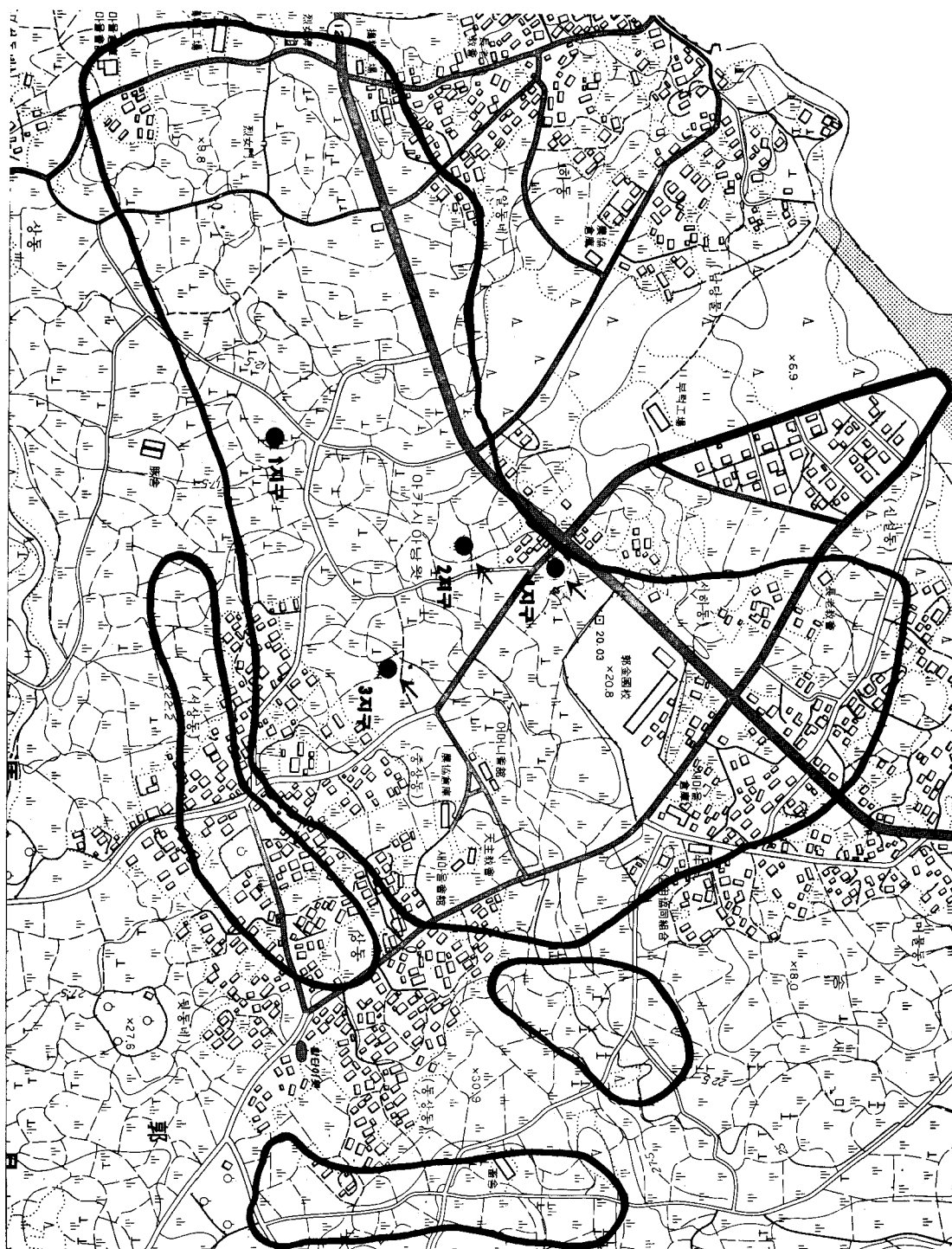
李白圭가 발굴하였으며 郭支里 2070번지(제I지구)와 2091번지(제II지구) 두지점을 발굴하였는데, 그중 2091번지 제II지구에서 4개의 層位를 확인하고, 청동기시대 말에서 철기시대에 이르는 다량의 유물을 수집하였다. 그 층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층

표토층으로서 지하 20~30cm까지이며 경작으로 인해 교란된 층위이다. 일부 동물뼈와 조개류가



(지도16) 郭支里 貝塚 및 유물산포지 위치(1/25,000)



(지도17) 郭支里 貝塚 및 유물산포지 위치(1/5,000)

혼입되었다.

② 제2층

지하 60~80cm까지이며 그 두께는 40~50cm에 이른다. 많은 양의 조개, 동물뼈와 검은 부식토가 혼합된 混土貝層으로서, 이 층위에서 대부분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③ 제3층

50~60cm의 두께를 가진 黑褐色 부식토층으로 조개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 지하 80~130cm의 범위에 있으며, 출토유물 또한 2층에 비해 격감하고 있다.

④ 제4층

30cm내외의 두께를 가진 黃褐色 土層으로서 지하 130~160cm 범위에 있는 最下層이다. 조개는 거의 없으며 토기유물의 작은 파편이 적은 양 출토할 뿐이다. 이 아래층은 황갈색 생토층이다.

(2) 유 물

여기서는 同지점의 시기적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무문토기 및 석기유물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A. 공렬 및 골아가리 토기

맨 아랫층인 4층과 3층에서 출토한 것으로 입술면에 톱날장식이 있거나 口緣部에 공렬장식이 가해진 것으로 上墓里 유적의 같은 형식의 토기에 비해 태토의 두께가 두텁고 단단하며, 톱날 및 공렬장식이 간략화된 인상이다.

1 (그림21-1 : 사진58-1)

안으로 휘인 직립구연의 深鉢形土器 口緣部로서 그릇겉면에 위아래 방향으로 빗질정면한 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다. 구연부에 바깥에서 얇게 뚫은 공렬장식이 있고, 입술면에는 톱날장식이 가해져 있다. 입지름 31.2cm, 두께 1cm

2 (그림21-2 : 사진58-2)

역시 직립구연에 빗질정면한 深鉢形 土器 口緣部로서 입술면에 톱날장식만이 가해진 골아가리 토기이다. 입지름 20cm, 두께 1cm

3 (그림21-3 : 사진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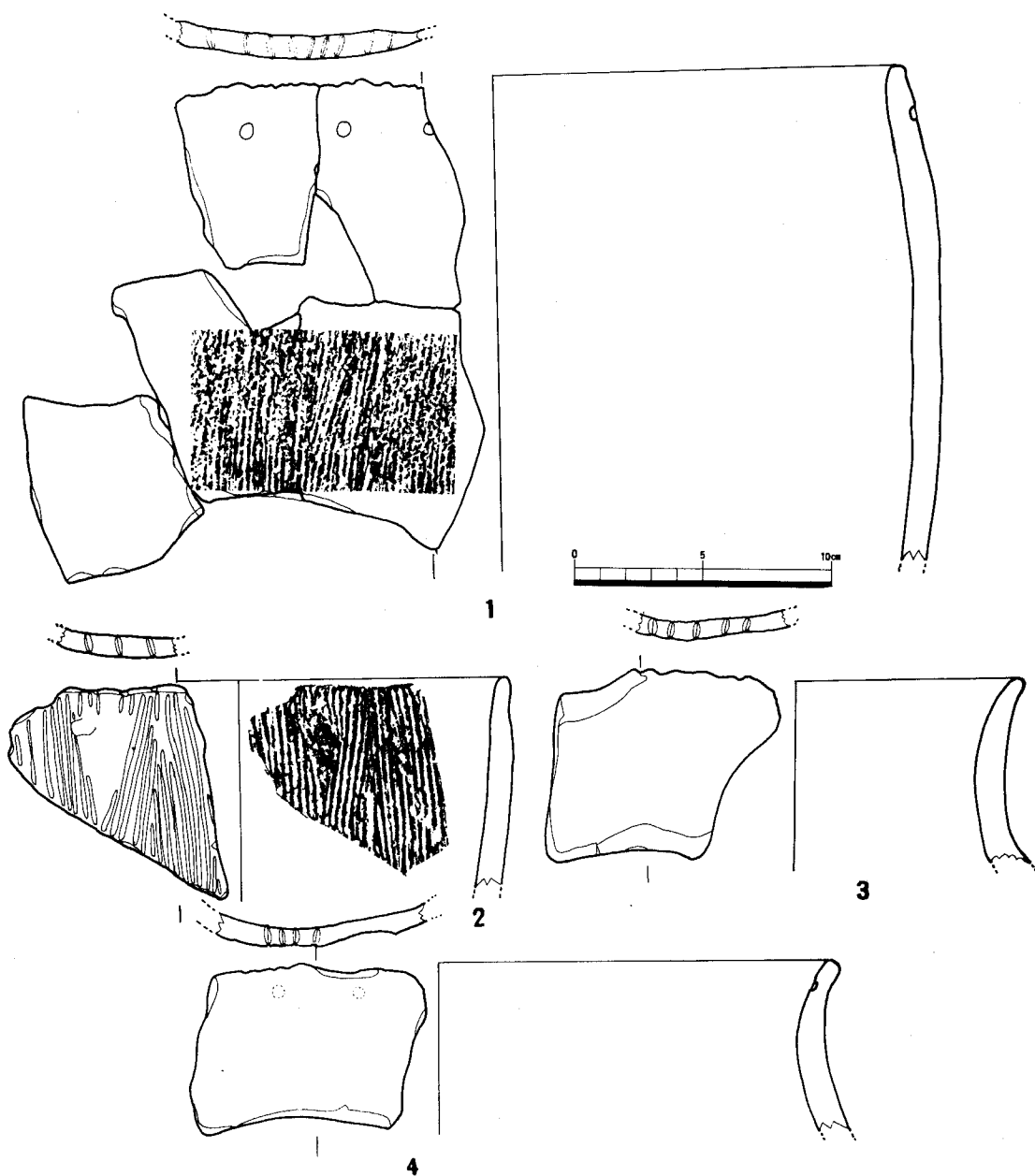
外反口緣의 항아리 목부분으로 입술면에 톱날장식이 있다. 입지름 17.4cm, 두께 1.1cm

4 (그림21-4 : 사진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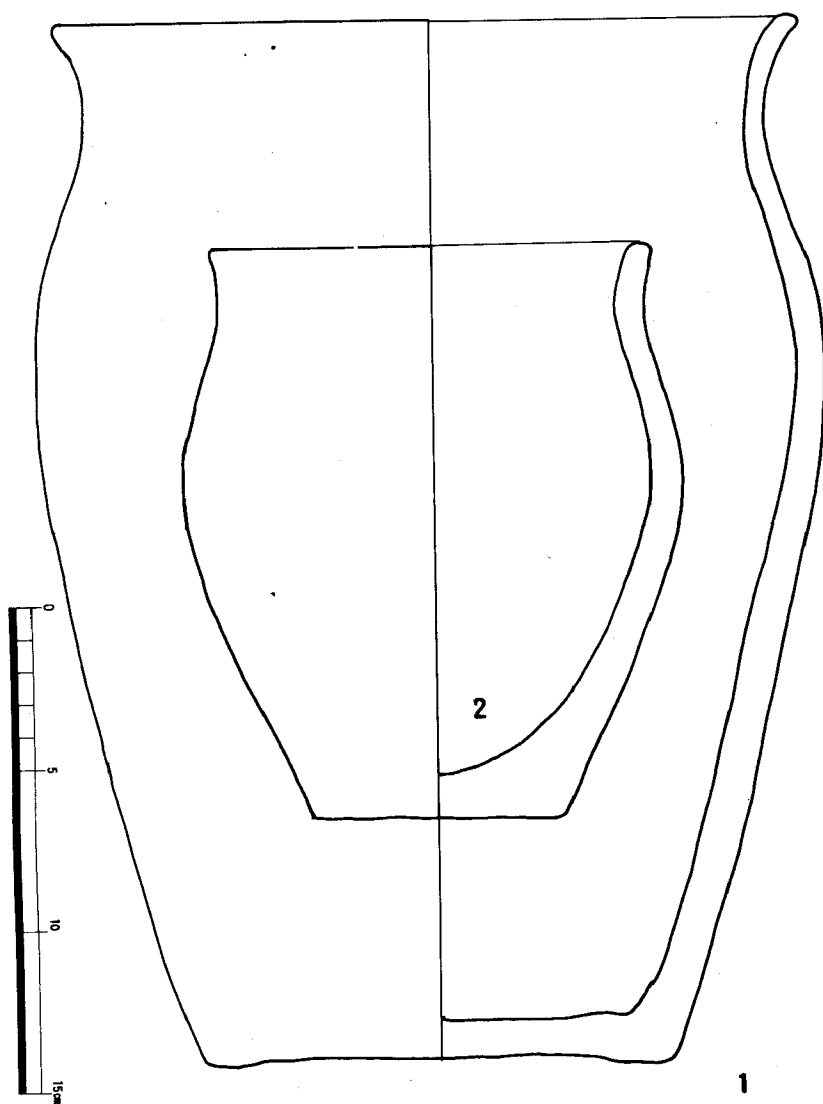
역시 외반구연의 항아리 목부분으로 입술부분의 톱날장식과 아울러, 그 아래 안쪽면으로 공렬장식이 가해진 것이다.

上墓里 유적에서도 볼 수 있는 例로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남한지방의 이 시대 무문토기 항아리에는 골아가리 토기 뿐인 점과 대조가 된다. 두께 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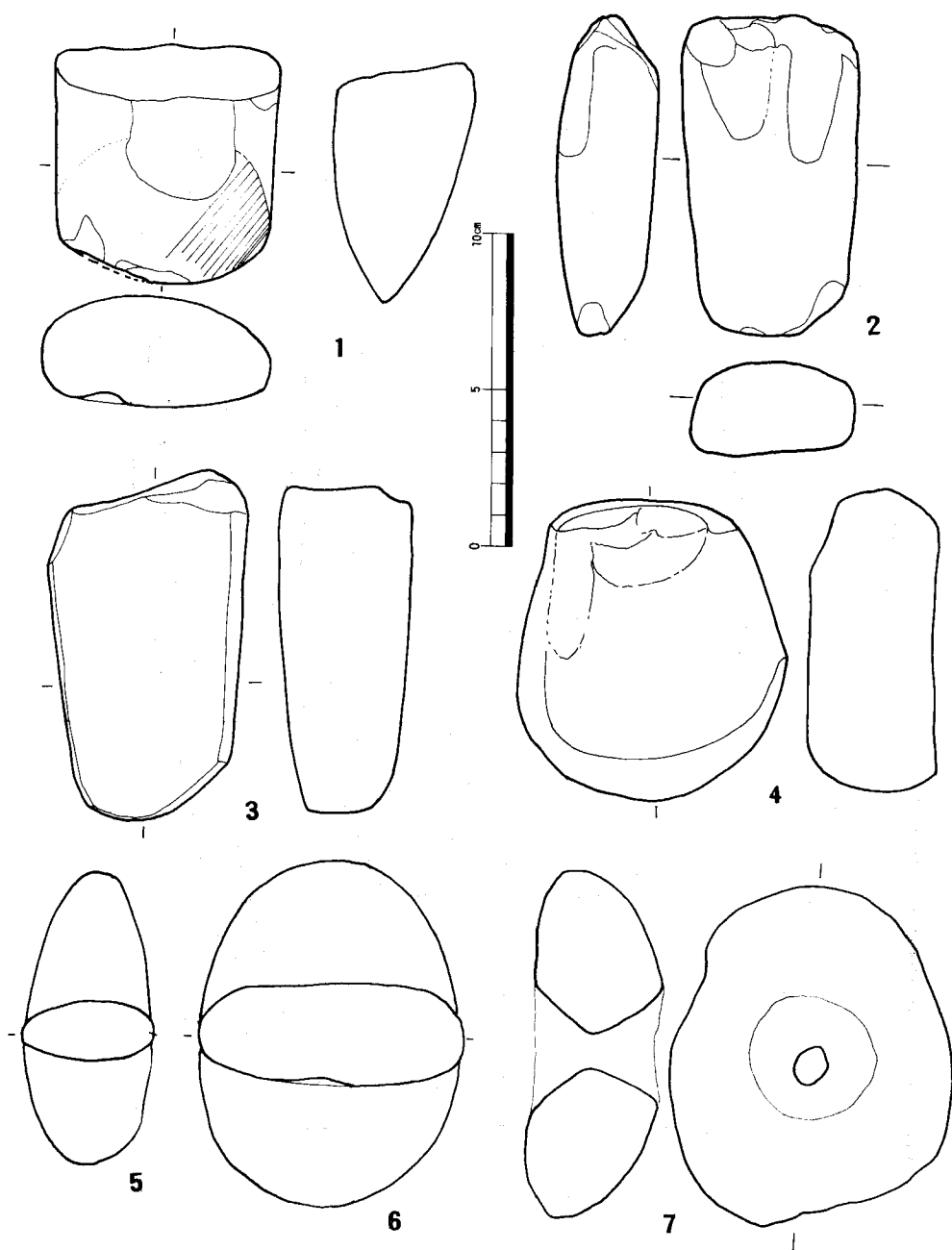
B. 外反口緣 항아리 토기(그림22 : 사진58-5,6)



(그림21) 郭支里 貝塚 1979년 발굴 출토 무문토기편



(그림22) 郭支里 貝塚 1979년 발굴 출토 무문토기



(그림23) 郭支里 貝塚 1979년 발굴 출토 석기

김해식 토기편이 공반출토하여 철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1,2층에서 출토한 무문토기로
동층위 출토토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와 동일한 형식을 이루는데, 여기서는 完形土器 2점만 소개한다.

크게 벌어진 구연부와 바닥에 비해 훨씬 넓은 입지름, 胴體部 상단에 형성된 팽창된 어깨,
축약현상 없이 이어지는 동체부와 바닥의 접합면, 그리고 두텁고 거칠며 단단한 태토가 특징적인
적갈색 무문토기로 철기시대 제주도 전역의 토기가 이와 같아, 濟州島式 혹은 郭支式 外反口緣
무문토기 항아리라고 불러도 좋을 만하다.

물론 같은 시기에 남한지방, 특히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와 비슷한 무문토기가 성행하여
中島式이라고 부를 정도이지만, 그와는 태토의 두께, 硬度, 바닥의 형태 등에 있어서 서로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각각 크기는 입지름 23.2, 13.6cm, 높이 32, 17.5cm, 두께 1.3, 1.2cm

C. 石 器

출토된 磨製石器의 양은 극히 적으며, 石器의 대부분이 제분용 공이, 갈판, 갈돌과 어로도구인
어망추로서 많은 수가 현무암제이다.

① (그림23-1 : 사진63-1)

전형적인 조갯날도끼로서 제주도産 粗面岩製로 도끼 전체표면을 곰보처럼 조아서 成形하였고
날부분은 정연하게 갈았다. 머리부분은 부러져 없어지고 횡단면은 납작한 타원형을 이룬다.
현재길이 9cm, 폭 8cm, 두께 4cm

② (그림23-2 : 사진63-3)

염기성맥암製로 날부분을 포함해서 마연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떼기 및 조이기 수법으로만
성형하였다. 길이 9cm, 폭 8cm, 두께 4cm

③ (그림23-3 : 사진63-4)

전면을 조이기 잔다듬하였고, 타격면은 장축에 대해 비스듬히 갈아서 만든 공이(敲石)이다.
길이 11cm, 폭 6.5cm, 두께 4cm

④ (그림23-4 : 사진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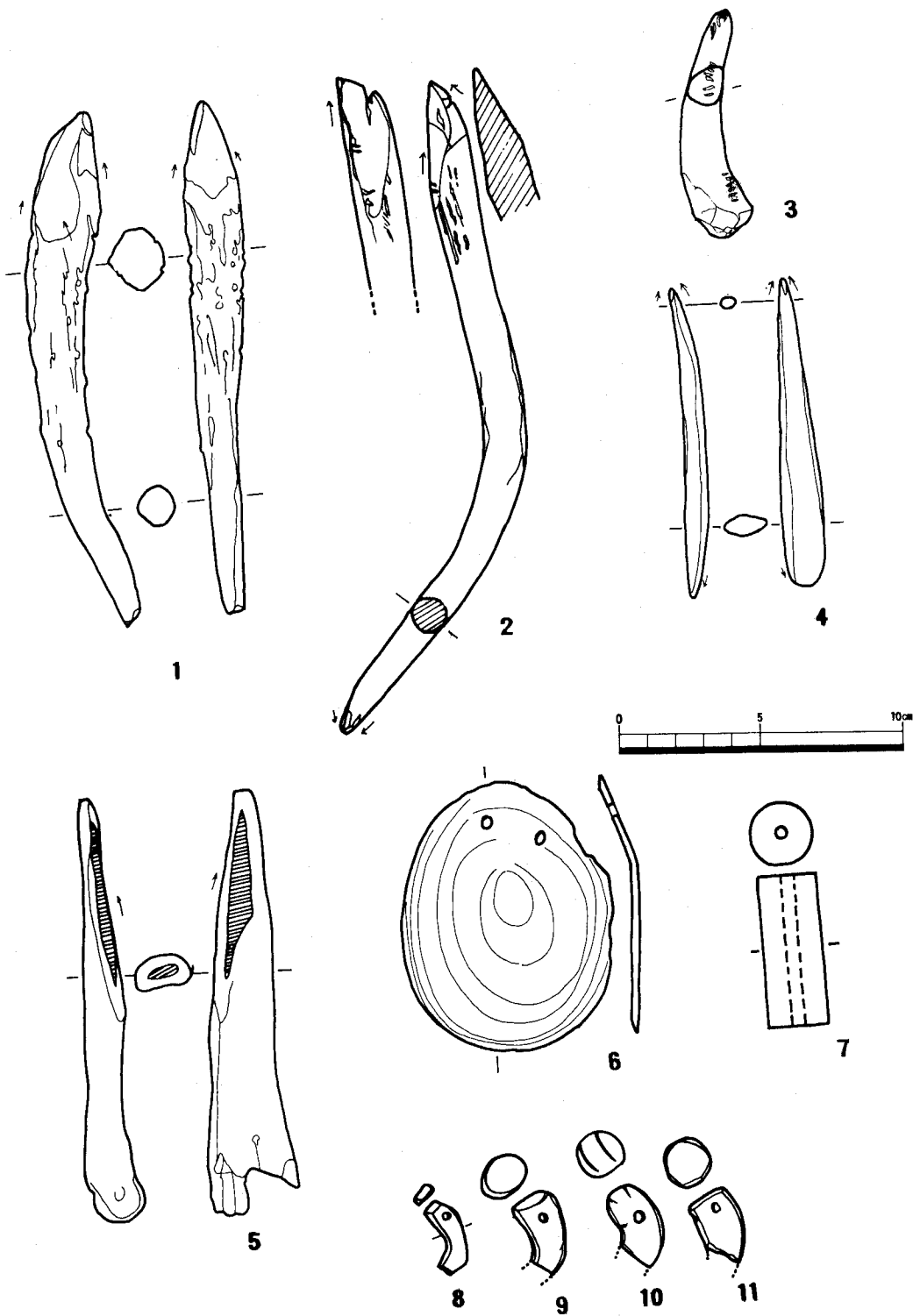
제주도産 安山岩製로 넓적두툽한 몽돌로 위 아래끝 모두를 타격면으로 이용하였으나 주로
아랫면을 사용하였다. 길이 9.5cm, 폭 8.5cm, 현재두께 3.5cm

⑤ (그림23-5,6 : 사진63-6,7)

작은 공이와 이와 짝을 이루는 홈돌(凹石)로서, 공이 길이 9.4cm, 폭 4.3cm, 홈돌 크기 11.3 ×
8.6cm, 두께 3.3cm이다.

⑥ (그림23-7 : 사진63-5)

현무암돌의 한가운데를 양면에서 움푹 파내어 만든 어망추이다. 길이 11cm, 폭 9cm, 두께 4.2cm



(그림24) 郭支里 貝塚 출토 유물

D. 骨角器 기타

토기유물에 비해 골각기의 출토량은 남해안지방의 다른 패총유적과 비교하여 적은 편이고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

① (그림24-1 : 사진65-4,5)

사슴뿔을 절단하여 뿌리끝을 납작하게 칼질하여 다듬은 것으로 용도는 확실하지 않다. 길이 17cm내외.

② (그림24-3 : 사진65-3)

사슴뿔을 절단하여 다듬은 것인데 속이 비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알려진 칼자루는 아니다. 길이 8.2cm

③ (그림24-4,5 : 사진65-1,2)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골각기로 사슴의 뿔과 다리뼈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그림 24-5는 전복등의 조개를 따는데 사용했으리라 추정이 되는 것이다. 길이 10.6cm, 15.2cm

④ (그림24-8~11 : 사진65-8~11)

24-9,11은 II지구 층위에서 출토한 土製模造 曲玉이고, 24-8은 石製模造曲玉과 유리제 곡옥으로 표토채집품이다.

유리제 곡옥의 머리에는 3줄의 가로 홈이 나 있는데, 南韓의 중심문화권과 교역을 한 증거물로서 중요하다. 현재길이 2.2~3cm

나) 1984년 발굴지점(제III지구)(사진53)

(1) 유 적

1984년李清圭에 의해 발굴된 郭支里 2019번지의 경작지를 말하며 층위는 역시 4개층위로 구분된다. 이 지점의 연대는 출토유물로 보아 II지구보다 늦은 것으로 대체로 三國時代 이후의 것으로 파악된다.

층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층

표토층으로서 지하 15~25cm 까지이며 앞서 II지구와 마찬가지로 경작으로 인해 교란된 층위이다. 원래 조개 및 동물뼈의 퇴적은 이 층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② 제2층

지표아래 45~65cm까지로 층위 두께는 25~45cm이며, 조개 및 동물뼈의 혼입량이 가장 많은 흑갈색 토층이다. 유물 출토량도 이 층위에서 가장 많다.

③ 제3층

지표아래 85~97cm로서 두께는 25~43cm정도인 混土貝層이다. 2층보다 유물출토량은 적은 편이나 2층과 함께 III지구를 대표하는 층위가 되겠다.

④ 제4층

지표아래 100~117cm까지로 18~37cm의 두께를 갖고 있으며, 다소 밝은 황갈색 사질토양으로 극히 작은 파편의 토기유물 수점만이 출토되었다.

(2) 유 물(그림25 : 사진 59)

이 지점에서는 삼국시대 陶質土器가 출토하며, 이와 공반하여 전통적인 무문토기 계통인 적갈색을 띤 深鉢形土器가 다량 출토한다. 이 토기는 다른 지방에 없는 독특한 형식으로 완전한 濟州島式이라 할 수 있겠으며, 앞서 廣口外反口緣壺가 제주도의 철기시대를 標識遺物이라고 한다면, 同 深鉢形土器는 三國時代의 標識遺物로 삼을 만 하나, 구체적인 시기 판정은 금후의 연구과제이다. 이 토기의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口緣部の 外反度는 철기시대 무문토기 항아리보다 훨씬 작고, 바닥지름과 입지름이 거의 같으며, 동체부의 최대지름이 높이의 중간 쯤에 위치하여 보다 안정된 감을 준다.

태토 또한 보다 정선된 점토이고, 겉면을 매끈하게 다듬었으며, 슬렸을 입혔서인지 몰라도 태토의 안과 속이 거의 구분된다. 전반적으로 색깔이 짙어서 暗赤褐色을 띠고, 더욱 단단하여, 토기를 구워 내는 燒成度는 이제 무문토기를 훨씬 지난 改良形이다.

그뿐만 아니라 태토의 두께는 훨씬 고르고 얇아져, 가장 두터운 동체부의 두께는 0.8cm 내외이다. 또한 구연부를 成形할 때 초보적인 회전받침을 이용한 흔적이 보이는 등 제작수법은 전반적으로 철기시대 廣口外反口緣壺 無文土器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이 토기에는 그릇 겉면에 끓일 때 음식물 액체가 흘러 시꺼멓게 탄화된 흔적을 보이는 예가 많아, 이 토기형식은 음식물을 끓이는 일정한 용도에 국한해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25-1) 높이 28cm, 입지름 13.4cm, 바닥지름 13.7cm

(그림25-2) 높이 8cm, 입지름 7.1cm, 바닥지름 6.6cm

(그림25-3) 높이 8.7cm, 입지름 8.6cm, 바닥지름 8.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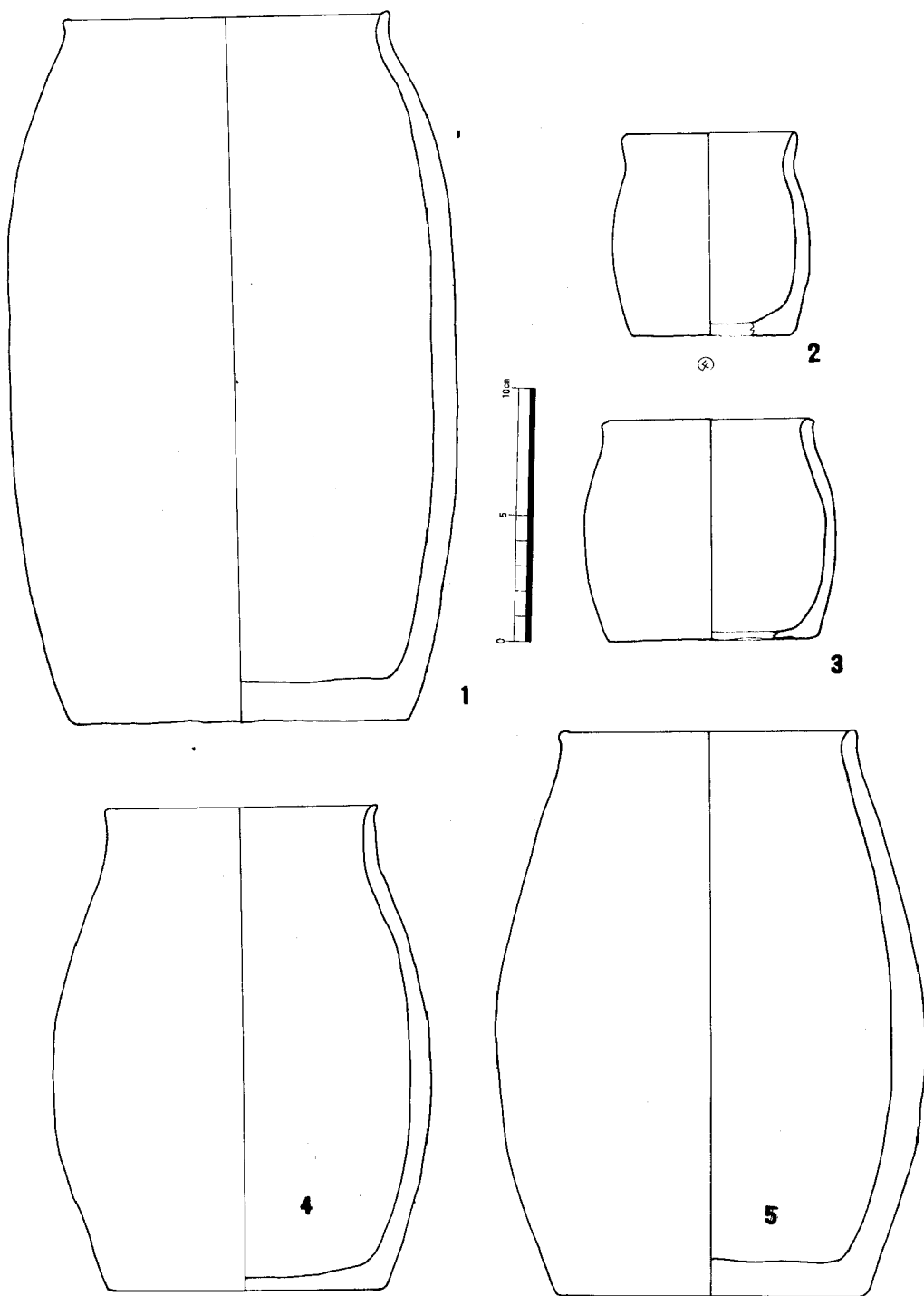
(그림25-4) 높이 19.4cm, 입지름 11cm, 바닥지름 11.1cm

(그림25-5) 높이 22.6cm, 입지름 12cm, 바닥지름 1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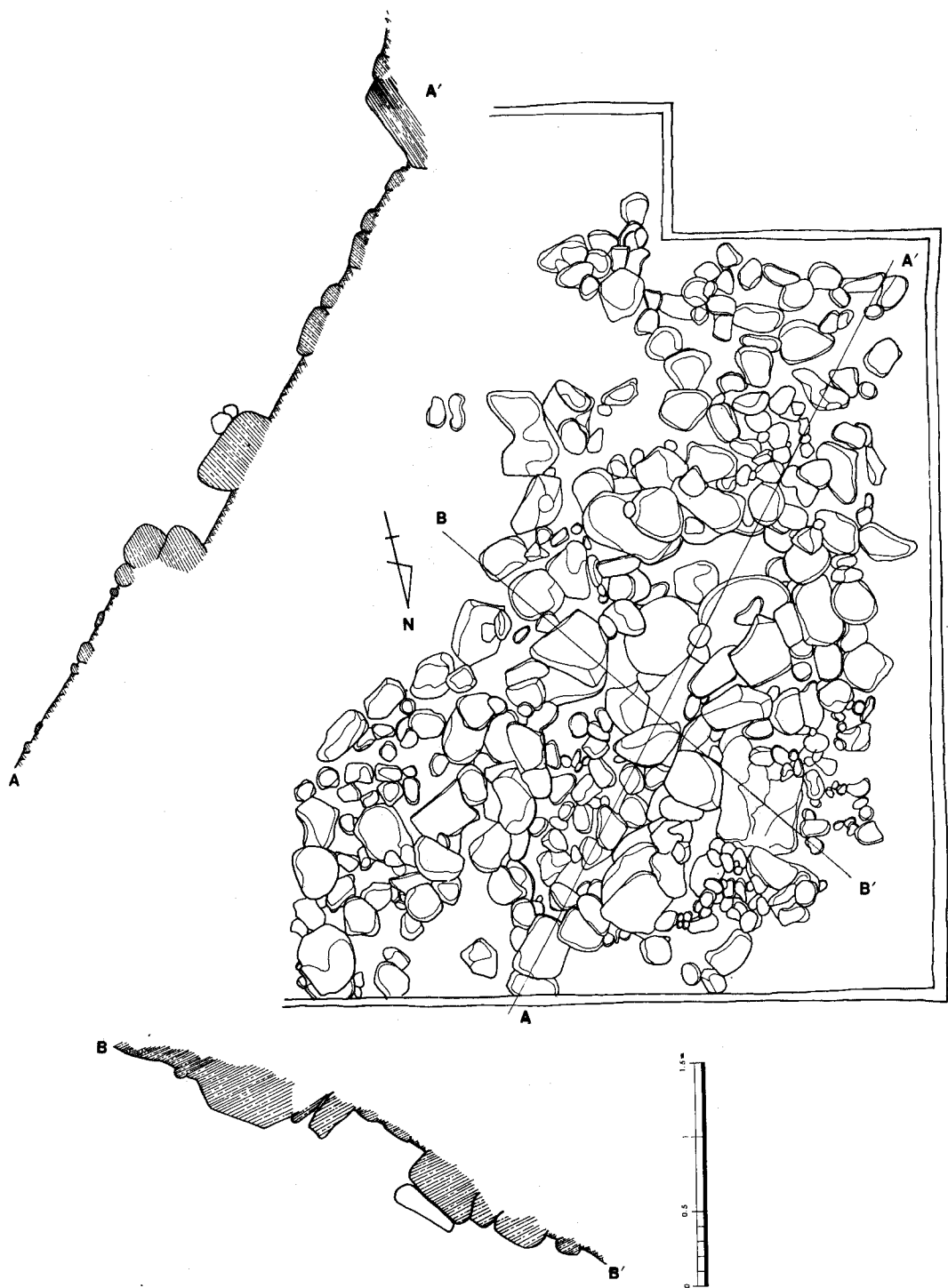
다) 1985년 발굴지점(제IV지구)

(1) 유 적(사진54~57)

곽지신용협동조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공사중에 貝塚를 발견하여 긴급구제발굴을 하게된 지점이다.



(그림25) 郭支里 貝塚 1984년 발굴 출토 토기



(그림26)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지점 石槨墓 실측도

원래 이곳은 경작지로서 地表下130cm까지 패각층을 이루고 있는데, 4개층위로 구분되나 제 III지구처럼 거의 한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패각층 밑의 바닥은 북쪽이 다소 낮은 경사면을 이루고 있고, 보다 경사도가 급한 남쪽 편에서 1기의 石槨墓가 발견되었다. (그림26)

石槨墓는 큼직한 割石을 2~3단 쌓아 벽을 만든 다음, 주위를 積石한 것으로 불규칙한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장축은 북동 - 남서 방향을 가리키며, 길이 230cm, 폭 50cm, 깊이 30cm정도의 細長한 석곽묘로서 북동쪽 벽끝에서 30cm 떨어져 큰 川石 수매로 구획하여 빈공간을 남기었으며, 이곳은 석곽묘 중간의 積石 바닥보다 10cm정도 낮았다. 이러한 공간은 남동쪽 끝에도 보이며, 석곽묘 상부는 3~4매의 不定形 割石으로 뚜껑을 하였다. 이곳에서의 출토유물은 적갈색 토기유물 뿐으로 副葬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은 없었다.

2) 유 물

여기 제IV지구 패층에서 다량의 토기 유물과 조개, 동물뼈가 수습되었는데, 토기는 기본적으로 1984년 발굴의 제III지구와 비슷하다.

A. 赤褐色 硬質 土器

① (그림27-1~4 : 사진60-1~4)

III지구 출토 적갈색 경질의 深鉢形土器와 같은 형식의 구연부편이다.

② (그림27-5,6 : 사진60-5~6)

역시 광지패층 III지구 출토 토기뚜껑과 같은 형식으로 원판형 뚜껑에 둥근 원형꼭지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직경 16, 7.7cm, 두께 2.1, 1.2cm

B. 陶質土器

新羅, 伽倻地方에서 성행하는 高杯형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百濟 後期 土器에서 보이는 盤口瓶 스타일의 口緣部와 팽창된 어깨를 가진 토기형식이 보인다.

이 陶質土器가 앞서의 적갈색 토기와 공반출토 되므로 후자의 시기 소속을 분명히 할 수가 있으며, 금후 이 측면에서의 연구가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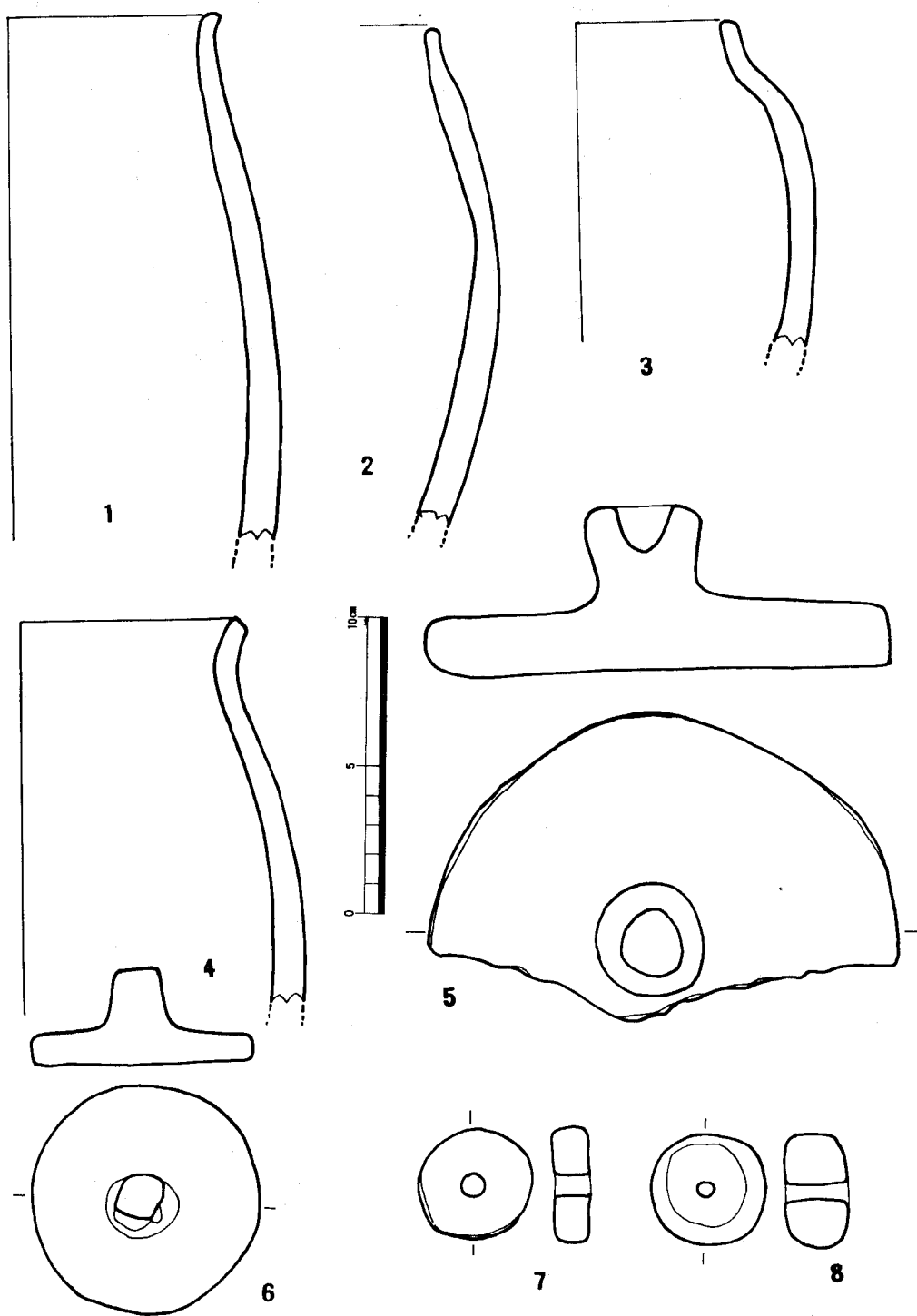
① (그림28-1,2,5,6 : 사진61-1,3,4,5)

口緣部 下端에 턱이 지고 입술면 가장자리에 한 두줄의 홈이 있으며, 목부분이 급하게 움츠러들다가 어깨가 크게 팽창되는 土器形式이다. 목과 어깨의 경계에 突起線이 한줄 혹은 두줄이 있다. 입지름 6.1 ~ 1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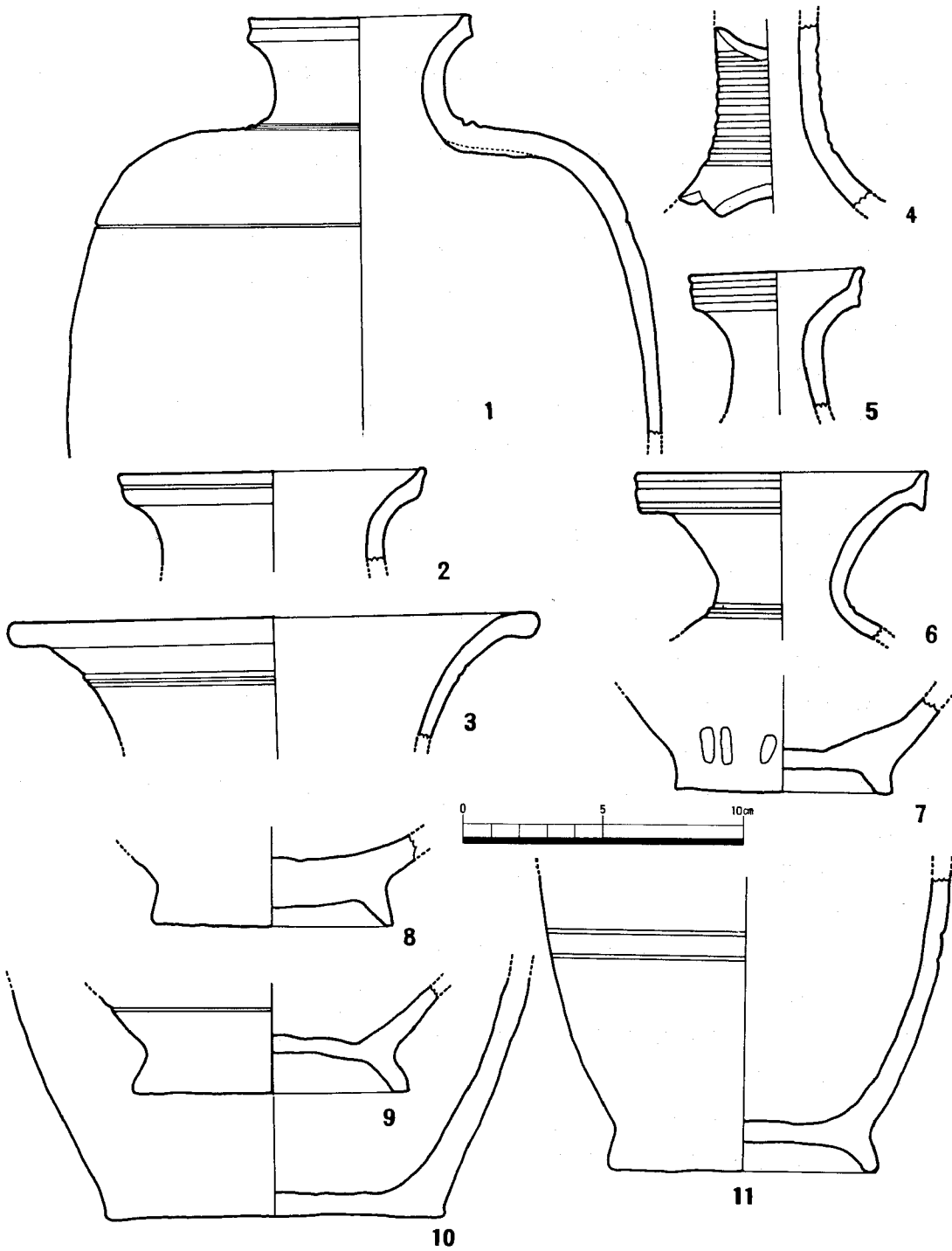
② (그림28-3 : 사진61-6)

크게 밖으로 벌어진 長頸壺 구연부편으로 목 上端에 二重突起가 있다. 입지름 18.7cm

③ (그림28-4 : 사진61-2)



(그림27)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출토 토기유물



(그림28)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출토 陶質土器片

좁고 긴 목부분에 여러 줄의 홈이 돌려 있는 瓶形土器片이다. 목지름 4cm

④ (그림28-7~11 : 사진61-7~9 및 62-4~5)

낮은 굽이 있거나 평평한 바닥의 底部片으로 統一新羅때 성행한 형식이다. 바닥지름 8.6~12.3cm

⑤ (사진61-10)

胴體部에 굽고 납작한 突帶線이 있는 것으로 百濟末期 統一新羅初에 보이는 예이다.

⑥ (사진62-1~3)

역시 三國時代末 이후에나 보이는 변형된 陰刻密集波行曲線무늬가 장식된 토기편으로 古新羅土器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밀집파행곡선 무늬와는 한눈에 차이가 난다.

C. 철제유물

① (그림29-1 : 사진64-1)

자귀모양의 도끼로 횡단면 사다리꼴 모양의 소켓트를 가졌고 도끼몸 가장자리와 한가운데에 突起線이 있다. 현재길이 16.3cm, 폭 7.6cm, 두께 2.3cm

② (그림29-2~5 : 사진64-4,5,7,8)

칼몸이 일직선으로 된 刀子로 자루부분의 횡단면은 장방형이다. 길이 8.8~24.7cm, 폭 0.9~3cm

③ (그림29-6 : 사진64-6)

앞서와는 달리 칼끝이 크게 휘어진 刀子이다. 길이 18cm, 폭 2.6cm

④ (그림29-7 : 사진64-3)

삼각형의 鐵身 下端이 양쪽으로 돌출된 兩翼形 有莖式 화살촉이다. 길이 8.3cm, 두께 0.8cm

⑤ (그림29-8 : 사진64-2)

鐵身은 횡단면이 볼록렌즈모양인 버들잎形으로, 2段으로 된 莖部를 갖고 있다. 길이 9.7cm, 鐵身幅 1.4cm, 두께 0.3cm

D. 기타유물

① (그림27-7,8 : 사진6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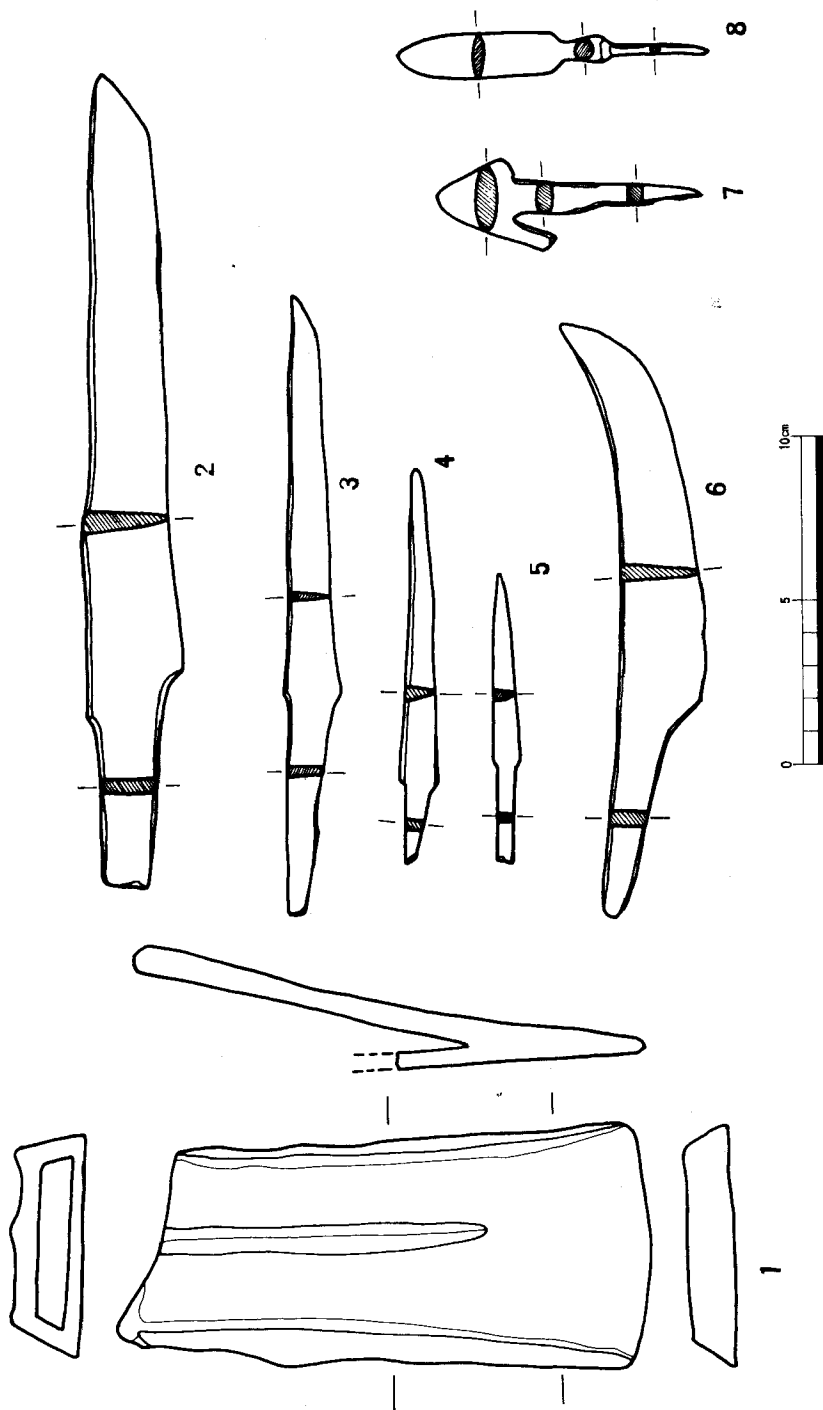
원판모양의 土製紡錘車로 직경 3.9, 4cm, 두께 1.2, 2.2cm이다.

② (그림24-2)

사슴뿔을 끝부분은 날카롭게, 뿌리부분은 납작하게 칼질한 것으로 같은 형식의 골각기가 II 지구에서 출토한 바 있다. 길이 22.8cm

③ (그림24-7,8 : 사진65-7)

管玉으로 길이 5.3cm, 직경 2.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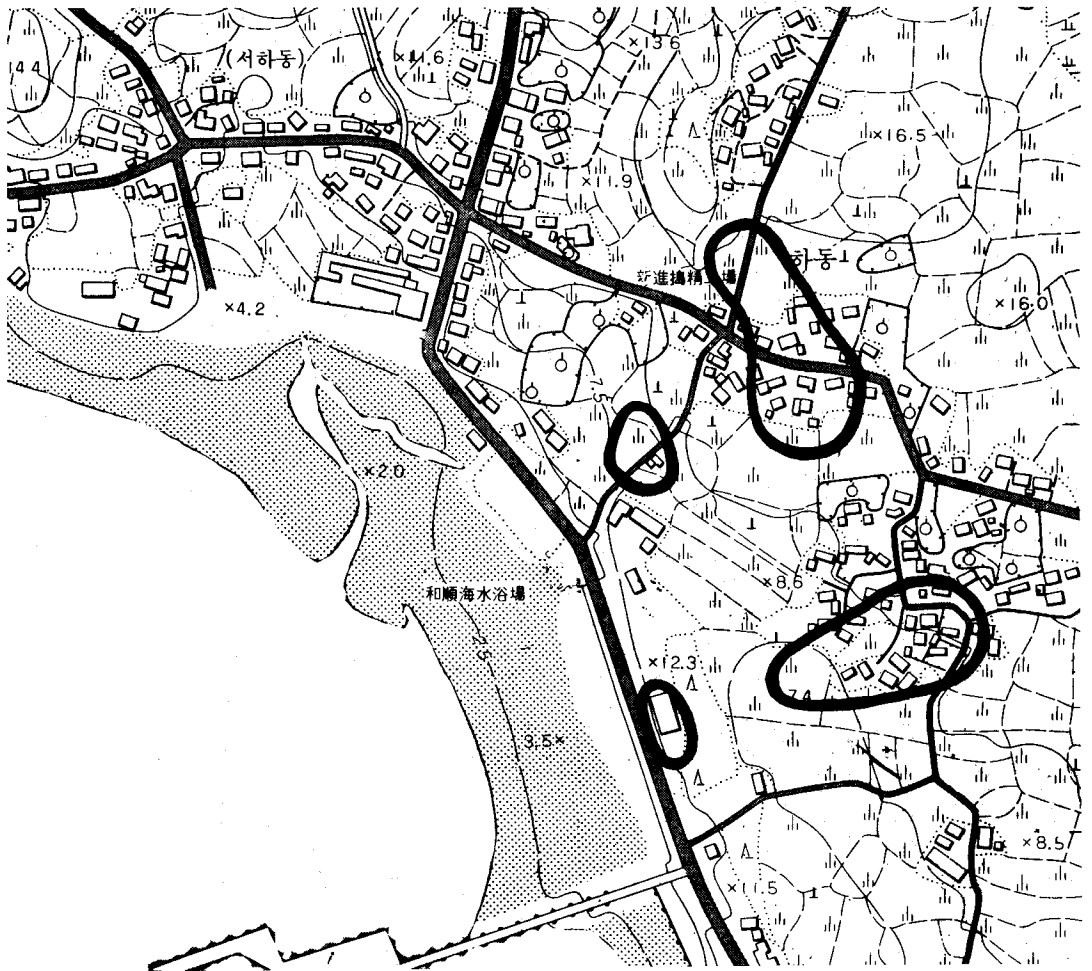
(그림29)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출토 철기유물

3. 和順里 貝塚 및 遺物散布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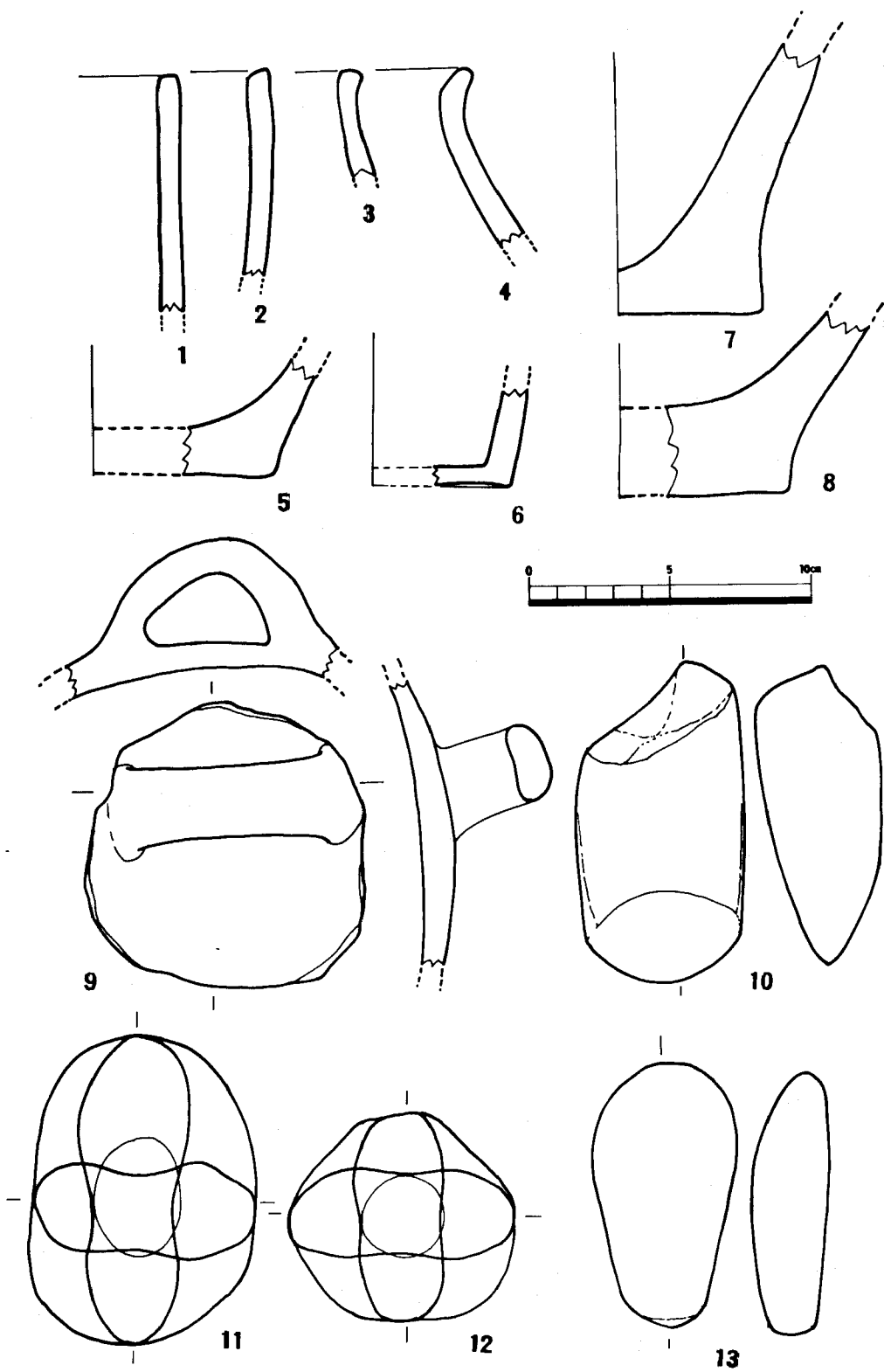
1) 유 적(지도14, 18 : 사진66)

이곳 역시 패총과 유물산포지 유적이 함께 있는바, 패총은 화순해수욕장 동편에 해안을 따라 길게 형성된 和順里 644-3, 638, 645번지의 사구층에 형성되어 있다. 대략 100m 길이이며 현재 이 지역에 어촌계 건물 등과 도로가 나 있어 유적의 대부분은 파손되어 있다.

유물산포지 또한 安德계곡에서 화순화력발전소로 이어지는 安德川, 서쪽 연변의 경작지와 인근 和順里부락 일대에 형성된 것으로 和順里 757-1, 771, 694번지가 집중산포지로 거의 대부분의 유적 범위에 民家가 들어서 있다. 민가의 초가가옥 담장 및 진흙벽에는 무문토기 파편이 상당량 섞여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원래 유적에 많은 유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지도18) 和順里 貝塚 및 유물산포지 위치(1/5,000)



(그림30) 和順里 貝塚 출토 유물

2) 유 물

이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시기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郭支貝塚 II지구 1,2층 출토유물과 거의 같다고 보여진다.

① (그림30-1~8 : 사진67 및 68-1~4)

철기시대 郭支式 無文土器 形式과 기본적으로 통하는 태토 두께, 소성도, 성분을 갖춘 것으로 그림 30-1,2은 직립구연이다. 직립구연의 무문토기 또한 광지 II지구 1,2층에 다량 출토된 바 있다. 두께 0.9cm내외, 바닥두께 0.7~3.1cm

② (그림30-9 : 사진68-5)

오늘날 물동이 손잡이와 같은 형태로 郭支유적에서는 출토된 바가 없다. 손잡이 가로길이 8.7cm, 폭 2.5cm, 두께 1.2cm

③ (그림30-10 : 사진68-6)

횡단면 타원형의 조갯날석기로 머리부분은 파손되었다. 날 전면은 마연하였으나 날 자체는 둔탁하다. 현재길이 11cm, 폭 6cm, 두께 4.3cm

④ (그림30-11,12,13 : 사진68-7,8,9)

음식물을 잘게 찢거나 뺨는 공이와 그와 짝을 이루는 홈돌로서, 공이는 한쪽끝을 타격면으로 이용하고, 홈돌은 둥글납작한 자갈돌의 앞뒤면 한가운데를 움푹 파이게 하였다. 홈돌크기 11×7.8×4cm, 7.5×8×3.2cm, 공이 길이 2.4cm

4. 加波島 貝塚

1) 유 적(지도19 : 사진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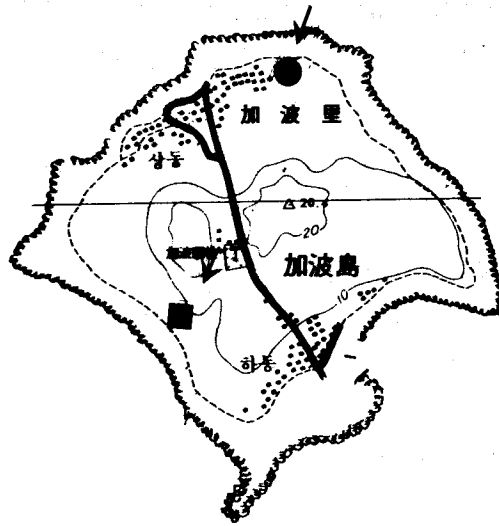
大靜邑 모슬포항에서 행정왕복선으로 30분, 직선거리 5.5km 떨어져 있는 加波島는 작은섬 마라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으로 섬전체가 접시모양처럼 완만한 평탄면을 이루고, 토양의 풍화도가 높아, 농사에 유리한 지질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 부속도서중 用水조건이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섬 주변의 해역에는 풍부한 어로자원이 있어 일찍부터 촌락이 형성되기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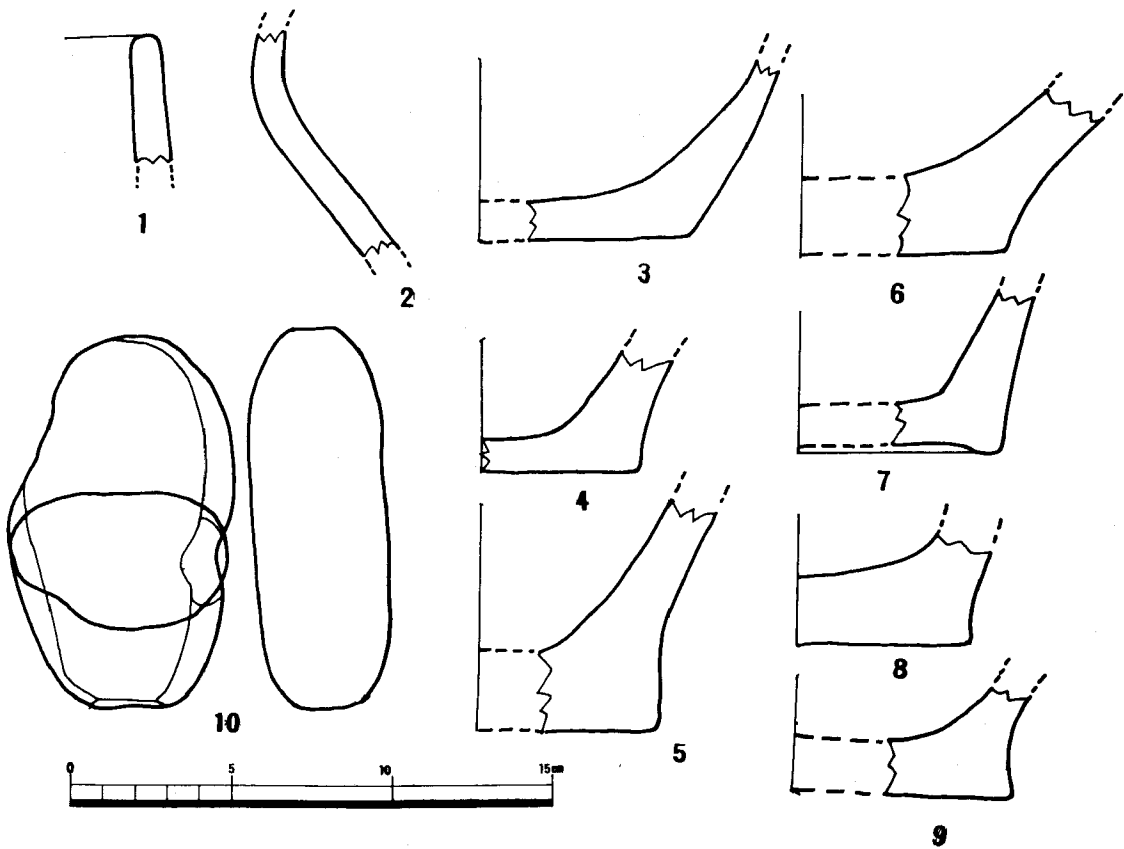
섬의 면적은 0.84km²로서 현재 850여명의 인구가 북쪽의 윗마을과 남쪽의 아래 마을로 나뉘어 살고 있는데 윗마을이 보다 일찍기 設村되었다.

금번 地表調査에서 이 섬에 貝塚를 비롯한 수십기의 고인돌群과 선돌이 확인됨으로 해서 先史時代부터 큰 촌락이 형성되었음이 입증되었는 바, 패총은 윗마을인 上洞의 서북쪽에 고인돌群은 아랫마을 下洞부락에 위치하고 있다.

패총이 위치한 곳은 바로 제주도 본섬의 大靜·和順지역과 마주 바라보는 곳에 있는데, 원래



(지도19) 加波島 貝塚 및 고인돌群 위치(1/25,000)



(그림31) 加波島 貝塚 출토 유물

길이 70m, 폭 30m정도의 크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거의 파괴된 상태이다. 이곳은 한동안 경작지로 이용되었다가 지금은 단순히 草地로 이용될 뿐이다.

2) 유 물

유적의 훼손이 심하여 유물의 출토량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습되는 토기유물파편의 크기도 작은 편이다.

① (그림31-1~9 : 사진70 및 71-1~4)

대체로 철기시대 郭支式 무문토기에도 태토가 거칠면서 두터우며 硬度가 높은 적갈색 무문 토기이다. 그릇두께 1.1cm, 바닥두께 1.2~2.6cm

2 (그림31-10 : 사진71-5)

타원형의 납작한 자갈돌의 양측면에 홈을 내고 아래 끝부분을 타격면으로 한 공이모양 석기이다. 길이 11.7cm, 폭 6.8cm, 두께 8.1cm

5. 龍潭洞 유물산포지(지도20 : 사진72)

濟州市는 屏門川, 漢川, 山地川의 여러 하천이 흐르고 완만한 대지를 이루어 취락이 형성되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특히 屏門川, 漢川가를 중심으로 선사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이 당연하고, 1959년 이 일대고인돌群 조사와 수차례의 濟州大學校博物館의 지표조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주택들이 뻗뻗히 들어서고 도로가 新設되거나 또는 공항 부지 확장되는 등의 여러 이유로 그 유적의 대부분은 멸실되고 없으며, 다만 아직까지 경작지로 남아 있는 龍潭洞 일대에서만 그 유적의 흔적을 알아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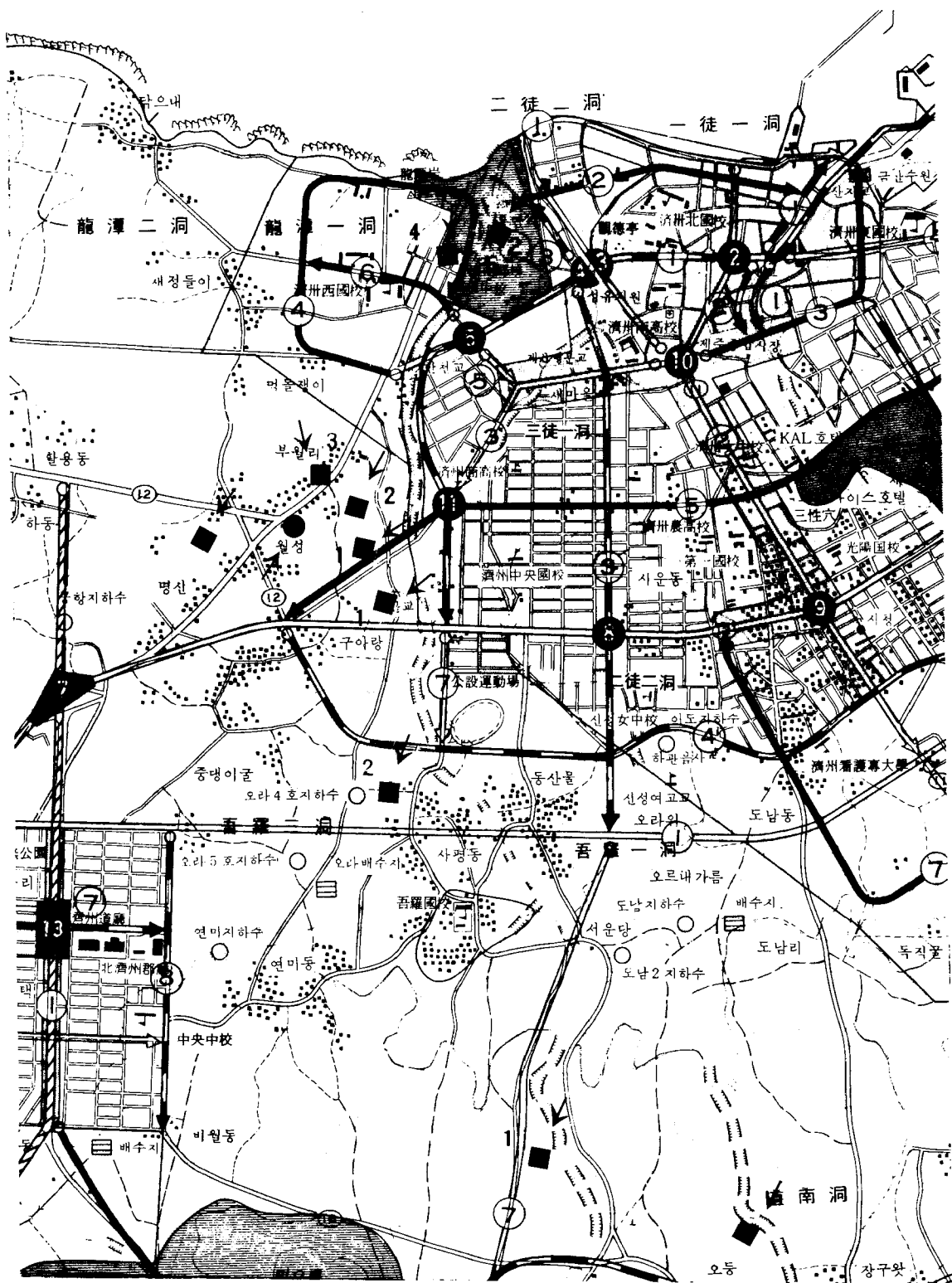
제주공항 연변의 大路 남쪽 2622-1, 2623-1번지 지역이 그러한 곳이며, 후에 소개할 제주대학교 박물관 수집의 토기유물이 이곳에서 채집된 것이다.

또한 이 일대는 고인돌群과 함께 1984년 발굴조사된 甕棺유적이 자리잡고 있어, 원래는 제주도 최대의 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시기는 대체로 철기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임이 지표채집된 토기유물로 보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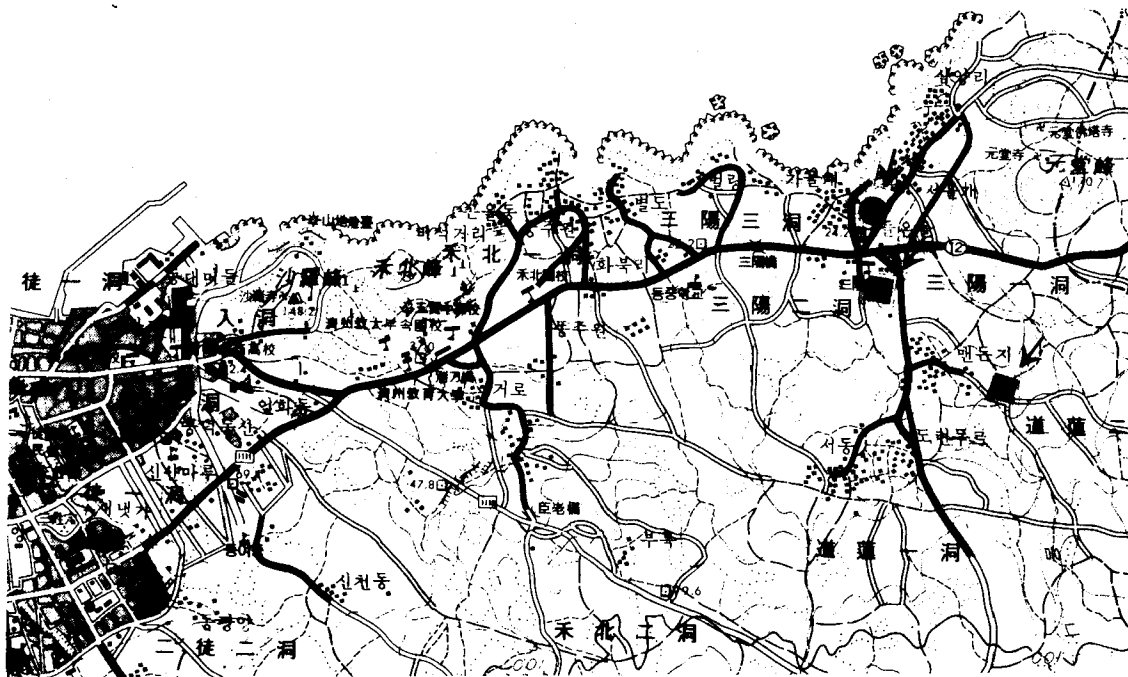
6. 三陽洞 遺物散布地

1) 유 적(지도21,31 : 사진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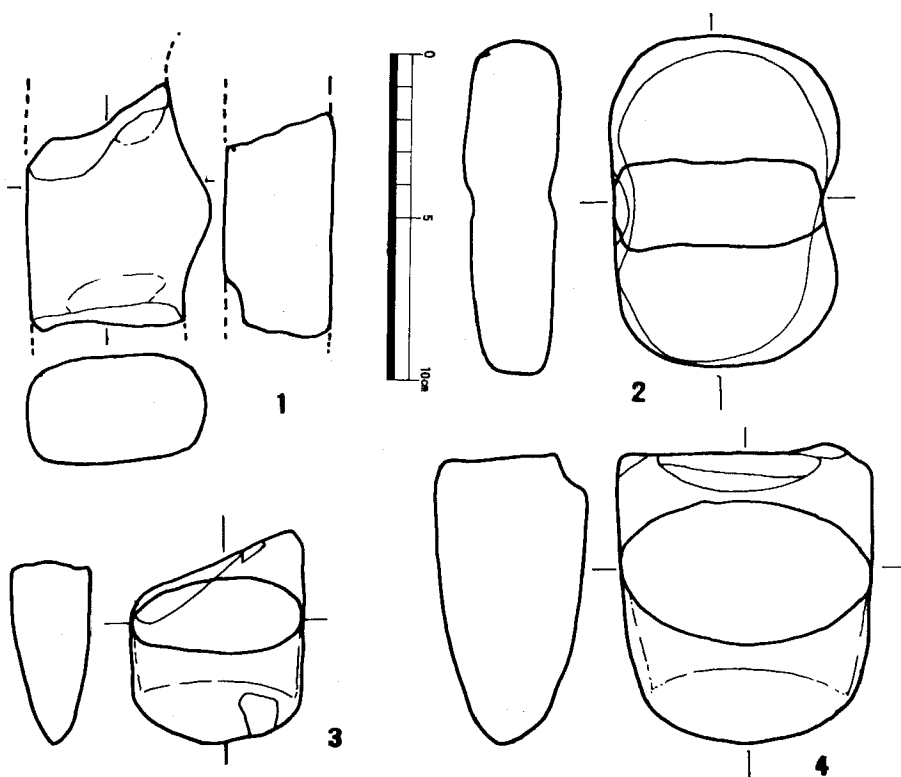
濟州市 三陽洞 마을 동편, 일주도로 북편의 1559-1, 2148-1, 2144-2번지 너른 경작지 일대에 분포한다.



(지도20) 龍潭洞·吾羅洞·道南洞 고인돌 및 龍潭洞 웅관묘 유물산포지 위치(1/25,000)



(지도21) 三陽洞 유물산포지·고인돌 및 道蓮洞 고인돌 위치(1/25,000)



(그림32) 三陽洞 유물산포지 출토 석기

이곳은 해안에서의 거리 200m내외로 동남방향으로 700m 떨어진 곳에 고인돌群이 형성되어 있다.

인근 동편에 乾川이 흐르는 해발 20~25m의 평탄지대로서 입지조건상 원래 큰 유적지가 들어섰을 것이나, 마을이 들어서고 경작지가 조성되면서 크게 훼손되었으리라 생각된다.

2) 유 물

유적지 자체가 이미 심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출토유물의 양은 그리 많지 않으며 토기는 전부 小片 뿐으로 전체 器形을 알아 볼 수 있는 파편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태토의 성분, 두께, 硬度로 보아 철기시대 郭支式 무문토기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수집된 石器 일부를 소개하면,

① (그림32-1 : 사진74-3)

有溝石斧 혹은 홈자귀의 몸통부분으로 위·아래부분은 잘려 나갔다.

현재길이 7.5cm, 폭 5.5cm, 두께 3.5cm

② (그림32-2 : 사진74-2)

등글 납작한 돌의 양쪽 가운데에 홈을 내어 끈을 묶기 용이하게 한 석기이다. 길이 10.2cm, 폭 7cm, 두께 3cm

③ (그림32-3 : 사진74-4)

조갯날의 소형 도끼로서 머리부분은 파손되었다. 몸통이 납작하여 대팻날에 가까운 扁平石斧이다. 현재길이 7cm, 폭 5.4cm, 두께 2.5cm

④ (그림32-4 : 사진74-1)

역시 머리부분이 잘려나간 조갯날도끼로 날부분이 무디어졌다. 횡단면은 장타원형을 이룬다. 현재길이 9.7cm, 폭 7.8cm, 두께 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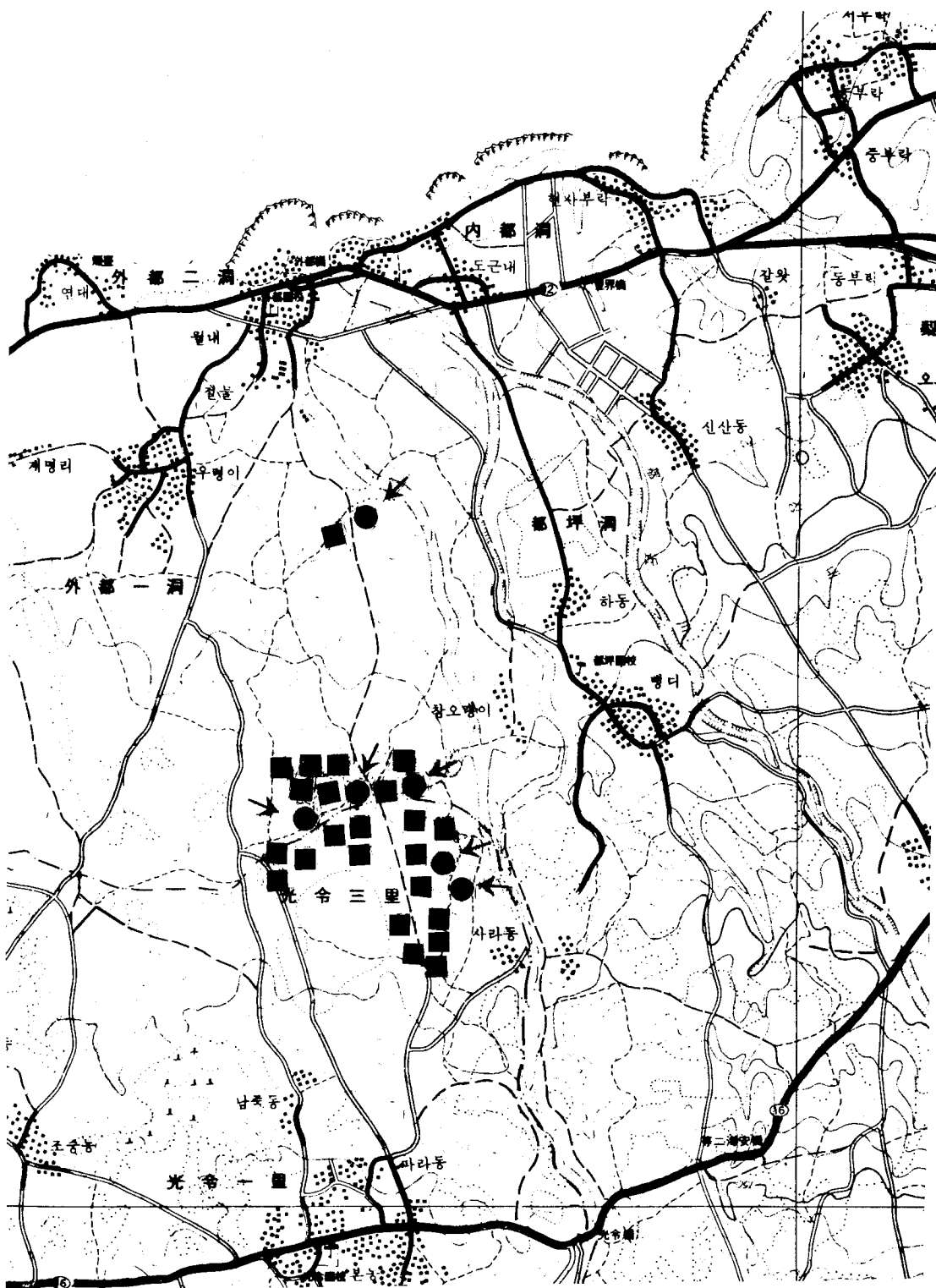
7. 外都洞 및 光令里 遺物散布地

1) 유 적(지도22,32,33 : 사진75~79)

제주시 서쪽 외곽지대의 外都川邊에 자리잡고 있는 遺物散布地 유적은 하천을 따라 그 서쪽 연변에 직경거리 2km 정도의 범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濟州市 外都洞과 涯月邑 光令里에 걸쳐 있는데 유적범위에는 20여기의 고인돌群이 포함되어 있어 郭支里, 濟州市 龍潭洞 유적과 함께 규모상으로 濟州島 三大 遺跡에 속하는 유적이다.

外都川은 해발 1,169m의 한라산 어승생오름에서 기원하는 永久流水川으로 제주도에서는 드문 水量이 많은 하천이다. 이 외도천변을 따라 해발 90m에 이르는 高地帶에 까지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유적부근에는 이 밖에 여러 곳에 샘이 형성되어 있어 물이 귀한 제주도에서는 用水條件이



(지도22) 外都洞·光令里 유물산포지·고인돌 위치(1/25,000)

더 없이 좋은 곳이다.

同 光令里 유적지는 제주도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내륙으로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어 해안 어로활동에 불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큰 규모의 유물산포지와 고인돌群 유적을 갖고있는 것은 우선 앞서의 좋은 用水조건과 함께 한편으로 이 지역의 토양층이 깊고 풍화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그 때문에 현재도 이 지역이 高地帶인데도 불구하고 島内に 몇군데 밖에 형성않된 벼농사 지역을 이루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농경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었는 바, 그러한 조건 때문에 유적의 분포범위에서 보여주듯 일찍부터 이곳에 큰 취락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郭支里와 濟州市 유적과 달리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어로활동의 불리 및 對外 海上 交流등에 불리한 이유로 三國時代에 들어서서는 더 이상 촌락이 발전되지 못했음이 이 일대의 지표채집 유물의 소속시기를 미루어 보아 할 수 있다.

유적의 대부분이 경작지로 조성되어 심하게 교란되어 있는데, 그중 집중 유물산포지는 外都洞 110, 111번지 일대(사진75, 76)와 남쪽으로 光令里 1841번지, 북쪽으로 外都洞 38-2번지, 동쪽으로 光令里 1570번지, 서쪽으로 光令里 1678번지를 경계로 하는 지역이 되겠다.

2) 유 물

출토유물의 대부분은 적갈색무문토기편으로 金海式土器片도 적은 양이나 공반한다. 무문토기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철기시대 郭支式 무문토기와 통하며 이밖에 石器유물도 상당량 출토되었다.

석기의 형식을 살펴보면 이 시기 제주도 전역에서 유형을 거의 전부 망라하고 있으며, 다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어서인지 어로도구는 거의 보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는 출토토기의 설명을 생략하고 석기에 대해서 그 유형별로 정리, 설명하고자 한다.

(1) 도 끼(石斧)

① (그림33-1 : 사진81-1)

날부분을 양쪽에서 갈아 세운 조갯날 도끼로 머리부분을 떼기수법으로 다듬고 몸 한가운데를 약간 턱지게 하여 도끼 자루를 묶기 편하게 하였다. 길이 9.3cm, 폭 7.8cm, 두께 3.2cm, 조면암製

② (그림33-2 : 사진81-2)

큰 박편을 이용한 것으로 갈지 않고 타제수법에 의해서만 成形한 것이다. 길이 10.2cm, 폭 6.1cm, 두께 3cm, 석영반암製

(2) 자귀 및 네모도끼(柱狀石斧)

① (그림33-4 : 사진81-4)

머리끝을 둥그스름하게 다듬어 만들고 일반적인 通例와 달리 자루홈이 없는 형식이다. 길이 11.5cm, 두께 3.8cm, 폭 6cm, 안산암질 조면암製



(그림33) 光令里 유물산포지 출토 석기(1)

② (그림33-3 : 사진81-3)

배부분에 자루를 묶기 위한 홈이 얇게 나있는 홈자귀(有溝石斧)이다. 횡단면이 삼각형에 가까운 반타원형이다. 길이 11.5cm, 폭 4.9cm, 두께 3.8cm, 조면암제

③ (그림33-5 : 사진81-5)

머리부분이 깨져 없어졌으며 자루홈 역시 평평한 배부분에 나 있다. 횡단면은 긴 네모꼴에 가까운 반타원형이다. 현재길이 10.5cm, 폭 4.8cm, 두께 3.3cm, 조면암제

④ (그림33-6 : 사진81-6)

횡단면이 등쪽으로 곡선을 이룬 네모꼴로서 가파른 외날을 갖고 있다. 현재 중간이상 머리부분이 없어졌다. 현재길이 6.3cm, 폭 3.7cm, 두께 3.8cm 응회암제

(3) 대 패(石鑿)

① (그림33-7 : 사진81-9)

응회암 박편을 이용한 외날의 편평석부로 정연한 장방형을 이룬다. 길이 7.8cm, 폭 4cm, 두께 1.8cm

② (그림33-8,9 : 사진81-7,8)

앞서 응회암보다 硬質인 점판암질 편암, 석영반암의 박편을 이용한 것으로 평면은 사다리꼴이나 떼어낸 면을 그대로 남겨 정연하지 못한 대패이다. 길이 5.5, 6.9cm, 두께 0.8, 1.3cm, 폭 3.9, 4.1cm

(4) 공이도끼(敲打石斧)

① (그림34-1 : 사진82-2)

기본적으로 돌도끼 형태이나 날부분을 떼내기 수법으로 거칠게 다듬은 것으로 찌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중간 이상의 머리부분은 파손되었다. 현재길이 7.7cm, 폭 7cm, 두께 4.8cm, 안산암제

② (그림34-2 : 사진82-3)

몸통은 전부 쪼아내기 수법으로 成形한 다음 일정한 폭의 타격면을 곱게 마연한 것이다. 현재길이 6.1cm, 폭 4.8cm, 두께 3.5cm, 염기성맥암제

③ (그림34-5 : 사진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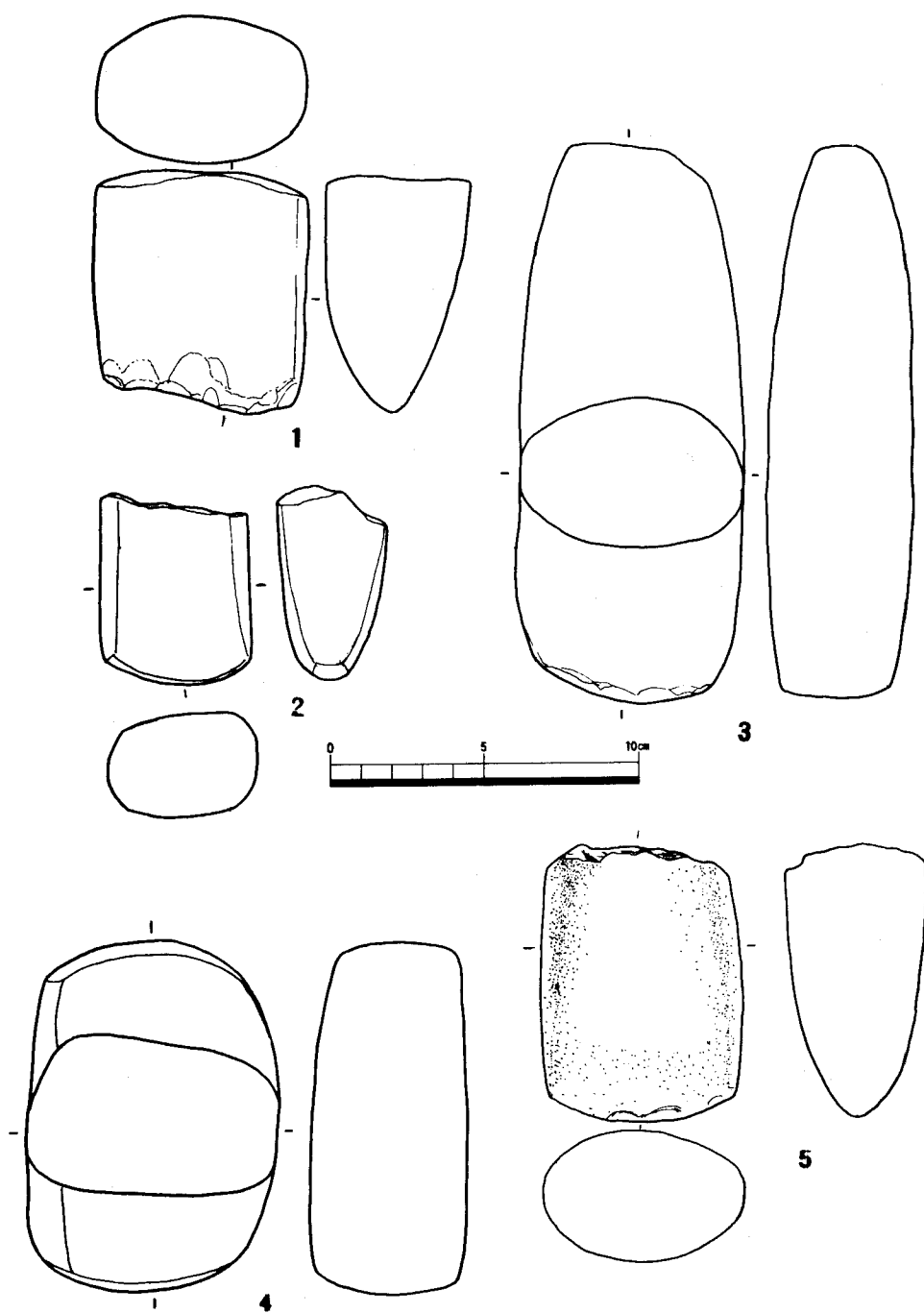
날부분을 떼기수법으로 대체적인 모양을 만든 다음 마연한 것으로 몸통은 잔다듬 쪼으기로 成形하였다. 현재길이 8.8cm, 폭 6.6cm, 두께 4.4cm

(5) 기 타

① (그림34-3 : 사진82-4)

횡단면이 타원형인 긴자루 모양의 망치로 타격면이 상당히 넓다. 길이 17.6cm, 폭 7.3cm, 두께 4.6cm, 조면암제

② (그림34-4 : 사진82-5)



(그림34) 光令里 유물산포지 출토 석기(2)

두툼한 자갈돌의 넓은 위 아랫면을 타격면으로 이용한 製粉用 몽돌이다. 길이 9.7cm, 폭 9.3cm, 두께 6.5cm, 안산암製

③ (그림35-1 : 사진82-7)

납작한 박편으로 반 자른 半月形石刀 모양으로 날부분을 엇갈림떼기하여 다듬은 打製石刀이다. 길이 10.4cm, 폭 7.3cm, 두께 1.4cm, 점판암製

④ (그림35-2 : 사진82-6)

둥글납작한 작은 자갈돌의 양측면 한가운데를 움푹 패낸 것으로 그물추모양이나 확실한 용도는 未詳이다. 길이 9.1cm, 폭 7.6cm, 두께 2.9cm, 조면암製

⑤ (그림35-3)

長卵形에 가까운 모양으로 화돌에 열매, 곡물 등을 넣고 빻는 공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다. 길이 12cm, 폭 6.2cm, 두께 6.1cm, 현무암製

⑥ (그림36-1,2 : 사진80)

현무암제 갈돌과 갈판으로 셋트를 이루어 출토되었다. 갈돌은 횡단면이 반원형이고, 갈판은 갈린 면이 평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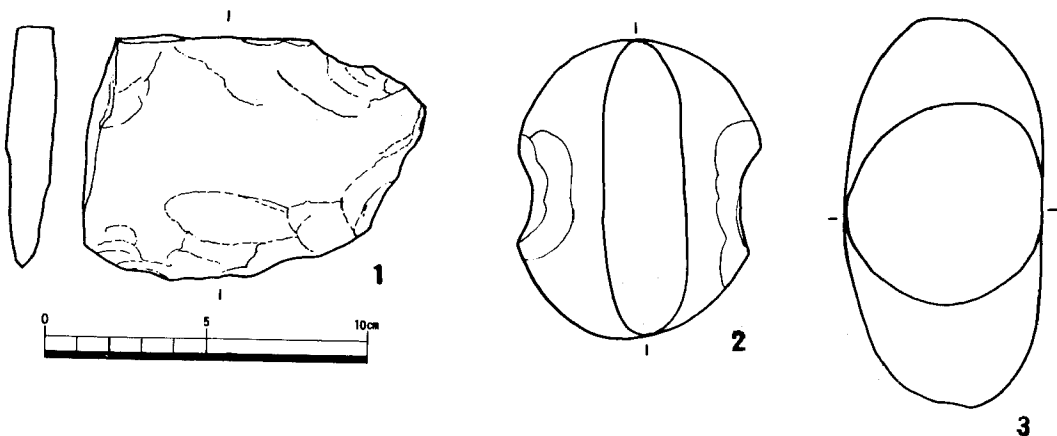
갈돌 현재길이 9.7cm, 현재폭 8.6cm, 두께 7cm

갈판 현재길이 25.5cm, 폭 15cm, 두께 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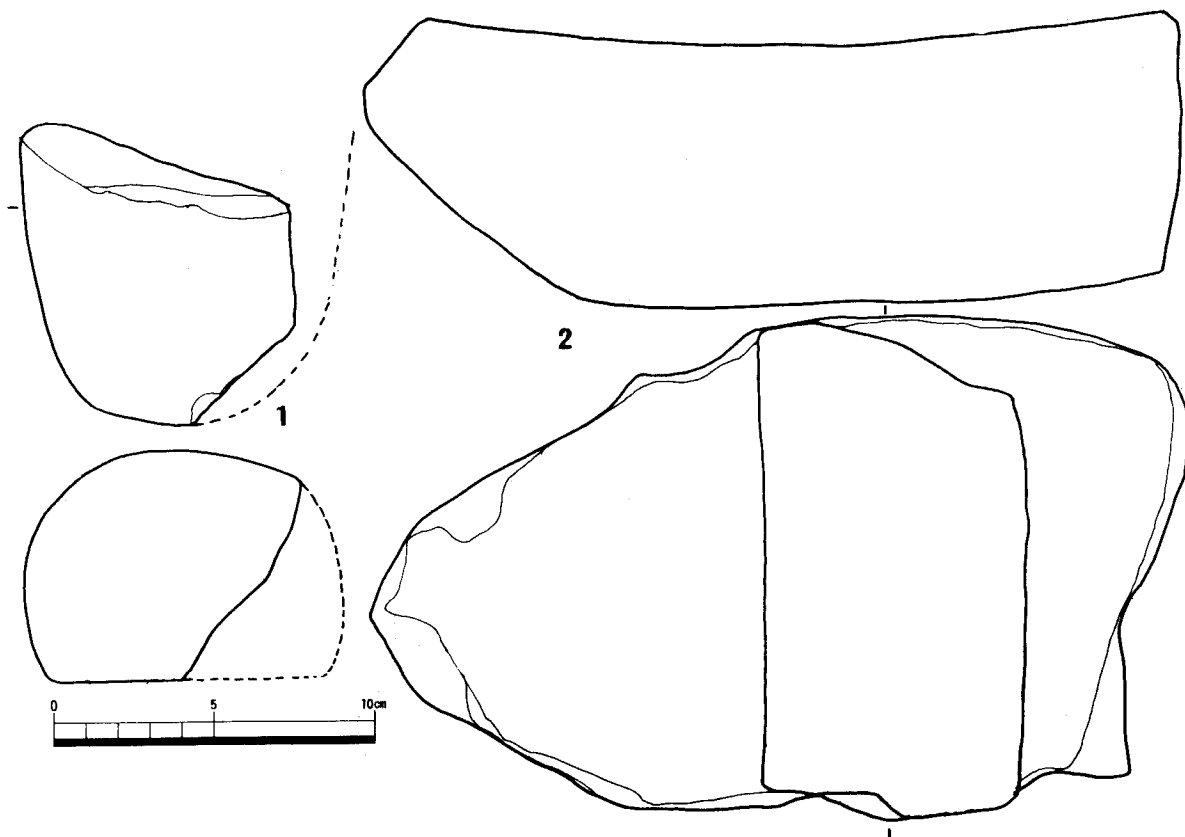
8. 高内里 遺物散布地

1) 유 적(지도23,38 : 사진83,84)

유적은 涯月邑 高内里 1041, 1042번지에 있는데 일주도로 좌우 연변의 경작지로서 高内里



(그림35) 光令里 유물산포지 출토 석기(3)



(그림36) 光令里 유물산포지 출토 갈판 및 갈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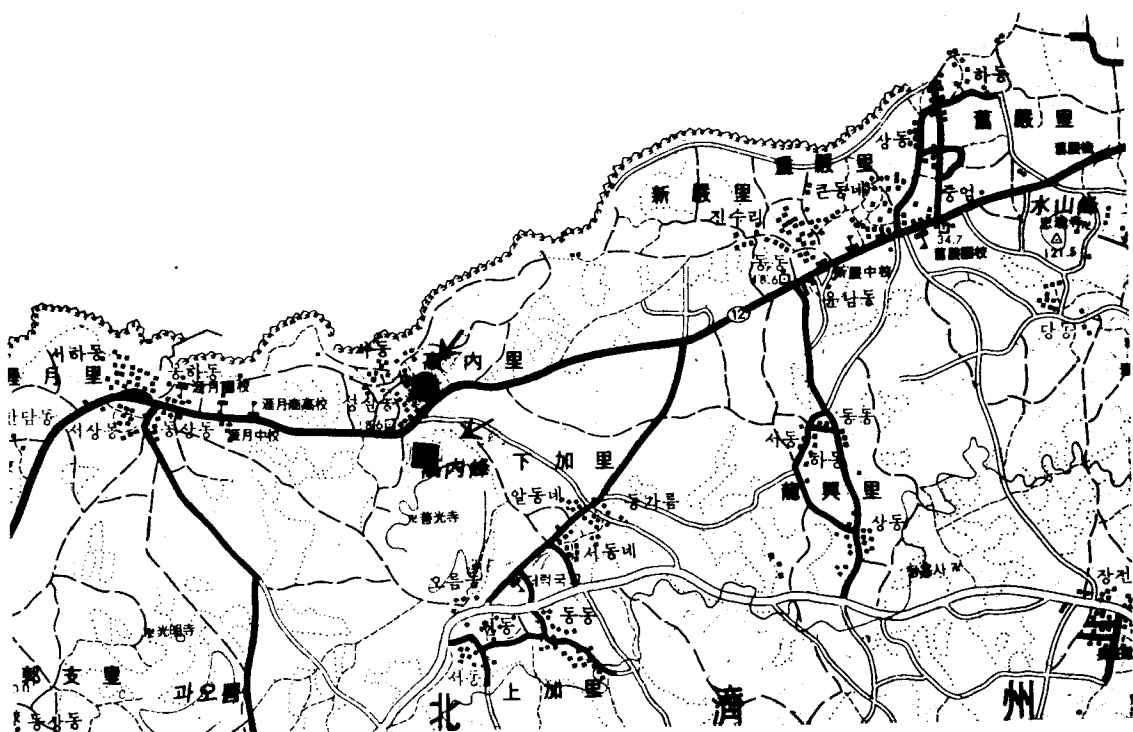
마을에서 동쪽으로 100m 벗어난 지점이다. 속칭 '절왓'이라 하여 절터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며 바로 남쪽으로는 해발 200m의 高内峰이 있고 서쪽 옆으로 작은규모의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유적의 범위는 남북길이 200m, 동서 길이 100m 정도에 이른다.

2) 유 물

유적이 전부가 경작지로 조성되어 출토유물의 대부분은 심하게 파손된 土器片과 石器유물로 대체로 郭支 貝塚 출토 유물과 비슷한 내용이다. 특히 토기에는 철기시대 Cup 모양의 무문土器와 三國時代末의 陶質土器 형식 등이 혼재해 있다.

(1) 토기 및 토제품

① (그림37-1,2 : 사진85-1,2)



이 土器 口緣部는 郭支貝塚 III, IV지구 출토 赤褐色 硬質土器 深鉢形에 속하는 것이다. 두께 0.8cm, 1.2cm

郭支貝塚 II지구 1,2층에서 출토하는 원뿔모양의 바닥형태를 가진 철기시대 Cup형 무문토기이다. 바닥두께 4.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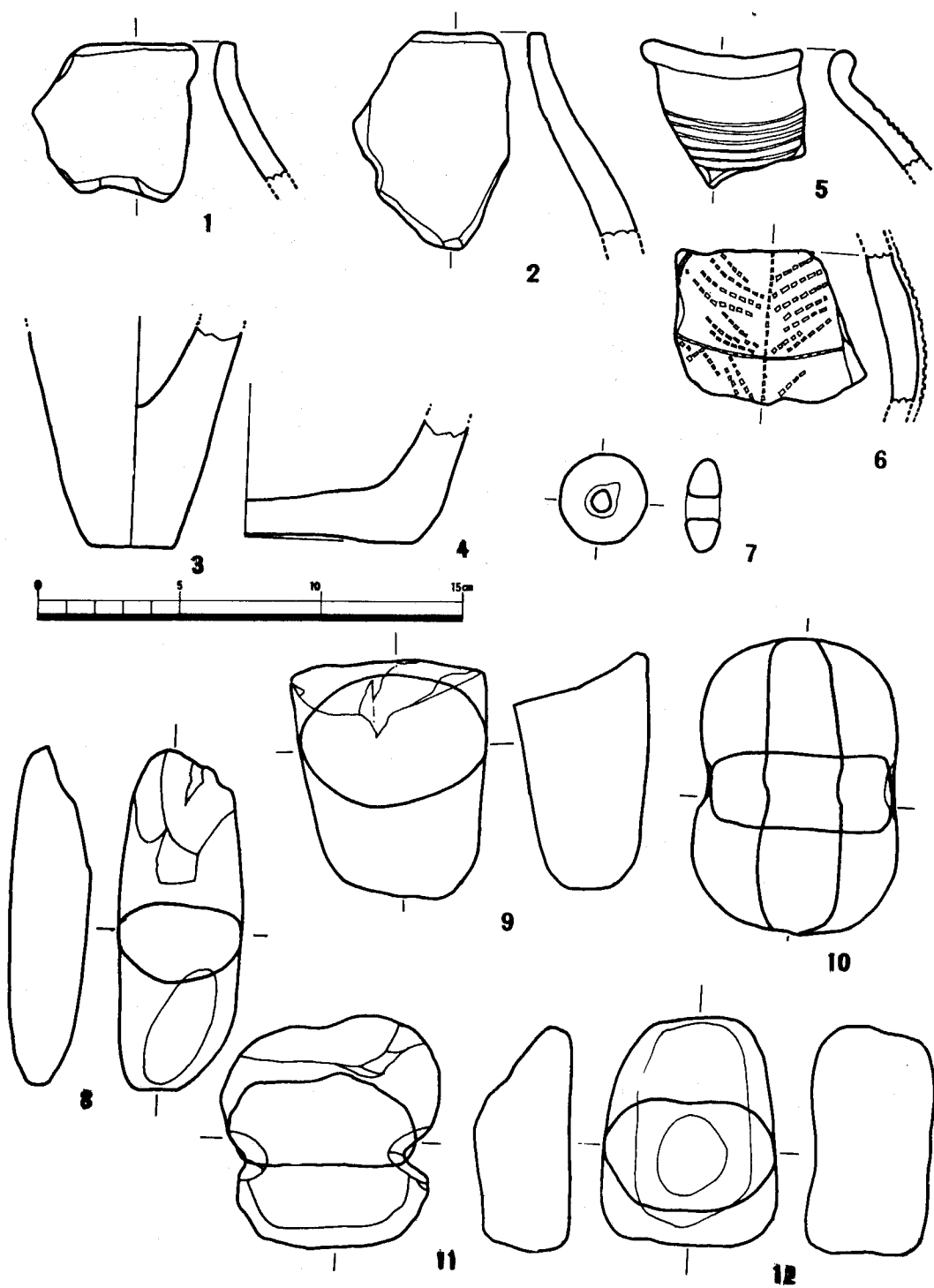
대체로 ①항의 적갈색 경질 심발형토기에 속하는 바닥편으로 추정된다. 바닥두께 1.3cm

三國時代末 이후에 나타나는 陶質土器 형식으로 추정되는 토기편이다. 두께 0.8~1cm

비교적 작은 주산알 모양의 土製 紡錘車로 직경 3.1cm, 두께 1.3cm이다.

① (그림37-8 : 사진85-10)

날부분만 떼기 수법으로 다듬은 돌도끼이다. 길이 11.8cm, 폭 4.8cm, 두께 2.6cm



(그림37) 高内里 유물산포지 출토 유물

② (그림37-9 : 사진85-8)

도끼모양의 공이(敲石)로 머리부분은 잘려 나갔다. 현재길이 8.2cm, 폭 7cm, 두께 4.5cm

③ (그림37-10,11 : 사진85-9)

납작한 돌의 양측면을 깨내어 홈을 낸 것으로 어망추 등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다. 길이 10.2, 8.3cm, 폭 7.3, 8cm, 두께 2.7, 3.5cm

④ (그림37-12)

가운데가 동그랗게 홈파인 홈돌로 종단면이 대체로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길이 8.1cm, 폭 6cm, 두께 4.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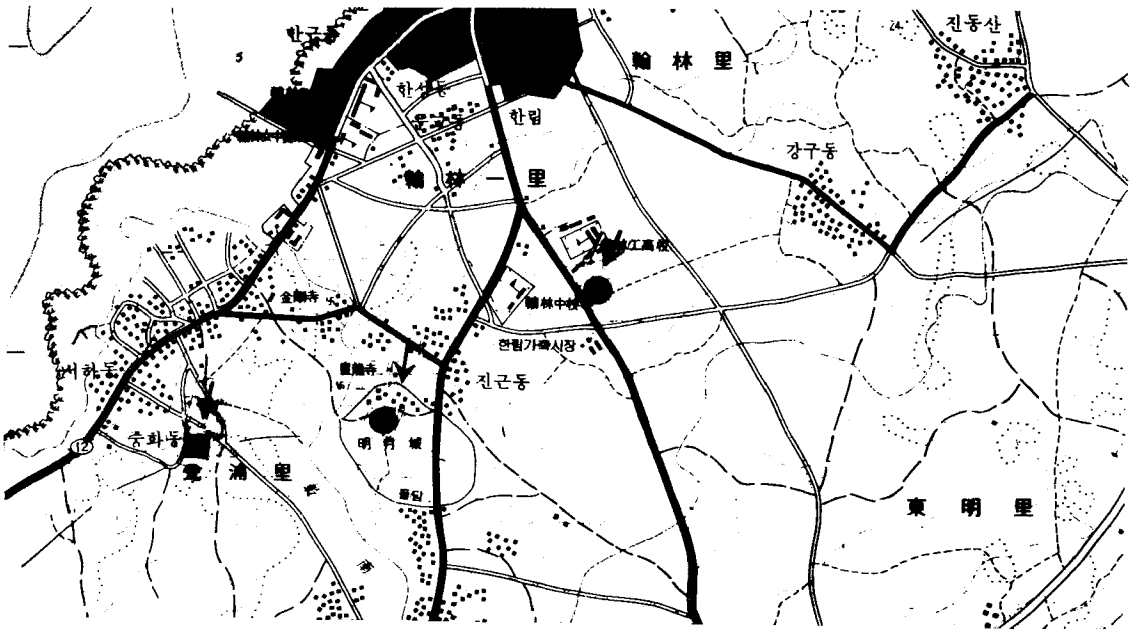
9. 東明里 遺物 散布地

1) 유 적(지도24,25 : 사진8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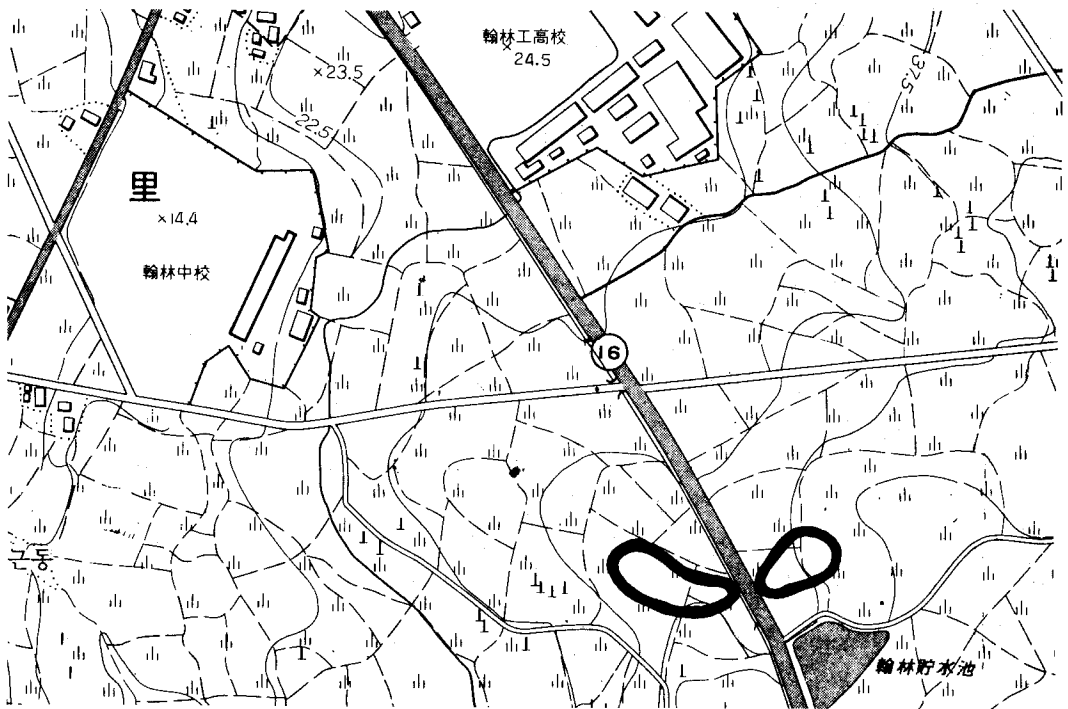
翰林읍에서 금악으로 가는 중산간 포장도로를 1km쯤 올라가다가 나오는 한국전력 변전소서북편의 東明里 1537번지 경작지일대로서, 그 범위는 직경 200m 내외에 이른다.

이곳은 해안에서 1.2km, 해발 40m의 구릉지대로서 비교적 내륙으로 깊숙히 들어간 유적이 되겠다.

역시 경작지 조성으로 유적은 심하게 파손되었고, 출토되는 유물로는 무문토기편과 石器유물 소량이 있을 뿐이다.



(지도24) 東明里·明月里 유물산포지 및 甕浦里 고인돌 위치(1/25,000)



(지도25) 東明里 유물산포지 위치(1/5,000)

2) 유 물

이 유적에서 출토하는 무문토기는 변형된 골아가리토기로 대표되며, 따라서 청동기시대말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다.

(1) 토기 및 토제품

1 (그림38-1~7 : 사진88-1~3,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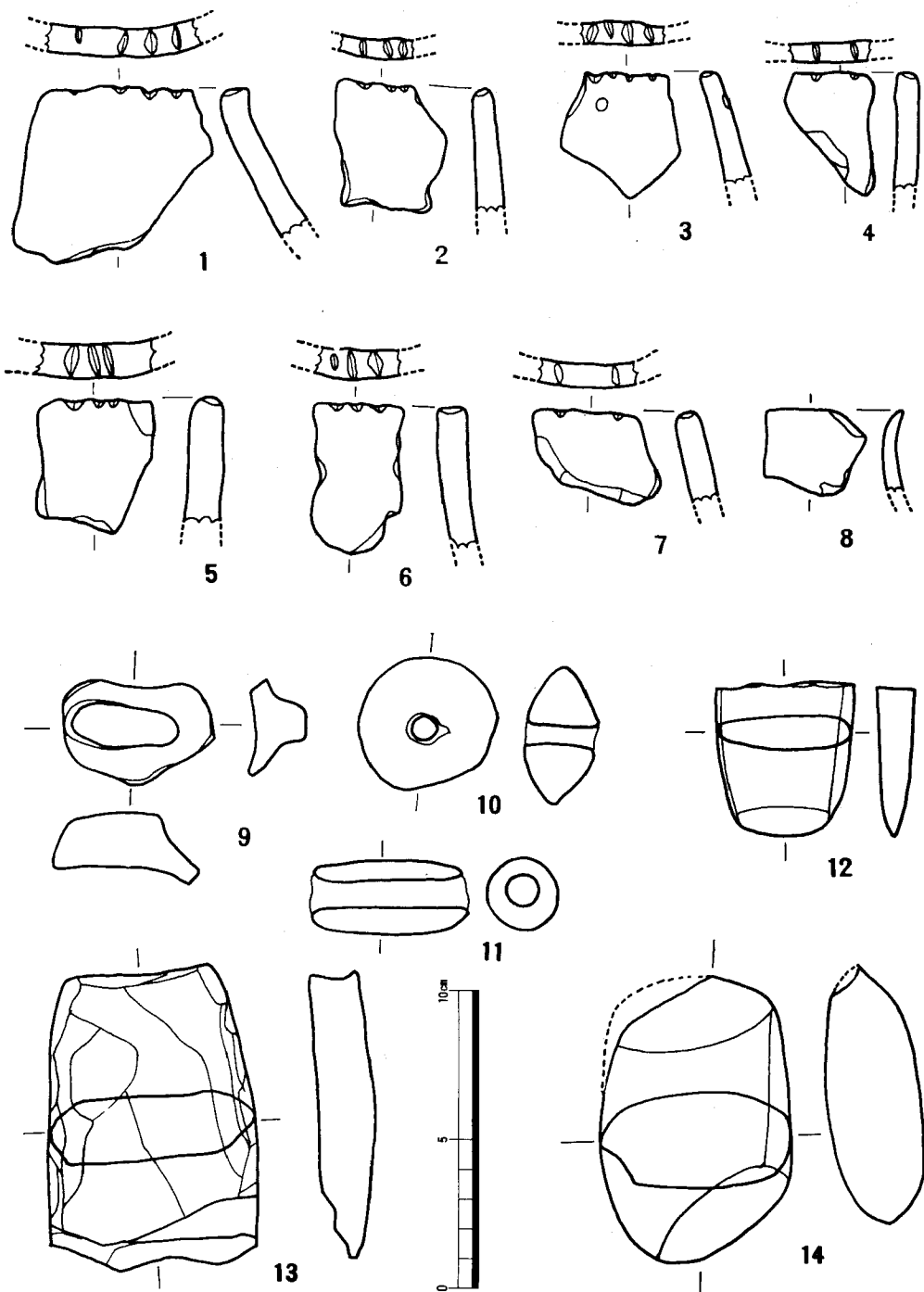
적갈색 무문토기로 태토가 거친편이며 대체로 직립구연에 가깝다. 입술면에는 한결같이 톱날장식이 가해진 골아가리토기로 上摹里 출토 같은 형식의 토기와 다른 것은 톱날장식이 보다 정연치 못하고 두께가 다소 두터워진 점이다. 이 유적에 출토한 바닥편은 上摹里리 토기 보다는 郭支貝塚의 철기시대 무문토기와 가까우며, 따라서 두시기 중간의 과도기적 단계에 속하는 토기로 생각되나 보다 확실한 것은 금후의 과제이다. 두께 0.8~1cm

2 (그림38-8 : 사진88-4)

정선된 태토에 얇은 흑갈색 마연토기의 외반구연부片이다. 두께 0.6cm

3 (그림38-9 : 사진88-9)

거치른 적갈색 무문토기 태토의 손잡이 파편으로 가로로 된 짧은 꼭지가 달려 있다. 손잡이



(그림38) 東明里 유물산포지 출토 유물

가로길이 3.6cm, 폭 1.5cm

④ (그림38-10 : 사진88-10)

토제 방추자로서 주판알 모양이며 직경 4.5cm, 두께 2.4cm이다.

⑤ (그림38-11)

원통형모양의 어망추로서 길이 5.3cm, 직경 2.4cm이다.

(2) 석 기

① (그림38-12 : 사진88-11)

대패날 모양의 석기로 납작한 박편을 비교적 정교하게 마연하여 만들었다. 현재길이 5cm, 폭 4.7cm, 두께 1.3cm

② (그림38-13 : 사진88-12)

큰 剝片을 이용한 타제석부로 날부분이 외날의 대체적인 모양을 갖고 있으나 거칠다. 길이 10cm, 폭 7cm, 두께 2.1cm

③ (그림38-14 : 사진88-13)

머리 및 날의 일부가 마제석부로 횡단면이 장타원형이다. 길이 9.5cm, 두께 3.2cm, 폭 6.5cm

10. 明月里 遺物散布地

1) 유 적(지도24, 39 : 사진89, 90)

翰林邑 明月里 2199번지 일대로 明月鎭城 南門에서 동쪽으로 城壁만 쪽을 따라 나있는 비포장도로를 200여미터 가면 왼쪽 연변에 있다.

유적의 훼손도가 심하여 토기편과 석기유물 수점만 출토될 뿐이다.

대체로 해안에서의 거리 1km, 해발 25m의 완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적옆에 풍부한 水量의 甕浦川과 湧泉水가 있다.

2) 유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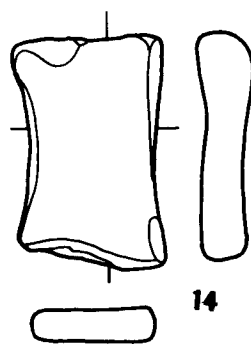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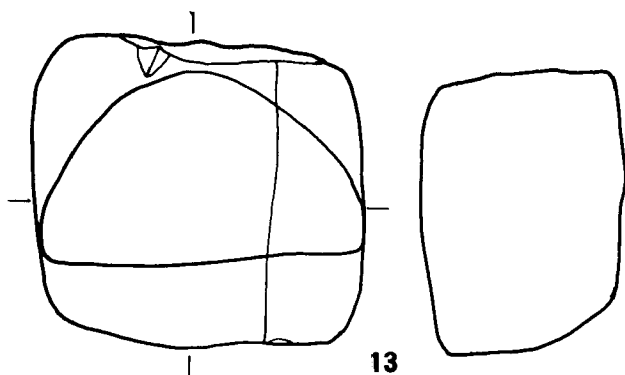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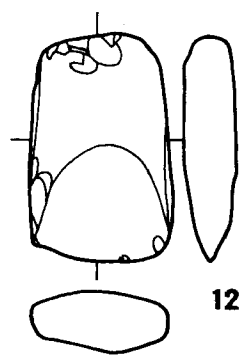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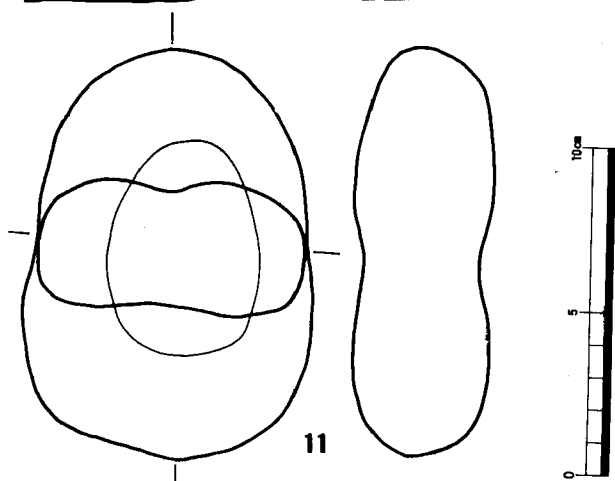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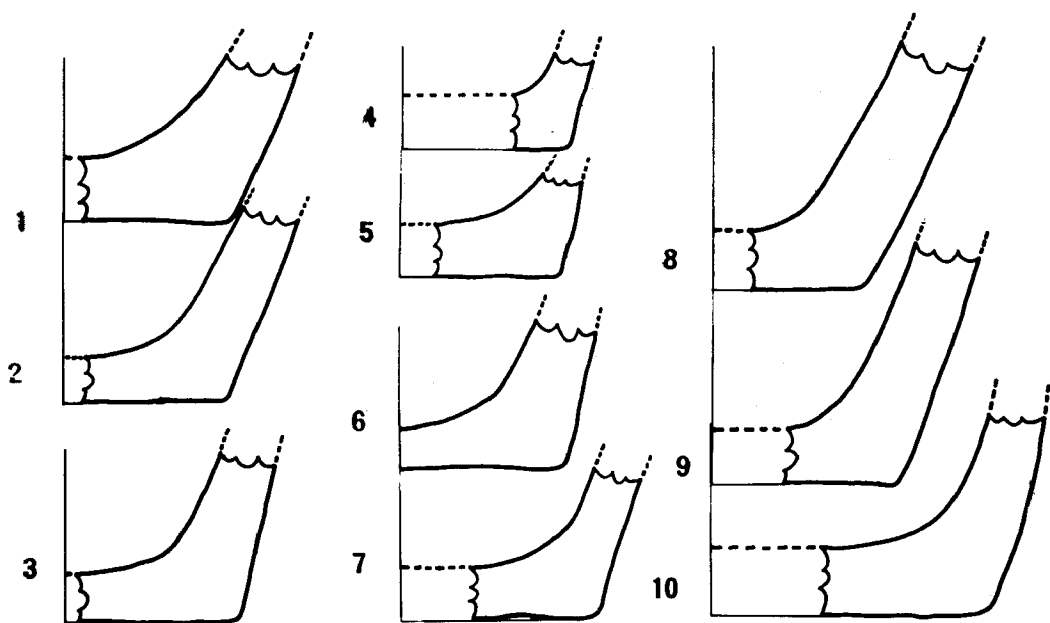
(1) 토 기 (그림39-1~39-1~10 : 사진91-1~10)

이곳에 수습되는 무문토기로 그 바닥편을 보면 동체로 올라가는 바깥부위에 축약현상이 없는 平底 바닥편 뿐이다. 바닥두께 1.2~2m

(2) 석 기

① (그림39-11)

등글납작한 자갈돌의 앞뒤면 한가운데를 움푹 패이게 한 홈돌이다. 길이 12.5cm, 폭 8.9cm, 두께 3.8cm



(그림39) 明月里 유물산포지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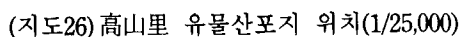
양날에 가까운 외날의 작은 편평석부로 거의 대팻날모양이다. 길이 7cm, 폭 4.5cm, 두께 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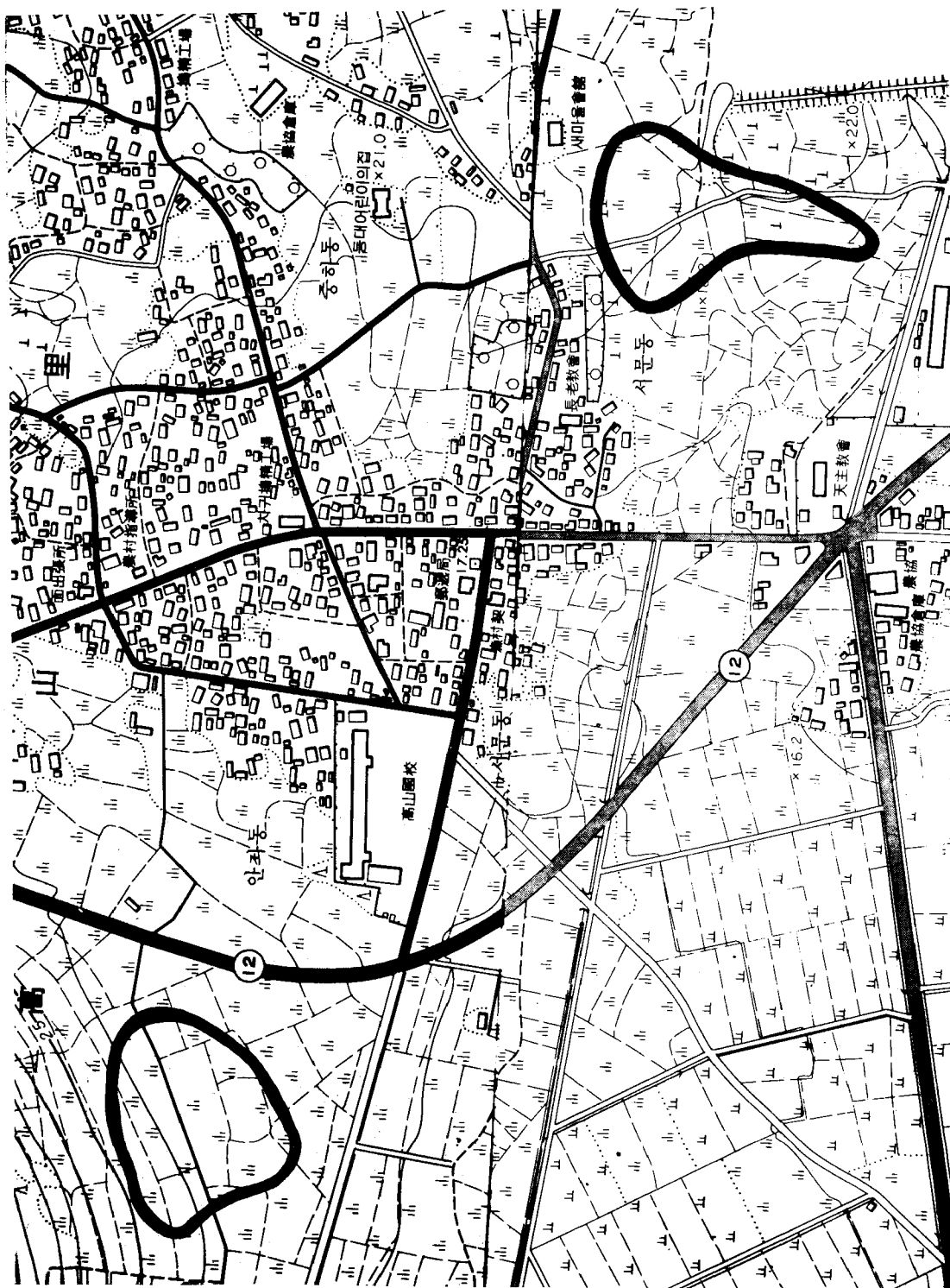
砂岩製 솥돌로 납작 평평한 앞뒤면과 좁은 옆면을 모두 이용하였다. 길이 7.3cm, 폭 4.3cm, 두께 2cm

현무암제 갈돌파편으로 횡단면이 반원형이 가깝다. 현재길이 10.3cm, 폭 9.7cm, 두께 6.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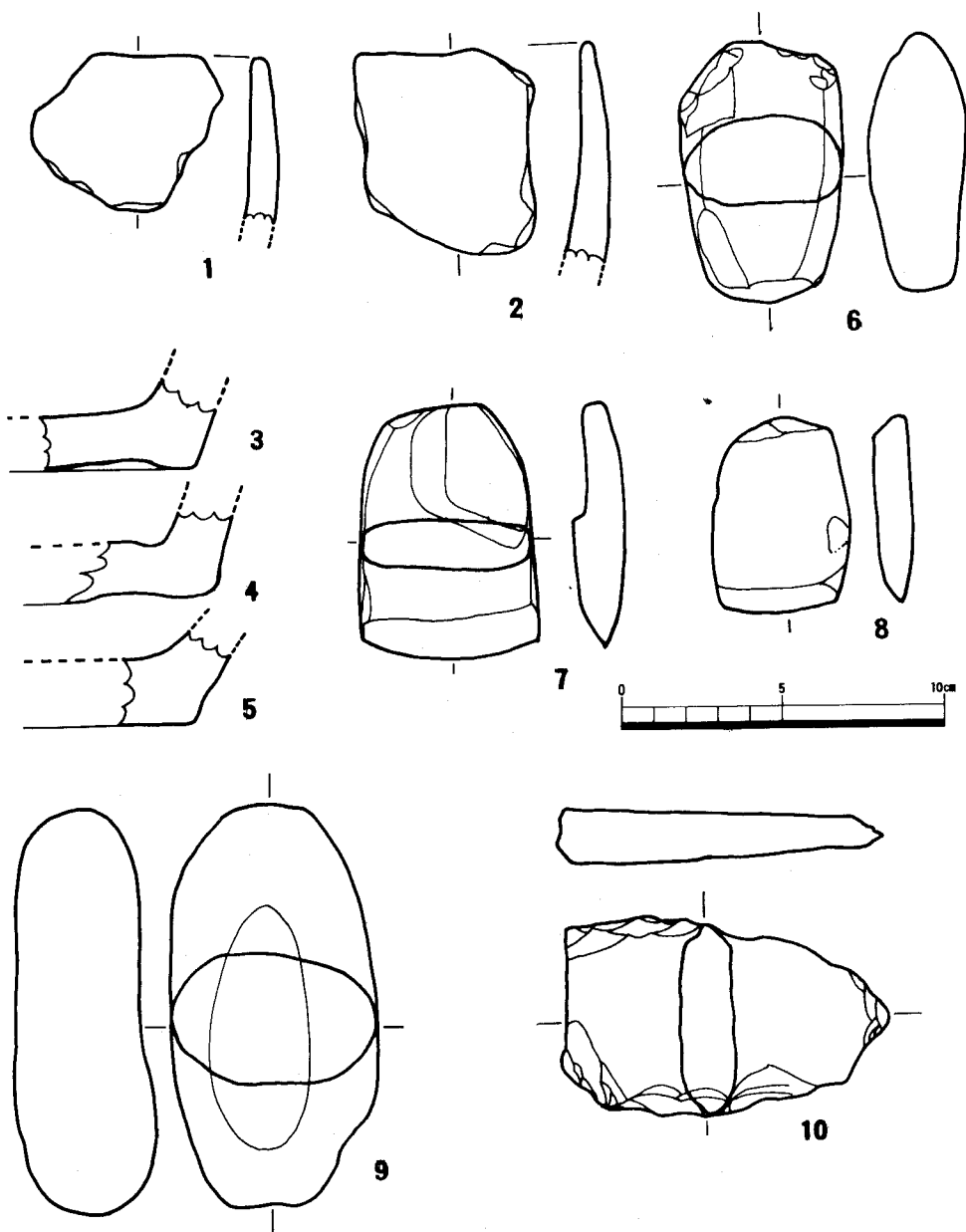
1) 유 적(지도26,27 : 사진92, 93)

유적은 원래 高山里 일대 광활한 경작지의 상당한 부분에 걸쳐있던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任孝宰교수가 Pearson과 함께 1970년에 이 지역에서 많은 토기, 석기 유물을 확인한 바 있으나, 지금은 高山里 2662-1, 2651번지 밭과 서북쪽 唐山峰 언저리 高山里 2874, 2919-1번지에서 얼핏 고인돌처럼 보이는 큰 바위 내부에서 석기 및 토기편 일부를 수습할 뿐이었다.





(지도27) 高山里 유물산포지 위치(1/5,000)



(그림40) 高山里 유물산포지 출토 유물

2) 유 물

(1) 토 기(그림40-1~5 : 사진94-1~5)

대체로 硬質에 가까운 적갈색 무문토기편으로 口緣部는 직립형태이고 바닥은 측면에 축약 현상이 거의 없는 평저 바닥이다. 구연부 두께 1~1.4cm, 바닥두께 1.8~2cm

(2) 석 기

① (그림40-7,8 : 사진94-7,8)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형식의 대팻날이다. 박편을 이용, 날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연하여 成形한 것으로 날끝이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길이 7.7, 6.1cm, 폭 5.7, 4.3cm, 두께 1.5, 1.2cm

② (그림40-9 : 사진94-6)

위, 아래끝을 타격면으로 이용한 망치돌 혹은 공이다. 길이 12.2cm, 폭 6.5cm, 두께 4cm

③ (그림40-10 : 사진94-9)

박편의 주위를 떼기수법으로 다듬어 만든 打製石刀이다. 길이 10cm, 폭 6.3cm, 두께 1.8cm

12. 猊來洞 遺物散布地

1) 유 적(지도5,6 : 사진95)

西歸浦市 猊來洞의 서편 한천계곡 동쪽 연변의 다소 가파른 880, 881, 879, 871번지 구릉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유적지로 역시 그대부분이 경작지로 조성되어 있다.

한천계곡 하류쪽 가까이에 rock-shelter가 형성되고 이곳에서 完形の 赤褐色 深鉢形土器가 수습된 것은 앞서 밝힌 바가 있다.

2) 유 물

(1) 토기 및 토제품

① (그림41-1~4 : 사진96 및 97-1,2)

기본적으로 郭支貝塚 III, IV지구 출토의 삼국시대 적갈색 경질의 심발형 토기 유형에 속하나 태토가 보다 거칠고 무른 것이 차이가 난다.

구연부 두께 0.7cm, 바닥두께 1.2cm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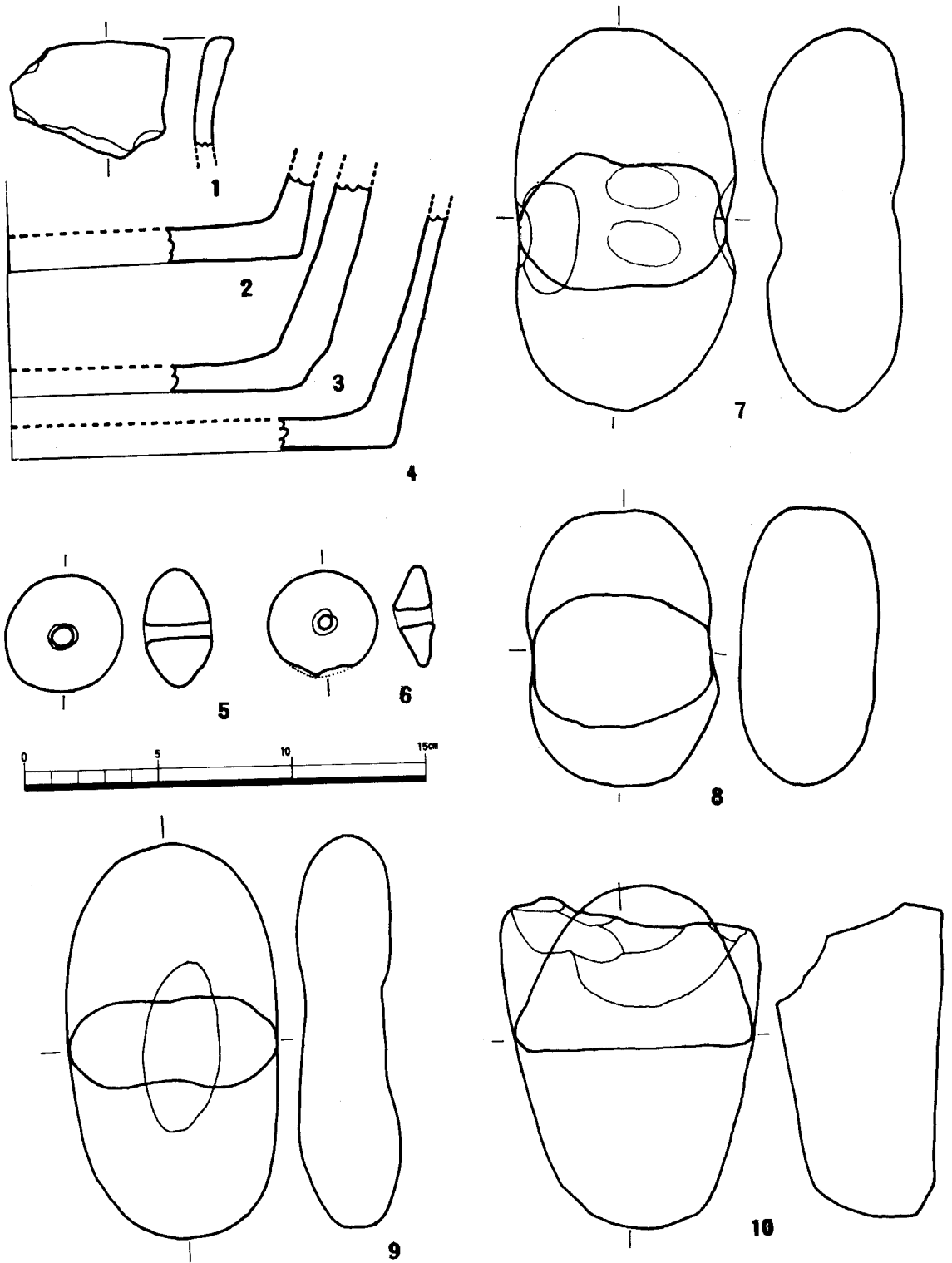
② (그림41-5,6 : 사진97-3,4)

주판알 모양의 土製 紡錘車로 각각 직경 4.1, 3.7cm, 두께 2.6, 1.6cm의 크기이다.

(2) 석 기

① (그림41-7,8 : 사진97-5,7)

타원형의 납작한 자갈돌의 가운데를 돌아가며 홈을 낸 것으로, 끈을 묶기 위하여 그렇게 成形한



(그림41) 猊來里 유물산포지 출토 유물

것으로 보인다. 위 아래 끝 面이 다소 마모되어 타격면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14, 10.2cm, 폭 8, 7cm, 두께 5cm

② (그림41-9 : 사진97-8)

제주도 유적의 대부분에서 볼 수 있는 가운데가 움푹 패인 홈돌이다. 길이 14.8cm, 폭 7.8cm, 두께 3.5cm

③ (그림41-10 : 사진97-6)

역시 대부분의 제주도 선사유적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제 갈돌이다. 장타원형 평면에, 반원형의 횡단면을 갖고 있다.

현재길이 12.5cm, 두께 6.1cm, 폭 9.6cm

13. 倉川里 遺物散布地

1) 유 적 (지도42 : 사진98)

유적은 해안에서 0.8km 떨어진 해발 25m의 安德面 倉川里 707, 711, 956번지의 평탄대지로, 북쪽 바로 뒤에 해발 175m의 群山이 자리잡고 있다.

지금은 경작지로 일구어 그 훼손도가 심하여 큰 토기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며, 유적 가운데에 고인돌 2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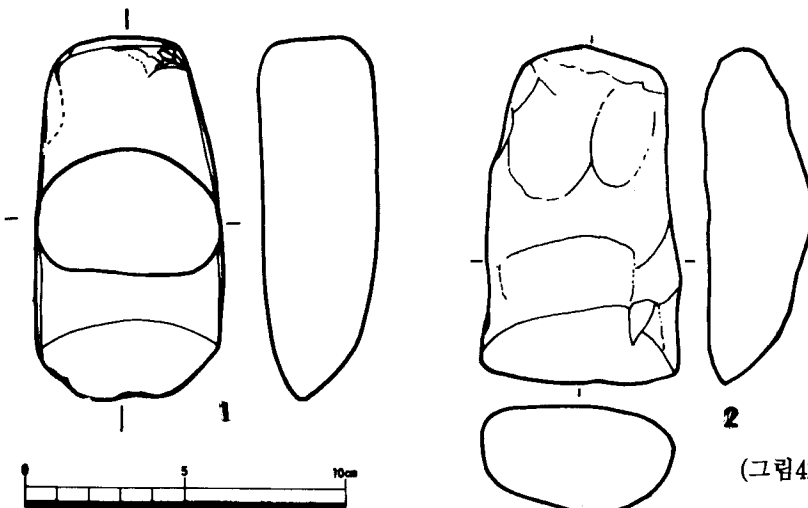
2) 유 물

① (그림42-1 : 사진99-1)

몸통 전체는 조르기수법으로 다듬고 날부분만을 마연한 돌도끼이다. 길이 11.2cm, 폭 6cm, 두께 4cm

① (그림42-2 : 사진99-2)

큰 박편을 이용한 打製石斧로 날부분은 갈았다. 길이 10.5cm, 폭 6.2cm, 두께 3.5cm



(그림42) 倉川里 유적 출토 돌도끼

제 6 장 무덤 유적

제주도에서 무덤유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금까지 그 대부분이 고인돌유적이고 그이의 형식의 무덤으로 1984년 긴급발굴 조사된 濟州市 龍潭洞유적에서 확인된 甕棺과 石槨墓와 1985년 역시 긴급발굴된 郭支貝塚 IV 지구 패각층 아래에서 1基의 석곽묘가 확인된 것 뿐이다. 후자는 편의상 앞서 5장에서 記述하였고 이밖에 加波島에서는 고인돌群과 함께 선돌이 조사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 6장에서 기술한다.

1. 龍潭洞 發掘 고인돌

1) 유적(지도 20,30: 그림43, 사진100~102)

濟州市 龍潭洞 2624-1번지 경작지에 위치하며 1959년 金鍾堧교수가 1차 조사한바 있는 인돌이다.

발굴조사착수 당시에 이 고인돌은 경작지에서 쌓아올린 잡목, 잡석과 잡초에 덮혀 있어 원상파악이 곤란하였으며 북서쪽으로 근접해서 최근에 신축된 주택의 담장으로 고인돌 주변의 遺構 및 지형이 훼손되었다.

그리고 훨씬 오래전에 고인돌은 비탈면을 따라 담장방향으로 기울어 서편 支石들이 쓰러지거나 아예 빠져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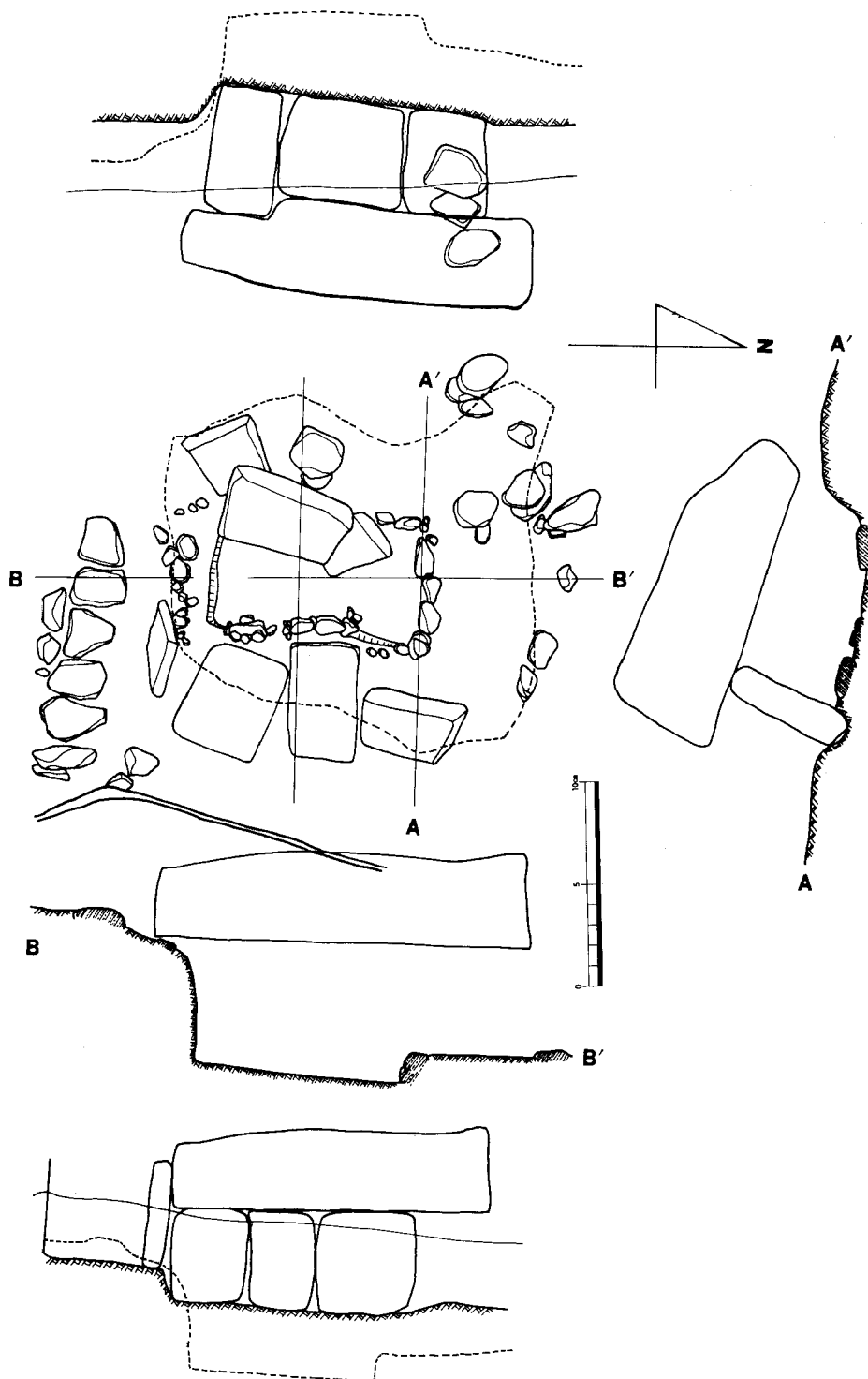
고인돌은 대략 3°내외의 南高北低의 경사면에 축조되었는데 이처럼 경사면을 이용하여 축조되는 방식은 제주도 고인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上石은 다음에 볼 地下石槨시설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남북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길이 323cm, 폭 304cm, 두께 78cm의 규모로 원래 사다리꼴의 평면형태를 가졌을 것이나 서편일부가 후대에 깨어져 나갔다.

支石은 모두 두께 15~17cm의 잘 다듬은 장방형 판돌을 이용하여 동서쪽에 각 3매씩 上石을 고이고, 남쪽에는 판돌 1매가 고여 있지 않고 바깥에서 막아세운 상태로 확인되었다. 북쪽은 지석이 없어 지하 매장부가 개방되어 있으나 원래는 다른 고인돌의 예를 보아 잡석등으로 메꾸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시설을 살펴보면 당시지표를 길이 172cm, 폭 92cm, 깊이 23-50cm의 장방형 土塋을 판 다음, 바닥에 잔돌을 깔고 벽에도 割石을 2, 3단 쌓아 石槨을 만들었는데, 그위는 대체로 잔돌을 積石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돌 남쪽과 북서편에는 비교적 큰 割石이 일렬로 정연하게 둘러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림43) 龍潭洞 발굴 고인돌 실측 및 옆면 복원도

그 돌틈사이에 대패(石鑿)도 발견되었는 바, 고인돌을 보호하는 의미의 護石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한편 고인돌 동편으로 잡석과 무문토기편이 섞인 퇴적층이 支石上面 높이까지 다져져서 쌓여 올려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후대의 유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고인돌 축조당시 상석운반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유 물

유물의 대부분은 고인돌주변에 쌓아진 雜石層에서 나왔으며, 내부에서 原狀으로 출토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1) 토기 및 토제품

① (그림44-1~6 : 사진103, 104-1~4)

철기시대 郭支式 무문토기의 태토, 硬度, 器形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口緣部는 직립 구연과 외반구연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께 1.0~1.5cm

② (사진104-5)

내부 적석층에서 수습되었으며 두께 0.5cm의 格字 타날무늬의 회청색 硬質 金海式 土器片으로 광지패총의 예로 보아, ①항의 무문토기편과 같은 시기 유물이다.

③ (그림44-9,10 : 사진104-6,7)

토제 방추차로 주판알 또는 그에 가까운 모양이다.

지름 3.5, 3.6cm, 두께 1.7, 2.4cm

(2) 석 기

① (그림 44-7:사진104-8)

횡단면 타원형의 마제석부로 날부분이 다소 손상되었다.

길이 10.7cm, 폭 6.8cm, 두께 3.9cm

② (그림 44-8:사진104-11)

유일하게 확실한 遺構의 原狀에서 발견된 것으로 다소 길고 두툼한 형태의 대팻날이다.

길이 9.5cm, 폭 3.5cm, 두께 1.8cm

③ (그림 44-11:사진1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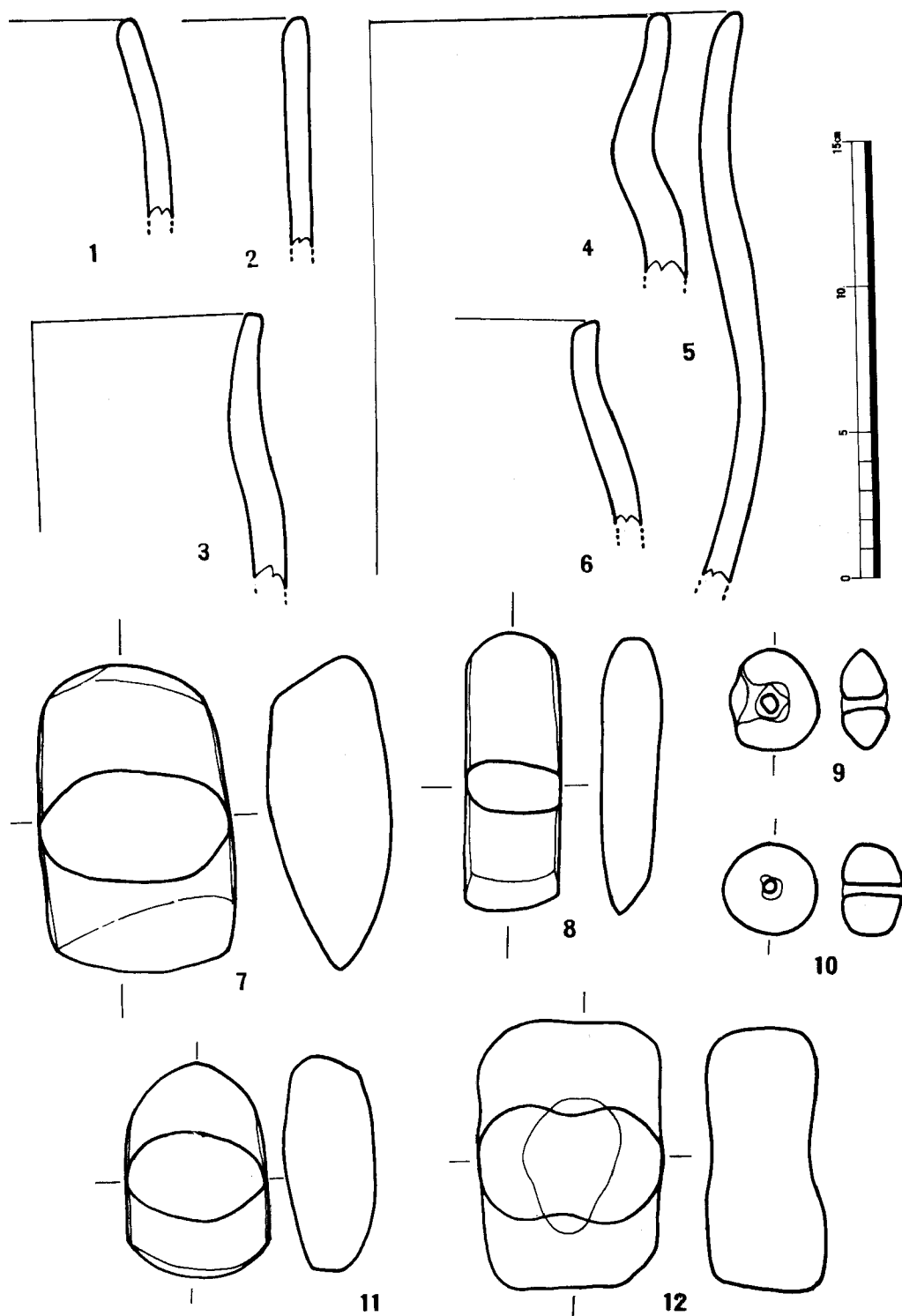
타격면이 비교적 넓은 공이이다.

길이 7.5cm, 폭 5.2cm, 두께 3.3cm

④ (그림 44-12:사진104-9)

네모납작한 자갈돌의 양면 한가운데를 움푹하게 한 홈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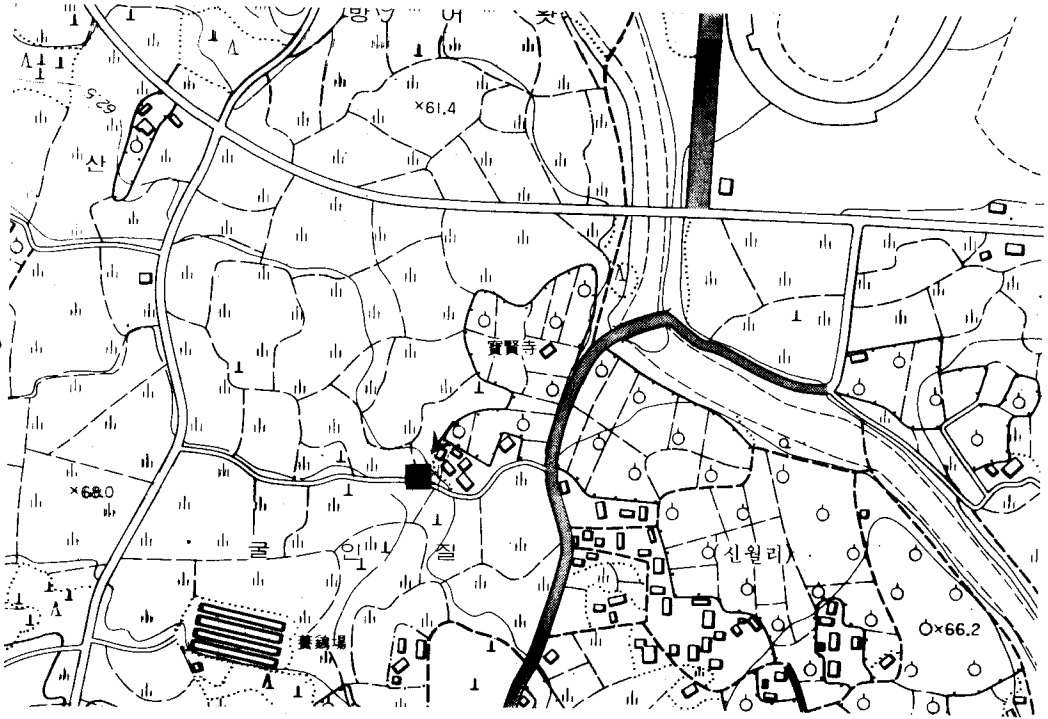
길이 9.5cm, 폭 6.5cm, 두께 4cm



(그림44) 龍潭洞 발굴 고인돌 출토 유물

2. 道南洞 고인돌(지도20,29:사진105)

濟州市 道南洞 6161번지에 있으며 발 돌담에 上石이 쓰러져 있다. 上石은 250cm, 폭 200cm, 두께 50cm 정도의 크기를 가진 것으로 支石은 板石形으로 2매 있는 것이 확인된다.



(지도29) 吾羅洞 고인돌(2)의 위치(1/5,000)

3. 吾羅洞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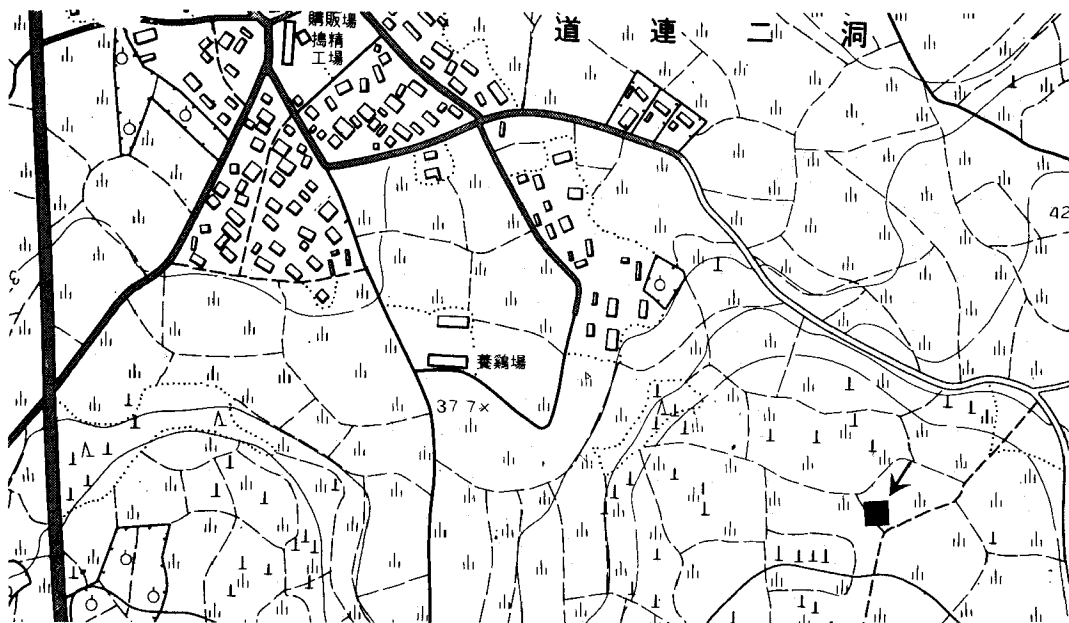
① 吾羅洞 고인돌(1) (지도20:사진106)

濟州市 吾羅洞 2389번지로 남쪽 교도소로 올라가는 비포장도로 우측 소나무 밭에 있다. 길이 220cm, 폭 200cm, 두께 50cm의 上石은 남북장축을 하고 있고, 남쪽 다소 높은 곳에 넓적한 支石 1매가 확인된다.

② 吾羅洞 고인돌(2) (지도20,29:사진107)

濟州市 吾羅洞 2489번지에 위치한 것으로 上石은 길이 250cm, 폭 207cm, 두께 35~40cm로 북서 방향으로 장축이 놓여 있다.

支石은 30×15cm 정도의 냇돌과 割石으로 세군데 고여 있었고 두군데는 잔돌을 積石하여 고이고 있다.



(지도32) 道蓮洞 고인돌 위치(1/5,000)

6. 道蓮洞 고인돌(지도 21,32:사진118)

濟州市 道蓮洞 689번지 밭담에 쓰러져 있는데 上石은 길이 323cm, 폭 296cm, 두께40~80cm로 북서쪽으로 장축이 놓여 있다.

上石 북동쪽에 1매의 板石形 支石이 확인되었다.

7. 外都洞 밭굴 고인돌(지도22,33:그림45:사진119~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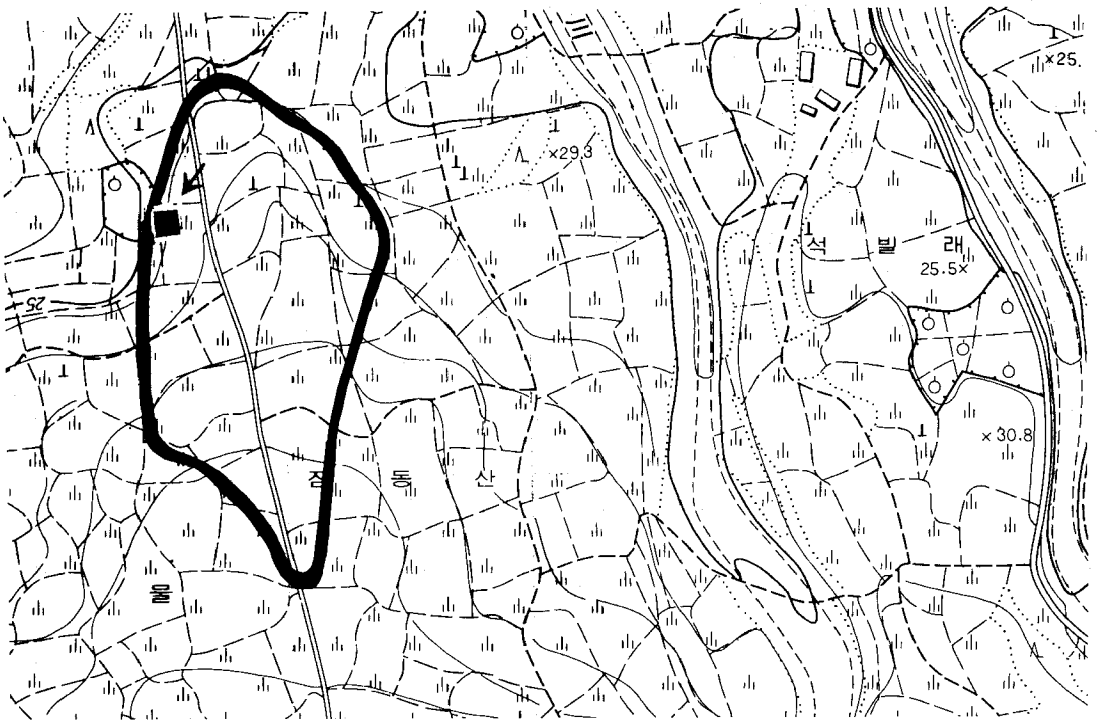
앞서 龍潭洞 밭굴 고인돌과 함께 1985년 濟州大學校博物館에서 밭굴조사한 고인돌이다.

上石은 길이204cm, 폭134cm, 두께77cm로서 장축방향은 북동방향으로 다음에 볼 地下石槨 시설과 동일하다. 上石을 제거하니 잔돌로 덮은 積石部가 드러나고 뚜렷이 支石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 없었다.

積石의 범위는 上石보다 넓어 길이 305cm, 폭255cm의 범위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 積石시설을 들어내니 길이 272cm, 폭 145cm의 石槨시설이 드러났다.

석곽의 남동벽은 기존의 자연암반을 깨내어 만들었으며, 나머지 북동, 남동, 남서쪽의 벽은 잔돌로 낮게 쌓았는데 그 높이는 20~30cm정도였다. 石槨의 바닥면은 생토바닥 그대로이다.

출토유물로서는 積石을 들어내면서 無文土器 小片이 수점 출토되었을 뿐으로, 거친 태토에 두터운 器壁의 철기시대 郭支式 무문토기 계통이다.



(지도33) 外都洞 유물산포지 및 고인돌 위치(1/5,000)

8. 外都洞 고인돌群(지도 22,34)

다음에 살펴볼 光令里 고인돌과 같은 群을 이루고 있으나, 행정구역상으로는 外都洞에 속하는 것이다.

① 外都洞 고인돌(1) (사진124)

外都洞 20-1번지에 있으며, 南高 北低의 경사가 심한 암반을 이용, 높은 곳 두군데에 각기 둥글납작한 塊石과 割石 1매씩을 고이고, 북쪽의 낮은 곳에 높이 82cm, 폭 53cm, 두께 12cm~15cm의 네모꼴 판돌을 支名으로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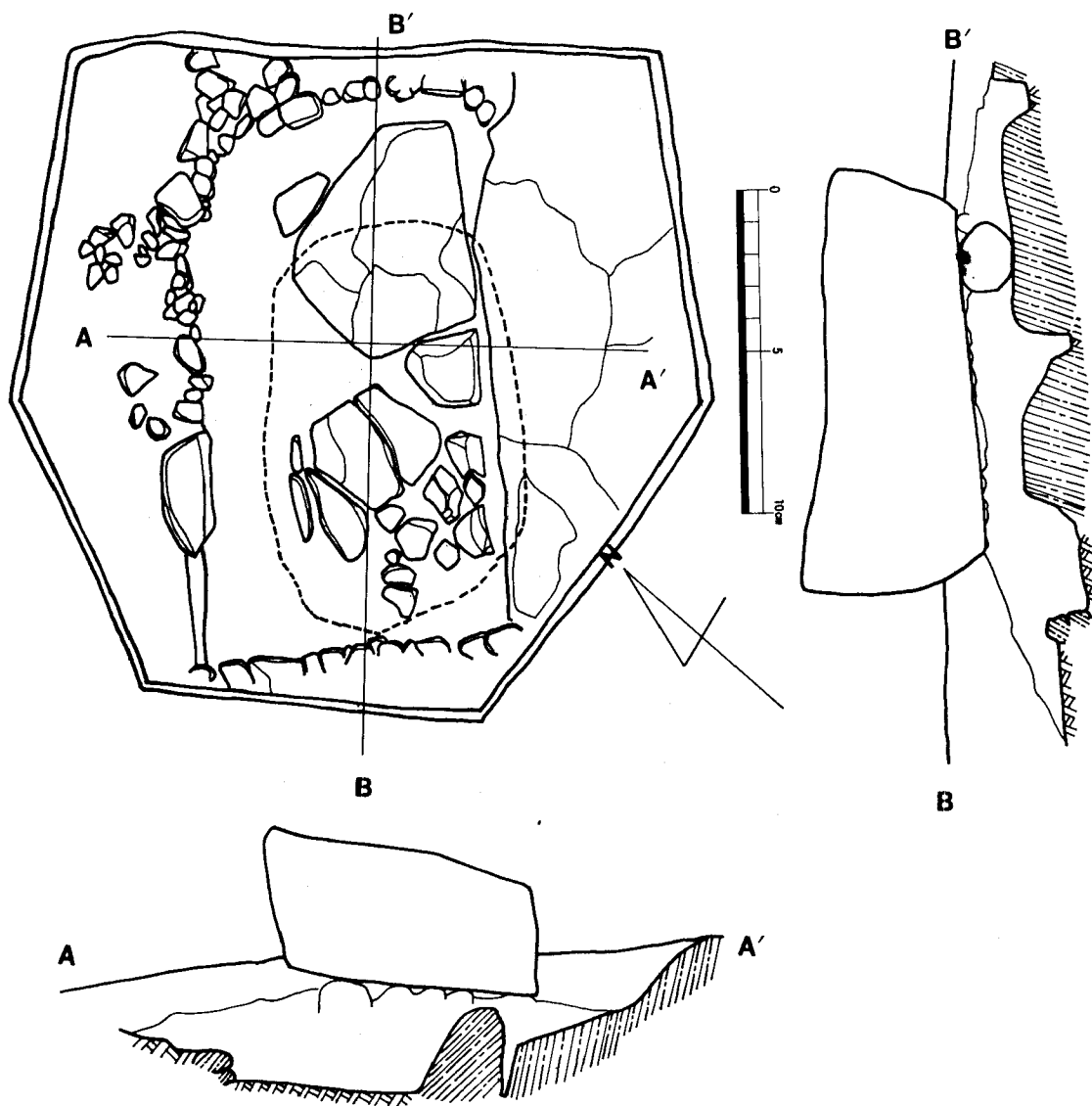
上石은 길이 275cm, 폭 230cm, 두께 80cm로, 두께가 고르고 윗면이 평평한 5각형이며 정남북에 가까운 장축방향을 하고 있다.

② 外都洞 고인돌(2) (사진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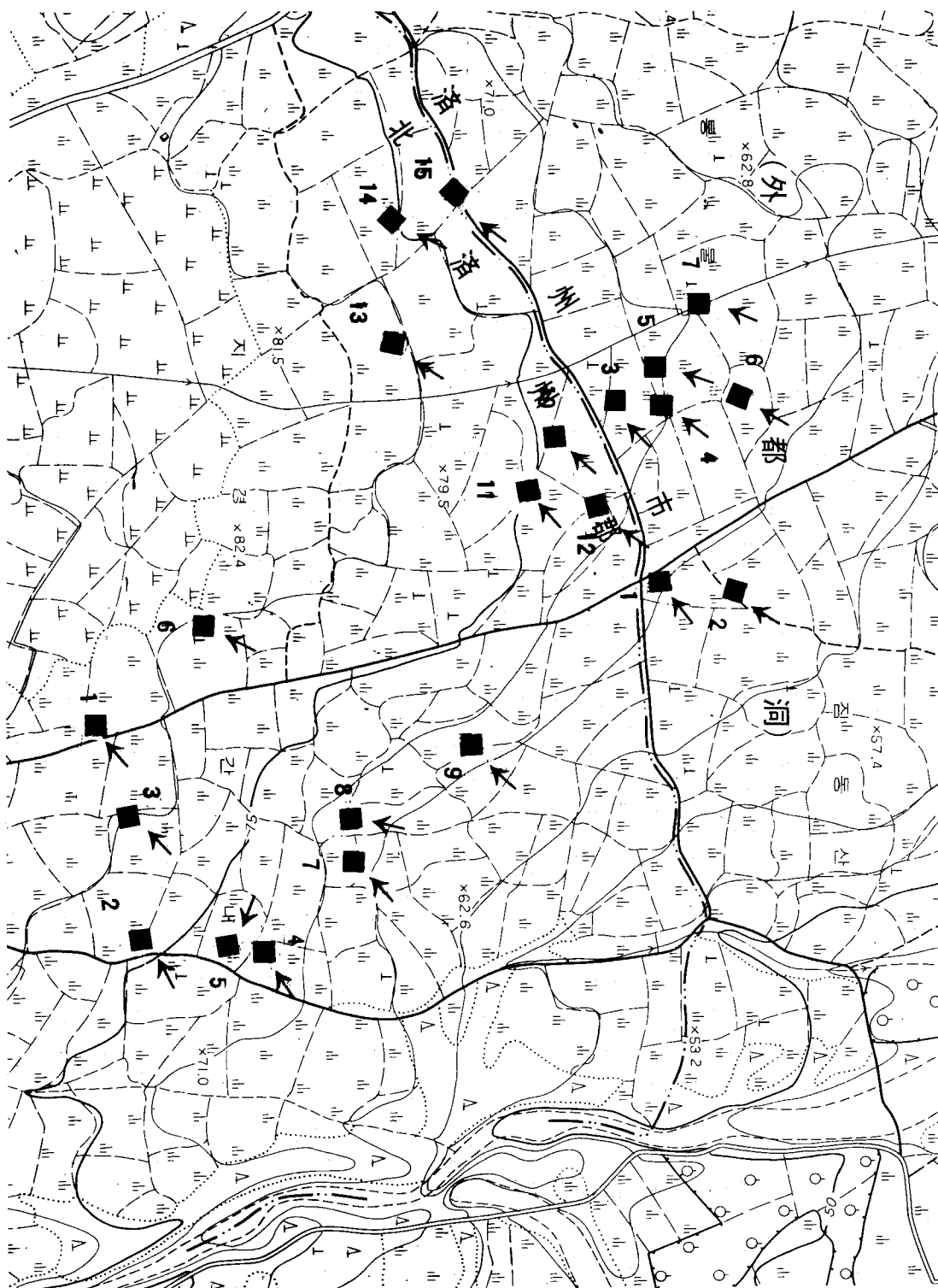
外都洞 20-1번지 밭과 72-1번지 사이 돌담에 묻혀 있었고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한다. 上石은 장축이 정남북 방향이고 길이 282cm, 폭 190cm, 두께 30~40cm 크기를 갖고 있다.

上石은 단면이 아아취모양을 이루면서 동쪽으로 하부가 휜하게 뚫려 있었다.

支石은 남쪽과 북쪽끝에 둥글납작한 塊石 각 1매가 있고, 서편으로 上石이 두터워서 거의 지면과



(그림45) 外都洞 발굴 고인돌 실측도



(지도34) 外都洞·光令里 유물산포지 및 고인돌 위치(1/5,000)

닿아 있는 곳은 돌아가며 3매의 작고 얇은 板石狀 割石이 고여 있었다.

性穴은 上石 남서쪽에 1개가 보인다.

③ 外都洞 고인돌(3) (사진126)

外都洞 23번지와 24번지 발사이 돌담에 묻혀 있었는데 上石은 길이 232cm, 폭 198cm, 두께 89cm로서 동북쪽으로 장축을 하고 있다.

上石의 비교적 고른 윗면 북동쪽에 치우쳐 비교적 크고 선명한 65개의 무수한 性穴이 확인되었다.

上石하부는 북쪽으로 노출되어 있고, 동·서쪽 귀퉁이와 남쪽에 支石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대가 높은 남쪽은 3개의 작은 돌로, 동·서쪽은 1개의 큼직한 돌로 고였다.

④ 外都洞 고인돌(4) (사진127)

外都洞 23번지와 28번지 동쪽 발사이 돌담 비탈에 上石이 비스듬히 쓰러져 있다. 支石은 빠져 없으며 上石은 길이 232cm, 폭 171cm, 두께 37cm이다.

⑤ 外都洞 고인돌(5) (사진128)

外都洞 23번지와 28번지 서쪽의 높이 차가 심한 두 발 사이 돌담에 깊게 묻혀 있다. 上石은 아아치 모양으로 앞서 外都洞 고인돌(2)와 흡사하다.

上石의 크기를 보면 길이 252cm, 두께 37~15cm로 북동으로 장축방향이 나 있다. 性穴은 上面이 노출된 부분에 11개가 확인되었다.

支石은 돌담에 매립되어 확인이 되지를 못했다.

⑥ 外都洞 고인돌(6) (사진129)

外都洞 28번지와 29번지 사이 발돌담에 위치하며 上石은 길이 295cm, 폭 220cm, 두께 30~40cm로 장축은 동북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동남쪽으로 두께가 얇고 그반대편은 두꺼워 넓직한 支石으로 고이거나 거의 지표에 닿아 있는 상태이다.

支石은 서남편과 북편에 하나씩 있고 上石이 두꺼워진 북서편은 바로 지표면에 놓여 있고 上石하부 중앙에 작은 돌 몇개가 받치고 있다.

性穴은 上石의 정남방향에 8개가 뚜렷하다.

⑦ 外都洞 고인돌(7) (사진130)

外都洞 27번지 발에 있으며 돌출된 암반을 이용하여 上石을 고였다. 한쪽은 높이 치켜지고 그 반대편은 거의 지표면에 닿아 있는 데다 넓직한 지석이 고여 있는 형식이다. 높이 치켜진 부분에는 현재 支石이 없으나, 원래 支石이 끼어 있었음을 上石 가장자리 아랫면에 그 흔적이 있어 확인할 수가 있다.

上石은 길이 315cm, 폭 265cm, 두께 60cm이며 장축은 북동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上石 남동쪽으로 치우쳐 4개의 性穴이 보인다.

9. 光令里 고인돌群(지도 22,34)

1) 光令里 고인돌(1) (사진131)

涯月邑 光令里 1825-1번지와 1824번지의 높이가 다른 西高東低의 발사이 급한 경사면에 上石이 쓰러져 있다.

서쪽 높은 발쪽에 支石으로 보이는 2매의 판돌과 1매의 塊石이 노출되어 있다. 上石은 길이 232cm, 폭 130cm, 두께 54cm로 윗면이 평평하고 두께가 고른편이며, 평면형태가 비교적 잘 다듬어진 사다리꼴로서 남쪽 가장자리에 3개의 性穴이 있다.

上石의 서쪽 측면에 운반할 때, 동아줄 逸脫을 방지하기 위한 긴 홈줄이 확인 되었다.

2) 光令里 고인돌(2) (사진 132, 133)

涯月邑 光令里 1610번지 발 한가운데 있으며, 上石은 길이 361cm, 폭 302cm, 두께 40cm로 장축은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다.

支石은 남·남서·동쪽에 고여 있는데 남서쪽 것은 높이 56cm, 폭 67cm, 두께 18cm의 잘 다듬은 장방형 판돌로 곧추 세워져 있다. 다른 두 곳은 납작둥그스름한 塊石과 割石으로 고여 있으며 支石과 上石의 틈 사이에는 작은 돌이 끼워져 있다. 따라서 上石은 남서쪽이 높게 들려 있어 매장부가 서쪽으로 개방된 모습을 하고 있다.

上石 윗면에 북동쪽으로 치우쳐 직경 12cm, 깊이 9.5cm의 큼직하고 뚜렷한 性穴이 6개 확인되었다.

3) 光令里 고인돌(3) (사진 134)

涯月邑 光令里 1835번지 발 한 쪽에 있으며 上石은 길이 230cm, 폭 218cm, 두께 66cm로 장축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支石은 남·북·서쪽의 세 귀퉁이에 고여 있는데 여러개의 잔돌이 支石 역할을 하고 있다.

4) 光令里 고인돌(4) (사진135)

涯月邑 光令里 1612번지와 1613-1번지 발 경계 현재 2m높이의 급격한 경사면 중간에 걸쳐 있는 고인돌로서, 龍潭洞 발굴고인돌 및 고인돌(1)처럼 上石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잘 다듬은 板石形 支石이 병풍처럼 둘러 있다.

上石은 길이 250cm, 폭 205cm, 두께 55cm로 비교적 고르게 다듬은 장방형으로 장축은 정확하게 정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이 장방형의 上石 가장자리를 따라 지석이 고여 있으므로 支石으로 이루어진 石室 또한 장방형을 이루게 된다.

支石은 전부 높이 70~80cm, 폭 55~60cm, 두께 8~13cm로 잘 다듬을 長方形 板石으로 동·서·남에 똑같이 각 3매가 서로 맞물리면서 고여 있고, 북쪽은 현재 支石 없이 개방되어 있다.

5) 光令里 고인돌(5) (사진 136)

涯月邑 光令里 1612번지 발 한가운데에 있는데, 남북의 장축방향으로 놓인 길이 315cm, 폭 234cm, 두께 78cm의 비교적 고른 두께에, 윗면이 평평한 장방형 上石을 갖고 있다. 그 上石의 남쪽에 길이 110cm, 폭 55cm, 두께 19cm의 큼직한 板石이 주위를 돌아가면서 잔돌이 支石역할을 하고 있다.

上石과 남쪽의 板石形 支石이 물리는 곳의 上石下段은 일부 깨내어 서로 맞물리게 하였다.

上石 윗면에는 17개의 性穴이 보이고 있다.

⑥ 光令里 고인돌(6) (사진 137)

涯月邑 光令里 1821번지 草地 한가운데에 있으며, 上石은 길이 255cm, 폭 178cm, 두께 65cm로 얼핏 거북등 모양을 연상케하며, 장축은 대체로 남북방향에 가깝다. 동·서·남쪽에 여러 매의 작은 割石으로 된 支石이 고여 있고 지대가 낮은 북쪽으로 上石이 다소 들려 있었으며, 이곳에 큼직한 3매의 돌과 잔돌로 막아 있었다.

⑦ 光令里 고인돌(7) (사진 138)

涯月邑 光令里 1643번지 발에 있는데, 上石의 크기는 길이 168cm, 폭 130cm, 두께 60~70cm이다. 支石은 지상에 드러나 있지 않으며, 上石의 북동쪽에 치우쳐 5개의 뚜렷한 性穴이 보인다.

⑧ 光令里 고인돌(8) (사진 139)

涯月邑 光令里 1648번지 발 남쪽편에 치우쳐 있다.

길이 166cm, 폭 135cm, 두께 71cm의 上石을 3매의 큼직한 塊石狀 支石이 고였는데, 현재 上石은 원위치에서 밀려나 支石 윗면에 크고 뚜렷한 性穴이 거의 일렬로 8개가 배치되어 있다.

⑨ 光令里 고인돌(9) (사진 140)

涯月邑 光令里 1640번지와 1649번지의 높낮이가 다른 두 발 사이의 경계에 돌무더기와 잡초로 덮혀 있었으며, 원래는 윗발에 있다가 현재의 경사진 경계로 밀려서 자리이동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支石은 없다.

光令里 고인돌(10) (사진 141)

涯月邑 光令里 1644번지와 1667번지 발사이 돌담에 위치하며, 上石은 반으로 쪼개져 경사면에 쓰러져 있다. 역시 자리이동한 것으로 상석은 원래 장방형의 모를 죽인 바둑판 모양으로 길이 261cm, 폭 165cm, 두께 45cm이고, 평평한 윗면에 마멸이 심한 62개의 性穴이 뺨뺨이 들어서 있다.

光令里 고인돌(11) (사진 142)

涯月邑 光令里 1665와 1664번지 발 경계 돌담에 묻혀 있었으며, 上石은 평면형태가 대체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길이 243cm, 폭 187cm, 두께 45cm 정도로, 평평한 상석 윗면에는 마멸이 심한 55개의 性穴이 확인되었다.

장축은 거의 정남북에 가까우며 외관상 蓋石式으로 보이는 고인돌이다.

⑫ 光令里 고인돌(12) (사진 143)

涯月邑 光令里 1665번지와 1666-1번지 발사이 돌담에 위치하며 잡초, 잡목, 돌무더기에 덮혀 있었는데, 대체로 장방형의 上石은 길이 214cm, 폭 123cm, 두께 62cm의 크기를 갖고 장축은 동서방향을 가리키 있다.

上石 동남쪽에 치우쳐 2개의 性穴이 희미하게 보이며 다소 작은 돌로 된 支石이 고이고 있다.

⑬ 光令里 고인돌(13) (사진 144)

涯月邑 光令里 1671-1번지 발 한가운데 평평한 곳에 위치하며, 上石의 크기가 길이 369cm, 폭 276cm, 두께 77cm로 光令里 고인돌 중 가장 크다.

上石 하부 세귀통이에 支石을 고였는데, 지면이 다소 높아진 동쪽에 작은 돌이 겹겹히 고여 있고, 다른 두 곳 북서쪽과 남서쪽에는 각각 높이 114cm, 폭 65cm, 두께 25cm와 높이 118cm, 폭 91cm, 두께 27cm의 잘 다듬고 큼직한 板石이 고여 있었다.

⑭ 光令里 고인돌(14) (사진 145)

涯月邑 光令里 1673번지 발경계에 上石만 이동하여 완전히 세로로 젖혀진 것이다. 그 크기는 길이 203cm, 폭 135cm, 두께 55cm이고 性穴은 없다.

⑮ 光令里 고인돌(15) (사진 146, 147)

涯月邑 光令里 1678번지 길과 발사이 돌담에 위치한 고인돌로, 上石의 전체모양은 半破되었지만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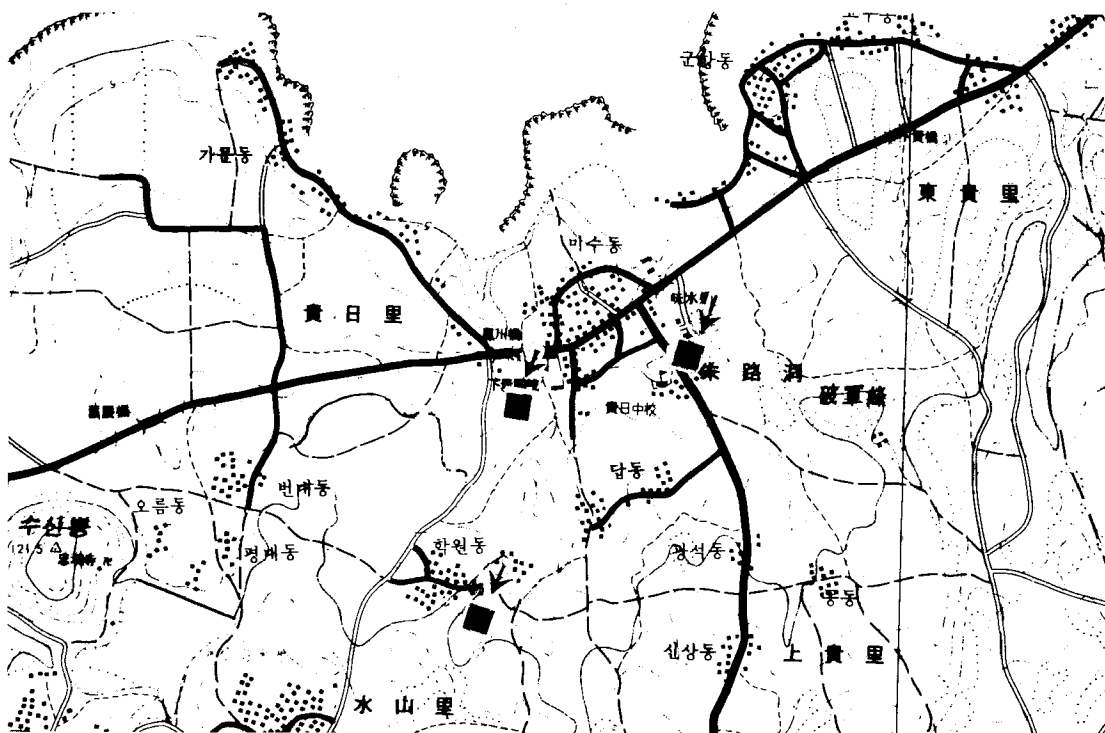
장축은 정확히 남북을 가리키고 있으며, 다소 높은 남쪽편에는 支石없이 지면에 上石이 놓여 있고, 동쪽과 서쪽에 각기 3매 및 1매의 板石狀 支石이 고여 있다. 북쪽은 支石이 없었는데 서편의 支石은 길이 90cm, 높이 47cm, 두께 21cm의 두꺼운 장방형 板石이며 동편은 길이 53cm, 높이 49cm, 두께 9cm와 길이 48cm, 높이 43cm, 두께 10cm의 板石과 길이 100cm, 높이 61cm, 두께 20cm의 둥글납작한 支石 3매가 고여 있다.

上石 윗면에 북서쪽으로 마모가 심한 35개의 性穴이 확인되었으며, 上石 하부 매립토 중에서 土器 바닥완형 1점, 비교적 잘다듬은 장방형 숫돌 1점, 土製紡錘車 1점이 일괄로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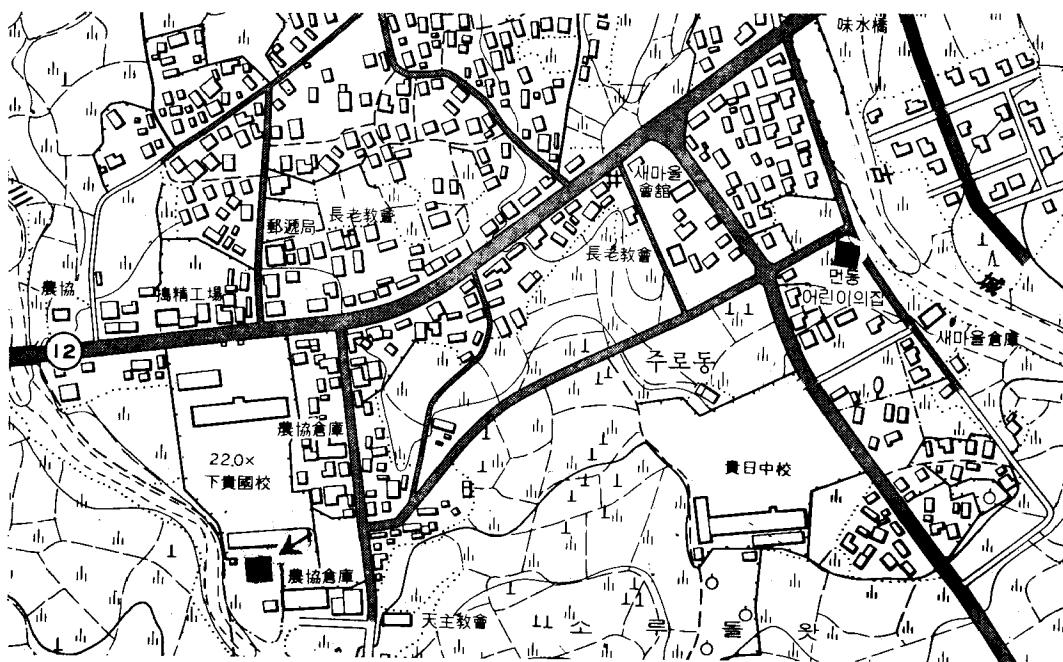
10. 貴日里 고인돌(지도35)

① 貴日里 고인돌(1) (지도36 : 사진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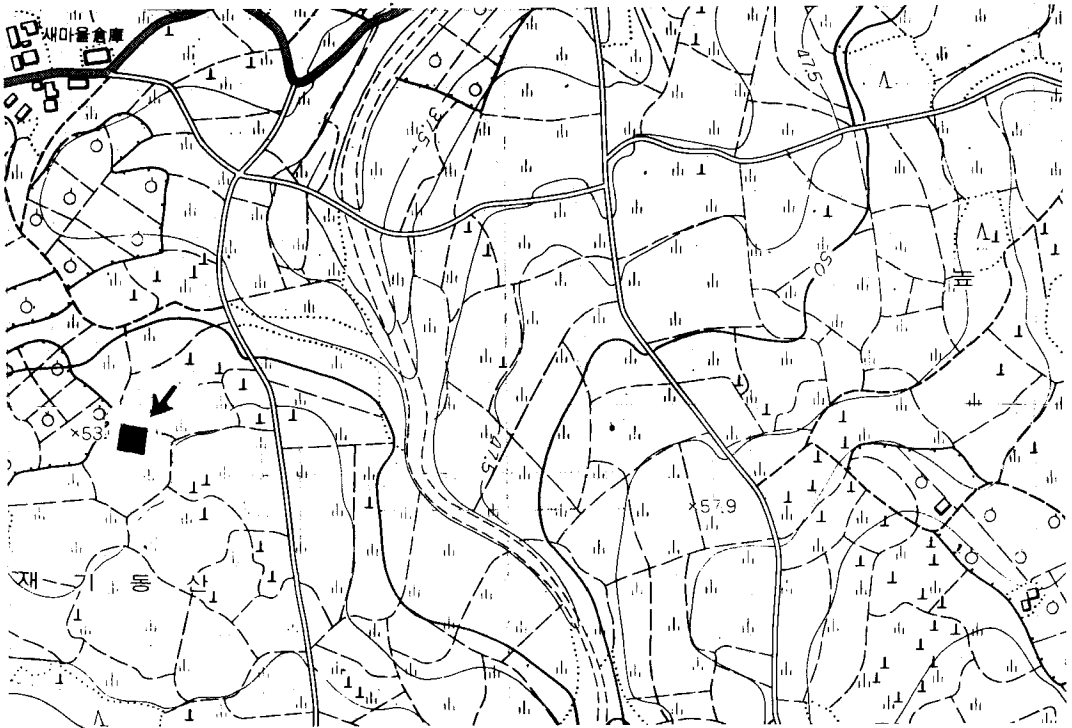
涯月邑 貴日里 1312-1번지, 하천 연변의 주택사이 경작지에 있으며, 上石의 크기는 길이 361cm, 폭 192cm, 두께 70cm로 대체로 남북쪽으로 장축방향이 나 있다. 上石의 북쪽과 동쪽에 이중으로 놓인 塊石狀의 支石이 고여 있고, 다소 지대가 높은 남쪽으로는 작은 돌이 고여 있다. 二重으로 겹쳐진 支石은 西歸浦市 檣達洞 고인돌에서도 볼 수가 있다.



(지도35) 貴日里 고인돌 위치(1/25,000)



(지도36) 貴日里 고인돌 위치(1/5,000)



(지도37) 貴日里 학원동 고인돌 위치(1/5,000)

② 貴日里 고인돌(2) (지도36 : 사진149)

涯月邑 貴日里 1904번지 下貴國民學校 구내에 있는 것으로, 上石은 길이 243cm, 폭 171cm, 두께 34cm로 북동 방향으로 장축이 가리키고 있다. 上石의 남서쪽에 큰 割石 1매를 포함해서 주위를 돌아가며 5매의 납작한 支石이 고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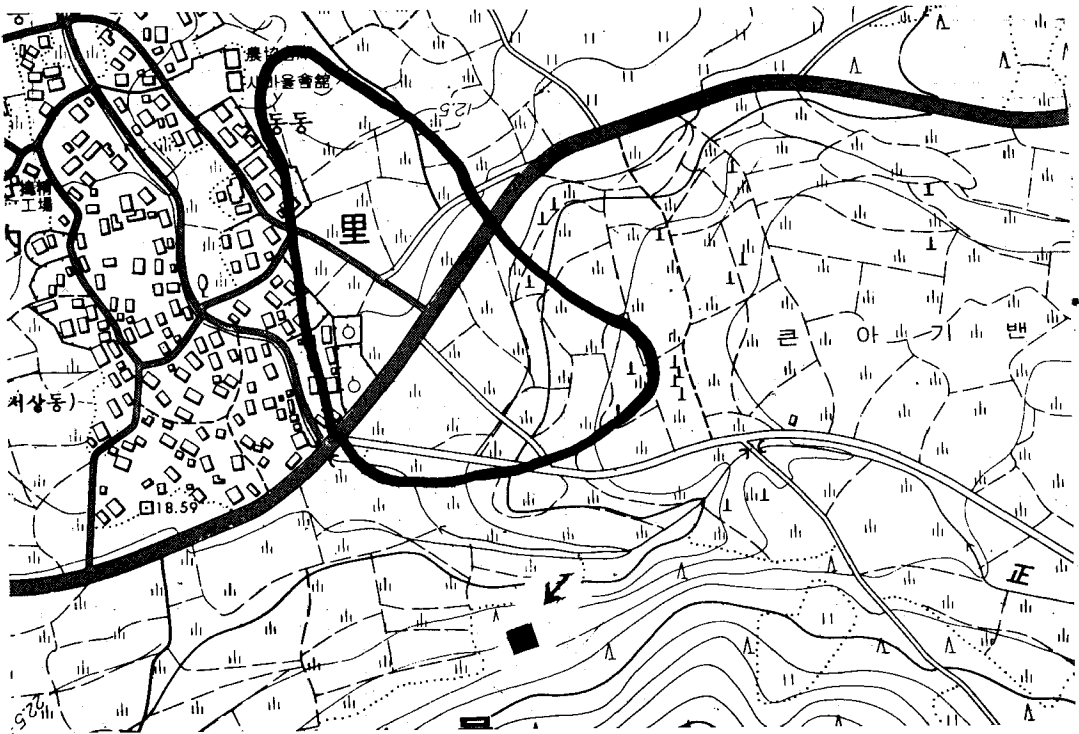
③ 貴日里 고인돌(3) (지도 37:사진 150)

涯月邑 貴日里 학원동 1312-17번지의 과수원밭에 있는데, 上石은 길이 185cm, 폭 135cm, 두께 25~40cm로 두께가 고르고 윗면이 평평한 네모꼴이다. 장축방향은 대체로 남북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支石으로 上石 남쪽에 길이 35cm, 폭 25cm의 1매의 塊石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11. 高内里 고인돌(지도 23, 38:사진 151)

涯月邑 高内里 595번지 해발 200m의 高内峰 중턱 발경계에 흙과 잡초로 덮혀 있다. 上石길이 270cm, 폭 220cm, 두께 60cm로 현재 북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서 북동방향을 장축이 가리키고 있다.

일부 드러난 上石 윗면에 性穴 수개가 확인되었으며, 두군데 支石이 고여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지도38) 高內里 尤勿山포지 및 고인돌 위치(1/5,000)

12. 甕浦里 고인돌(지도 24, 39:사진 152)

翰林邑 甕浦里 157번지에 위치한 양돈장내에 있으며, 上石은 바둑판처럼 고른 두께에 윗면이 평평한 오각형으로 길이 190cm, 폭 140cm, 두께 50cm이다.

支石은 上石의 북서, 북동, 남동쪽 세귀통이에 塊石으로 각각 고였다. 上石 북쪽측면에 운반할 때 동아줄을 두르기 위한 긴 홈줄이 뚜렷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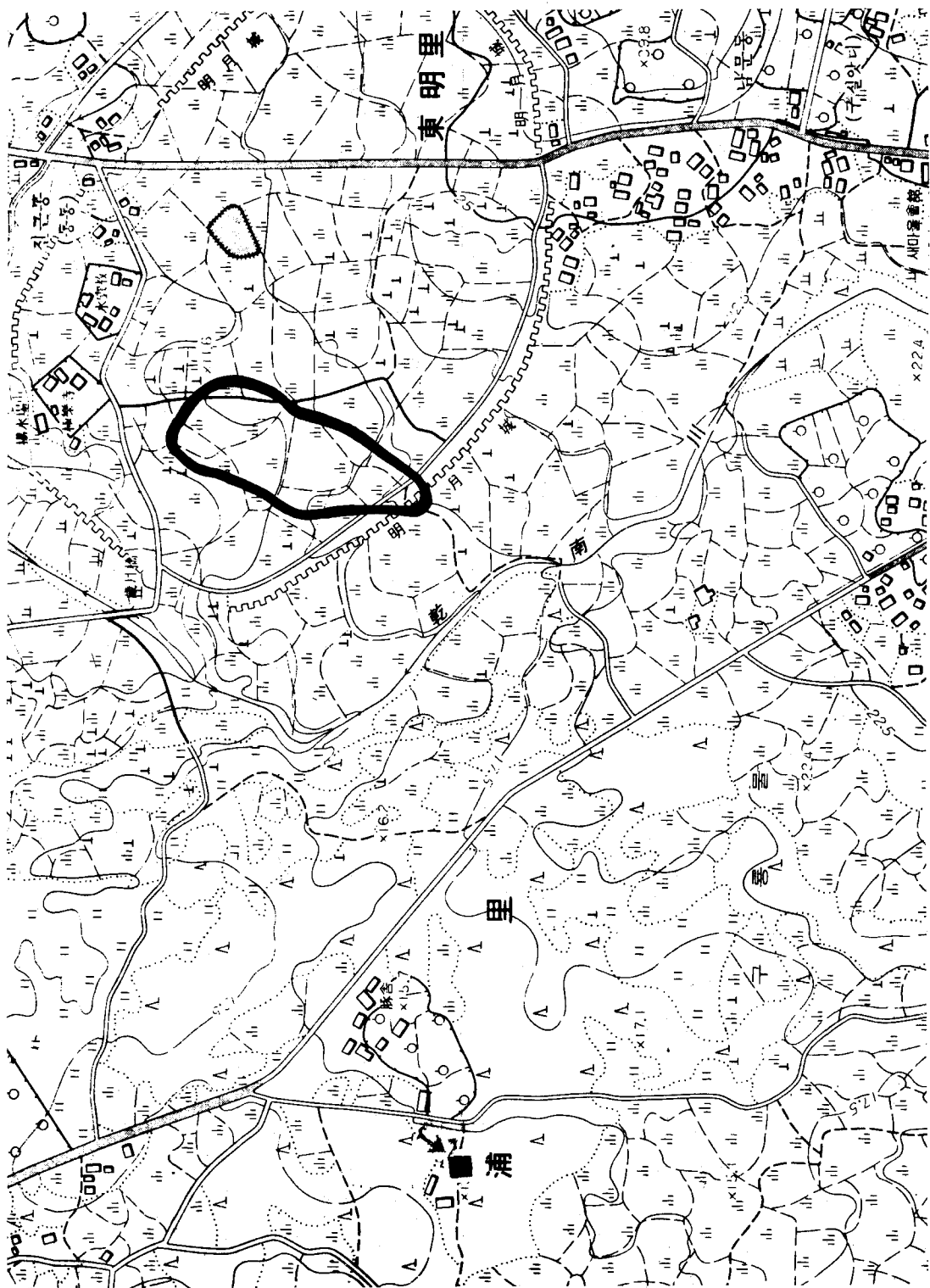
13. 東日里 고인돌群(지도 40)

① 東日里 고인돌(1) (사진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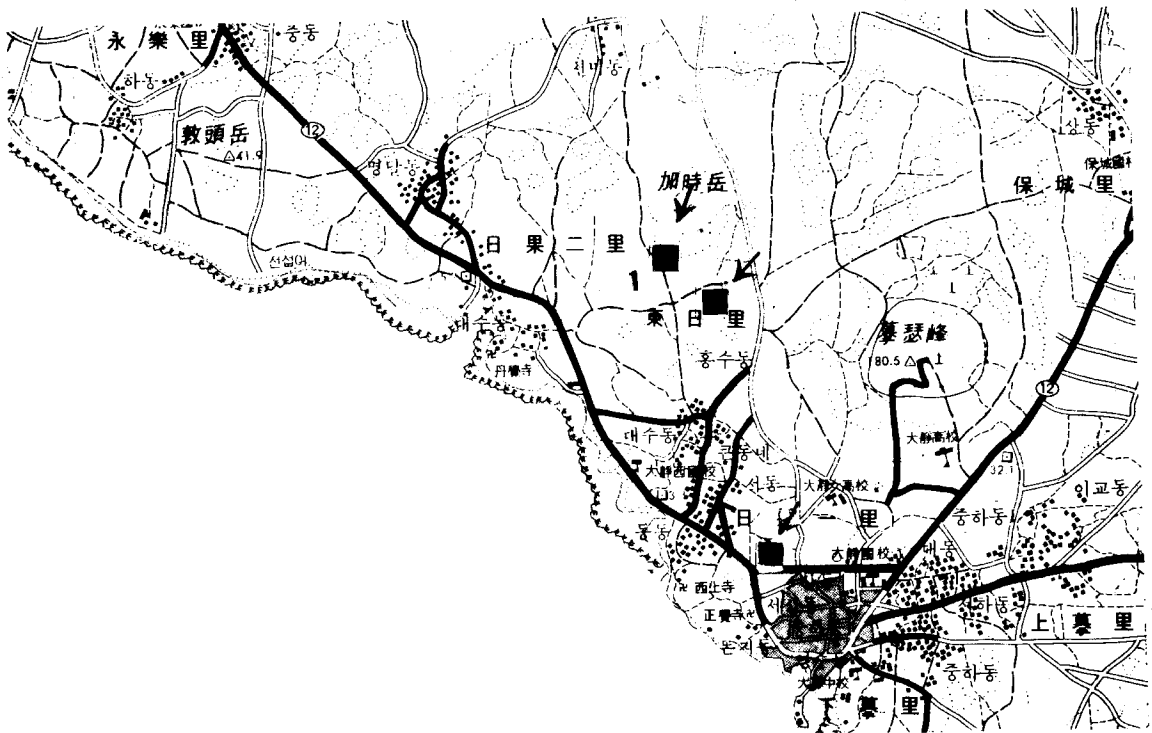
大靜邑 東日里 1607번지 발 한가운데에 있으며, 上石의 장축길이 253cm, 폭 190cm, 두께 60cm로 타원형에 가깝다. 장축방향은 다소 동으로 치우친 북쪽이다.

支石은 각 귀통이마다 납작한 塊石과 割石으로 겹겹히 9군데 고였는데, 남쪽부분은 지석없이 땅에 직접 닿아 있다.

② 東日里 고인돌(2) (사진 154)



(지도39) 堯浦里 고인돌 및 明月里 유물산포지 위치(1/5,000)



(지도40) 東日里·日果里·下鼻里 고인돌 위치(1/25,000)

大靜邑 東日里 1619번지 밭 한가운데에 있으며, 上石의 규모는 길이 218cm, 폭 195cm, 두께 65cm이다.

上石 전체모양은 타원형에 가까운 육각형이며 장축은 북동쪽을 가리키고 있다. 支石은 남서, 동남, 동북쪽 3곳에 있는데 割石과 작은 돌로 겹겹히 고였다. 上石 남서쪽 측면에 긴 홈줄이 보인다.

③ 東日里 고인돌(3) (사진 155)

앞서 고인돌과 같이 大靜邑 東日里 1619번지 밭에 있다.

上石의 규모는 장축길이 205cm, 폭 155cm, 두께 40cm로 윗면이 평평한 오각형이다. 장축은 북동쪽을 가리키며 上石주위를 돌아가며 9군데에 塊石狀 支石을 고였다.

④ 東日里 고인돌(4) (사진 156)

大靜邑 東日里 1618번지와 1619번지 사이 밭담에 묻혀 있으며, 上石은 길이 255cm, 폭 210cm, 두께 35~52cm로서 북서방향으로 장축이 놓여 있고, 支石은 上石의 남쪽에 치우쳐 3매의 塊石 또는 板石으로 고여 있는데, 그 支石의 크기는 대략 35~45cm 길이에 25~35cm 폭을 가진 것이다.

⑤ 東日里 고인돌(5) (사진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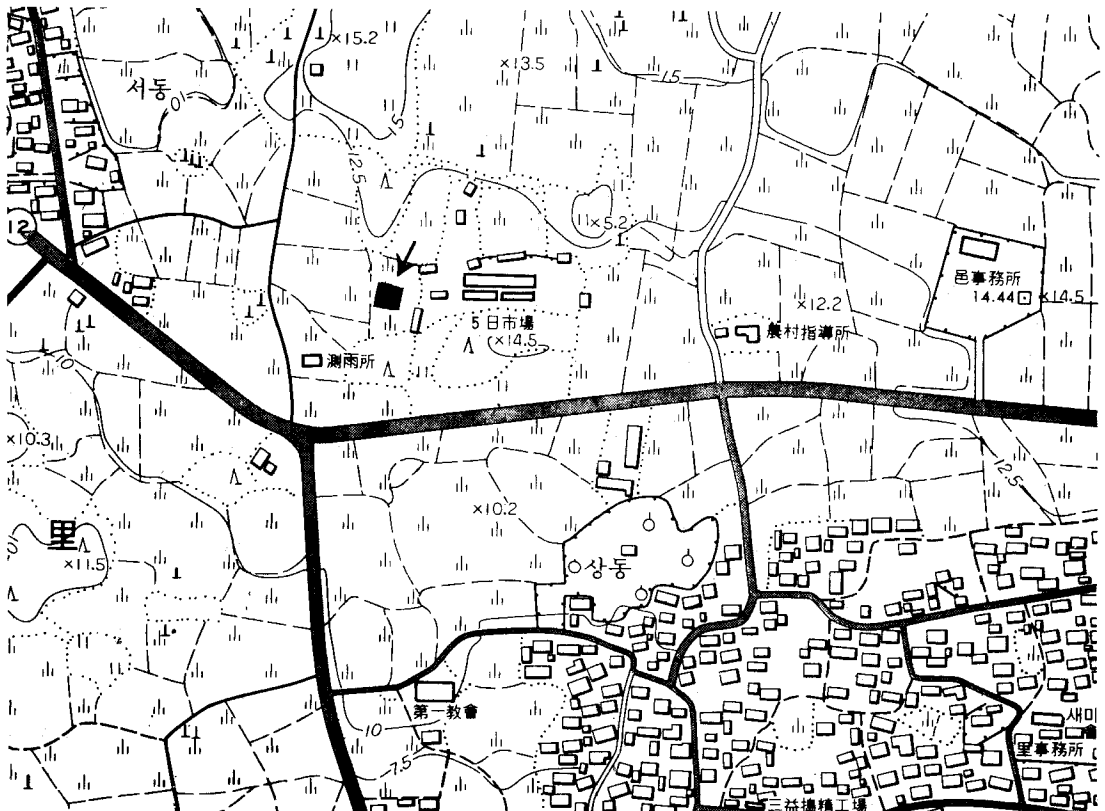
大靜邑 東日里 1614번지의 밭 한가운데 있으며 上石은 길이 176cm, 폭 140cm, 두께 40cm이다. 장축은 북동쪽을 가리키며, 支石은 上石 下部 중앙에 5매의 크고 작은 割石으로 높게 고이고, 서북쪽으로 25×17cm의 塊石을 고였다. 동북쪽으로 支石이 없어 上石은 이쪽으로 들려 있는 형상이다.

14. 日果二里 고인돌(지도 40:사진 158)

大靜邑 日果二里 1021번지 밭 한가운데에 있으며, 上石은 길이 205cm, 폭 162cm, 두께 35~75cm로 윗면이 평평한 타원형이고 정남북 방향으로 장축이 놓여 있다.

支石은 上石의 남서쪽에 길이 72cm, 폭 26cm, 두께 15cm의 대형 板石狀支石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남동쪽으로 1매의 길이 25cm, 폭 10cm의 塊石狀支石이 고여 있다.

上石의 서쪽측면으로 흠줄이 보인다.



(지도41) 下幕里 고인돌 위치(1/5,000)

15. 下幕里 고인돌(지도 40,41:사진 159)

大靜邑 下幕里 1268-1번지 언덕에 있으며, 上石의 길이 242cm, 폭 185cm, 두께 60cm로 북서쪽으로 장축이 놓여 있다.

支石은 작은 塊石이나 割石으로 8매가 上石 주위를 돌아가면서 고였는데, 북동방향에 15×35×12cm의 비교적 큰 割石이 고여 있어 남서쪽으로 기울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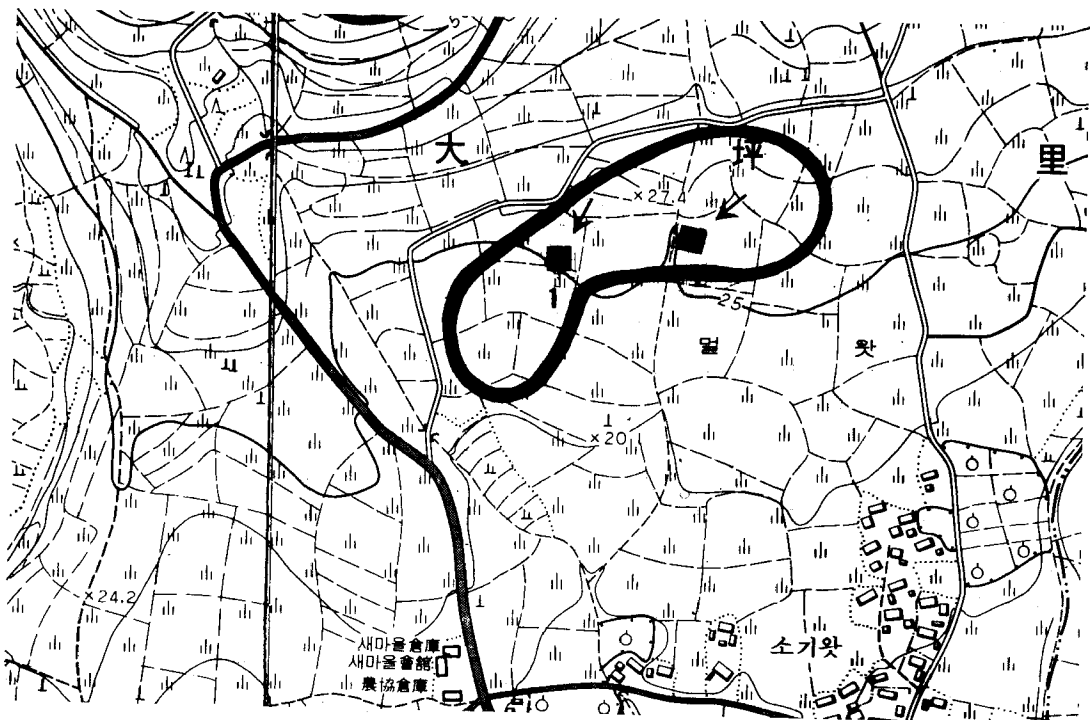
16. 倉川里 고인돌群(지도 42)

① 倉川里 고인돌(1) (사진 160)

安德面 倉川里 966-1번지 높낮이가 다른 밭경계에 있으며, 上石은 길이 250cm, 폭 235cm, 두께 41cm의 큰 板石狀으로 장축방향은 서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上石을 고이고 있는 2매의 支石은 잘 다듬어진 대형 판돌로 각각 93×98×15cm, 92×95×15cm의 크기를 갖고 있어 얼핏 북방식 고인돌을 연상케 한다.

이 板石狀 支石은 남서, 북동쪽에 고이고, 북서쪽은 上石이 매몰되어 支石이 확인이 않되고



(지도42) 倉川里 유물산포지 및 고인돌 위치(1/5,000)

남동쪽은 支石 없이 上石하부가 노출되어 있는데, 대체로 龍潭洞 발굴 고인돌 및 고인돌(1)과 光寺里(4) 및 (15)와 형식상 통하는 고인돌이다.

② 倉川里 고인돌(2) (사진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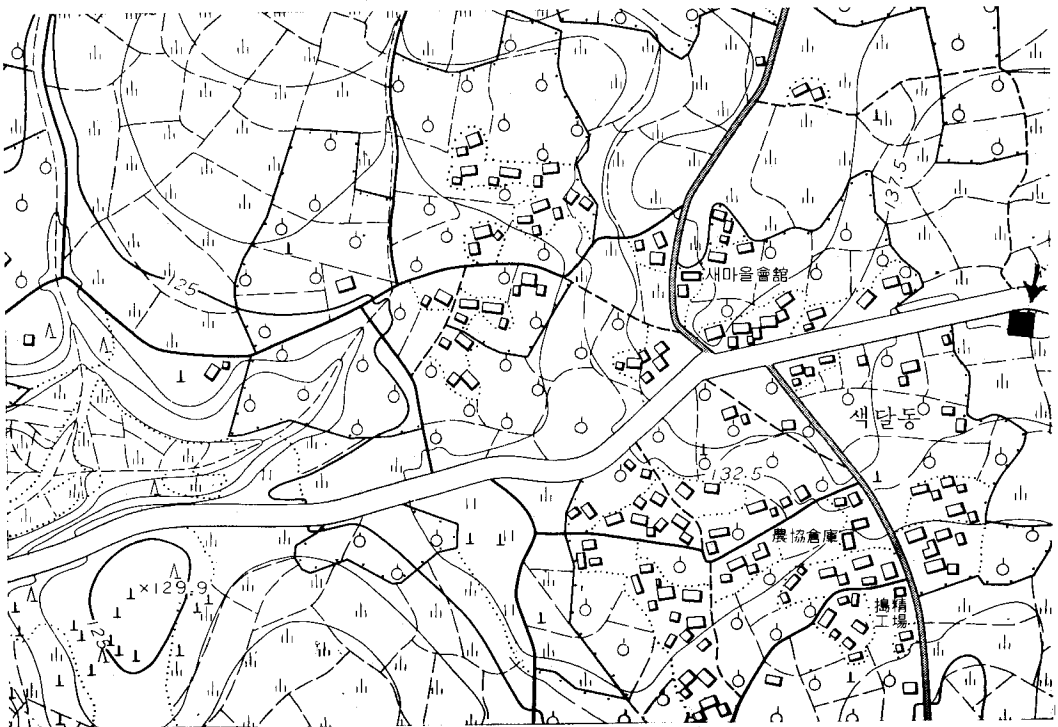
安德面 倉川里 707-2번지 발 한가운데에 있으며 앞서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70cm 떨어져 있다. 上石은 장방형으로 길이 287cm, 폭 135cm, 두께 60cm로서 서북방향으로 장축이 높여 있다. 支石은 서북쪽에 큰 塊石狀 支石과 서남쪽으로 板石狀 支石이 수평으로 고여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17. 穡達洞 고인돌(지도 43:사진 162 및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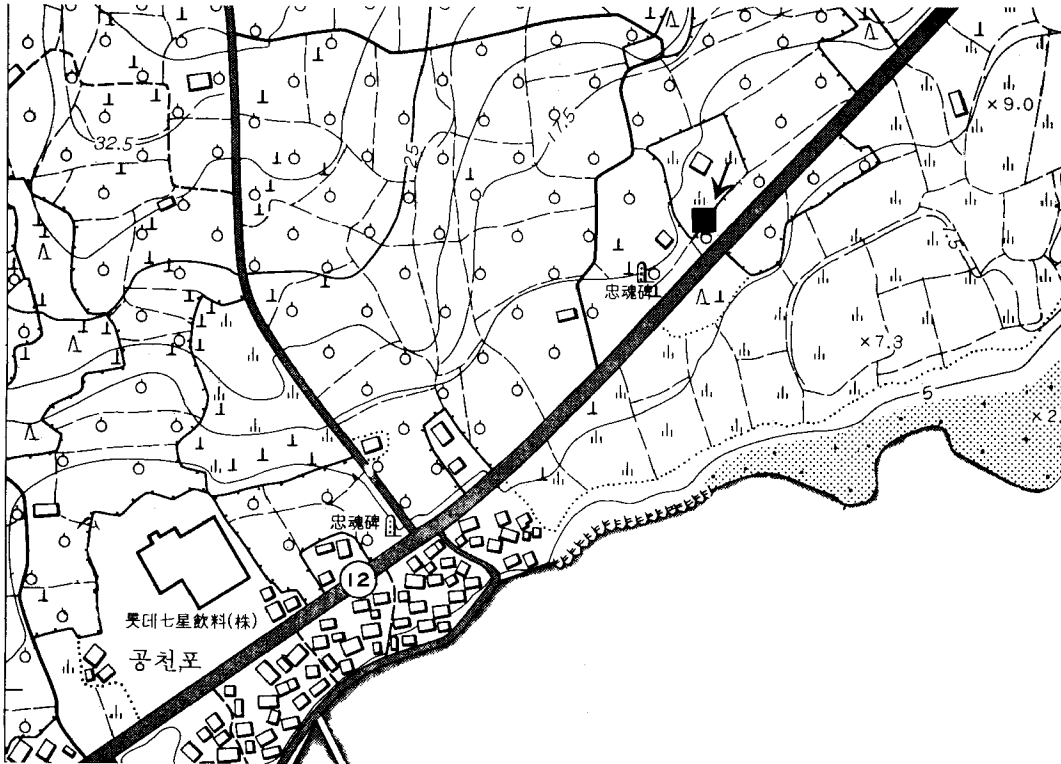
서귀포시 穡達洞 1742번지로 색달동마을에서 東쪽의 큰 도로를 따라 500m 떨어져 길 오른쪽 연변에 있다.

上石은 길이 315cm, 폭 275cm, 두께 35~75cm로 북쪽을 장축방향으로 하고 있고, 支石은 두툼한 割石으로 二重고임을 두군데한 것을 포함하여 上石주위를 돌아가며 5군데 하였다.

二重고임의 支石크기는 동북쪽이 것이 35×95cm, 23×28cm이고 서북쪽 것은 52×25cm, 52×47cm로, 이러한 二重고임의 支石형식은 앞서 貴日里 고인돌에서 본 바 있다.



(지도 43) 穡達洞 고인돌 위치(1/5,000)



(지도44) 新禮2里 고인돌 위치(1/5,000)

18. 新禮2里 고인돌(지도 8, 44:사진 164)

南元邑 新禮2里 245번지 일주도로 북편 연변 밭 돌담사이에 있으며, 上石은 길이 180cm, 폭 15cm, 두께 83~55cm로 북쪽을 장축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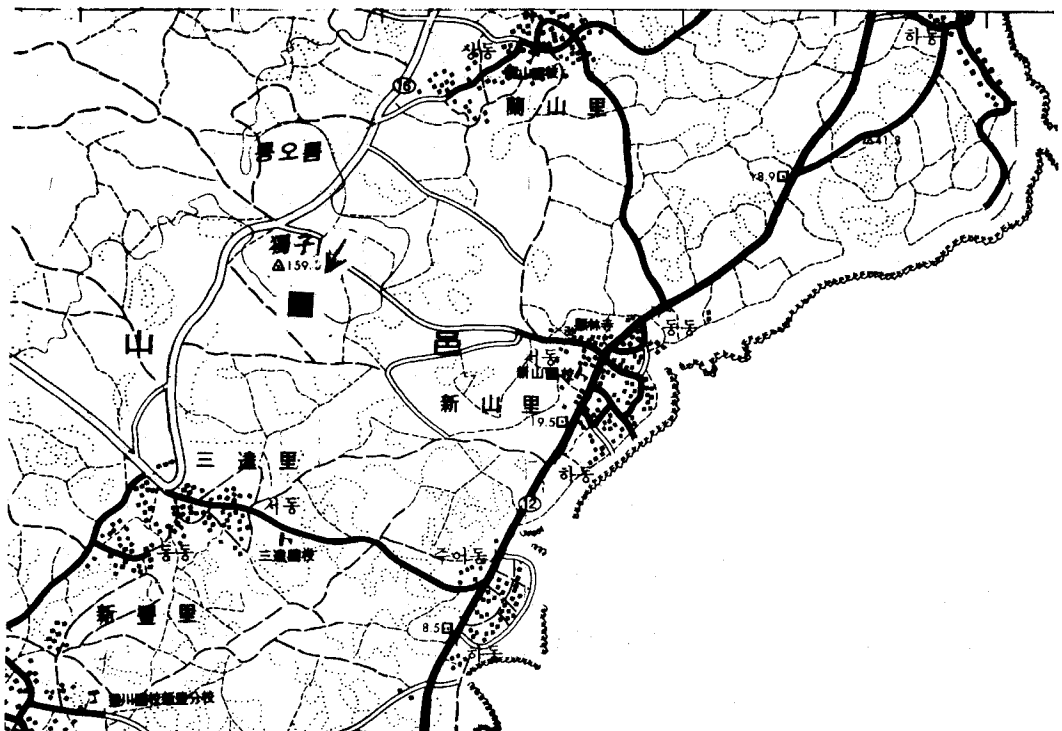
上石의 남동, 정남, 서북쪽에 각 1매씩의 支石이 고여 있는데 上石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편이다.

19. 新山里 고인돌(지도 45, 46:사진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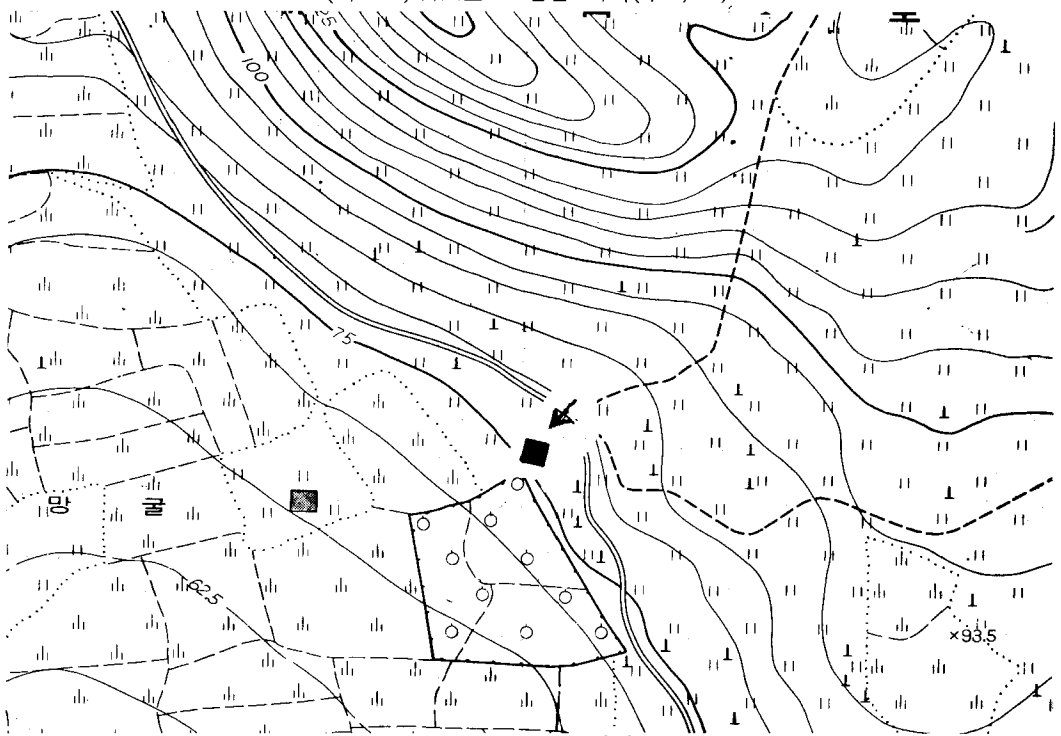
城山邑 新山里 1539-3번지의 길옆 울창한 소나무숲속에 있다.

上石은 길이 210cm, 폭 145cm, 두께 15cm의 고른 두께의 板石形으로 정남북을 장축방향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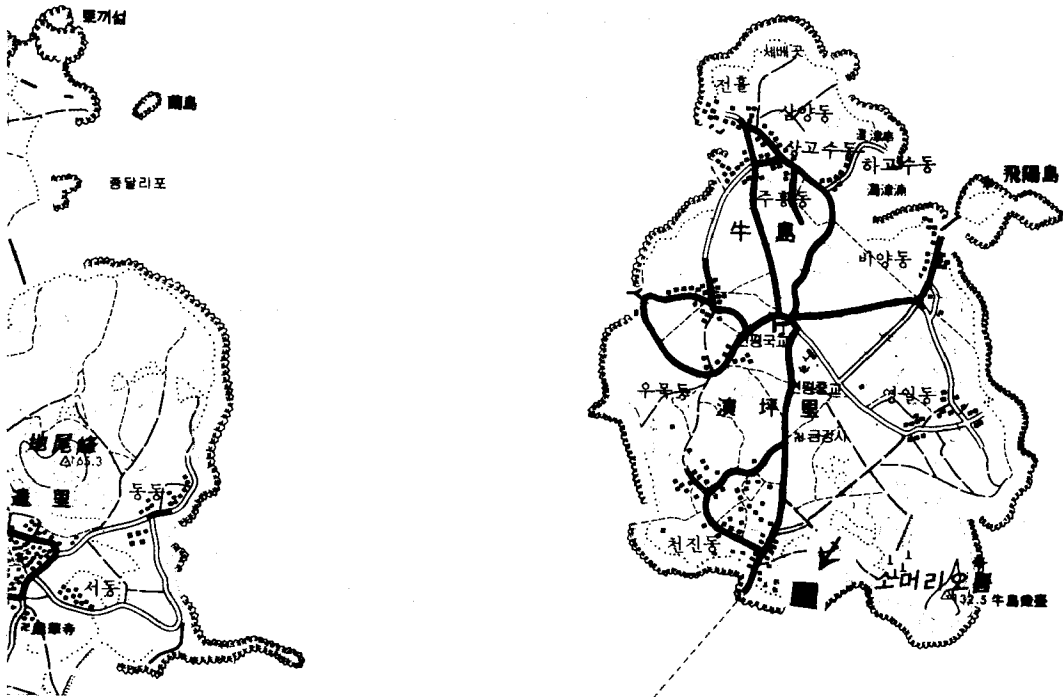
支石으로 上石 동쪽에 85×55×20cm 板石狀 支石과 동쪽에 塊石狀 支石이 확인되었으며, 남서쪽은 上石이 거의 지면에 닿아 있다.



(지도45) 新山里 고인돌 위치(1/50,000)



(지도46) 新山里 고인돌 위치(1/5,000)



(지도47) 牛島 고인돌 위치(1/50,000)

20. 牛島 고인돌(지도 47:사진 166 및 167)

牛島에서 城山日出峰을 마주보는 해안 절벽 위에 있으며, 上石은 대체로 길이 200m, 폭 150cm, 두께 60cm내외의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濟州島 본섬의 한라산 主峰을 향하는 동·서방향이다. 현재 上石 북쪽에 1매 그리고 동쪽에 上石이 비탈을 따라 다소 미끄러진 결과 드러난 납작한 支石 2매가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 확실한 支石인지의 판단은 발굴조사에 의해 이루어질 일이다.

21. 加波島 선돌 및 고인돌群(지도 19)

우리나라 最南端의 섬 마라도를 마주보는 加波島 남쪽의 경작지대에 고인돌이 群을 이루고 있다. 그 숫자는 보다 정밀한 지표조사 및 발굴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30基 이상이 있으며, 대부분이 支石이 없거나 地表下에 묻혀있는 형식이다. 선돌은 그중 제일 남쪽에 위치한다. 여기서는 선돌과 고인돌 일부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후의 조사에 미룬다.

① 加波島 선돌(사진 168)

높이 173m, 폭 120cm, 두께 45m의 넓적하고 끝부분이 다소 뽕족한 타원형의 板石이 발 한

가운데에 곧추 세워져 있다. 선돌의 1/5정도가 지표아래에 묻혀 있으며, 이와 같은 선돌이 고인돌群과 같이 있는 예는 全南지방을 중심으로 한 남한지방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

② 加波島 고인돌(1) (사진 170)

길이 250cm, 폭 175cm, 두께 60cm의 上石이 동북방향으로 장축이 나 있다. 支石이 없는 蓋石式으로 추정된다.

③ 加波島 고인돌(2) (사진 171)

앞서 고인돌 같은 草地밭에 있으며 支石 1개가 노출되어 있다.

上石은 길이 201cm, 폭 130cm, 두께 45cm로 동북방향으로 장축이 나 있다.

④ 加波島 고인돌(3) (사진 172)

거북등처럼 널찍한 上石을 가진 고인돌로, 길이 360cm, 폭 220cm, 두께 85cm로 장축은 남동 방향이고, 上石 일부가 지표下에 매립되어 있다.

⑤ 加波島 고인돌(4) (사진 173)

밭 한가운데 있으며, 길이 220cm, 폭 200cm, 두께 70cm 정도의 上石이 지표하에 일부 묻혀있다.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⑥ 加波島 고인돌(5) (사진 174)

밭돌담에 쓰러져 있으며, 上石의 크기는 길이 400cm, 폭 275cm, 두께 100cm이다.

⑦ 加波島 고인돌(6) (사진 175)

밭 한가운데에 있으며, 上石의 크기는 길이 280cm, 폭 240cm, 두께 100cm 내외로,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고, 支石이 없는 蓋石式으로 추정된다.

⑧ 加波島 고인돌(7) (사진 176)

加波島 고인돌 중 가장 큰 것으로 길이 560cm, 폭 280cm, 두께 150cm의 上石을 갖고 있다. 북서 방향을 장축으로 하고 있고 支石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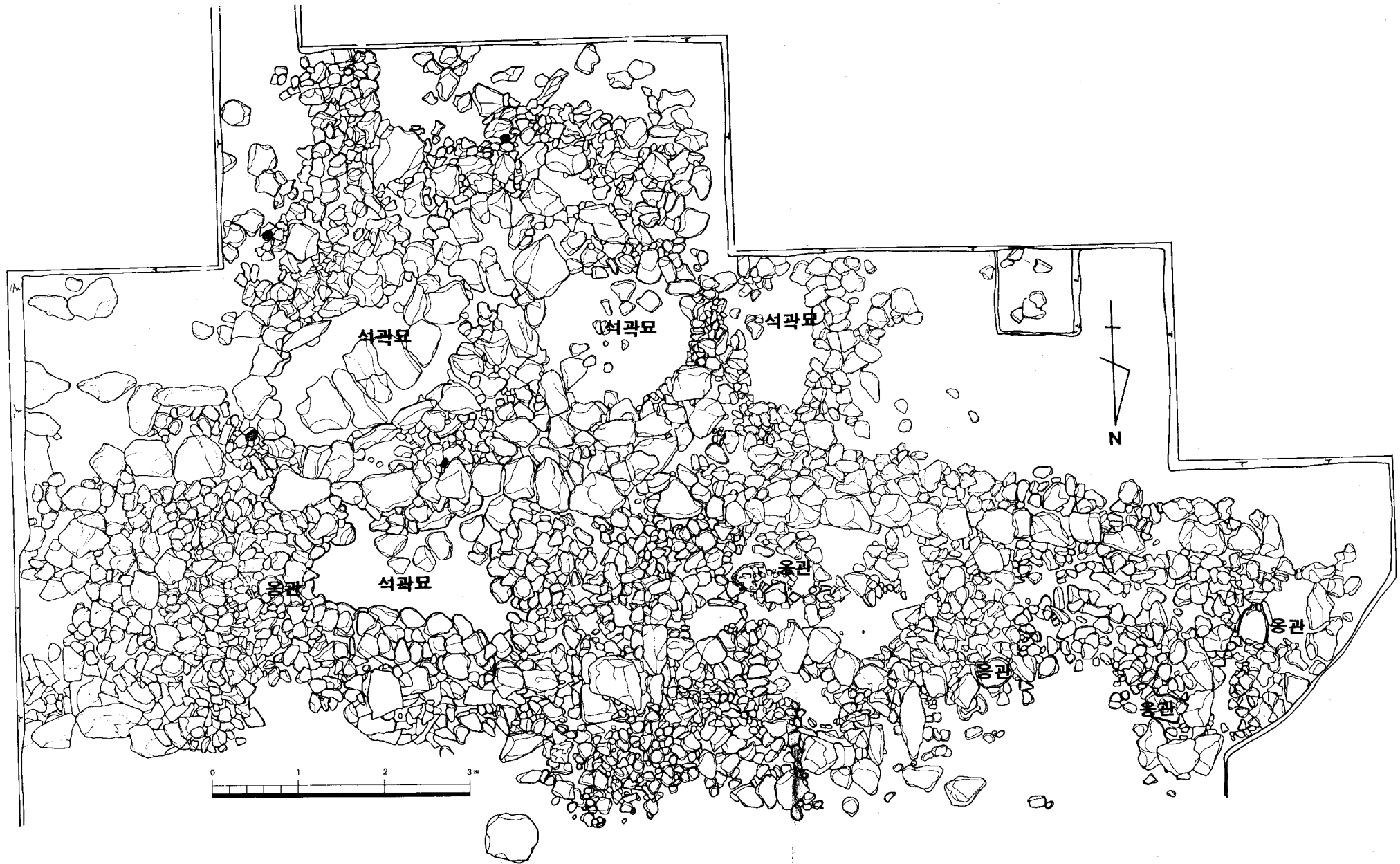
⑨ 加波島 고인돌(8) (사진 177)

앞서 고인돌과 같은 밭에 있으며 윗면이 평평한 上石을 갖고 있다. 길이 300cm, 폭 220cm, 두께 120cm로 정남북방향을 장축으로 하고 있으며 支石은 없다.

22. 龍潭洞 甕棺墓 유적

1) 유적(지도 20:그림 48:사진 178~184)

이 유적은 제주국제공항부지 확장 때문에 이주하게 된 濟州市 道頭二洞 新沙水洞 부락 주민을 위해 신축중인 濟州市 龍潭洞 741번지 내의 주택공사 현장에서, 1984년 10월 이곳 주민이 無文土器 合口式甕棺 1기를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림46) 龍潭洞 龍潭洞 유적 평면 실측도

甕棺이 발견된 지점 주변은 신축중인 주민에 의해 파괴될 것이므로 제주시는 동년 12월 濟州大學校 博物館에 수습발굴 조사를 의뢰해 왔으며, 이에 同博物館은 1984년 12월부터 1985년 1월 옹관출토지 주변 20m×20m 범위의 경작지를 발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층위상으로 볼 때, 제1층의 耕作表土層(두께 20~30cm), 제2층의 明褐色 遺物 非包含層(두께 20~30cm) 두층 아래의 제3층 黑褐色 遺物包含層에서, 동서길이 18m, 남북길이 8m의 積石遺構墓域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조사당시 同墓域의 동쪽과 북쪽끝은 이미 잘려나간 상태였다.

墓域은 한가운데 동서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石列을 경계로 남북 두 구역으로 나뉘었으며, 남쪽 구역에서는 上石은 이미 없어졌으나 고인돌 地下埋葬施設처럼 보이는 橢圓形 石槨墓 3기가 조사되었고, 북쪽 구역에서는 6기의 甕棺墓와 1기의 長方形 石槨墓가 조사되었다.

남쪽 구역의 석곽묘중 가장 큰 것은 장축 북동-남서방향으로 길이 260cm, 폭 140cm, 깊이 50cm로서, 중앙 바닥면에 屍身을 安置하고 積石을 한 다음 그 위를 6매의 板石으로 덮은 것으로, 뚜껑 돌이 석곽 자체를 완전히 덮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보다 작은 2기의 石槨墓는 앞서의 석곽묘 서쪽으로 잇대어 병렬 축조되었는데, 각각 평면크기가 170cm×130cm, 140×80cm이고 전자는 뚜껑돌이 있으나 후자는 없으며, 크기가 작을수록 석곽의 벽시설이 엉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뚜껑돌이 석곽을 완전히 덮지 못하거나 아예 없다는 점과 석곽의 벽시설이 엉성한 점으로 보아, 원래 支石墓로서 上石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것은 금후의 더 많은 조사연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다. 이 구역에서 나오는 유물을 보면 공렬토기 등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유물이 출토되므로 후술한 북쪽구역보다 앞선 시기에 축조된 것이 되겠다.

鐵器遺物이 무덤안과 積石 틈에서 발견되는 북쪽 구역은 광범한 積石群을 이루고 있었고, 無文土器甕棺은 일정한 원칙없이 이곳 저곳에 놓여 있었으며, 石槨墓 1기는 다소 동쪽에 치우쳐 있었다. 이 북쪽구역은 당초 경작지를 조성할 때 그 上部의 상당 부분이 교란되었기 때문에 무덤의 原形이 많이 파괴되어 정확한 원래모습을 알아 낼 수는 없었지만, 甕棺은 모두 작은 割石으로 둘러 있으면서 두개의 크고 작은 無文土器 항아리가 맞물린 合口式, 한개의 항아리를 비스듬히 또는 수직으로 묻은 單甕式 등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처음 주민이 신고했던 甕棺이 거의 原狀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東枕의 合口式으로 총 길이 80cm이며, 이 옹관을 포함해서 모든 옹관에 사용된 土器는 郭支貝塚 II지구 1, 2층에서 金海式土器와 共伴出土한 廣口外反口緣無文土器항아리이다.

이 북쪽구역의 石槨墓는 길이 230cm, 폭 80cm의 細長한 長方形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上部의 대부분은 깎여 나갔다. 長軸은 동서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同 石槨墓內的 鐵製 副葬遺物의 출토상황을 보아 被葬者는 東枕한 것으로 파악된다.

2) 유 물

앞서 말했듯이 남쪽 및 북쪽구역은 서로 다른 시기에 축조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출토유물을 두 구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남쪽구역

石槨墓내에서 부장품으로 뚜렷하게 인정될만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고, 다만 다량의 무문토기 파편만이 석곽의 벽틈과 바닥면에 수습되었으며, 다만 대팻날 1점이 석곽묘 뚜껑을 틈에서 출토되었을 뿐이다.

① (그림47-1~3:사진 185-1,2,3,6)

직립구연에 바깥에서 공렬장식을 가했는데, 구멍깊이가 매우 얇아 간략화되어 上墓里 유적 공렬토기보다 늦은 시기의 것같은 인상을 준다. 두께 0.7~1.5cm

② (그림 47-4:사진 185-4, 5, 7~10 및 186-1)

직립구연의 골아가리토기로 역시 입술면의 톱날장식이 형식적이다. 두께 1cm내외

③ (그림 47-5:사진 185-1)

직립구연에 간략화된 공렬장식과 입술면의 톱날장식이 함께 있다. 두께 1.0cm

④ (그림 47-6, 7:사진 186-2, 3)

태토가 정선되고 얇은 흑색 및 적갈색 마연토기 구연부편이다. 두께 0.5cm

⑤ (그림 47-8)

동체부로 올라가는 측면이 축약된 평평한 深鉢形土器 바닥편이다.

바닥두께 1cm

⑥ (그림 47-9:사진186-6)

편평외날의 대팻날 석기로서 옹회암製이다. 길이 5.5cm, 폭 4cm, 두께 1cm

(2) 북쪽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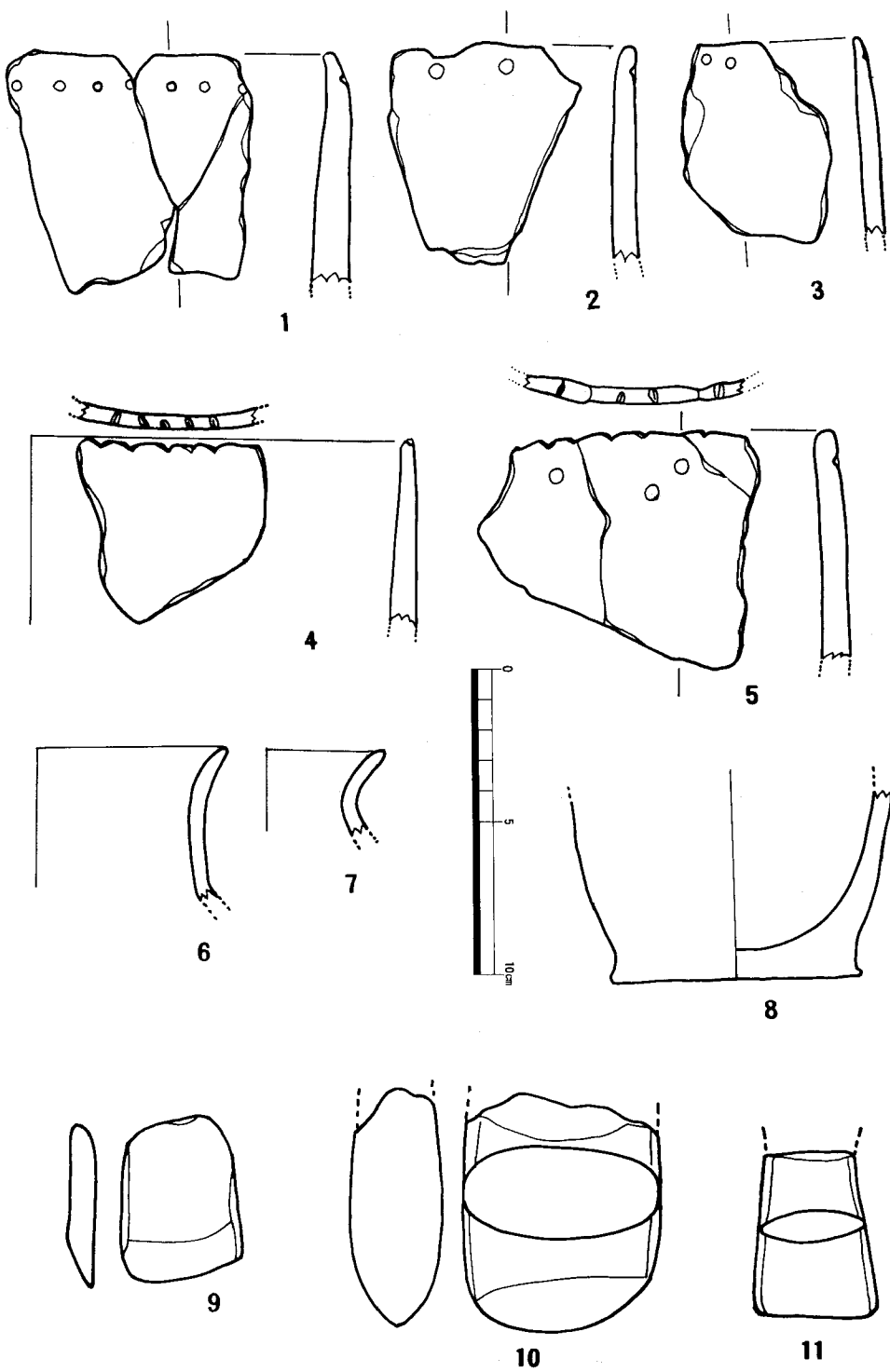
이 구역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철기시대 郭支式 무문토기이고, 金海式土器는 출토되지 않는다. 철기유물은 장검, 단검, 창, 끌모양의 무기, 도끼 등은 석곽묘에 부장된 것이고 화살촉의 대부분은 積石의 틈틈에서 出土되었다.

이밖에 작은 유리구슬이 수십점 수습되었고, 석기로는 磨製石劍 자루片과, 磨製石斧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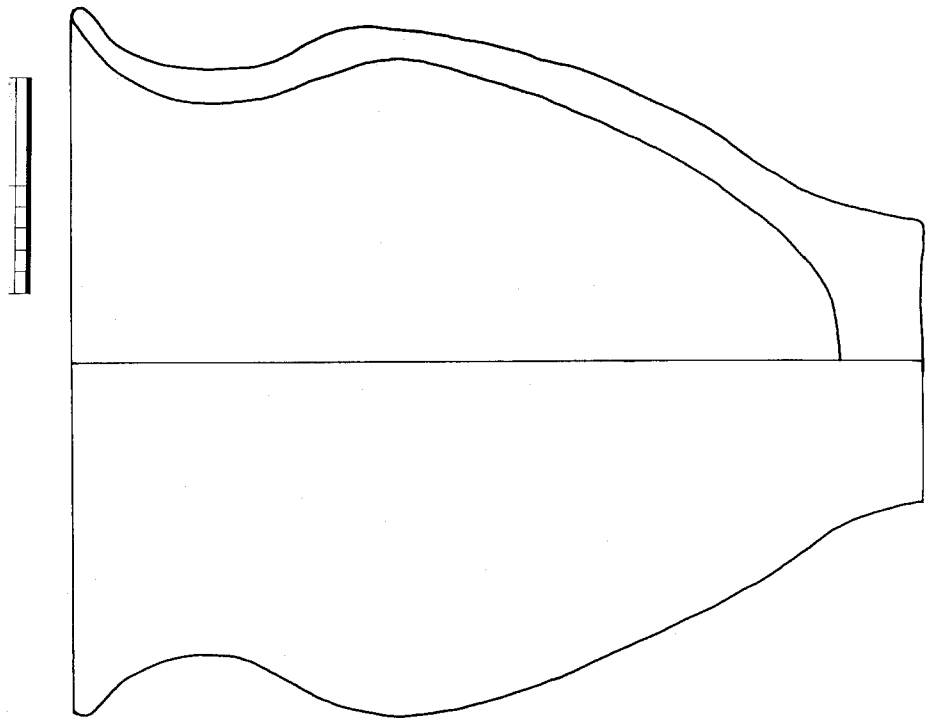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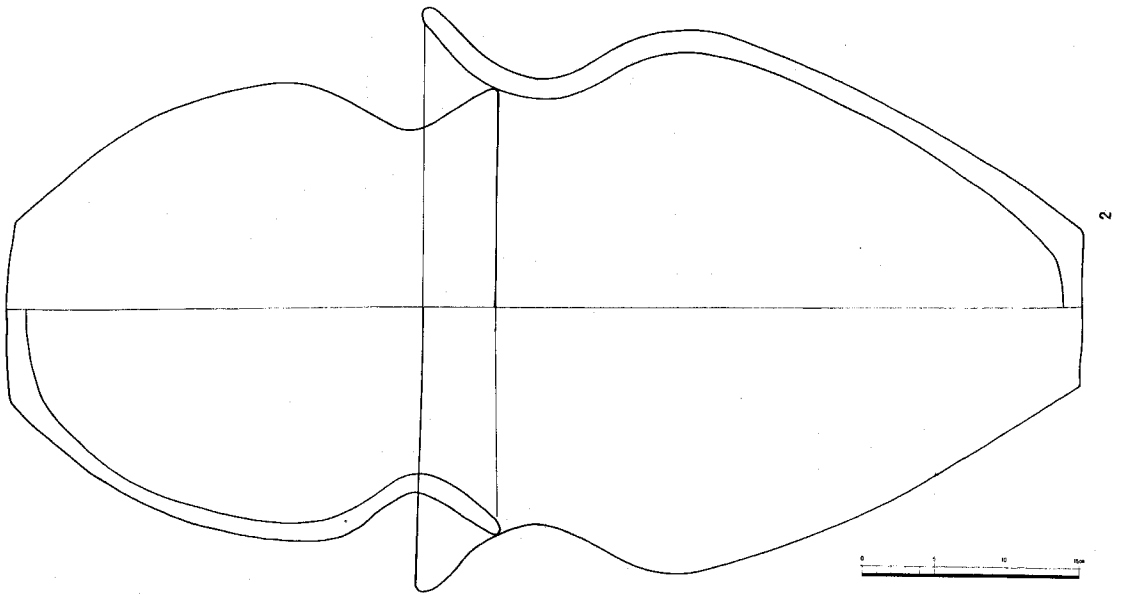
A. 토 기

(그림 48:사진 186-4)은 옹관에 쓰인 토기 完形으로 바닥에 비해 상당히 큰 입지름, 크게 밖으로 휘인 口緣部, 팽창된 어깨, 동체에서 축약없이 이어지는 平底의 바닥, 두터운 두께 이 모든 속성이 郭支 貝塚 II지구 1, 2층 출토의 무문토기와 똑같다.

(그림 48-1)의 토기는 입지름 38.4cm, 높이 40.8cm, 바닥지름 13.7cm



(그림47) 龍潭洞 古墳 출토 토기 및 석기 유물



(그림48)龍潭洞 용관用 무문토기

(그림 48-2)의 合口式甕棺의 대형토기는 입지름 39.9cm, 높이 45.6cm, 바닥지름 10.8cm

소형토기는 입지름 30.3cm, 높이 34.2cm, 바닥지름 12cm

B. 석 기

① (그림 47-10:사진 186-7)

몸통은 쪼이기수법으로 다듬었고 날부분은 마연한 조갯날도끼로 머리부분은 없어졌다. 현재 길이 8cm, 폭 6.8cm, 두께 3.2cm

② (그림 47-11:사진 186-5)

1段柄式 마제석검 자루편으로 융회암으로 만들어졌다. 현재길이 5.5cm, 폭 4.2cm, 두께 1.1cm

③ (사진 186-8)

유리구슬로 青色과 赤色 두종류가 있는데, 큰것은 직경 1cm에 이르나 보통 0.5cm 내외이다.

C. 철 기

기본적으로 중국 漢代에 유행하던 형식으로 이시기에 해당하는 평남, 황해도 및 경상도지방의 土壙墓, 土壙木槨墓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는 유물이다. 비슷한 계통의 철기는 같은 시기 九州 지방에서도 출토하여 당시 교역을 통한 서로간의 왕래모습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 되겠다.

① (사진49-1, 2:사진 187-2, 3)

長劍으로 2점 모두 전체길이 85cm이며, 스페길이는 각각 21.5cm, 16.5cm, 劍身幅은 3.4cm, 3.2cm이다.

검신 횡단면은 마름모꼴이고, 스페는 장방형을 이루며, 스페 가운데에 자루못을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 있다.

② (사진 49-3:사진 187-1)

전체길이 44cm인 短劍으로 스페만의 길이 12.5cm, 劍身幅은 4cm이다.

③ (사진 49-4:사진 187-6)

積石 사이에서 발견된 鐵鉞로 날부분은 버들모양을 이루고 횡단면은 볼록렌즈 모양이다. 전체길이 18cm, 스페길이 8cm, 날폭 3.7cm인 短莖式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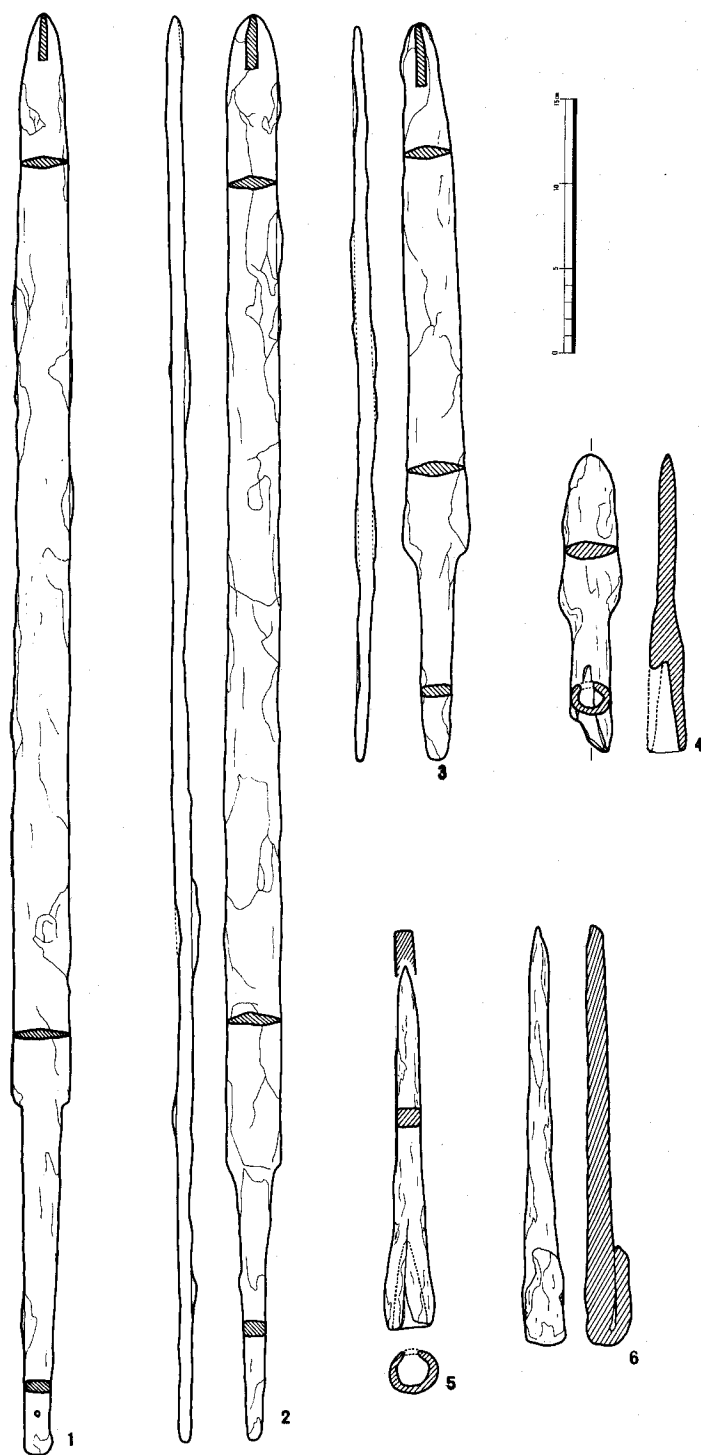
④ (사진 49-5, 6:사진 187-4, 5)

소위 끝형 무기로 한점은 자루를 박는 소켓트가 있으며, 몸통 횡단면은 장방형, 날끝은 외날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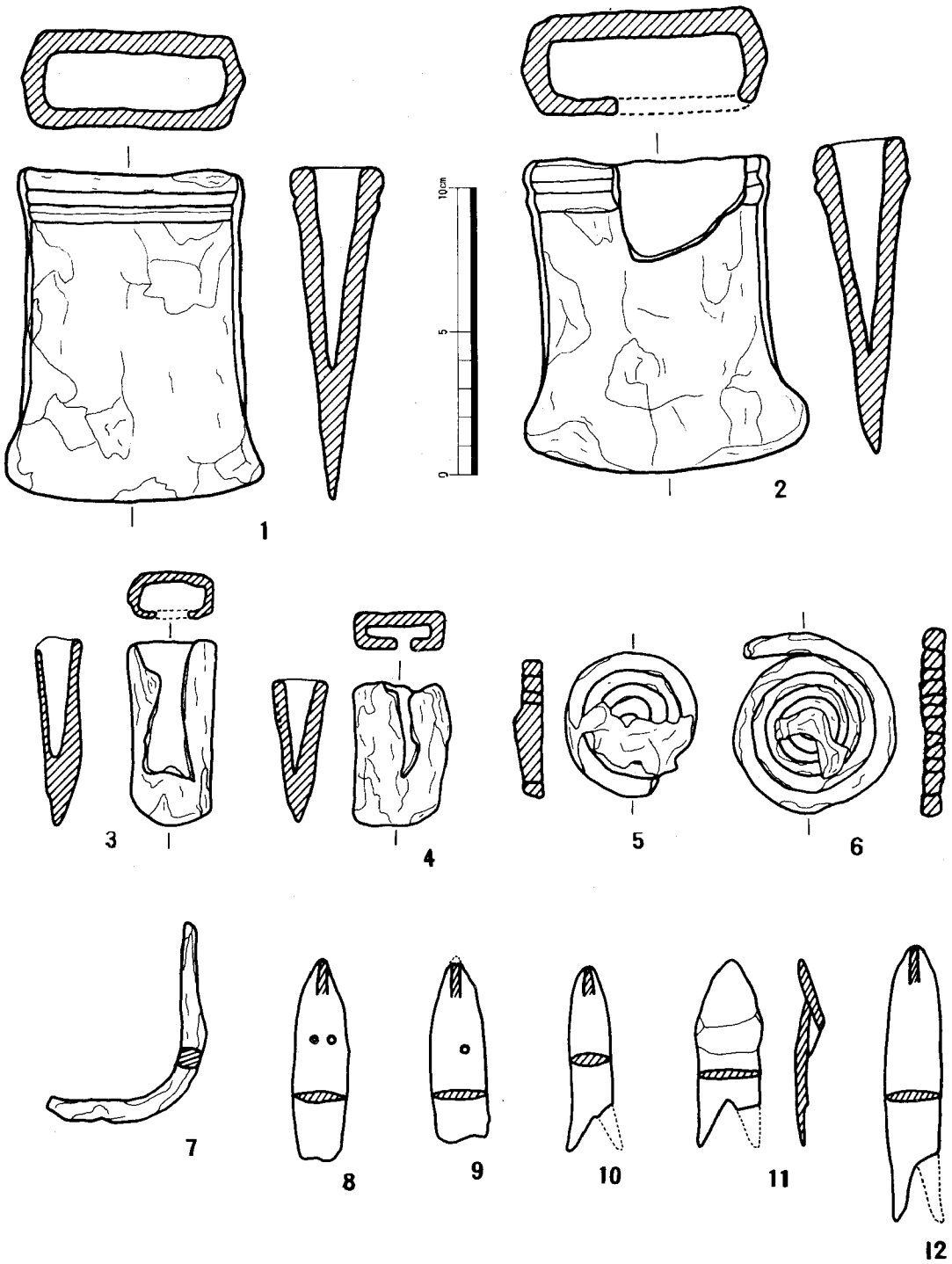
길이 21.7cm, 25.2cm

⑤ (그림 50-1, 2:사진 188-1,2)

鍛造 도끼로 날부분이 부채모양이고, 자루를 박기 위한 소켓트 횡단면은 기본적으로 장방형이나 양측면에 주조 접합면이 있어 변형된 육각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소켓트 주위로 이중돌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보기 드문 형태를 갖고 있다.



(그림49) 龍潭洞 古墳 출토 철제무기(1)



(그림50) 龍潭洞 古墳 출토 철제무기(2)

길이 11.7cm, 11.7cm, 刃部幅 9.2cm, 10.2cm, 두께 3.7cm, 3.8cm로 서로 거의 같은 크기이다.

⑥ (그림50-3,4 : 사진187-7,8)

작은 鍛造 손도끼로 외날형식이며 자루를 박는 소켓트 횡단면은 장방형을 이룬다. 한점은 길이 6.5cm, 刃部幅 3.3cm, 두께 1.5cm이고, 다소 작은 것은 길이 5cm, 폭 3.5cm, 두께 1.5cm이다.

⑦ (그림 50-5, 6:사진 188-3, 4)

용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토예가 없는 나선형의 철기이다. 원래는 두점이 ∞ 모양으로 이어졌던 것이 부러졌다. 직경 4.7cm, 5.7cm

⑧ (그림 50-8~12:사진 188-6~10)

북한지방에는 드문 것이나 남한지방과 일본 九州지방에서 출토예가 많은 양날개를 가진 三角形無莖式의 화살촉이다.

이 유적에서 출토한 화살촉 길이는 4.2cm~10cm 범위내에 있는데 그중 5cm내외 것이 많다. 화살촉 몸통 한 가운데에 자루를 못으로 고정하기 위해 한개 또는 두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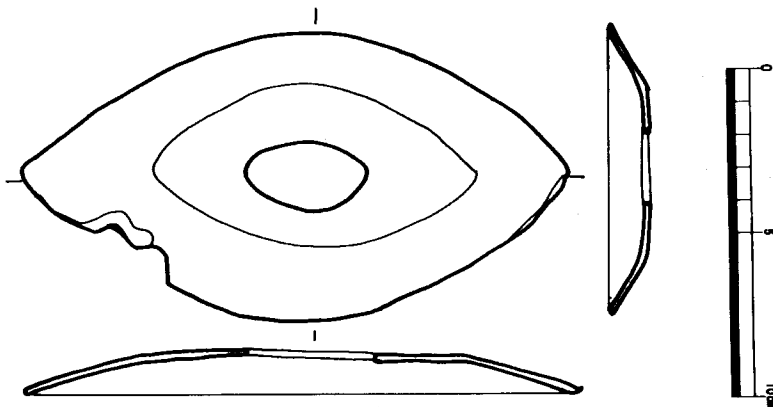
제 7 장 기 타

1. 山地港 出土遺物

1928년 濟州市 健入洞 山地港 축조공사 때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銅鏡 2점, 劍의 부속장식 1점과 五銖錢 4매, 貨泉 11매, 大泉五十 2매, 貨布 1매로 이 화폐유물 대부분이 新의 王奔때(A.D.8~23) 주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시 제주도가 한반도 남해상의 교역중심지의 하나였음을 입증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① (그림 51:사진 189-3)

길이 15cm, 폭 7.7cm, 두께 0.3cm의 은행알 모양의 銅製劍鐔金具로 가운데에 타원형의 구멍이 있다.



(그림51) 濟州市 山地港 출토 청동칼 부속

② (그림 52-1:사진 1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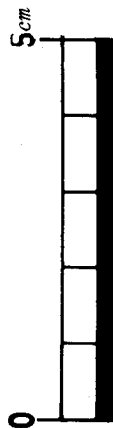
黃銅色을 띤 內行花文鏡으로, 지름 7.6cm, 두께 0.2cm의 小形이며, 1cm 폭의 周緣이 있고 그안에 비스듬히 그어진 線文帶가 있다.

主文樣帶는 內行十弧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仿製鏡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③ (그림 52-2:사진 189-2)

현재 2점의 小片으로 되어 있는 平緣鏡片으로 漢鏡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白銅色이며, 平緣의 안쪽에 비스듬히 그어진 연속평행선 文樣帶가 있다.

복원지름 9.5cm, 두께 0.5cm



1

2



3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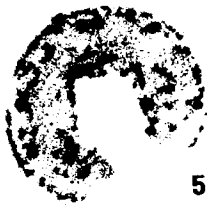
10



11



4



5



12



13



6



7



14



15

(그림52) 濟州市 山地港 출토 유물

④ (그림 52-3:사진 189-4)

王奔때 주조된 貨布로 길이 5.8cm, 폭 2.3cm, 두께 0.2cm이다.

⑤ (그림 52-4, 5:사진 189-5, 6)

大泉五十의 화폐로 직경 2.7cm, 네모구멍의 직경 1cm, 두께 0.2cm이다.

⑥ (그림 52-6, 7, 14:사진 190-1~5)

직경 2.5cm, 두께 0.1cm내외의 五銖錢으로 이 五銖錢이 처음 주조된 것은 前漢代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⑦ (그림 52-8~13, 15:사진 190-6~12)

대체로 직경 2.2cm 내외, 두께 0.1cm내외의 크기를 가진 貨泉으로 각화폐마다 조금씩 세부적 형태가 틀린 것은 각기 다른 곳에서 주조되었기 때문이다.

2. 濟州道 民俗自然史博物館 소장 석기유물(1)

① (그림 53-1:사진 191-1)

大靜邑 武陵二里 출토품으로 전하며, 전면을 쪼이기수법으로 다듬고 날부분을 정교하게 마연한 대형 조갯날 도끼이다.

길이 21cm, 폭 7.2cm, 두께 4.3cm

② (그림 53-2:사진 191-2)

城山邑 新川里 출토품으로 전하는 조갯날도끼로, 머리부분보다 날부분이 넓고 횡단면이 타원형을 이룬다.

길이 12cm, 폭 6.5cm, 두께 4.7cm

③ (그림 53-3:사진 191-3)

涯月邑 郭支里 출토품으로 전하며, 다소 불룩한 배부분에 홈이 있는 有溝石斧이다. 길이 11.5cm, 폭 4cm, 두께 3.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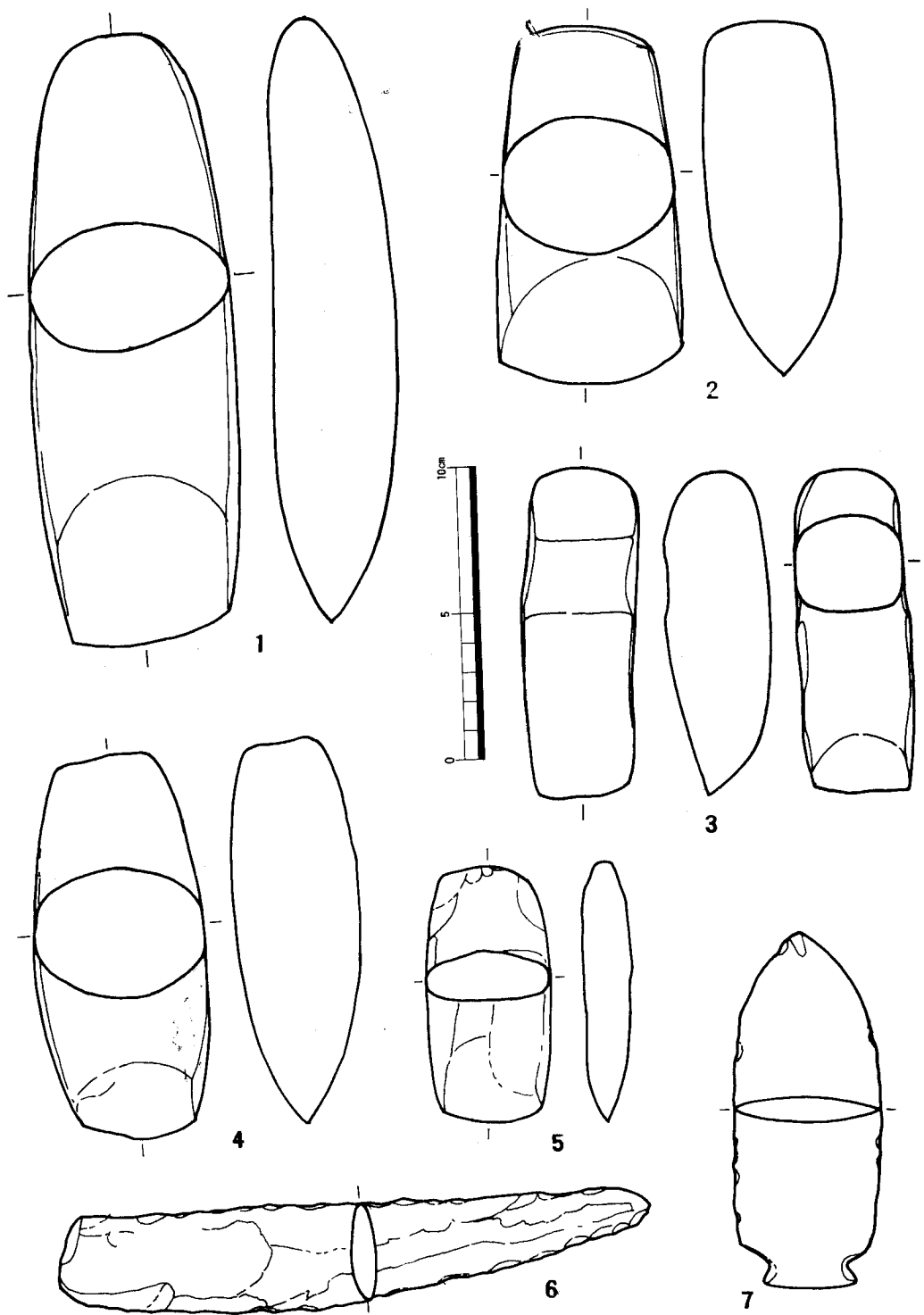
④ (그림 53-4:사진 191-4)

城山邑 溫坪里 출토품으로 전하며, 몸통부분을 쪼이기수법으로 다듬은 횡단면 타원형의 조갯날도끼이다.

길이 13.1cm, 폭 6cm, 두께 4.5cm

⑤ (그림 53-5)

앞서 ④항의 도끼와 같이 출토했다하며 剝片을 떼기수법으로 다듬고 날부분을 마연한 편평 의날도끼로 대팻날에 가깝다. 길이 8.8cm, 폭 4.2cm, 두께 1.7cm



(그림53) 濟州道 民俗自然史博物館 소장 마제석기(1)

⑥ (그림 53-6:사진 191-5)

舊佐邑 細花里 출토품으로 전하며, 응회암製로 전면을 떼기수법으로 다듬고 양날을 엇갈려 떼기로 成形을 한 긴 창모양의 석기이다. 횡단면은 볼록렌즈모양을 이룬다. 길이 20.7cm, 폭 3.7cm, 두께 0.9cm

⑦ (그림 53-7:사진 191-6)

길이가 짧은 石槍으로 횡단면은 볼록렌즈모양이고 짧다란 스펀지를 갖고 있다. 西歸浦市 서흥리 출토품으로 전한다.

길이 12.5cm, 폭 5.1cm, 두께 1cm

3. 濟州道 民俗自然史博物館 소장 석기유물(2)

전부 大靜邑 日果里 일괄출토품으로 전하며, 여기서 소개한 석기 이외에도 수점이 더 있다.

① (그림 54-1~4:사진 192-1~3, 5)

횡단면 타원형에 대부분 몸통부분을 쪼이기 수법으로 다듬고 날부분은 마연수법으로 다듬은 조개날 도끼이다. 길이 6.2~14.2cm, 폭 4.9~7.5cm, 두께 2.1~5cm

② (그림 54-5:사진 192-6)

폭이 좁고 끝이 둔탁하며 횡단면을 네모꼴로 마연수법으로 다듬은 석기로 확실한 용도를 알 수 없다.

현재길이 4.2cm, 두께 1.6cm, 폭 1.8cm

③ (그림 54-6:사진 192-4)

납작한 자갈돌의 양면 가운데를 움푹 패이게 한 홈돌로, 위 아래끝을 타격면으로 이용한 흔적도 보인다.

길이 12cm, 폭 8cm, 두께 4.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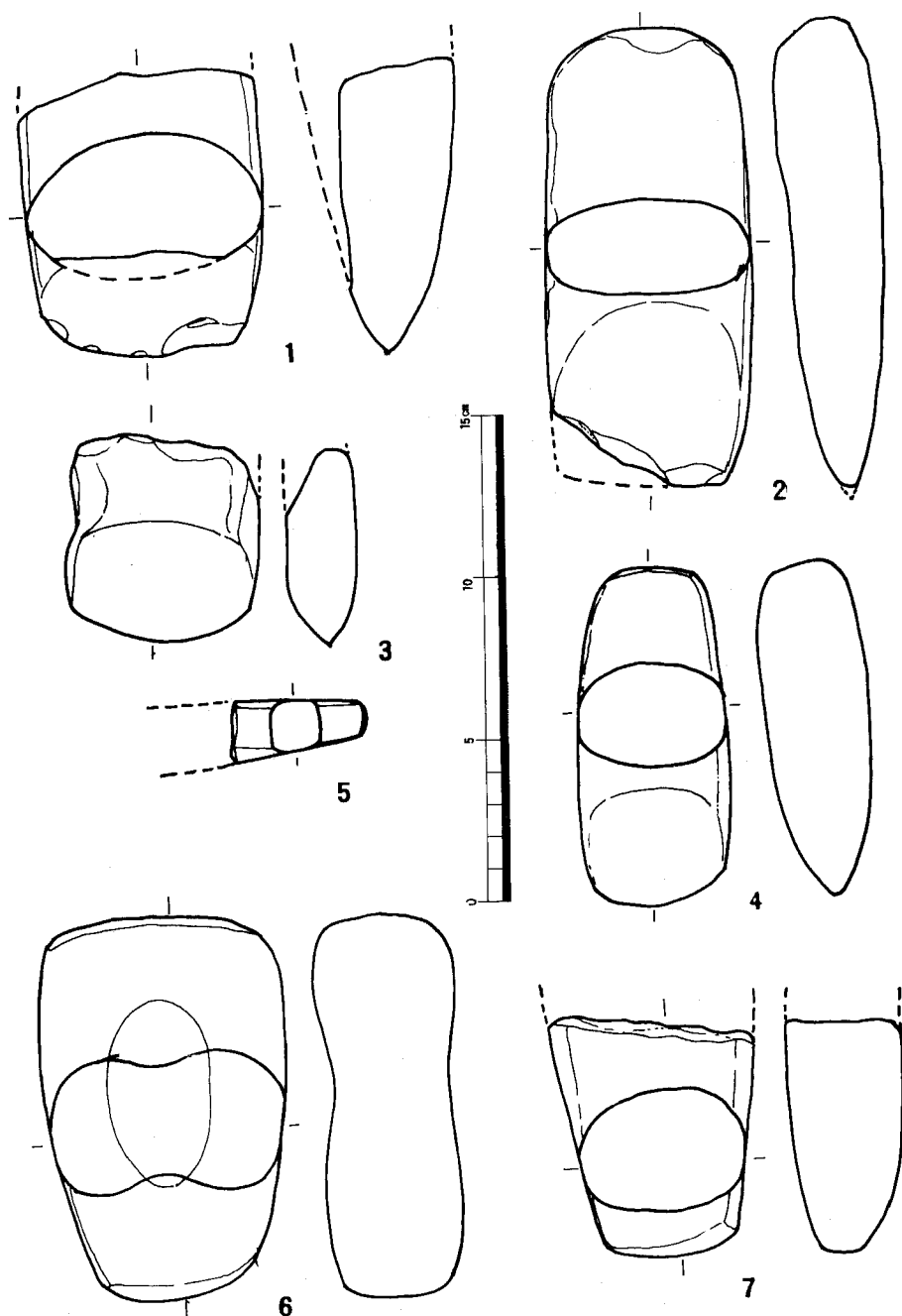
④ (그림 54-7:사진 192-7)

머리부분은 부러져 없어진 도끼모양의 공이로 아래끝은 타격면으로 사용되어 넓게 마모되었다. 현재길이 7.8cm, 폭 6.8cm, 두께 3.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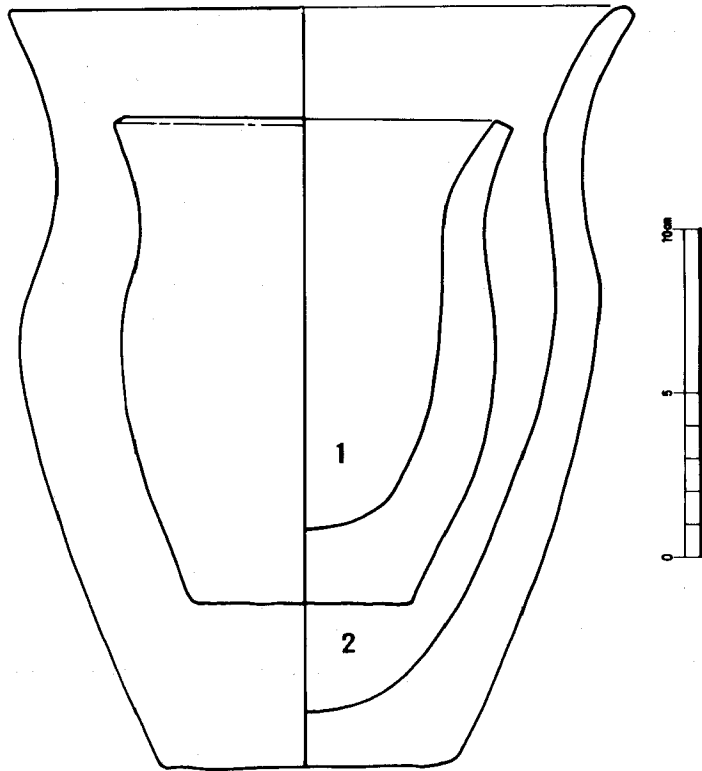
4. 郭支里출토 무문토기(그림 55:사진 193)

涯月邑 郭支貝塚유적에 전신주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토기로 전형적인 철기시대 김해식토기와 공반하는 廣口外反口緣하리의 무문토기 完形이다.

큰것은 높이 23cm, 입지름 19.5cm, 바닥지름 9.2cm



(그림54) 濟州道 民俗自然史博物館 소장 마제석기(2)



(그림55) 郭支里 출토 무문토기

작은 토기는 높이 14.8cm, 입지름 12.5cm, 바닥지름 7cm

5. 濟州大博物館 소장 무문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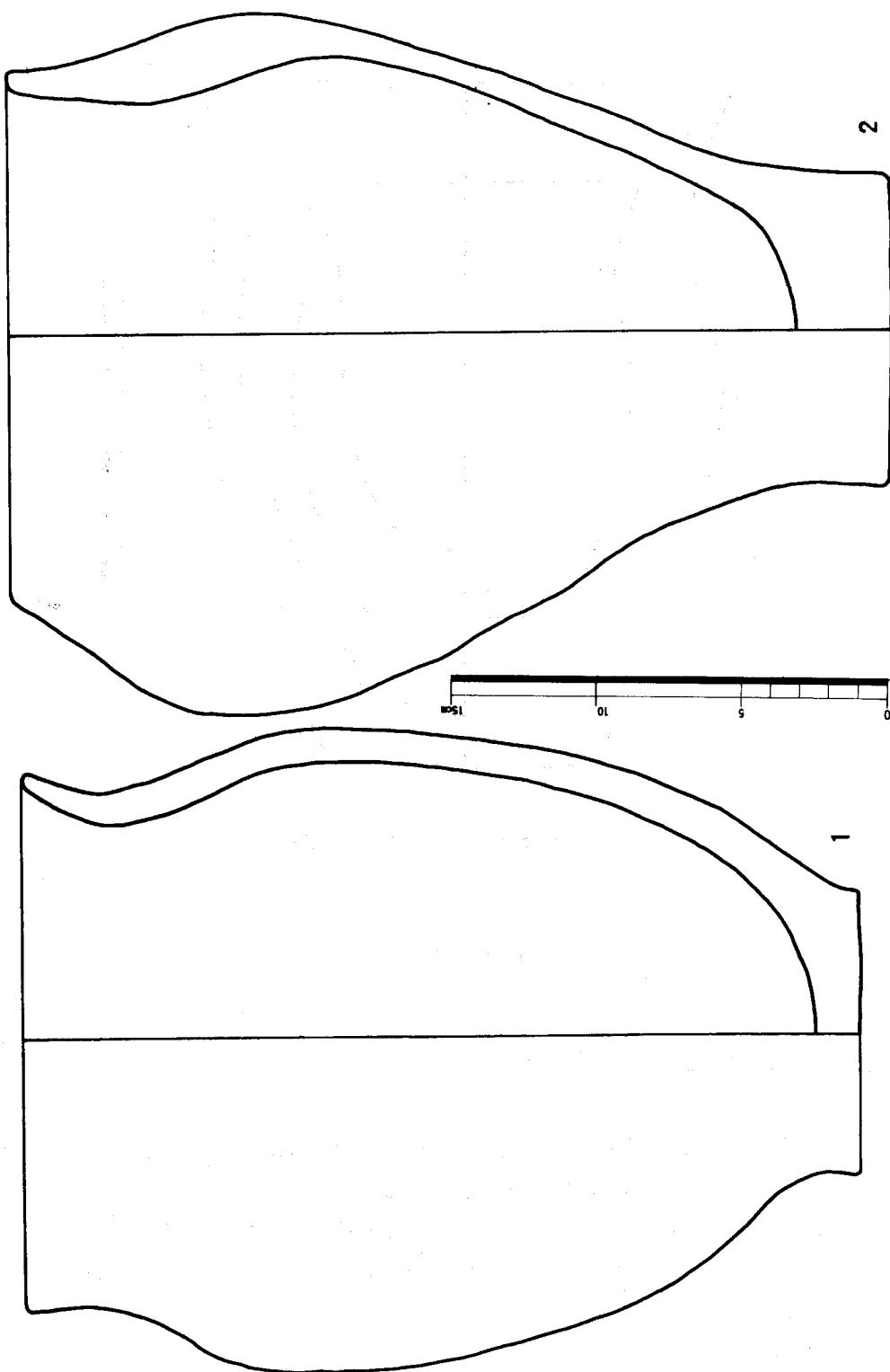
① (그림 56:사진 194)

濟州市 吾羅洞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는 完形의 무문토기로, 태토의 두께, 燒成度가 철기시대의 다른 濟州島 무문토기와 같은 계통이다. 그림 56-2는 구연부가 안쪽으로 기울어 보통 外反口緣인 것과 다르나, 경기도 가평군 馬場里에서도 비슷한 器形의 것이 출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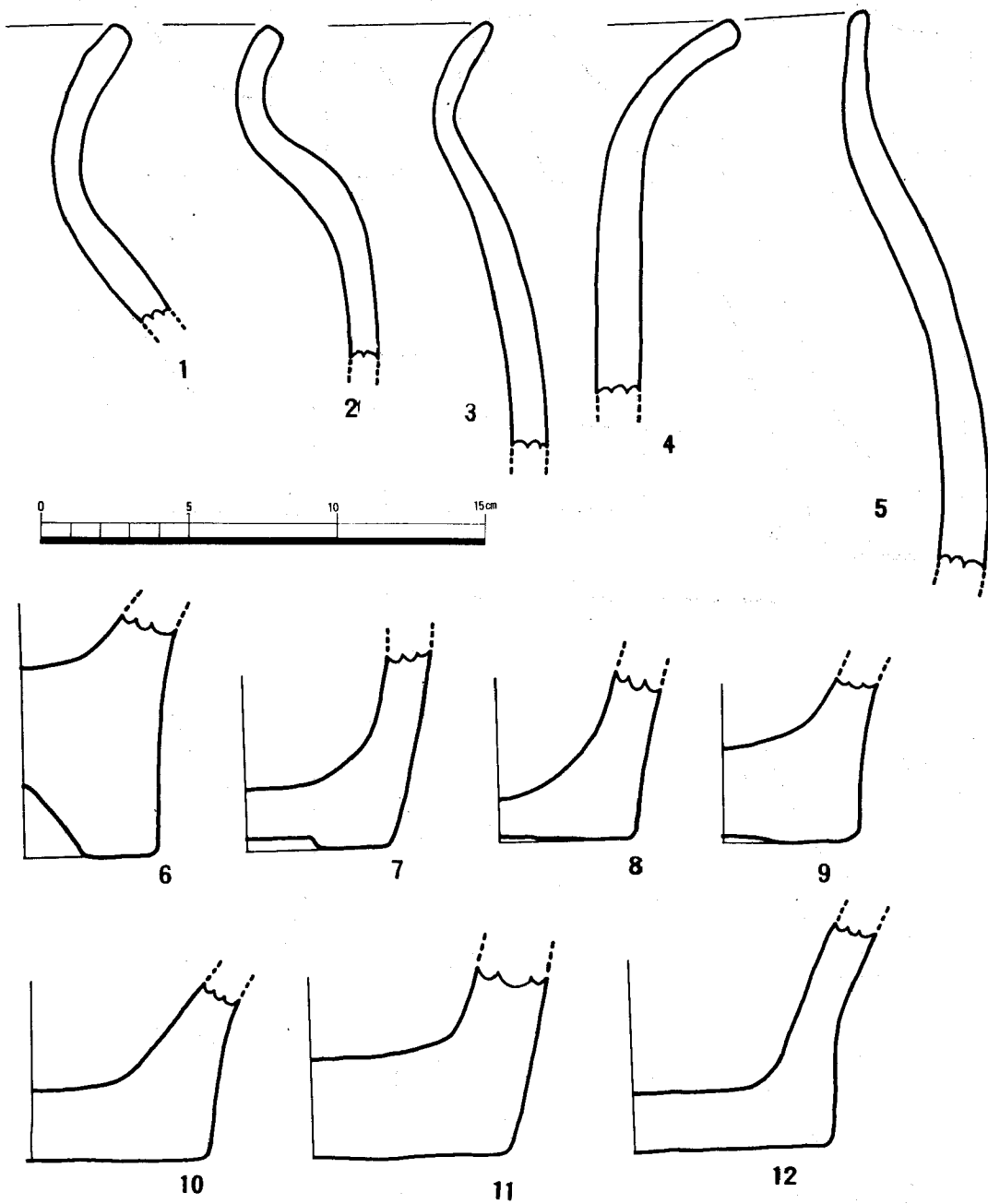
그림 56-1은 높이 29cm, 입지름 18.3cm, 바닥지름 9.8cm, 그림 56-2는 높이 30.2cm, 입지름 18cm, 두께 10.7cm

② (그림 57:사진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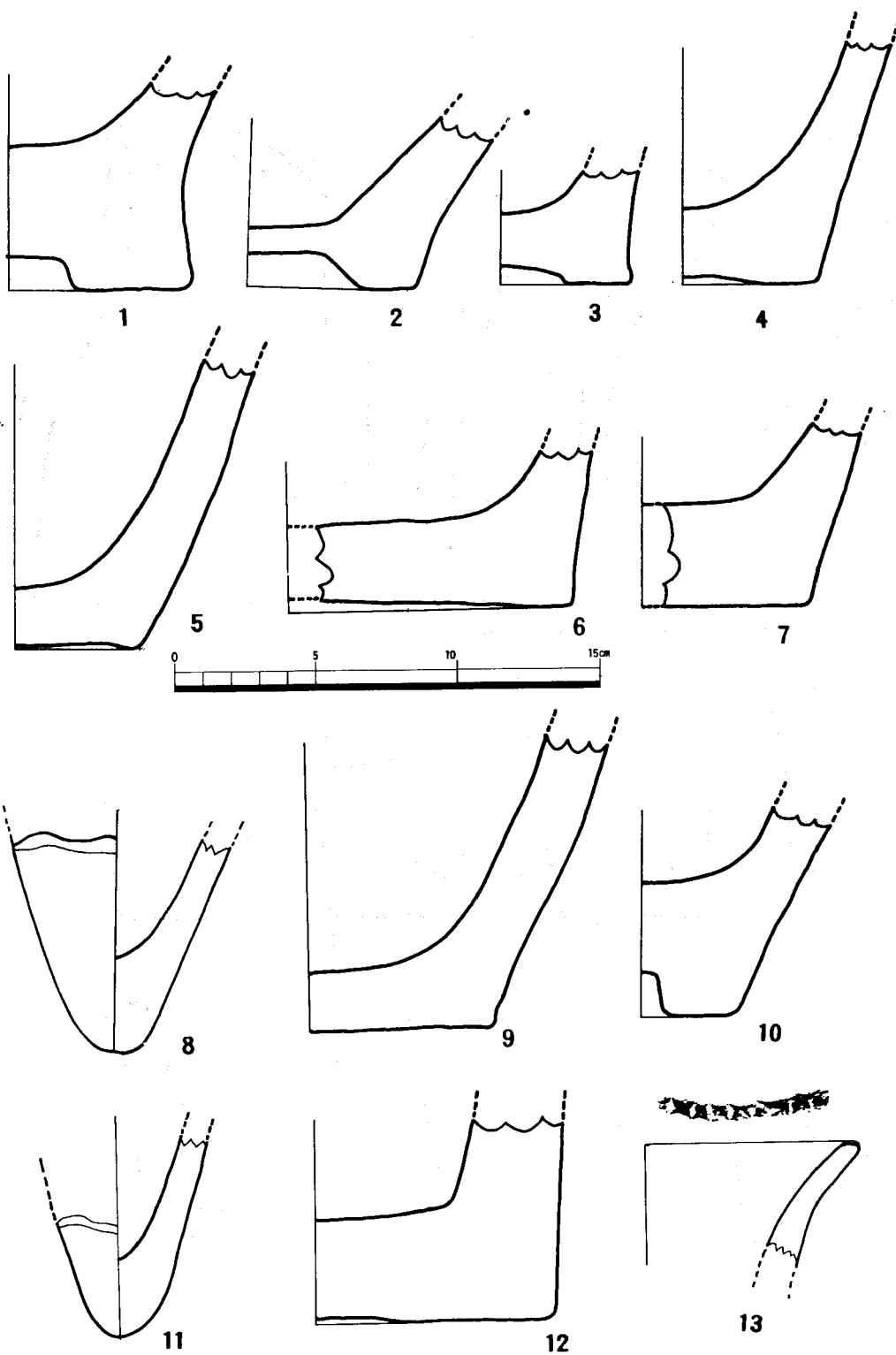
濟州市 龍潭洞, 吾羅洞 일대에서 지표채집한 무문토기편의 일부로 밖으로 크게 휘인 外反口緣,



(그림56) 제주대박물관 소장 무문토기



(그림57) 제주대박물관 수집 무문토기편(1)



(그림58) 제주대박물관 수집 무문토기편(2)

平底이외에 다소 들린 굽을 가진 바닥편의 특징등이 郭支貝塚 II지구 1,2층 출토 토기 양상과 같다.

③ (그림 58-1,7:사진 196-1~6)

濟州市 龍潭洞 舊 濟大 동편 일대에서 지표채집한 것으로 앞서 ②항의 바닥편과 같은 형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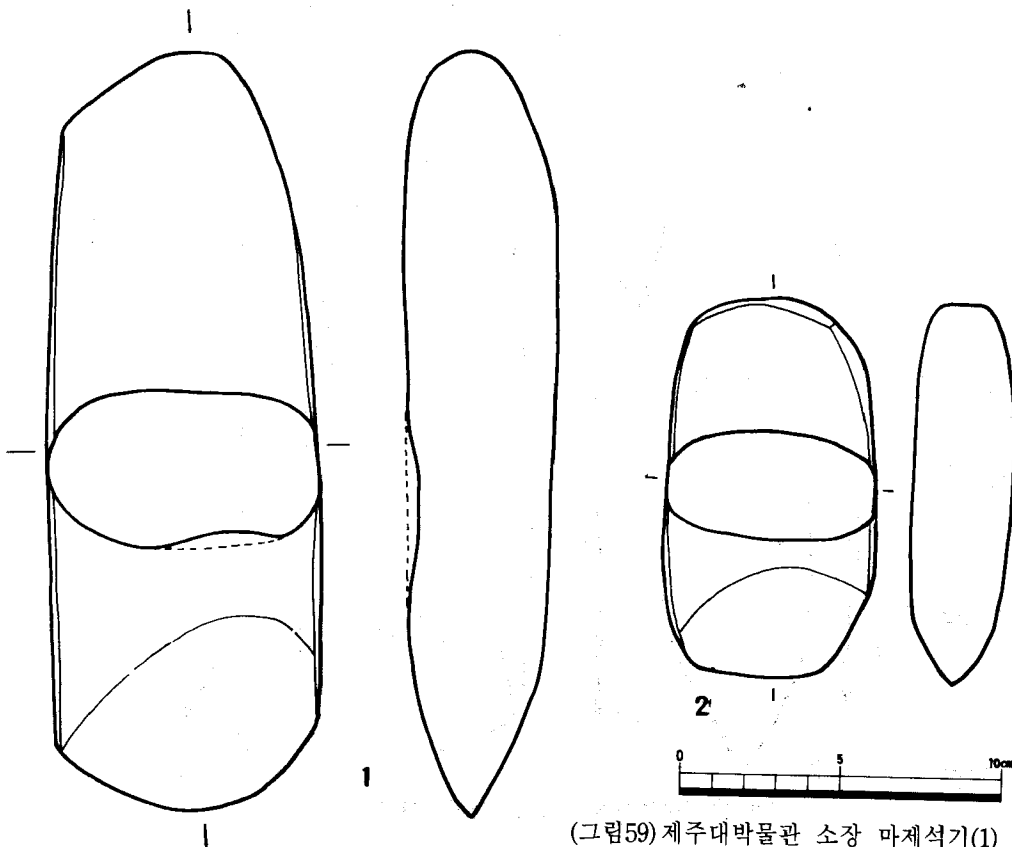
④ (그림 58-8~13:사진 196-7~10 및 197)

濟州市 龍潭洞 속칭 먹돌생이일대에서 지표채집한 것 중의 일부로 원뿔 모양의 cup형 토기가 역시 郭支貝塚 II지구 1, 2층 출토의 예와 같으며, 그림 58-13의 골아가리토기는 郭支貝塚 II지구 3, 4층에서 출토된 바 있어 피차 비슷한 시기, 성격임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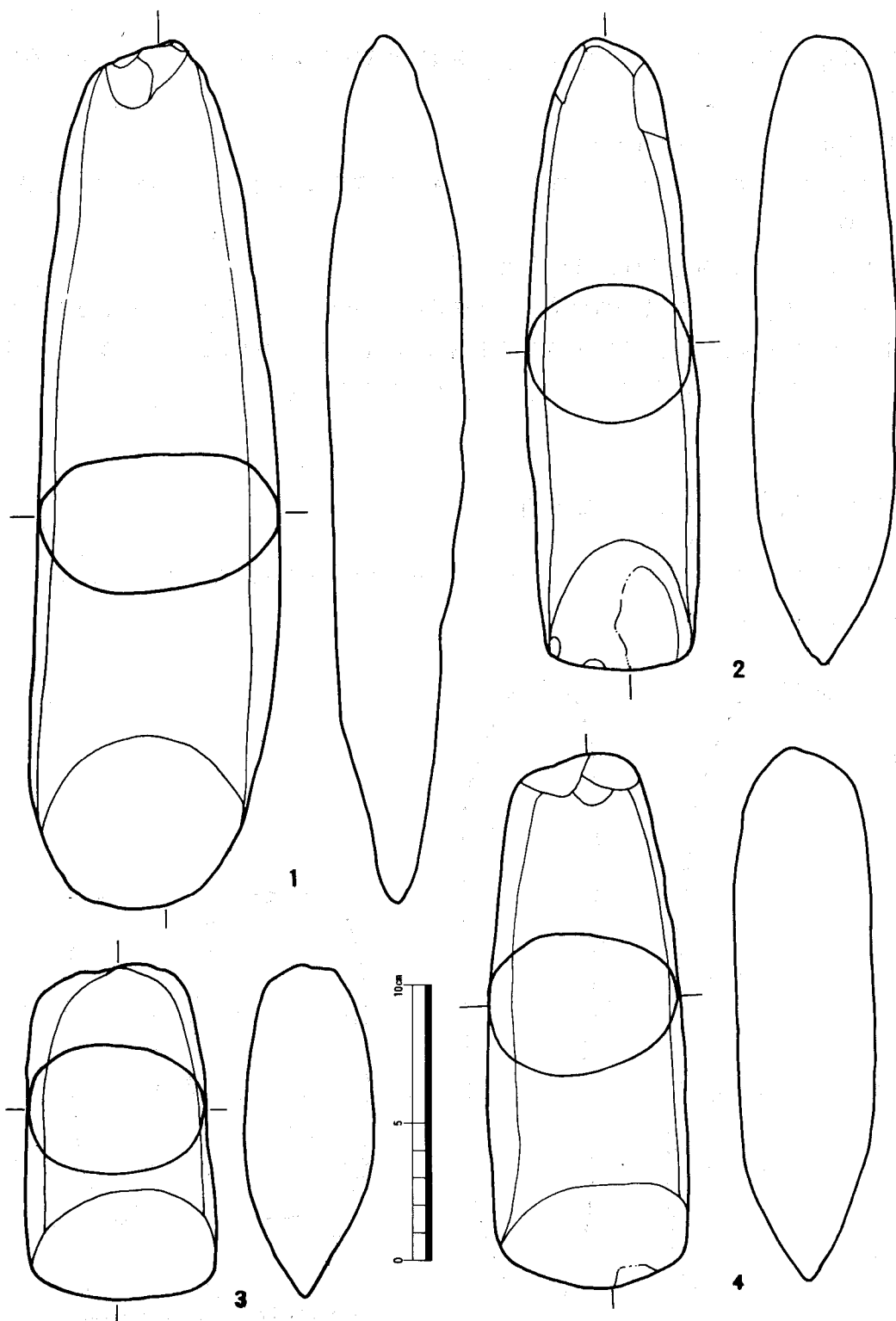
6. 濟州大博物館 소장 마제석기

전부 출토지가 분명치 않은 것이나 島内 출토품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에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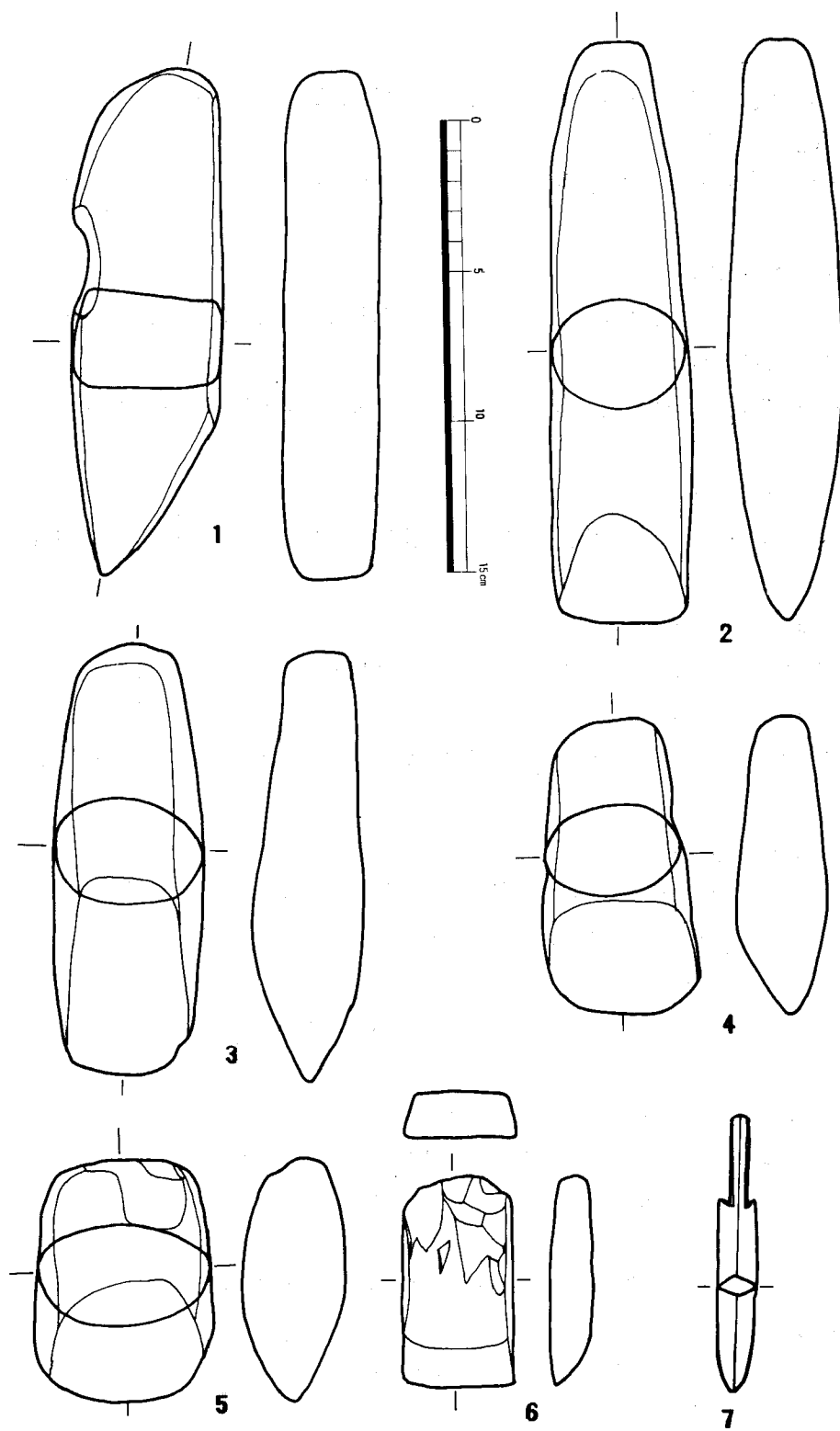
① (그림 59-1:사진 198-1)



(그림59) 제주대박물관 소장 마제석기(1)



(그림60) 제주대박물관 소장 마제석기(2)



(그림61) 제주대 박물관 소장 마제석기(3)

조갯날도끼로 몸통을 쪼이기수법으로 다듬었다. 길이 23.2cm, 두께 4.8cm, 폭 8.5cm

② (그림 59-2:사진 198-2)

조갯날도끼로 날부분의 너비가 몸통에 비해 줄어들 형식이다. 길이 11.6cm, 폭 6.5cm, 두께 3.2cm

③ (그림 60-1:사진 199-1)

거의 전면을 쪼이기 수법으로 다듬은 대형 돌도끼이다. 길이 30.5cm, 폭 9cm, 두께 5cm

④ (그림 60-2:사진 199-2)

날, 몸통부분할 것 없이 전면을 매끄럽게 마연한 기다란 조갯날도끼이다. 길이 22.5cm, 폭 6.5cm, 두께 5cm

⑤ (그림 60-3:사진 200-7)

날의 폭이 넓어진 조갯날도끼로 몸통은 쪼이기 수법으로 다듬었다. 길이 12cm, 폭 6.8cm, 두께 4.7cm

⑥ (그림 60-4:사진 199-4)

다소 전면을 거칠게 다듬은 조갯날 도끼이다. 길이 19.2cm, 폭 7cm, 두께 5.1cm

⑦ (그림 61-1:사진 200-5)

다소 불룩한 배부분에 홈이 나 있는 有溝石斧로 횡단면은 장방형을 이룬다. 길이 17.5cm, 폭 5.1cm, 두께 3.2cm

⑧ (그림 61-2:사진 199-3)

횡단면 타원형의 기다란 자루모양의 조갯날도끼로 전면을 정교하게 쪼이기수법으로 다듬고 날부분을 곱게 마연하였다. 길이 19.2cm, 폭 4.8cm, 두께 3.7cm

⑨ (그림 61-3:사진 200-6)

전면을 쪼이기수법으로 다듬은 횡단면 타원형의 조갯날도끼이다. 길이 14.1cm, 폭 5.2cm, 두께 3.5cm

⑩ (그림 61-4, 5:사진 200-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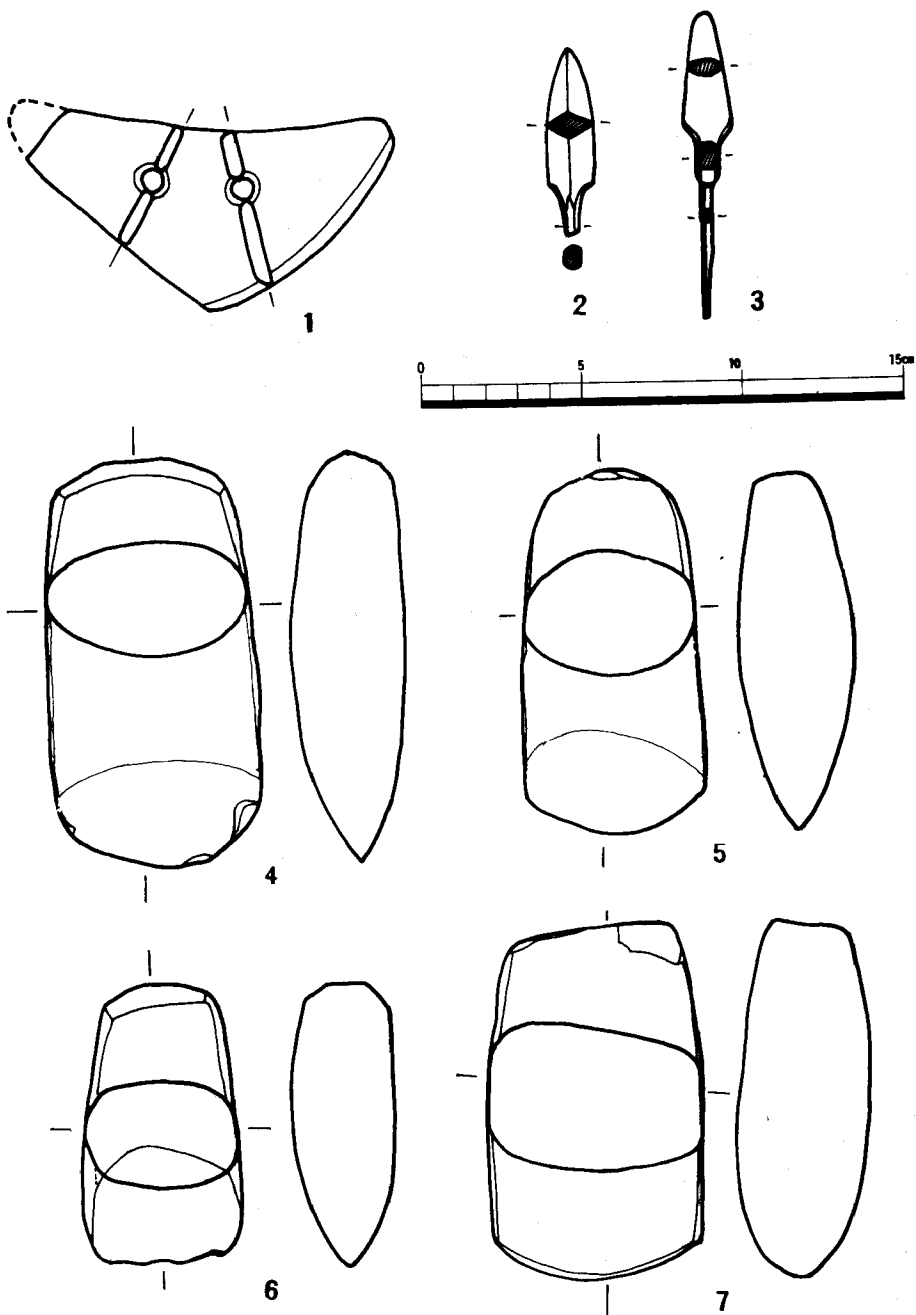
다소 조잡하게 쪼이기수법으로 다듬은 돌도끼로 횡단면 역시 타원형을 이룬다. 길이 9.8, 8.5cm, 폭 5.3, 6.3cm, 두께 3.0, 3.5cm

⑪ (그림 61-6:사진 200-9)

응회암製로 만든 장방형의 대팻날이다. 길이 7.2cm, 폭 3.8cm, 두께 1.5cm

⑫ (그림 61-7)

有莖式의 화살촉으로 몸부분의 횡단면은 마름모꼴이다. 길이 9.3cm, 폭 1.6cm



(그림62) 濟州民俗博物館 소장 유물

7. 濟州民俗博物館 소장 유물

同 博物館의 秦聖麟館長의 수집유물중 일부이다.

① (그림 62-1:사진 201-5)

화강암製の 三角形石刀로 한쪽에만 날이 있고 끈을 묶기 위한 구멍은 양면에서 뚫려 있다. 全南지방에서 크게 성행하는 형식인데 光令里에서 수집했다 한다. 길이 12cm, 폭 5.7cm, 두께 0.5cm

② (그림 62-2:사진 201-7)

역시 光令里에서 출토했다고 하는 것으로 횡단면 마름모꼴의 有莖式 화살촉이다. 길이 5.6cm, 폭 1.6cm

③ (그림 62-4~6:사진 1~3)

제주도 각지에서 수습한 양날의 마제석부로 횡단면은 타원형을 하고 있다. 길이 12.6, 11.2, 8.7cm, 폭 6.5, 5.7, 5cm, 두께 3.5, 3.8, 3.3cm

④ (그림 62-7:사진 201-4)

전면을 쪼으기수법으로 다듬고 둔한 타격면을 가진 공이다. 횡단면은 장방형에 가깝다. 길이 11cm, 두께 4cm, 폭 6.6cm

⑤ (그림 62-3:사진 201-6)

鐵製 화살촉으로 똑같은 형식이 1985년 발굴 郭支貝塚 IV지구 출토품에 있다. 길이 9.2cm, 폭 1.7cm

8. 文益信 소장 석기유물

翰林邑 翰林里 속칭 동방굴에서 일괄출토하였다고 전하는 유물로 대체로 부장품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여진다.

① (그림 63-1:사진 202-1)

종단면과 횡단면이 모두 긴 장방형의 비교적 큰 홈자귀(有溝石斧)이다. 길이 19.5cm, 폭 6cm, 두께 2.5cm

② (그림 63-2:사진 202-2)

비교적 납작한 편평石斧로 날부분은 정교하게 갈았으나 머리부분은 떼어내기 수법으로 다듬은 자귀가 있다. 길이 13.7cm, 폭 6cm, 두께 2.4cm

③ (그림 63-3:사진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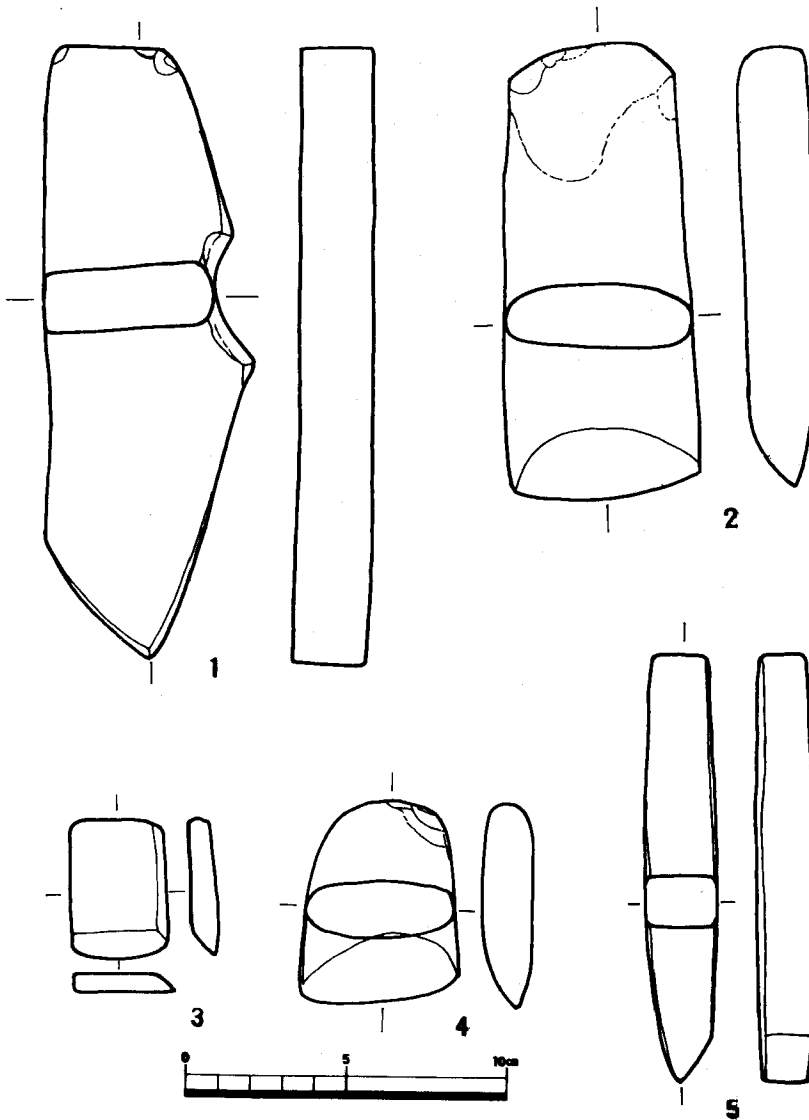
小形 대팻날로서 길이 4.3cm, 폭 3cm, 두께 1cm이다.

④ (그림 63-4:사진 202-5)

작은 돌도끼로 외날의 대팻날 석기에 가깝다. 길이 6.3cm, 폭 5cm, 두께 1.7cm

⑤ (그림 63-5:사진 202-3)

길다란 네모기둥 모양의 돌끌로 횡단면이 장방형 이루고 몸통중간이 다소 불려진다. 길이 13cm, 폭 2.2cm, 두께 1.3cm



(그림63) 文益信 소장 석기유물(翰林里 동방굴 출토)

제 8 장 종합고찰

濟州島는 한반도에서 130km 떨어진 南海上에 있는 큰 섬으로 신생대 제3기말 4기초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암지대이다.

이러한 자연환경 및 지질학적 특성은 이 섬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이룩한 문화의 성격을 특징지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 先史文化의 큰 흐름은 한반도의 그것과 연결된다. 아직 확실한 발굴조사 및 4紀 地質學의 도움을 받지 못한 현단계에서 제주도의 舊石器文化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지만, 제주도 자체가 대륙과 연결된 빙하기시대에 이지방 구석기 문화는 구태여 빌레못동굴 유적 출토의 갈색곰(Brown Bear) 동물화석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大陸系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新石器文化는 시베리아지방에서 이동한 古시베리아族 혹은 古아세아族계통 주민의 所産으로 제주도에서는 중기 新石器시대 이전의 유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후기의 北村里 rock-shelter유적의 발굴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역시 같은 흐름의 土器文化를 보여 준다.

전체적인 器形이 둥근바닥의 半卵形으로, 押印手法으로 장식한 口緣部 점렬무늬, 이중구연의 토기는 한반도 남해안지방의 그것과 같은 계통으로, 빙하기가 끝나고 충적세가 시작되면서 海水面의 상승으로 제주도가 섬으로 된 이후에도 남해안을 사이에 두고 내왕이 있었던 것이다. 토기뿐만 아니라 골각기에도 서로간에 똑같은 형식의 유물이 보이며 이러한 제주도 신석기문화는 月令里 한들굴에서도 확인되었다.

北村里 rock-shelter는 길이 11m, 폭 3m, 높이 2m의 南向을 한 아아취모양의 천정을 가진 유적으로, 부엌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생활공간의 分化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rock-shelter는 제주도의 지질,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유적이 더욱 많이 확인되리라 예상된다.

靑銅器時代에 이르면, 남한지방의 漢江 유역에서 평남, 황해도지방의 팽이형토기 계통과 함경도지방의 공렬토기계통이 南下 복합되어 이룩한 토기문화가 그대로 제주도에 유입되는데, 지금까지 이 계통의 토기문화가 전남지방에서 발견된 바 없음으로 그 유입경로는 경상도 지방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본섬의 최남단 上摹里 산이수동 유적의 토기문화가 바로 그러한 복합토기문화로, 이 유적에서 더욱 변형 발전시켰음이 출토된 토기에 ①공렬장식 ②구연부 톱날무늬 ③이중구연 ④短斜線 무늬의 네가지 속성을 전부 갖고 있는 형식의 토기 비중이 높은 점에서 알 수 있다.

이 토기문화인은 원래 농경생활을 영위하였던 주민으로 남한지방에서의 유적은 강변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해안가에 자리잡아 보다 어로생활에 치중하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적응방식을 취하였으며, 그 결과 이 유적에는 다른지방에서 예가 없는 거대한 貝塚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青銅器時代 後期 내지 初期鐵器時代에는 남한지방 여러곳에서 細形銅劍文化가 발전하게 된다. 이 청동기문화는 토기에 있어 점토띠 아가리 토기문화와 共伴하며 이 세형동검·점토띠 토기문화를 거쳐 다음 原三國時代 철기문화가 등장하는 바, 그러한 사실은 최근에 발굴조사된 경남 삼천포시 勒島貝塚 유적과 전남 해남군 郡谷里貝塚의 조사결과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지방에서는 지금까지 이 시기에 속하는 청동기 뿐만 아니라 점토띠토기 문화가 거의 발견 안되고 있고, 오히려 앞서의 공렬토기가 변화된 토기문화가 지속되는 양상이 보인다. 郭支里貝塚에서 공렬토기 전통의 토기문화층 위로 막바로 철기시대 토기문화층으로 이어지는 층위적 양상이 나타난다.

東明里유적 출토 토기 또한 이미 胎土의 두께, 燒成度 등에 있어서 철기시대 郭支式 무문토기로 변하면서, 공렬무늬는 거의 없지만 입술면에 톱날무늬가 장식된 토기가 출토하여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는 점토띠토기가 단면 원형의 점토띠가 삼각형으로 변화하다가 아예 없어지는 郡谷里貝塚의 무문토기 변화과정과 대조가 되는 것이다.

鐵器時代に 이르면 이 지방의 특징적인 胎土와 器形の 廣口外反口緣항아리의 郭支式 무문토기가 나타남과 동시에, 유적의 분포범위도 이제 일부지역을 제외한 거의 제주도 전역에 걸친다.

그러면서 해안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내륙쪽에서도 발견되는 유적의 숫자가 증가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로 활동 뿐만 아니라 농경생활도 이제 본격적으로 영위한 결과이며, 그러한 양상이 두드러지는 제주도 서북부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用水조건, 토양조건이 농경에 유리한 지역임에 그러한 사실을 더욱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

고인돌은 제주도에 있어서는 남한지방보다 시기가 떨어져 그 대부분은 이시기에 소속하는 것임이 光令里 고인돌群 조사와 제주시 龍潭洞·外都洞 고인돌 발굴에서 확인되었다.

이시기의 고인돌, 貝塚은 본섬을 떠나 제주도 부속도서에게까지 파급되어 牛島와 加波島에서도 발견되며, 加波島의 경우 그것은 소수인구의 소산이 아닌 대규모 고인돌群임은 주목할만 하다.

한편 濟州市 지역권을 중심으로 남한의 중심문화권과 원거리무역을 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山地港 출토의 漢代 화폐유물과 龍潭洞 월성부락의 甕棺墓유적에서 출토한 漢式鐵製武器가 이를 입증한다.

三國志 魏志東夷傳에 州胡가 中韓과 교역했다는 기록은 바로 이러한 사정속에서 나온 것이다.

제주시지역은 山地川, 漢川, 屏門川 등 여러 하천이 흐르는 완만한 대지로 촌락이 형성되기에 유리한 생활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반도와 마주하는 해안지역임으로 이러한

대의 海上교역에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濟州市는 三國期 耽羅國時代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촌락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곳의 유적, 예를 들어 光令里 유적은 前時代에 큰 취락을 이루어 고인돌群을 포함한 대규모 유적을 형성했으면서도 耽羅國時代에 이르면 더 이상 발전을 멈추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은 이 유적 일대에서 三國時代以後의 유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데에서 미루어 추정할 수가 있다.

耽羅國時代에 들어서면서도 토기문화에 있어서 새로이 유입된 陶質土器도 다량 사용되지만, 무문토기 전통의 산화염 소성의 적갈색토기가 더욱 많은 양으로 제작, 사용된다.

1984, 1985년에 발굴한 郭支貝塚 III, IV지구에서 출토한 이 계통의 토기는 보다 정선되고 얇은 두께의 胎土, 다소 외반된 구연에 입지름과 바닥지름이 거의 같으며, 바닥을 따로 만든 다음, 동체에 접합하는 수법 그리고 초보적이거나 회전받침을 이용한 흔적 등이 이 토기가 적갈색 무문토기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지만, 보다 변형 개량된 것임을 알수 있다.

이 토기의 전체형태는 한결같이 똑같은 深鉢形土器이며, 그 대부분의 토기 아가리에 시꺼멓게 흘러내려 탄화된 액체의 흔적이 있음으로 보아, 음식물을 삶거나 끓이는 일정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기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濟州島 特殊型이 되겠다.

陶質土器에는 高坏 등 新羅·伽倻지방의 토기는 전혀 안 보이며 오히려 盤口瓶의 구연부형태를 갖고 어깨가 팽창된 평저의 토기가 발견됨으로 百濟계통과 이어지는 형태를 보여주는 바, 그것은 三國史記 文周王以後 기록에 나타난 耽羅國과 百濟와의 관계를 시사해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제 9 장 결

지금까지 발굴 및 地表調査된 기왕의 연구성과와 금번에 실시된 정밀지표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濟州島 先史文化遺跡 및 遺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서술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상적인 부분이 많았으며, 특히 編年에 있어서 보나 구체적인 분석을 요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한 미비점이 있으면서도 이러한 보고서를 서둘러 출간하게 된 것은 머리말에 말했듯이 앞으로의 濟州島 선사문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만들고, 지금도 소멸되는 유적, 유물을 우선 기록으로 남기어 연구자료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며, 아울러 유적·유물에 대한 保存 및 발굴조사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이다.

금후 더욱더 구체적이고도 정확하며, 체계적인 연구조사에 의해 보완 수정된 종합보고서가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행정당국의 각별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일반 濟州道民들에게도 先住民이 남긴 傳統文化 遺産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없어서는 안되는 바, 이처럼 여러 방면의 분들의 노력과 관심이 잘 어우러져야 제주역사와 문화가 보다 잘 인식되고 밝혀질 것이다.

濟州島 考古學 關係文獻 및 資料

- 金元龍, 1976 <濟州島の 先史文化와 住民> 《耽羅》10
- 金宗業・李清圭, 1985 <光令里와 郭支里 遺蹟・遺物の 比較> 《濟州大學校 論文集
— 人文・社會科學—》20
- 金鎭垓, 1959 <濟州道 支石墓 調査報告> 《서울大論文集 — 人文社會 —》9
- 文基善, 1973 <濟州道 無文土器文化研究> 《濟州大論文集》5
- 夫宗休, 1973 <韓國 新・舊石器時代의 穴居遺蹟에 對하여: 濟州島 빌레못굴・한
들굴> 《교육제주》24
- 宋錫範, 1964 <제 주도의 고인돌 小考> 《제주도》13
- , 1966 <濟州道 Dolmen, A地區의 支石墓> 《연수》濟州道 教研
- , 1973 <곽지패층에 對한 小考 —郭支貝塚을 발견하고> 《교육제주》23
- , 1979 <濟州島 の 支石墓> 《考古學 ジサーナル》161
- , 1984 《濟州道 古代文化の謎》成甲書房
- 李白圭, 1979 <濟州道 無文土器에 對한 一考察 —濟州島の 考古學的 調査 研究 I>
《考古學》5.6 合輯
- 李白圭・李清圭, 1985 《郭支貝塚》濟州大學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 1
- 李清圭, 1984 <考古學 研究와 濟州島 先史文化> 《濟大學報》25
- , 1984 <光令里 出土 石器와 金海式 土器> 《濟州島 研究》1
- , 1985 <제주문화의 재조명: 제주도 無文土器文化의 전개> 《濟大新聞》264
- , 1985 <濟州道 支石墓 研究(1) —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 支石墓群> 《耽
羅文化》4
- , 1985 <濟州島 地方의 初期鐵器 性格과 無文土器文化의 展開> 《韓國考古
學報》17・18
- , 1985 <濟州島 無文土器 遺蹟・遺物> 《第9回 韓國考古學 全國大會 發表
要旨》

- , 1985 〈濟州市 龍潭洞 墳墓遺蹟 調查概報〉 《韓國考古學年報》 12
- , 1985 〈郭支貝塚 出土 曲玉〉 《韓國考古學年報》 12
- , 1985 〈濟州島의 先史遺蹟과 遺物〉 《제주도》 79
- , 1985 〈濟州道 先住民 文化에 對한 一 考察: 考古學 측면에서〉 《濟州島研究》 2
- , 1986 〈濟州島 一 括出土 石器의 한 例〉 《濟州史學》 2
- , 1986 〈제주역사의 재조명 I — 제주도 선사문화: 남한지방과의 관계〉 《濟大新聞》 295・296
- 任孝宰, 1970 〈考古學上으로 본 濟州島〉 《大學新聞》 1970. 9.28 字
- , 1986 〈濟州島 先史文化 研究의 現況과 課題〉 《濟州島研究會 第2次 全國學術大會 발표요지》
- 鄭永和, 1974 〈舊石器時代 穴居遺蹟에 대하여〉 《韓國文化人類學》 6
- , 1977 〈濟州島의 考古學的 調查 — 新發見 遺蹟을 中心으로〉 《韓國文化人類學》 6
- , 1984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 考古學的 측면〉 《耽羅文化》 3
- 濟州道, 1973 《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 綜合調查報告書》
- 崔夢龍, 1967 〈郭支里 支石墓 踏查報告〉 《서울大文理大學報》 14
- 梅原末始・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1, 養德社
- 江坂輝彌, 1985 〈ソウル特別市周邊と濟州道の古代遺跡を訪ねこ〉 《韓國文化》 7卷3號
- 光岡雅彦, 1982 《支石墓の謎》, 學生社
- Im, H. J. and Pearson, R., 1970
《Preliminary Archaeological Research on Cheju Island, Korea》
Proceeding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Anthropological & Ethnological Sciences

寫

眞

사 진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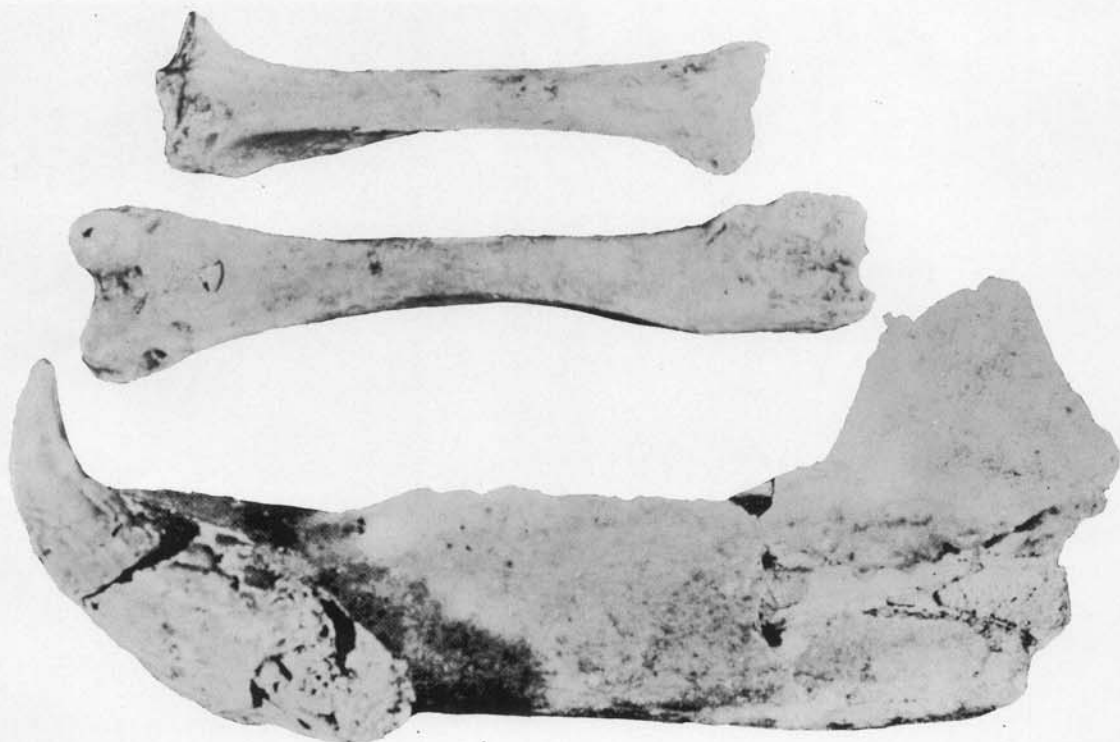
다음 사진 유적의 정확한 행정구역 지명은 아래와 같음.

1. 사진 86~88은 東明里
2. 사진 98~99는 倉川里
3. 사진 153~157은 東日里
4. 사진 158은 日果二里
5. 사진 160, 161은 倉川里

사진 1



1. 빌레못 동굴 유적 주변



2. 빌레못 동굴 유적 출토 동물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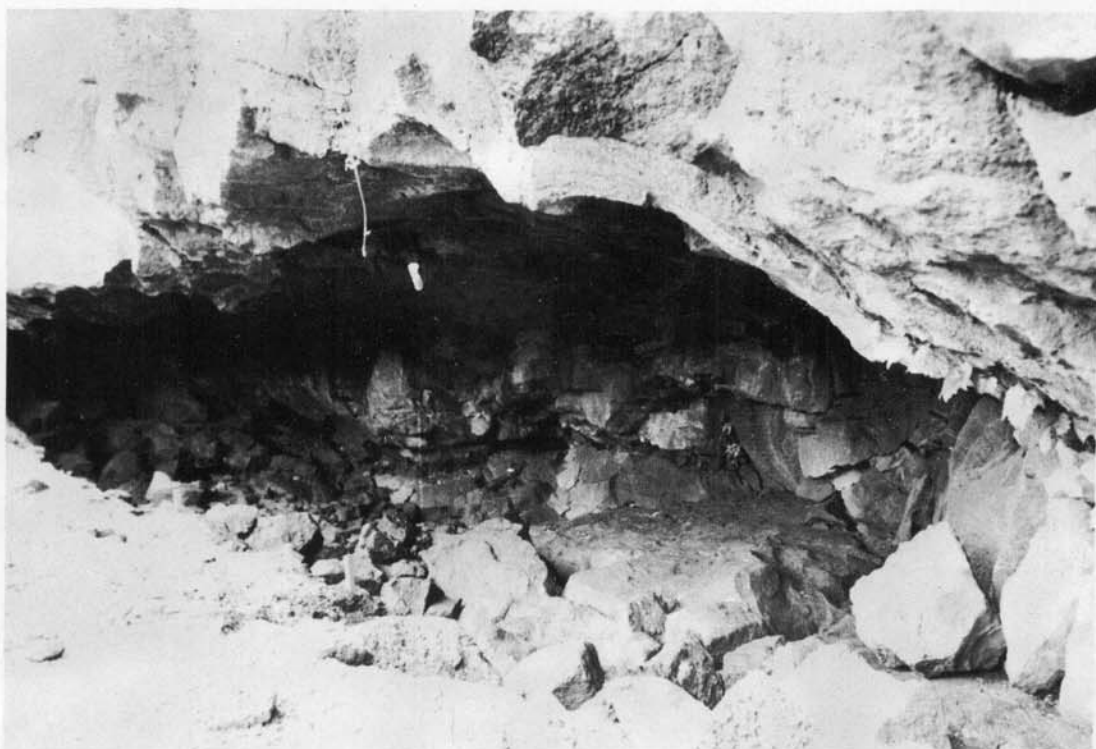
사진 2



3. 北村里 rock-shelter 遠景



4. 北村里 rock-shelter 全景



5. 北村里 rock-shelter 近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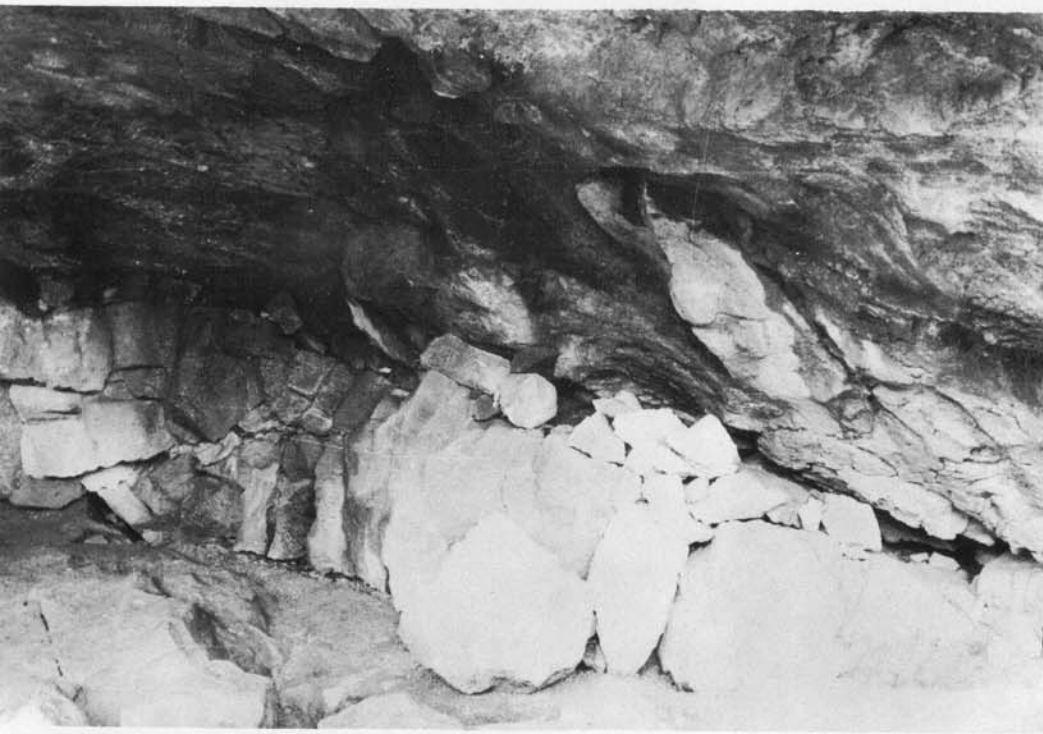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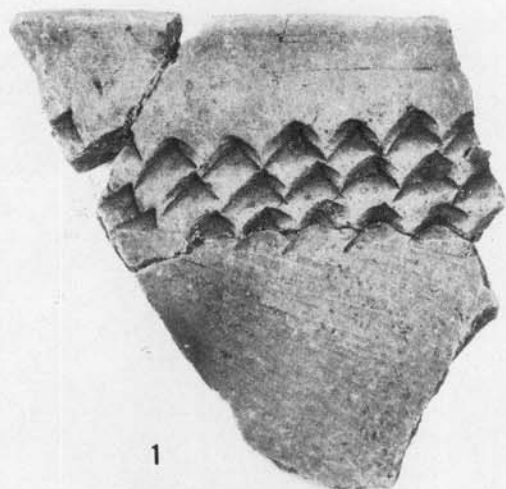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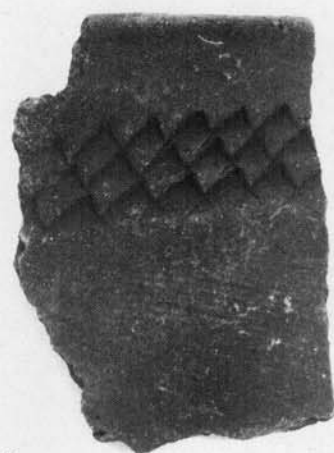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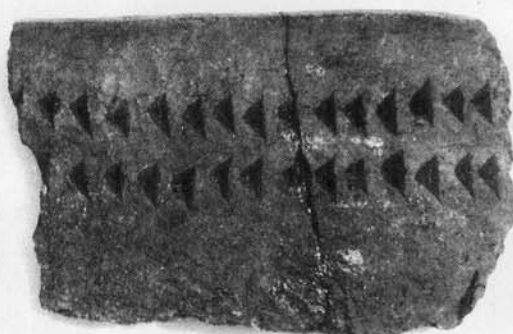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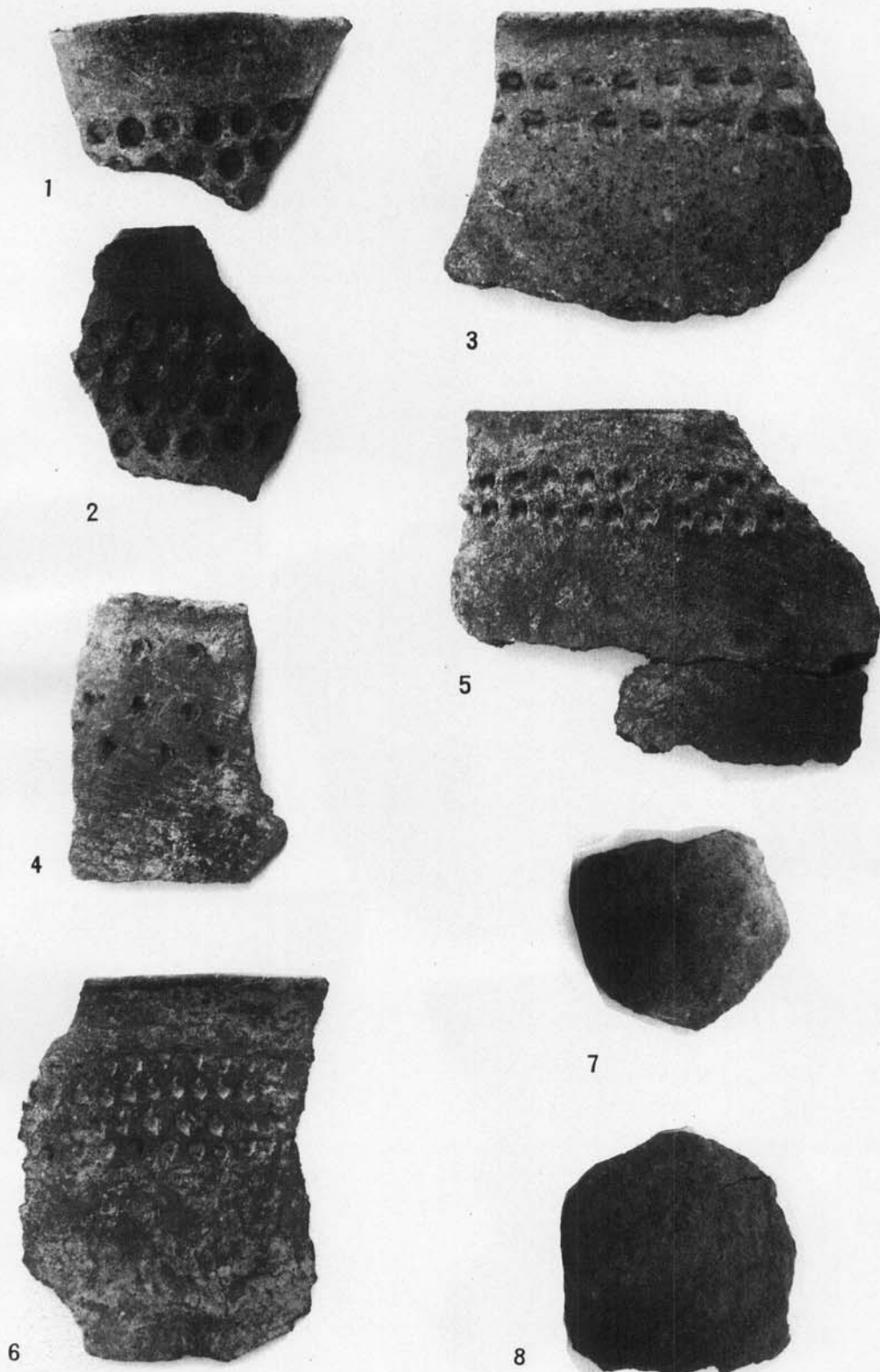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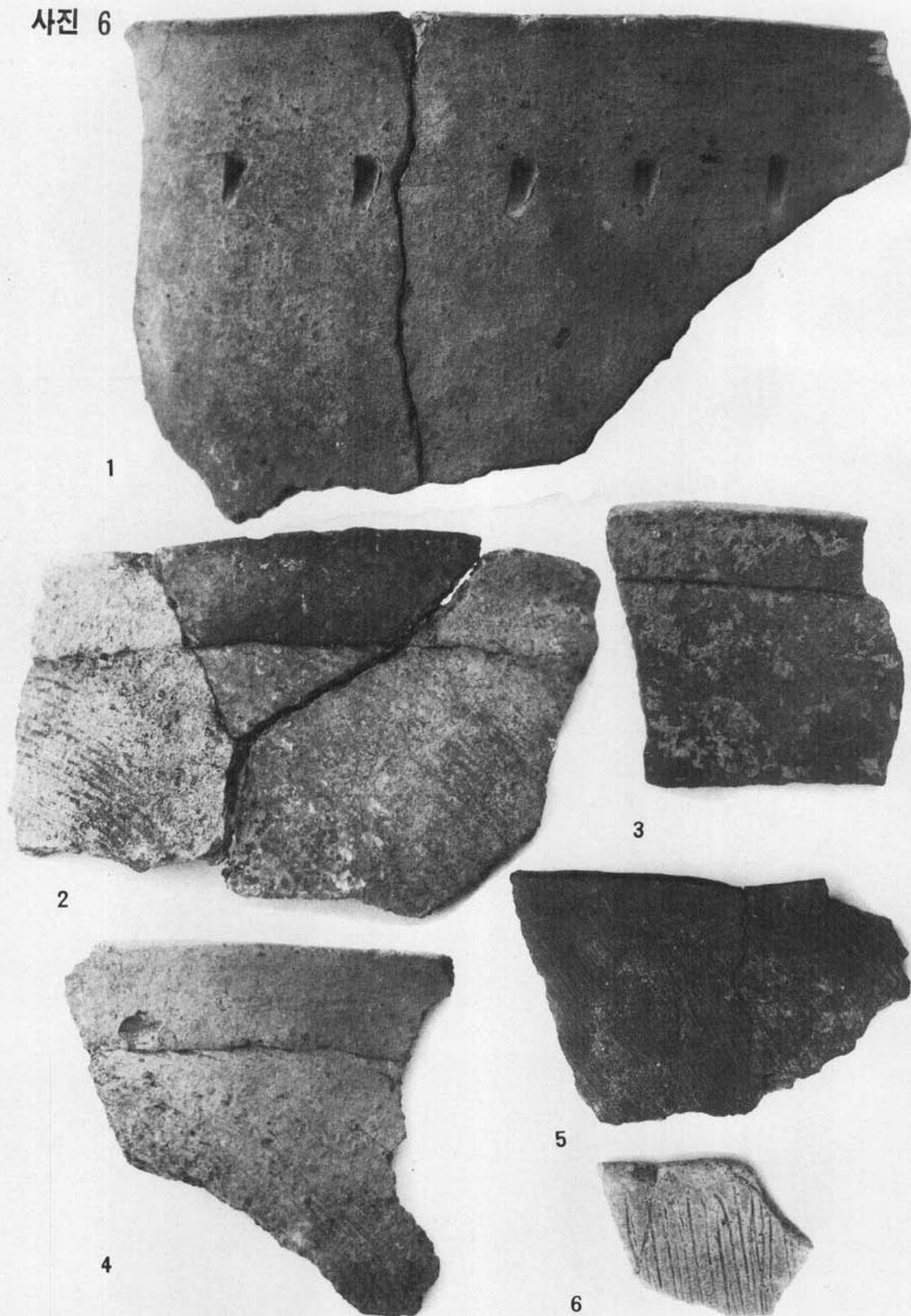
6

6.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신석기시대 토기 口緣部片(1)



7.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신석기시대 토기 口緣部片(2)

사진 6



8.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신석기시대 토기 口緣部片(3)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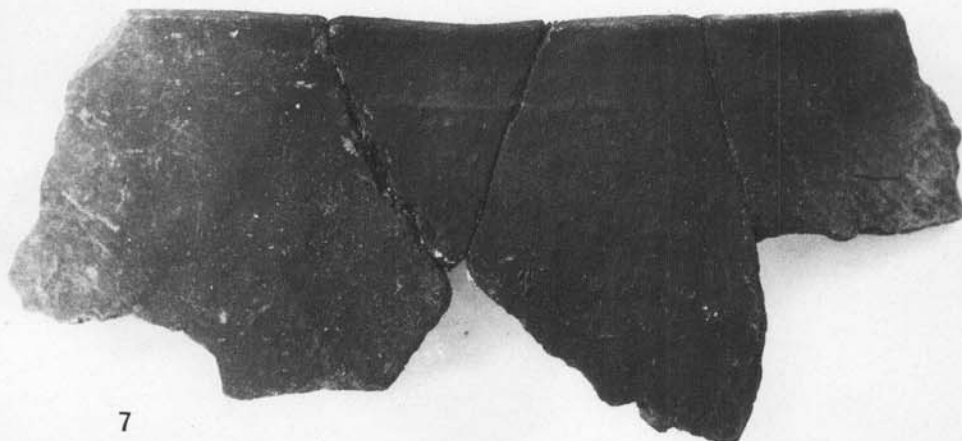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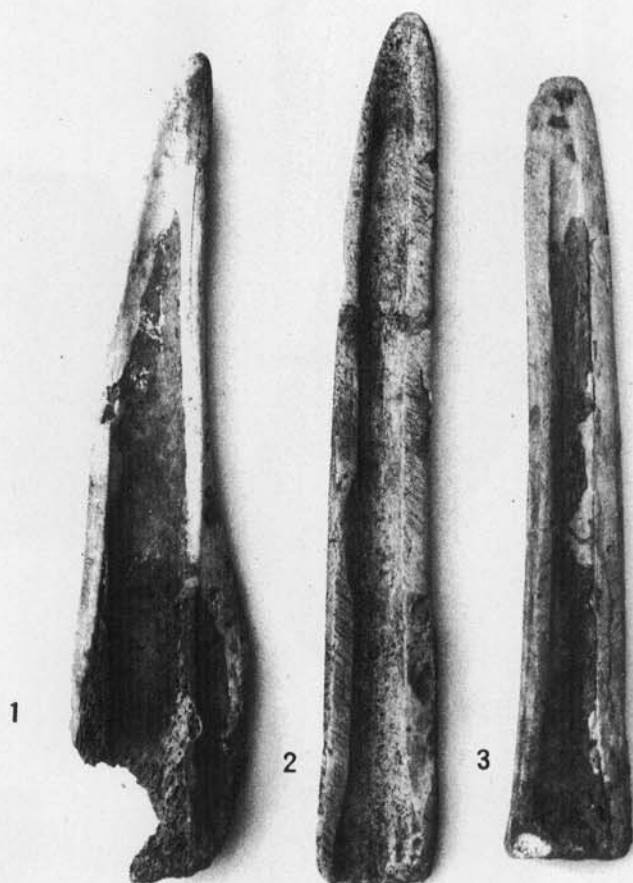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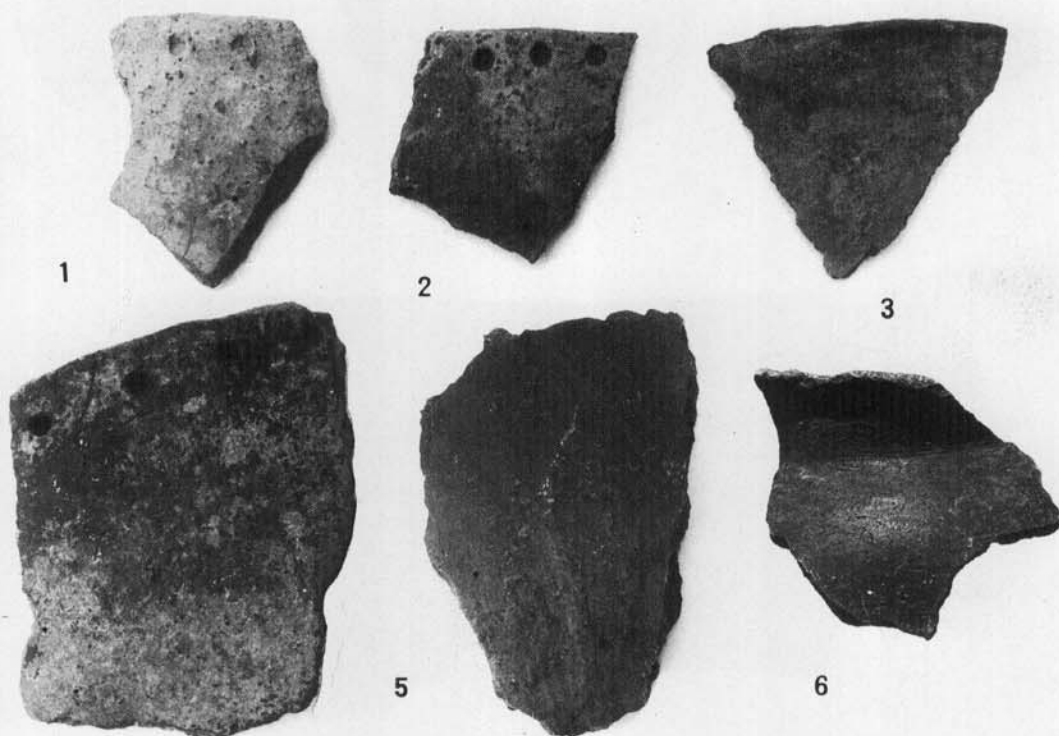


7

사진 8



10.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신석기시대 骨角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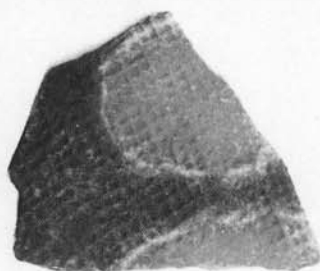
11.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 口緣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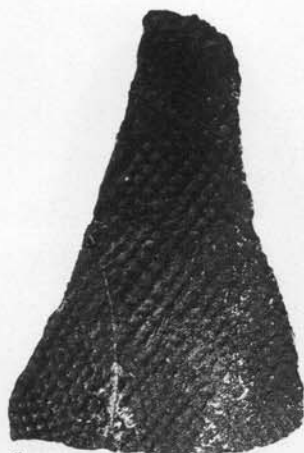
12.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철기시대 無文土器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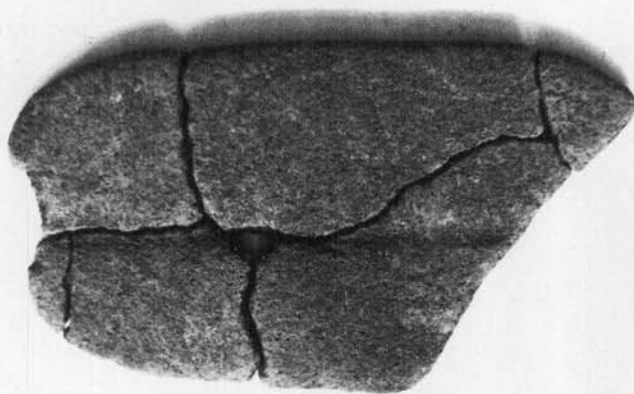
5

13. 北村里 rock-shelter 출토 金海式土器片

사진 10



14. 月令里 한들굴 유적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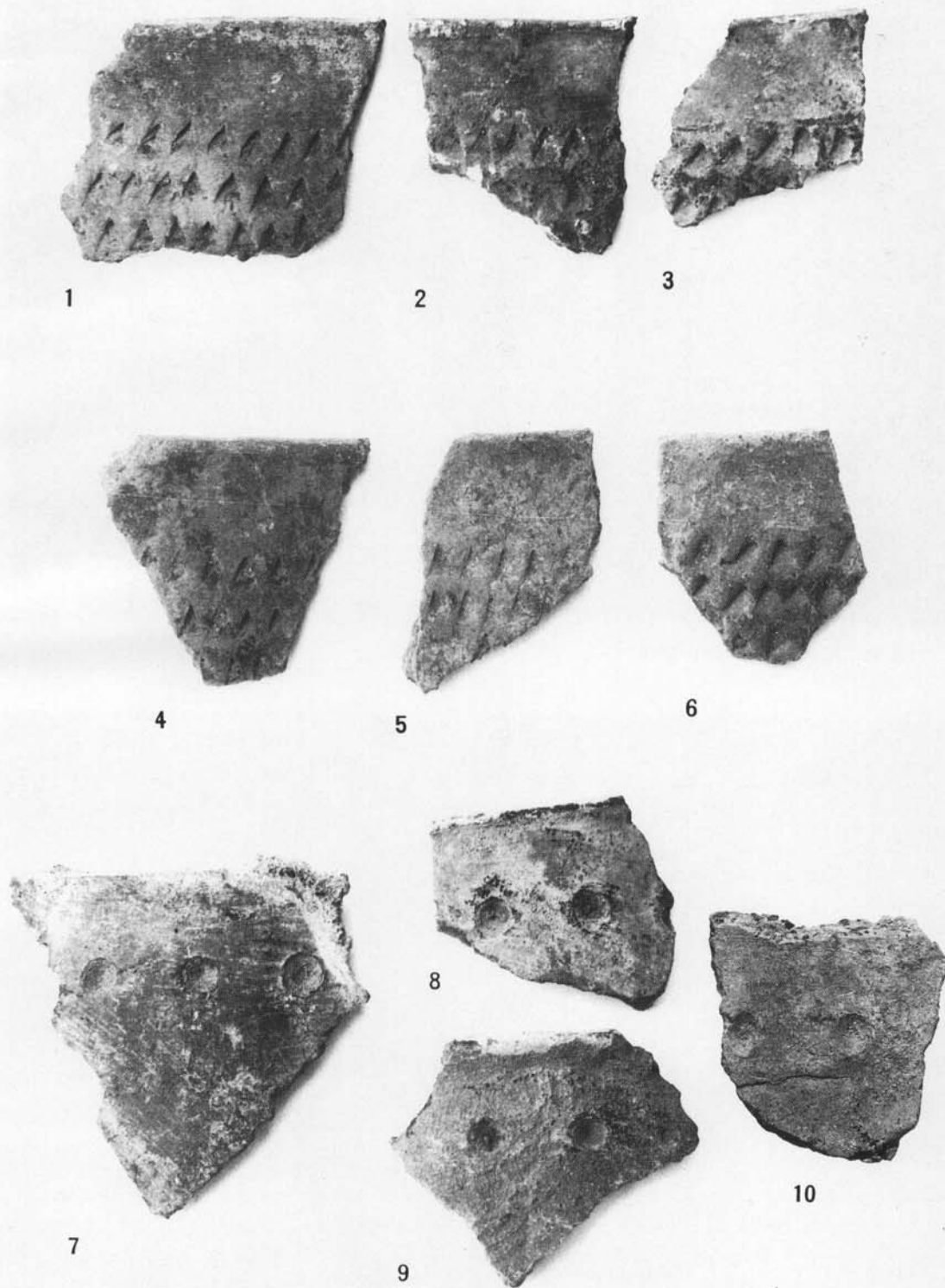


1



2

15. 月令里 한들굴 유적 출토 土製遺物



16. 月令里 한들굴 유적 출토 신석기시대 토기 口緣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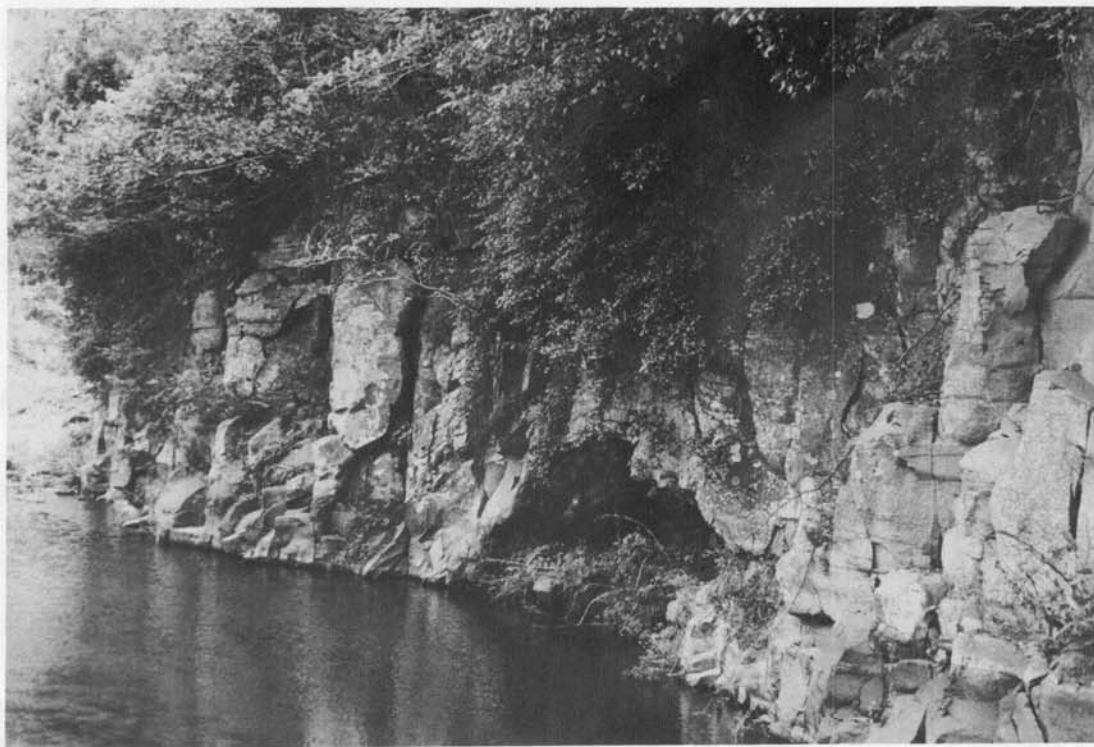
사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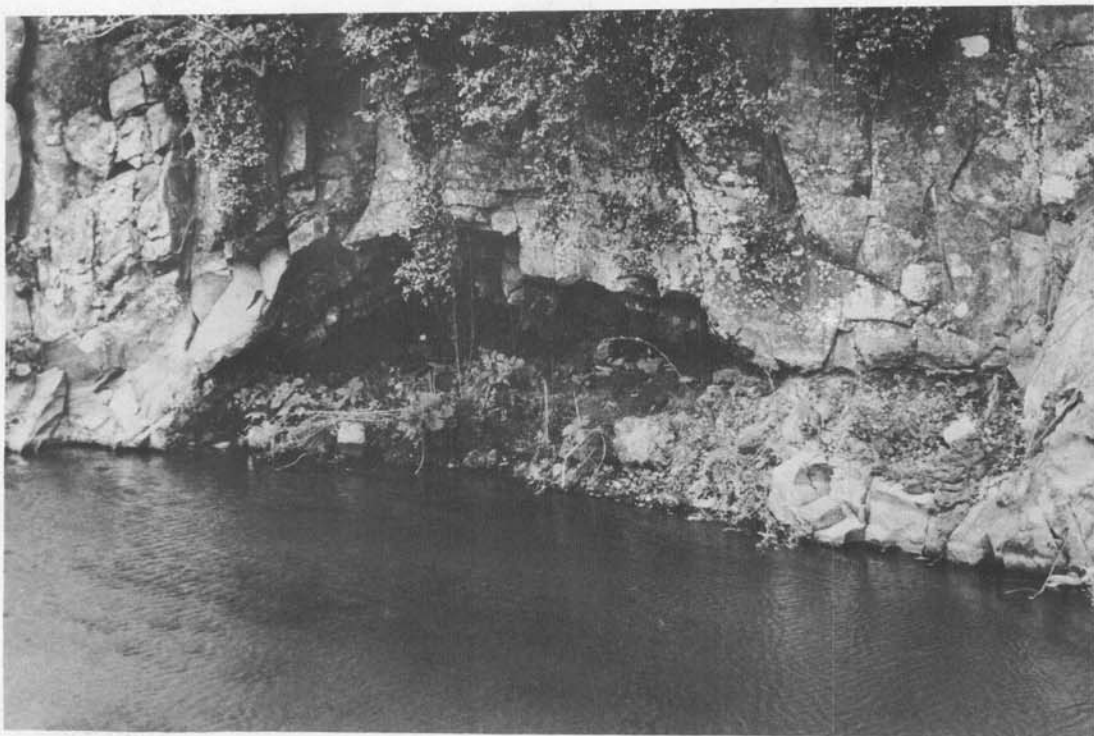
17. 挾才里 동굴 유적 입구 주변



18. 挾才里 동굴 유적 입구



19. 猊來洞 rock-shelter 遠景



20. 猊來洞 rock-shelter 近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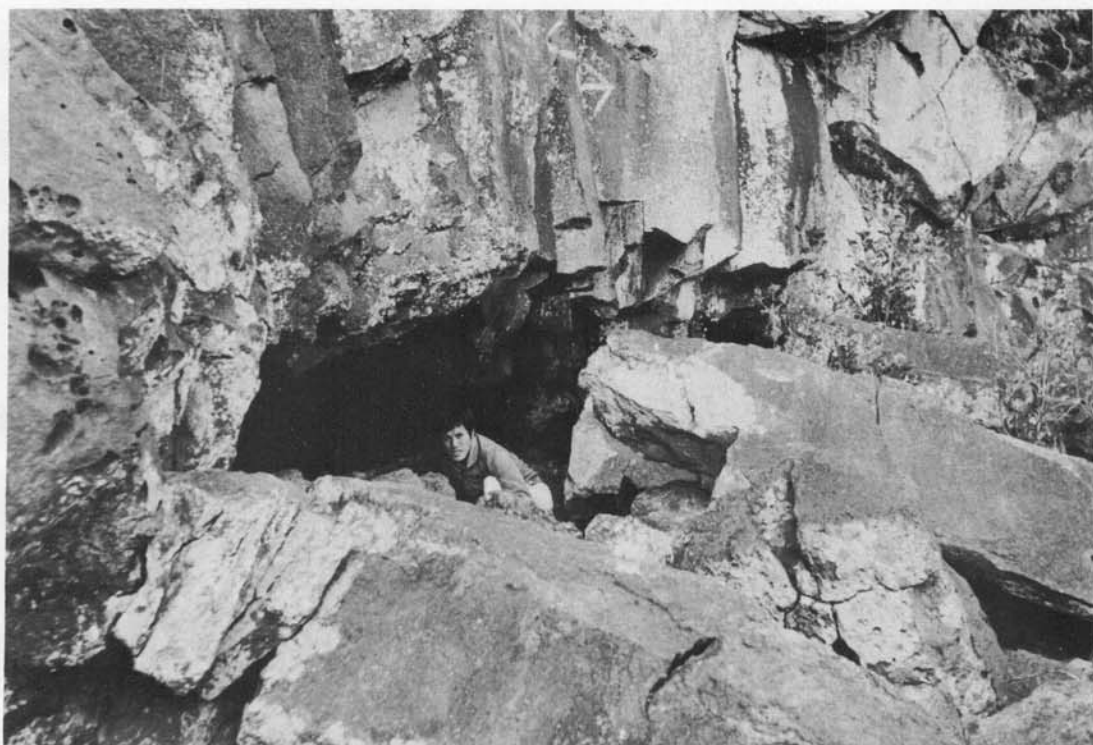
사진 14



21. 櫛達洞 동굴 유적 遠景



22. 櫛達洞 동굴 유적 近景



23. 中文洞 rock-shelter 近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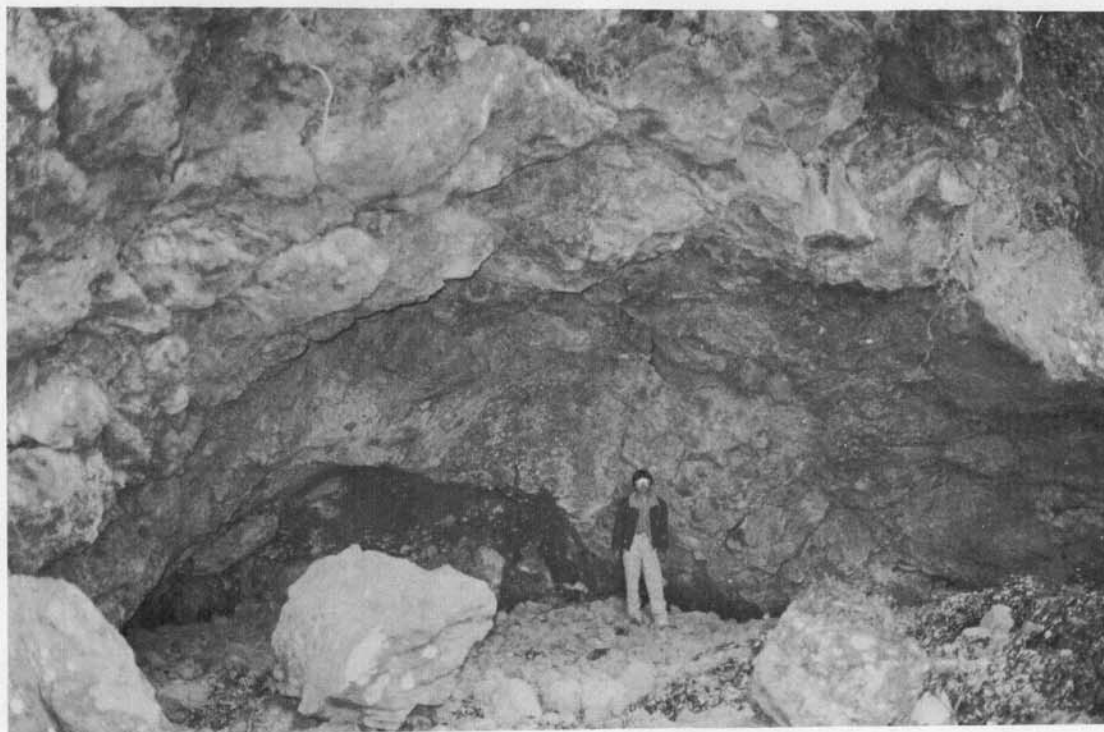


24. 中文洞 rock-shelter 내부

사진 16



25. 下禮里 rock-shelter 遠景



26. 下禮里 rock-shelter 全景



27. 漢南里 rock-shelter 주변 경관



28. 漢南里 rock-shelter 近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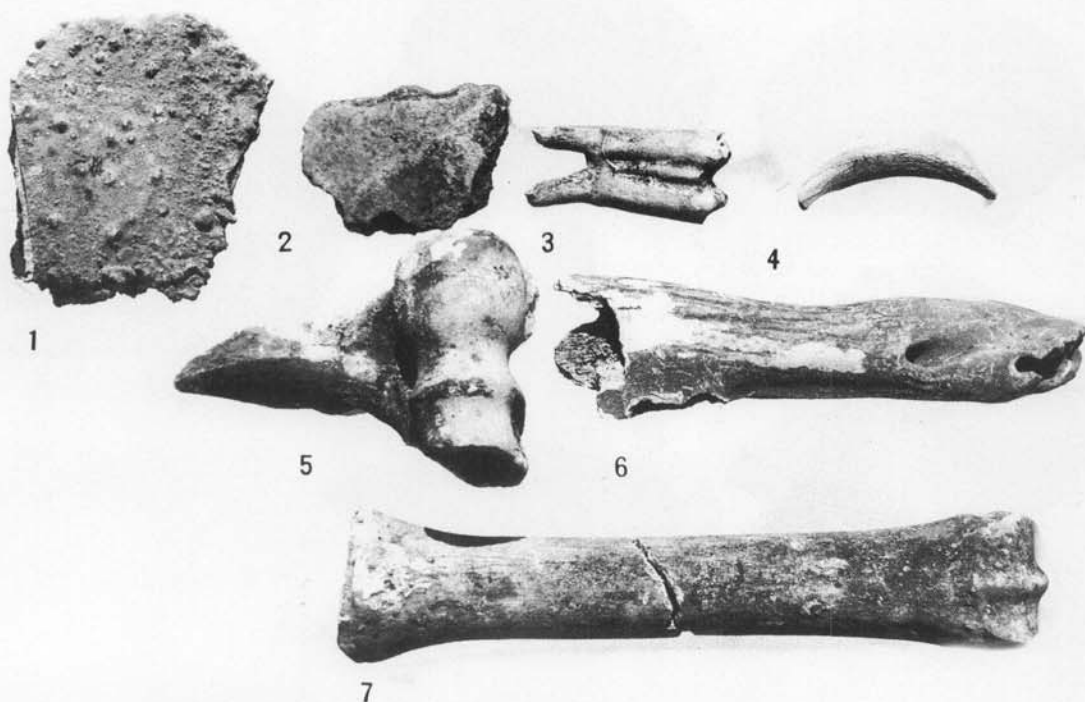
사진 18



29. 溫坪里 혼인지 전경



30. 溫坪里 동굴 유적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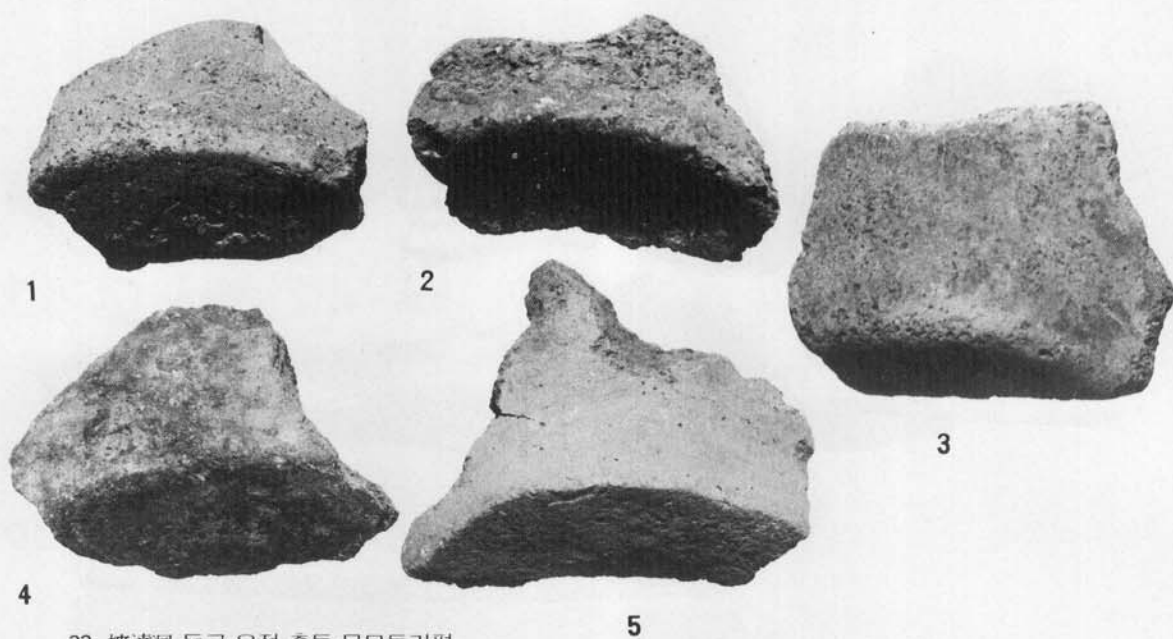


31. 挾才里 동굴 유적 출토 토기편 및 동물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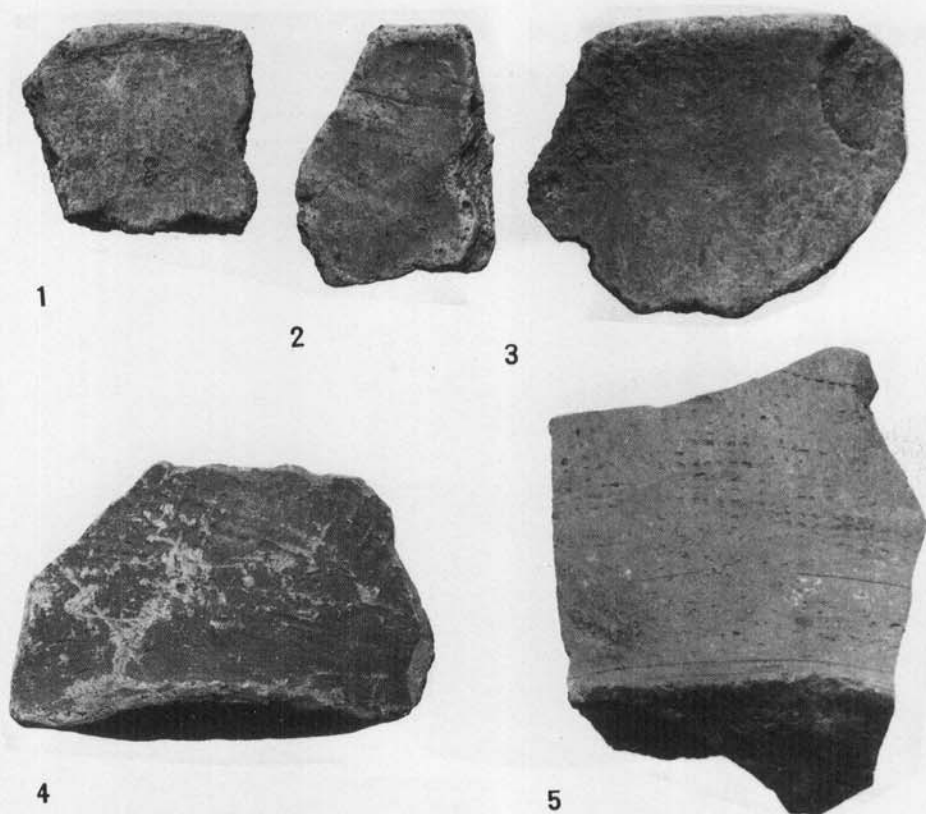


32. 猓來洞 rock-shelter 출토 토기

사진 20



33. 檣達洞 동굴 유적 출토 무문토기편



34. 中文洞 rock-shelter 출토 토기편



1



2

35. 中文洞 rock-shelter 출토 유물



1



2



3



4



5



6

36. 漢南里 rock-shelter 출토 토기편

사진 22



1



2



3



4



1



2

38. 下禮里 rock-shelter 출토 석기(2)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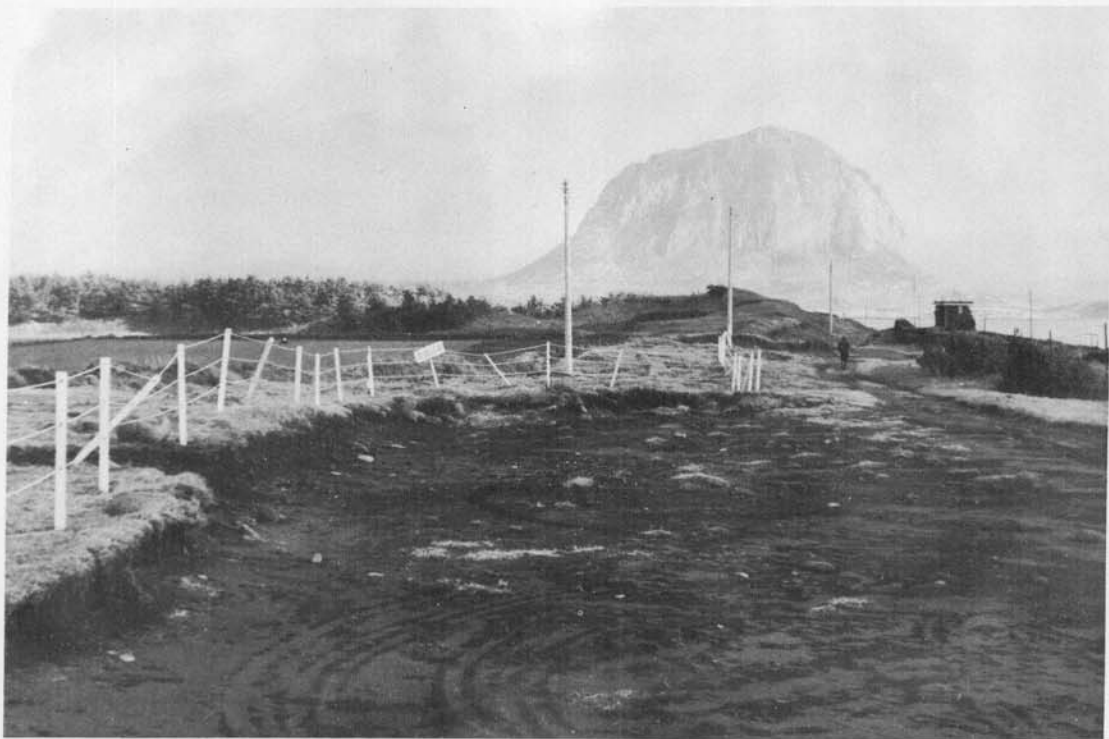
7



8

39. 溫坪里 동굴 유적 출토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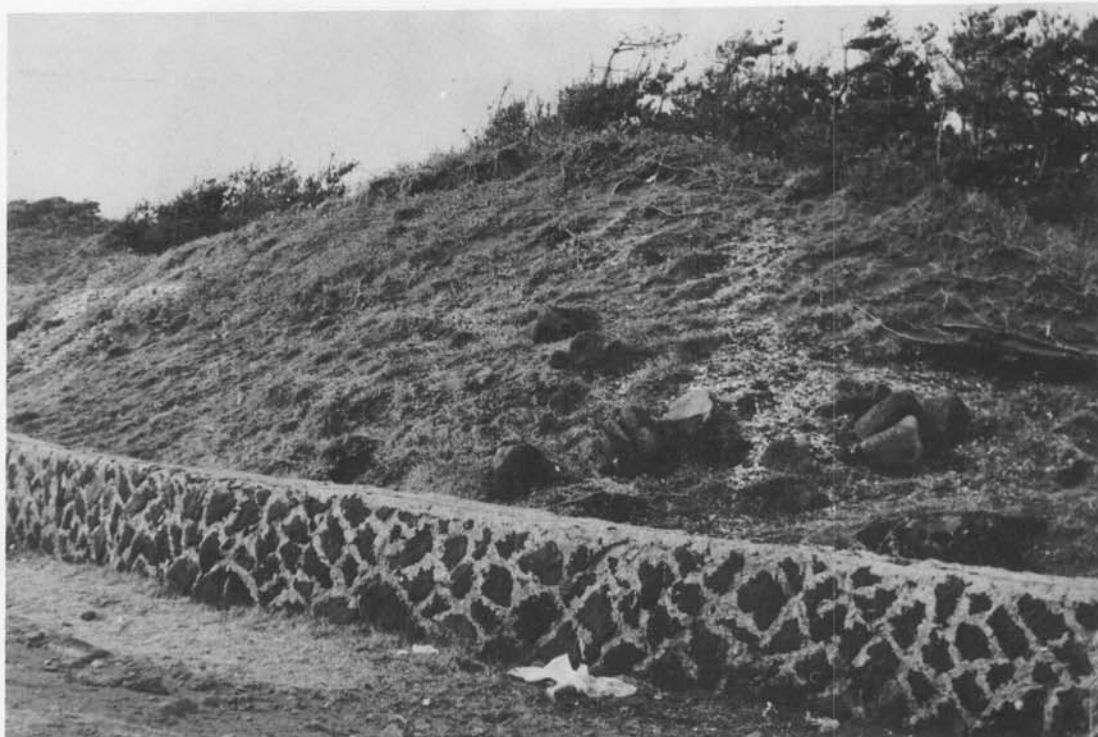
사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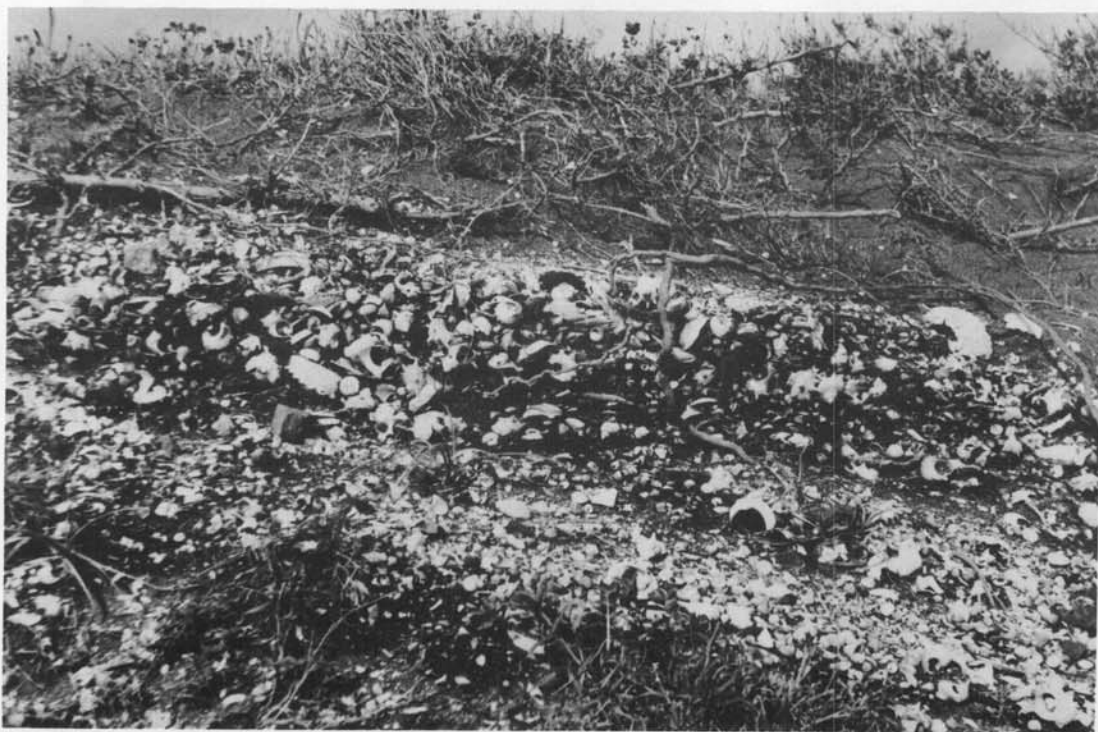
40. 서쪽에서 본 上幕里 산이수동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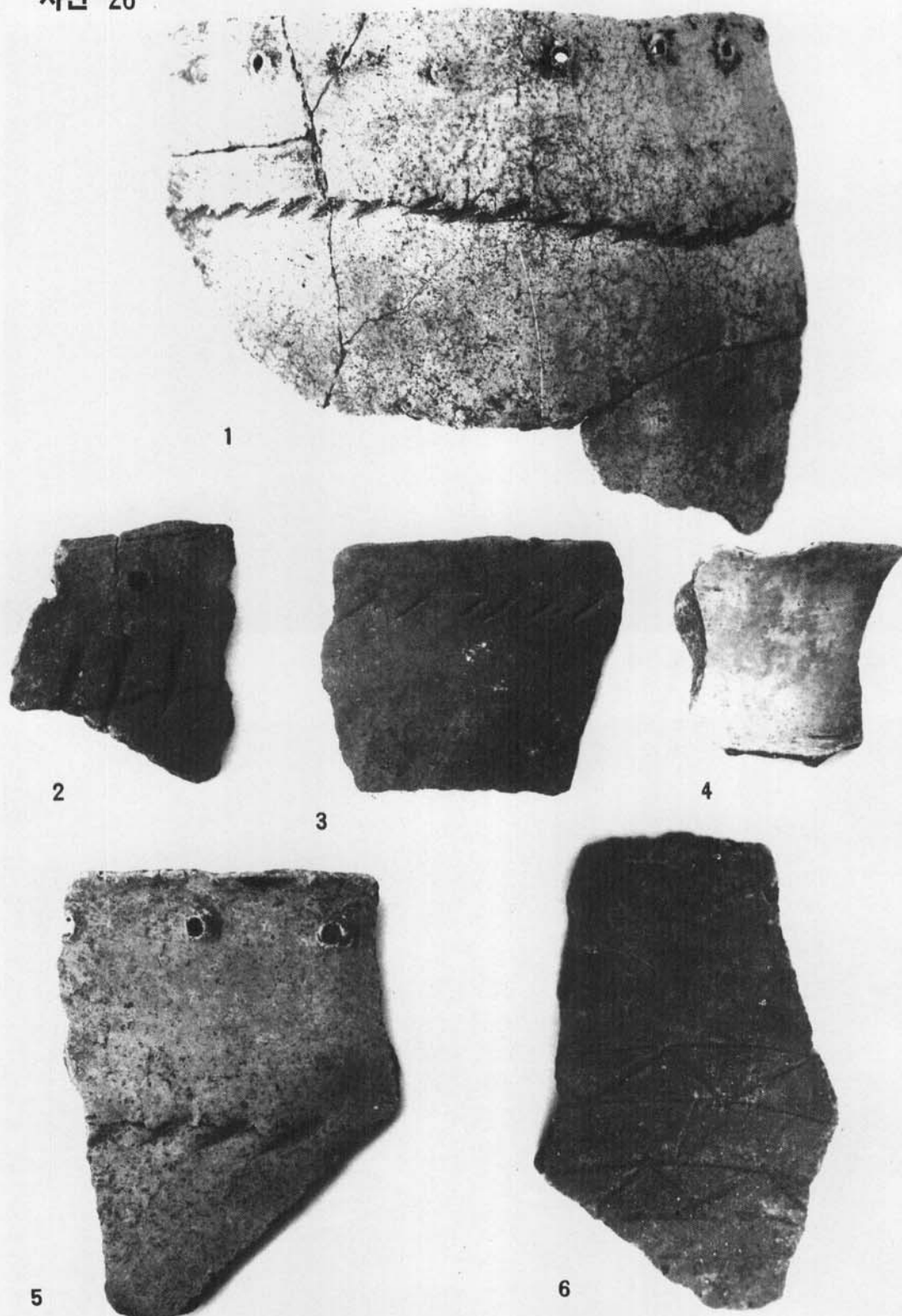
41. 동쪽에서 본 上幕里 산이수동 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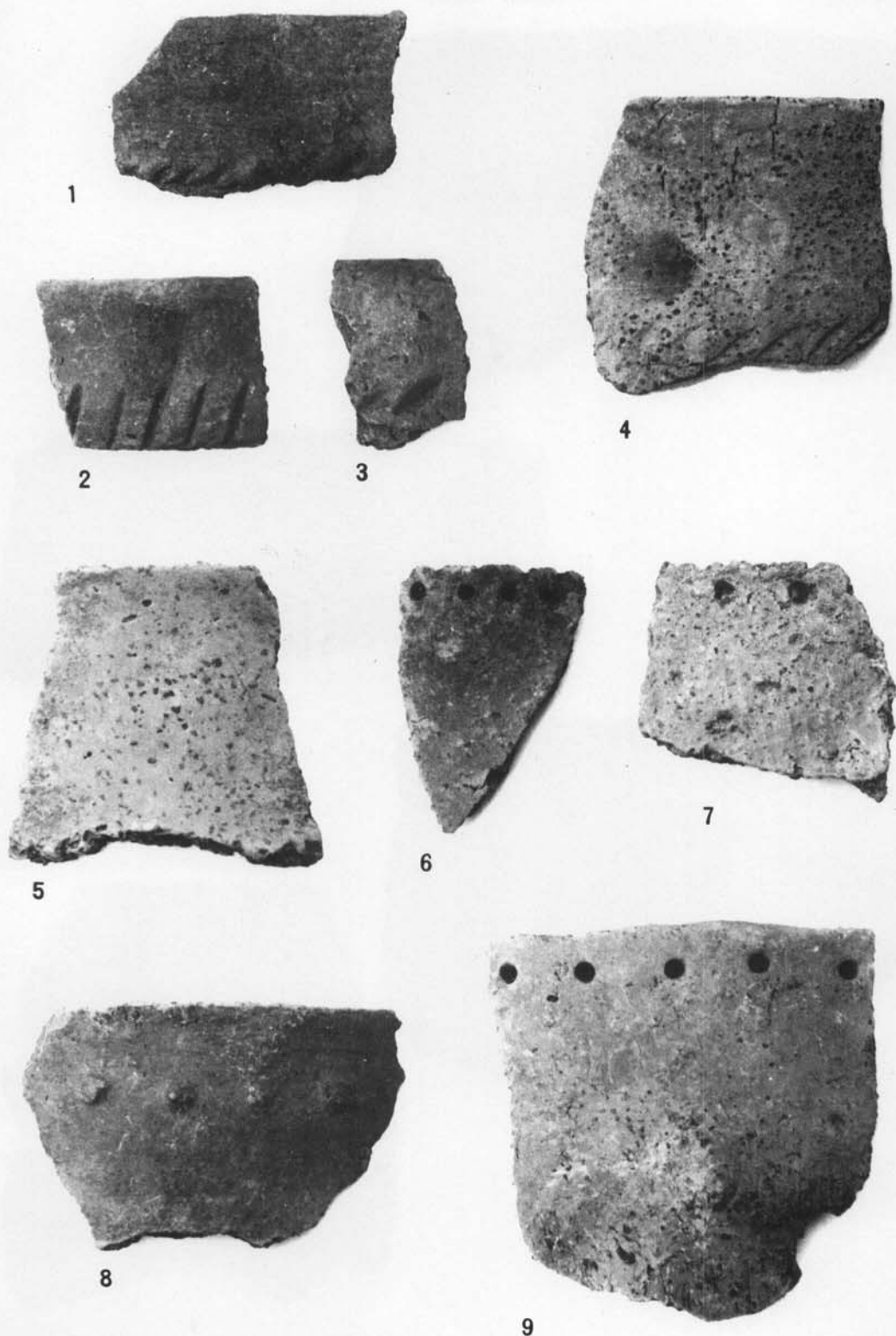
42. 上幕里 산이수동 貝塚 전경



43. 上幕里 산이수동 貝塚 근경



44. 上墓里 산이수동 유적 출토 무문토기 口緣部片(1)



45. 上幕里 산이수동 유적 출토 무문토기 口緣部片(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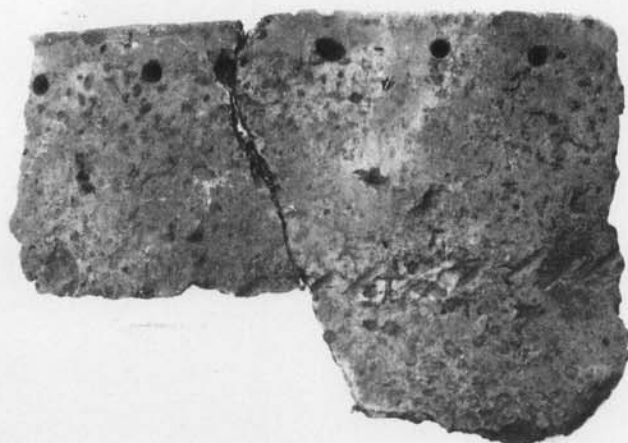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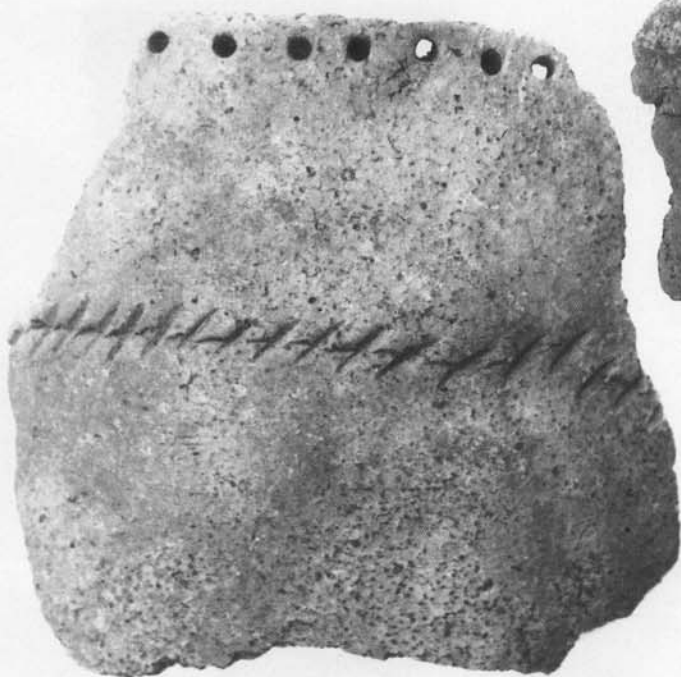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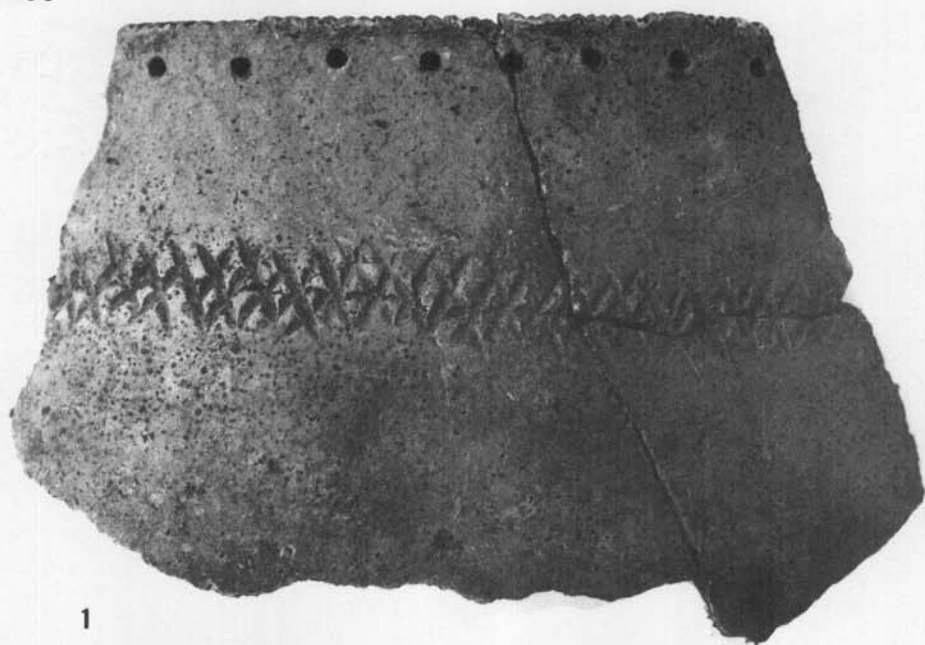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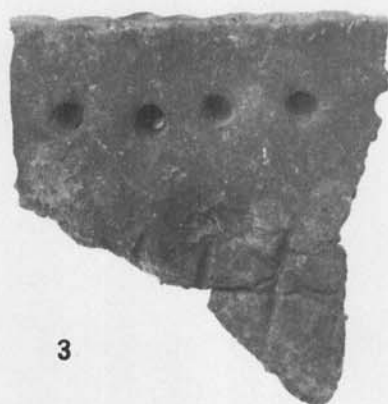
1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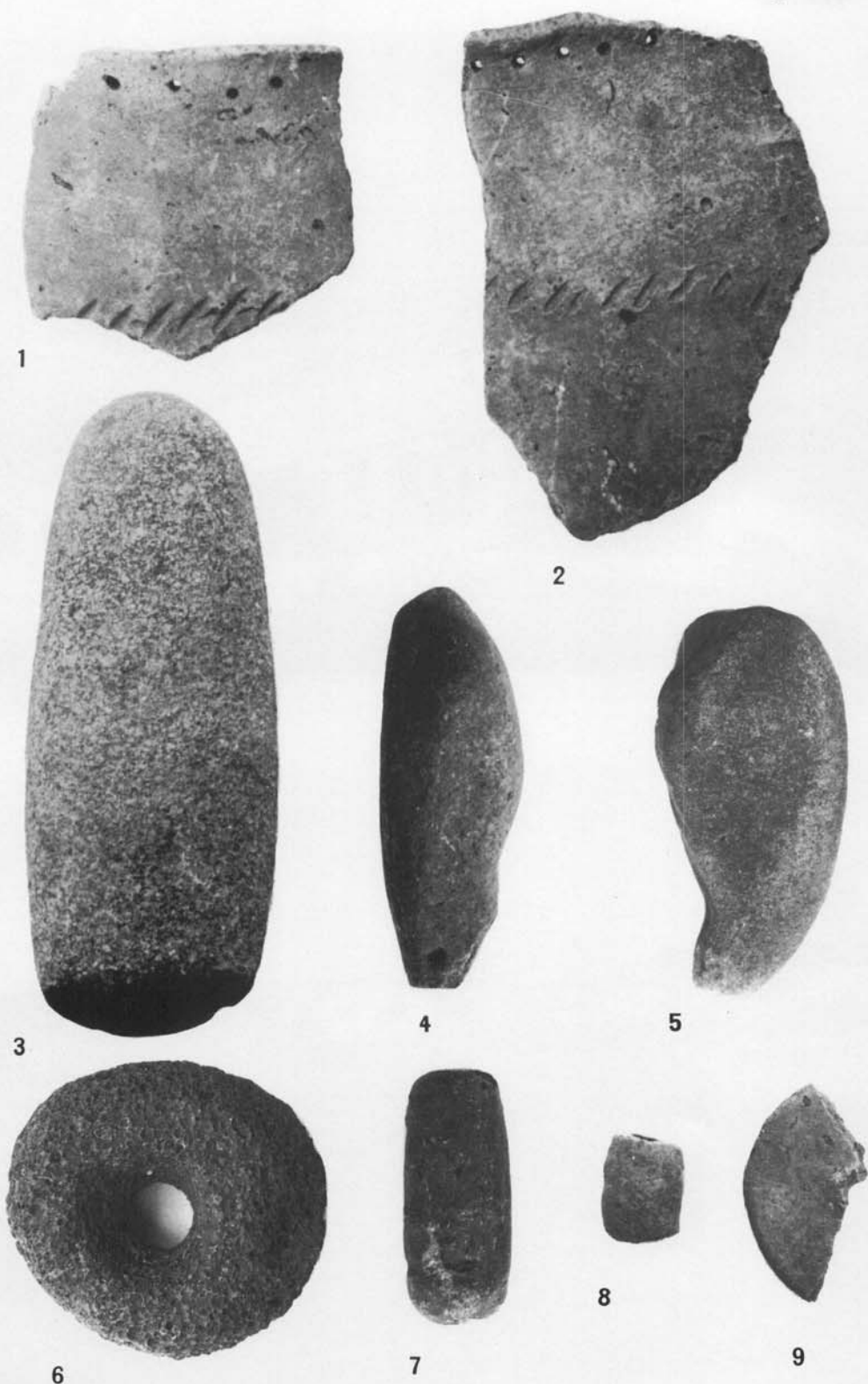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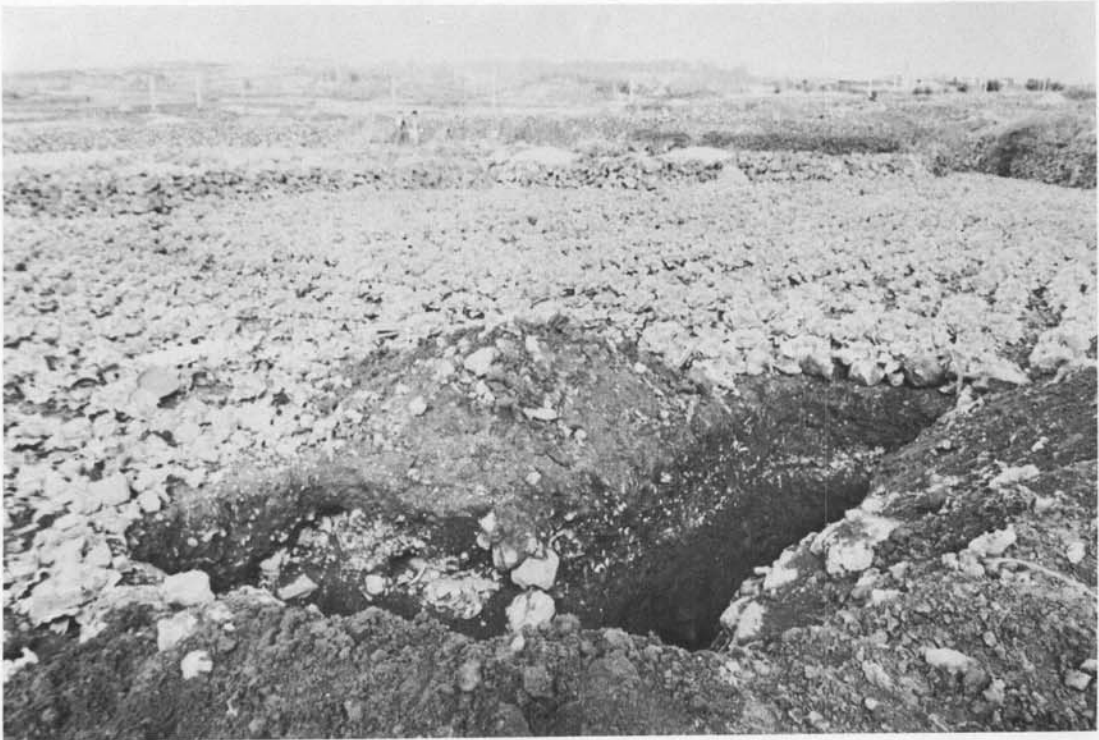
49. 上幕里 산이수동 유적 출토 유물



50. 郭支里 유적 전경(1)



51. 郭支里 유적 전경(2)



52. 郭支里 貝塚 1979년 발굴 지점



53. 郭支里 貝塚 1984년 발굴 핏트 층위 상태

사진 34



54.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지점 원경 (북쪽에서)



55.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지점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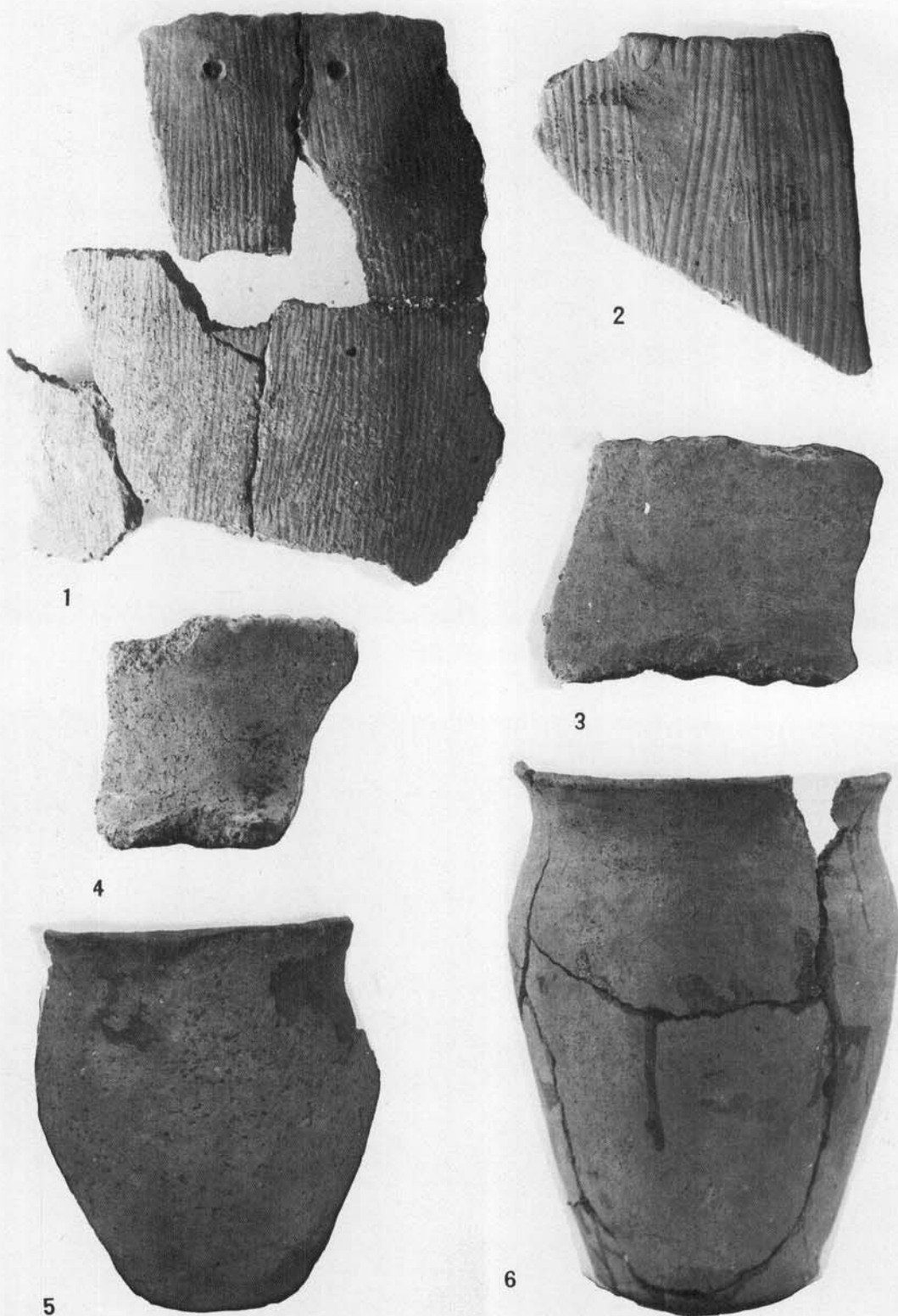


56.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石槨墓 (뚜껑 들어내기 전)



57.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石槨墓 (뚜껑 들어낸 후)

사진 36



58. 郭支里 貝塚 1979년 발굴 출토 토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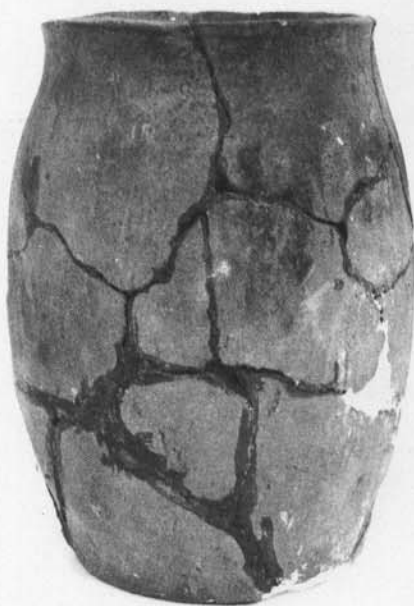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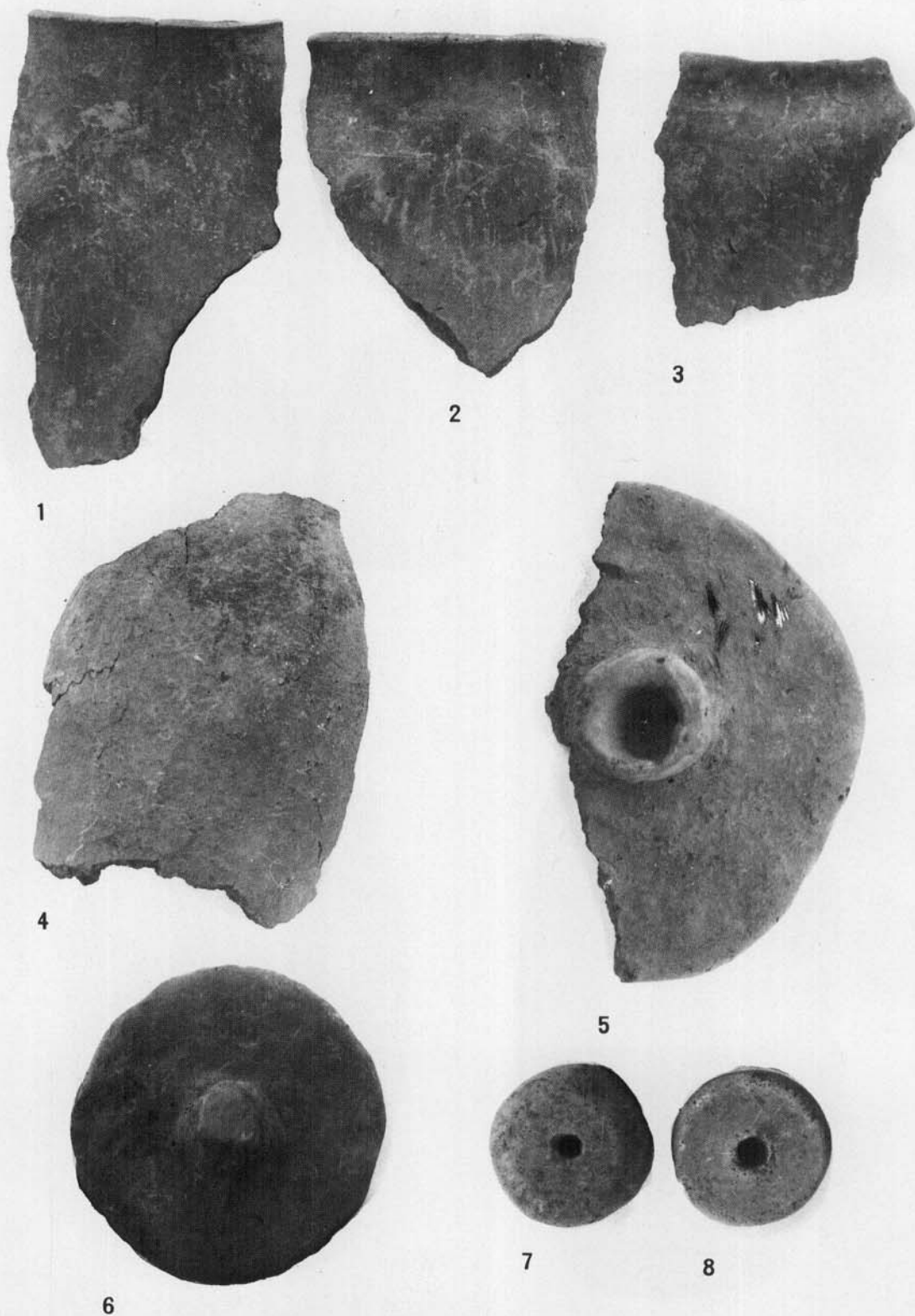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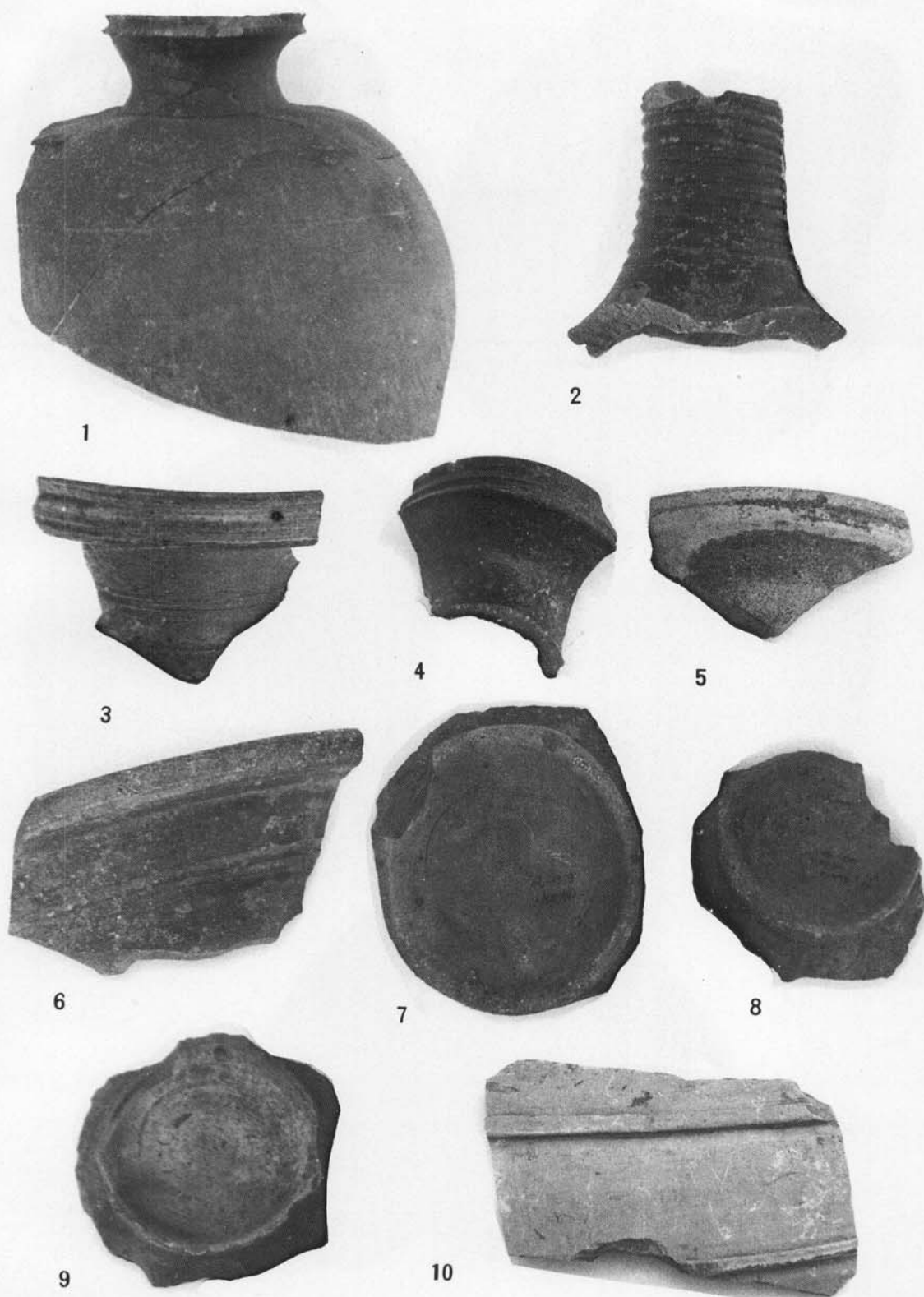


5

사진 38



60.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출토 土製 유물



61.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출토 硬質土器(1)

사진 40



1



2



3



4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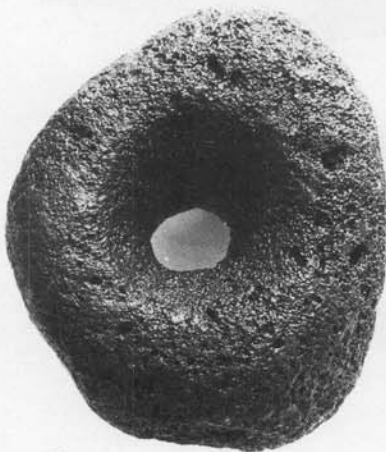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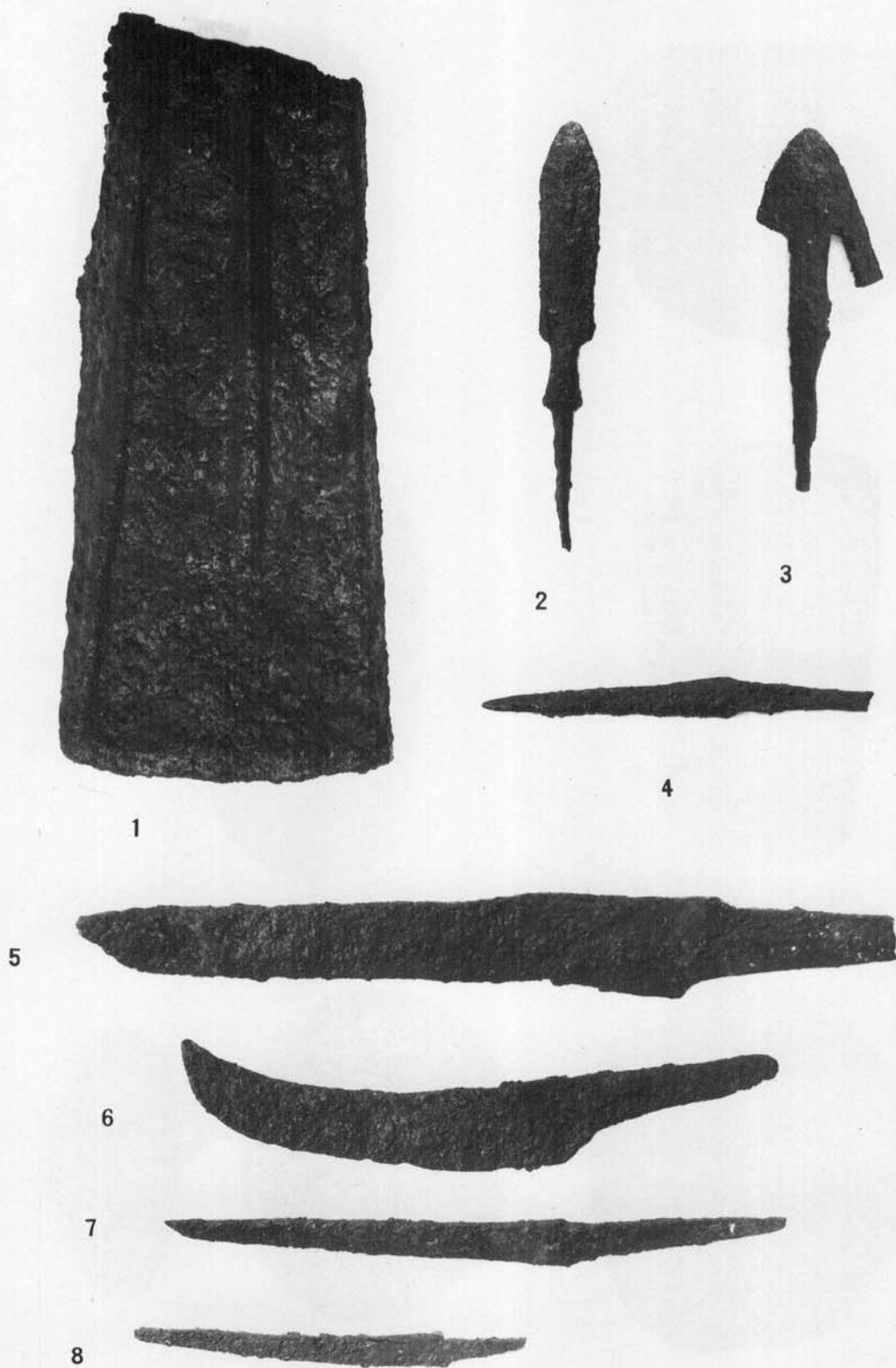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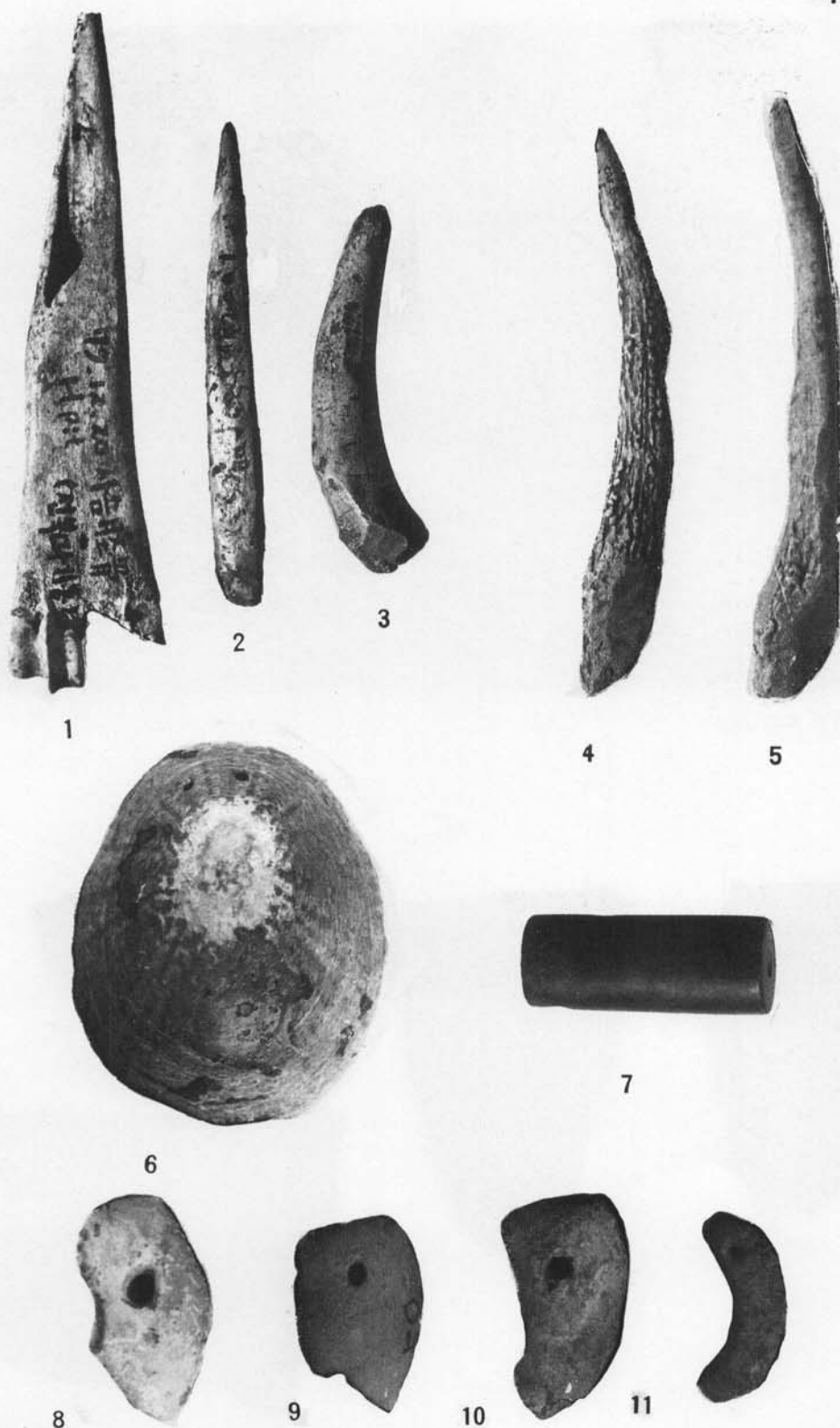


7

사진 42



64. 郭支里 貝塚 1985년 발굴 출토 철제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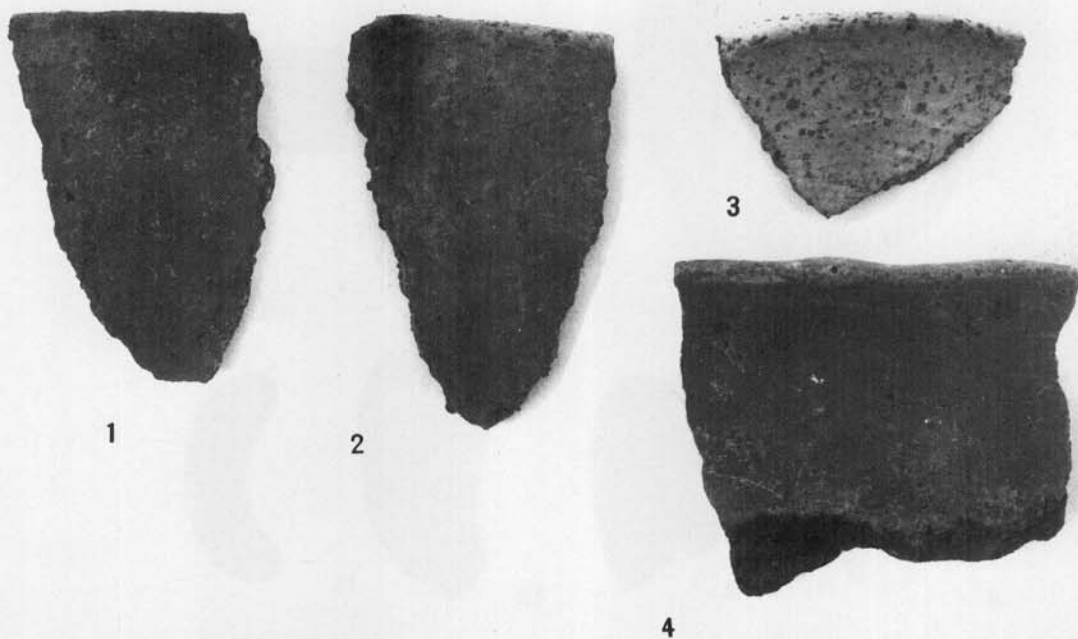


65. 郭支里 貝塚 출토 각종 유물

사진 44



66. 和順里 貝塚 近경



67. 和順里 貝塚 출토 무문토기 口緣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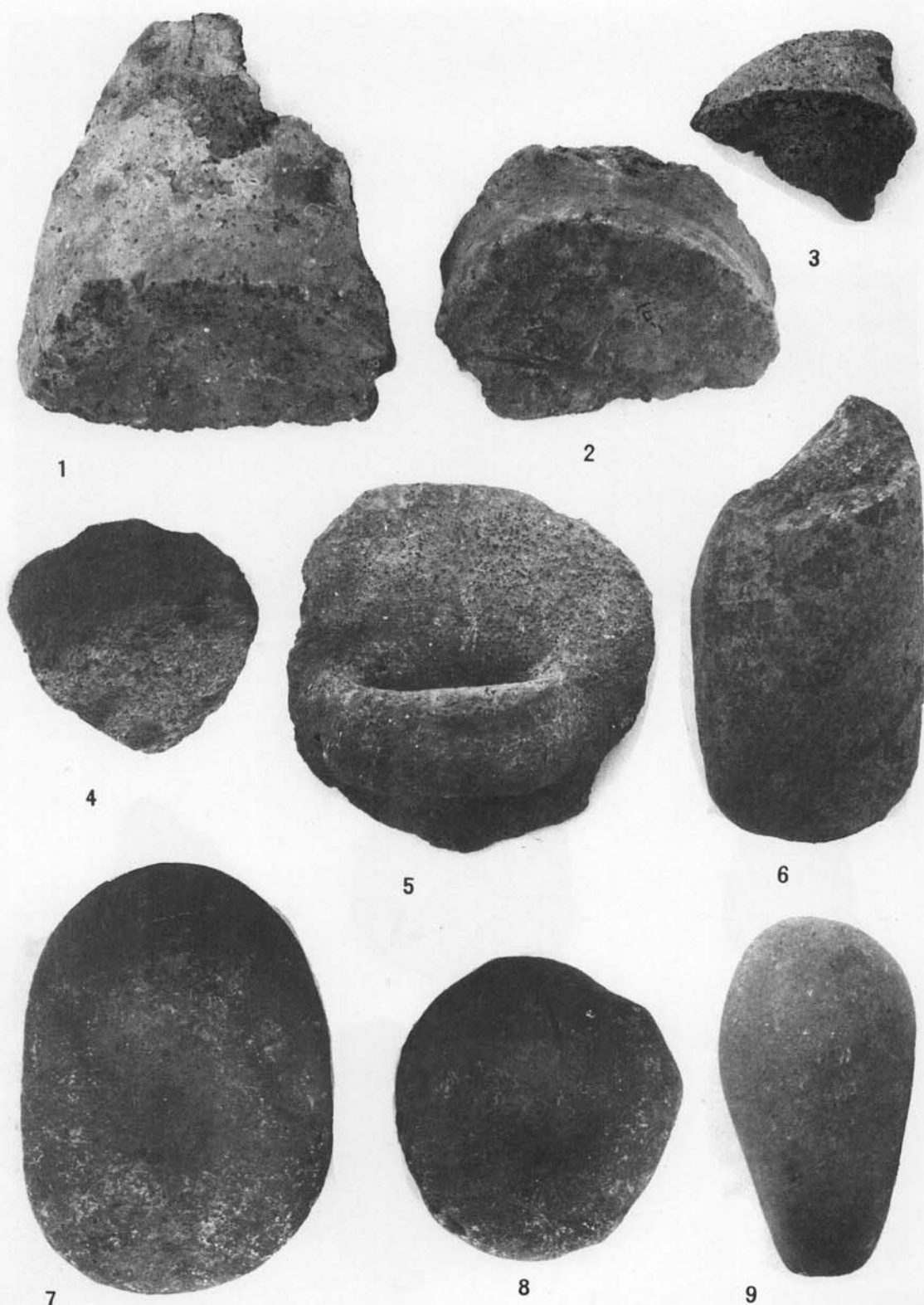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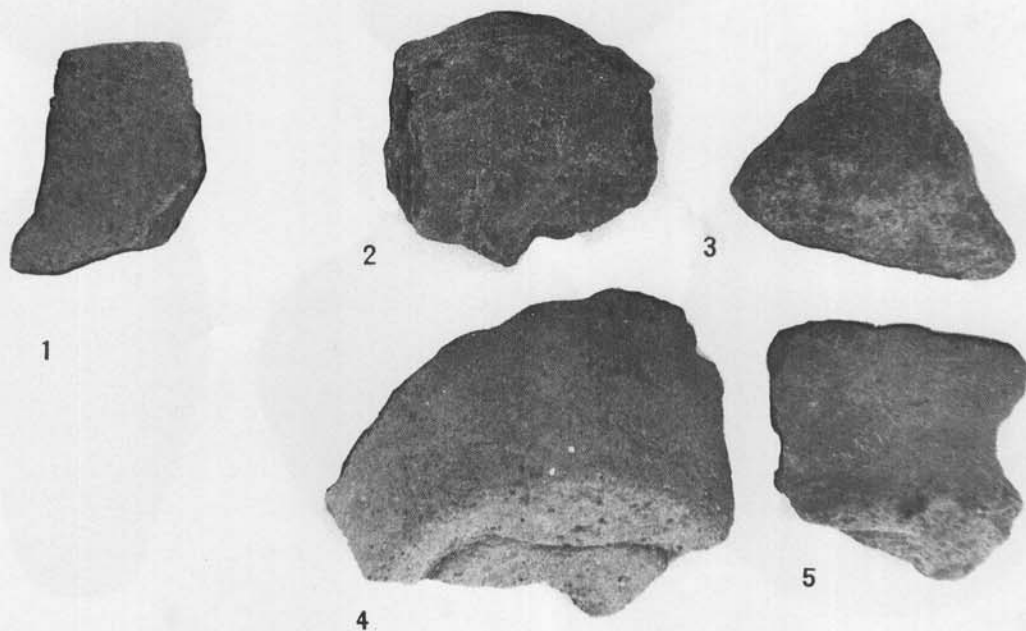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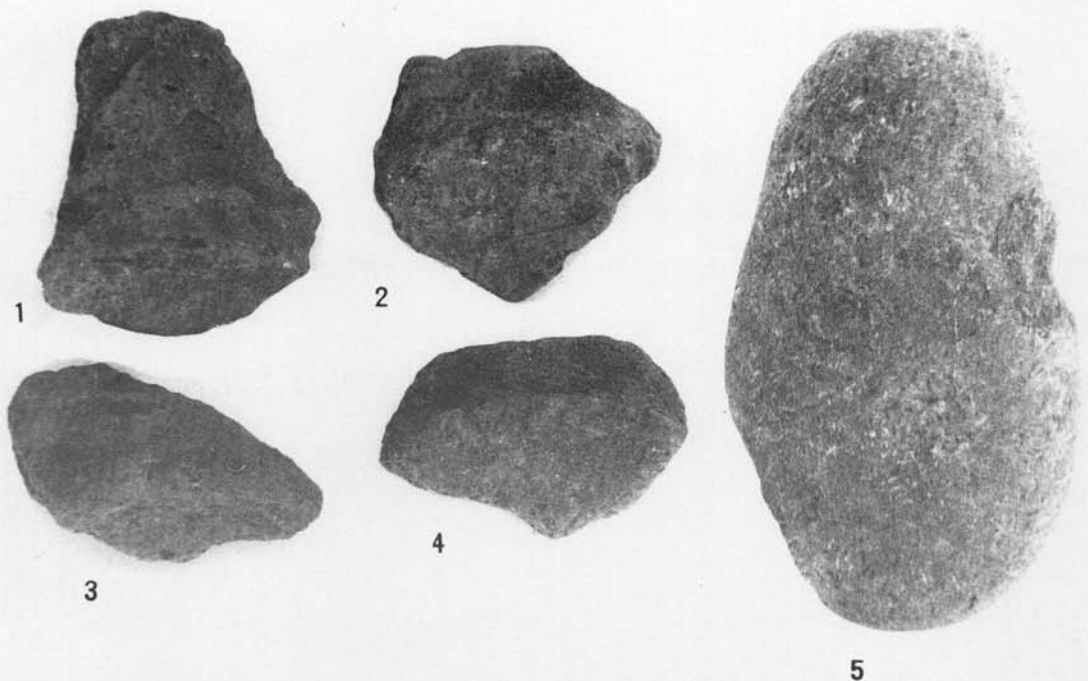
사진 46



69. 加波島 貝塚 원경



70. 加波島 貝塚 출토 무문토기편



71. 加波島 貝塚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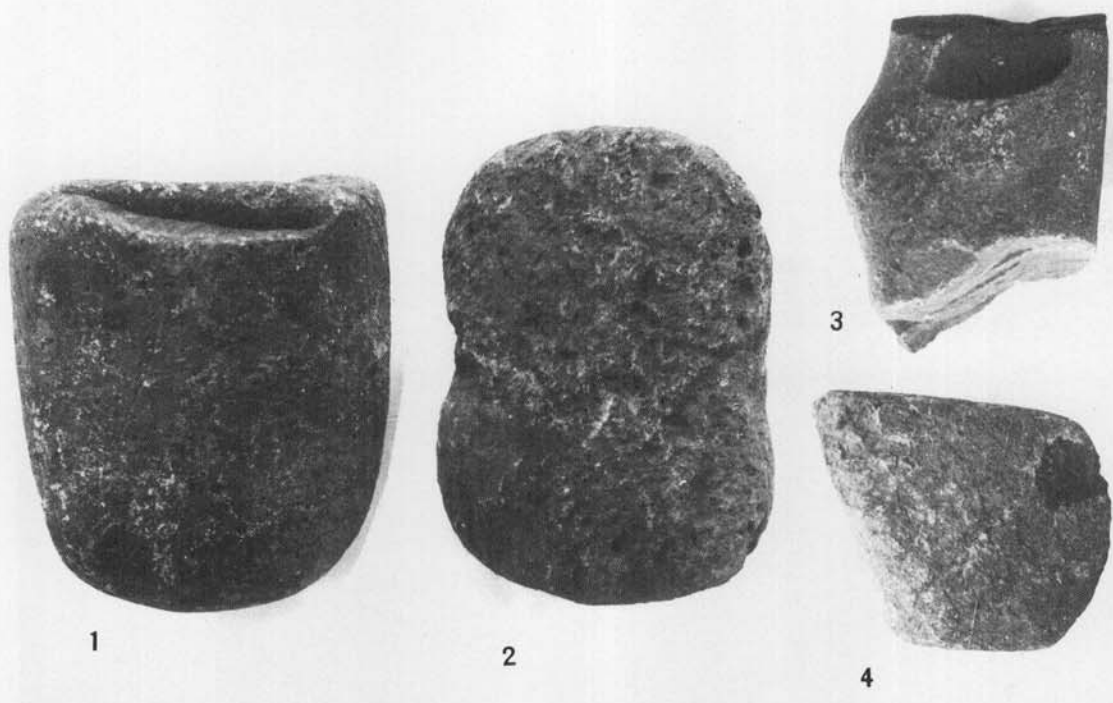


72. 龍潭洞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48



73. 三陽洞 유물산포지 전경



74. 三陽洞 유적 출토 유물



75. 外都洞 유물산포지 전경



76. 外都洞 유적 유물산포 상태

사진 50



77. 光令里 유물산포지(1)



78. 光令里 유물산포지(2)



79. 性穴이 있는 바위



80. 光令里 출토 갈판과 갈돌



1



2



3



4



5



6



7



8



9



1



2



3



5



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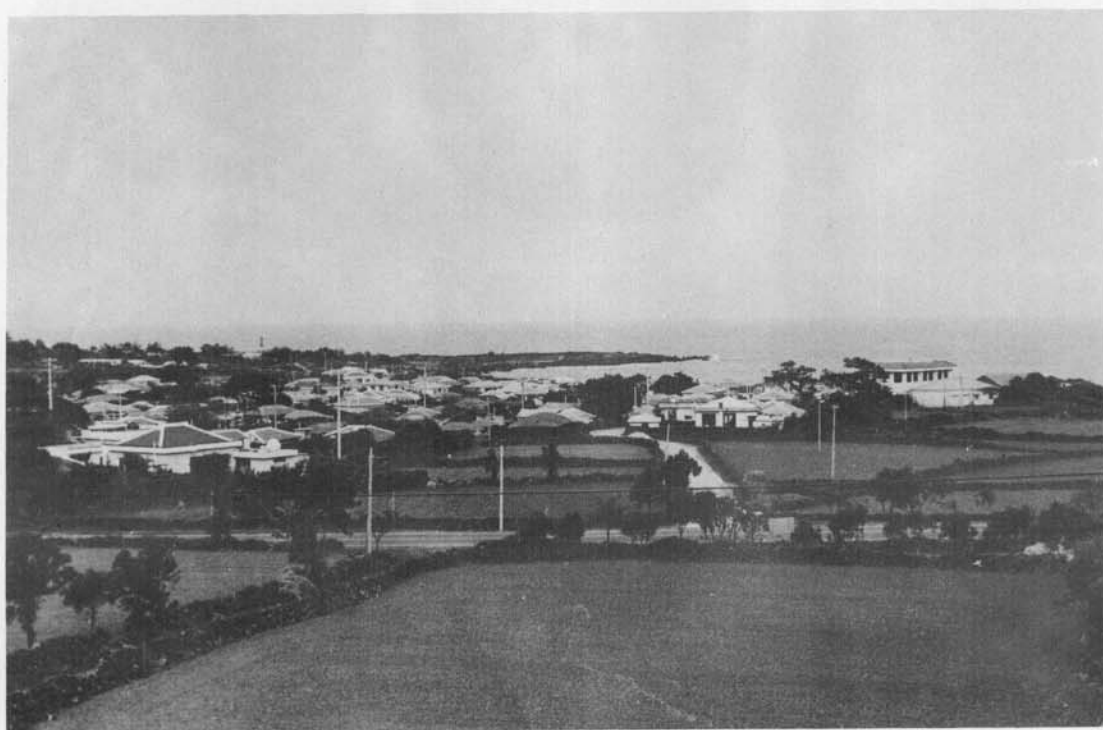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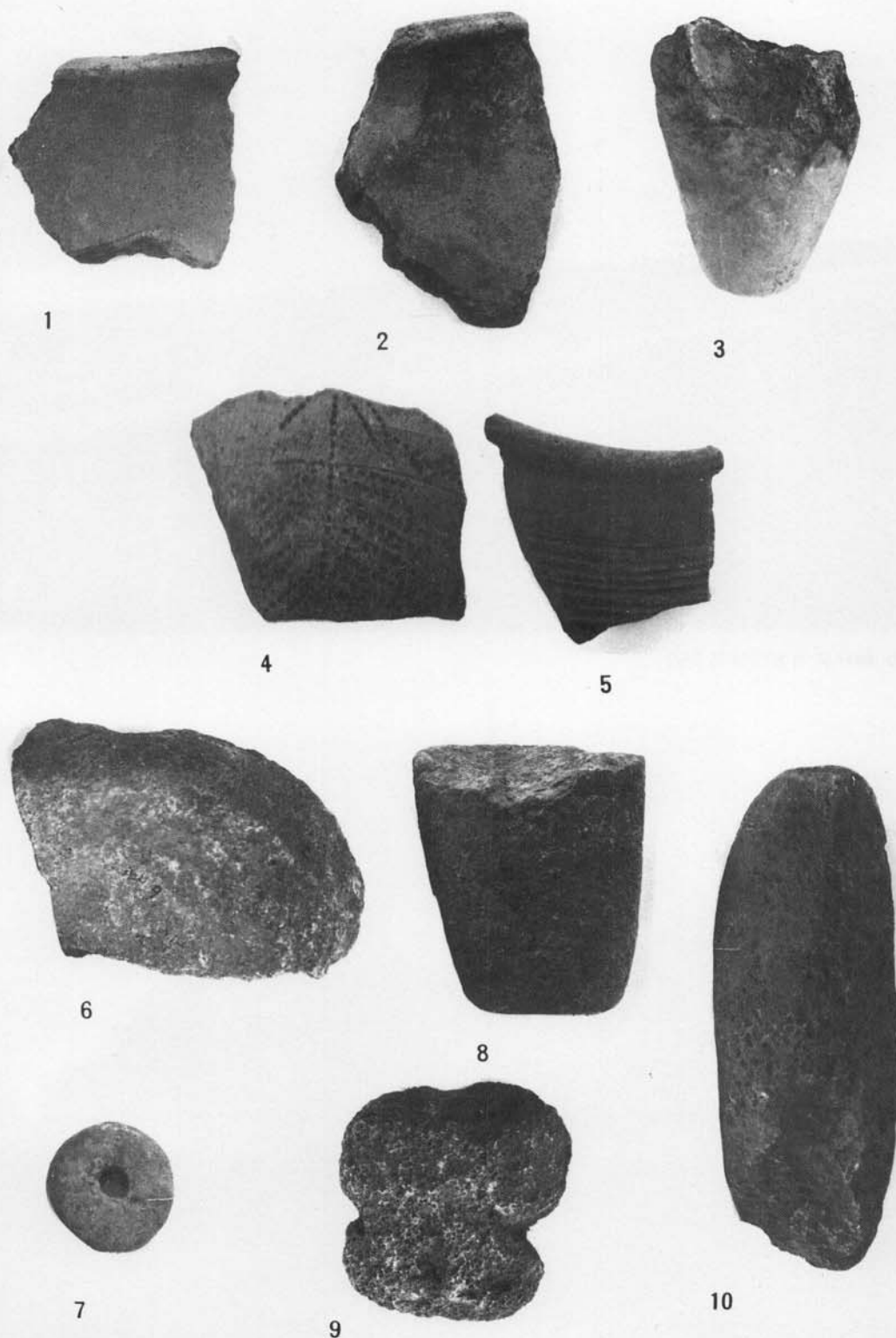
사진 54



83. 高内里 유물산포지 원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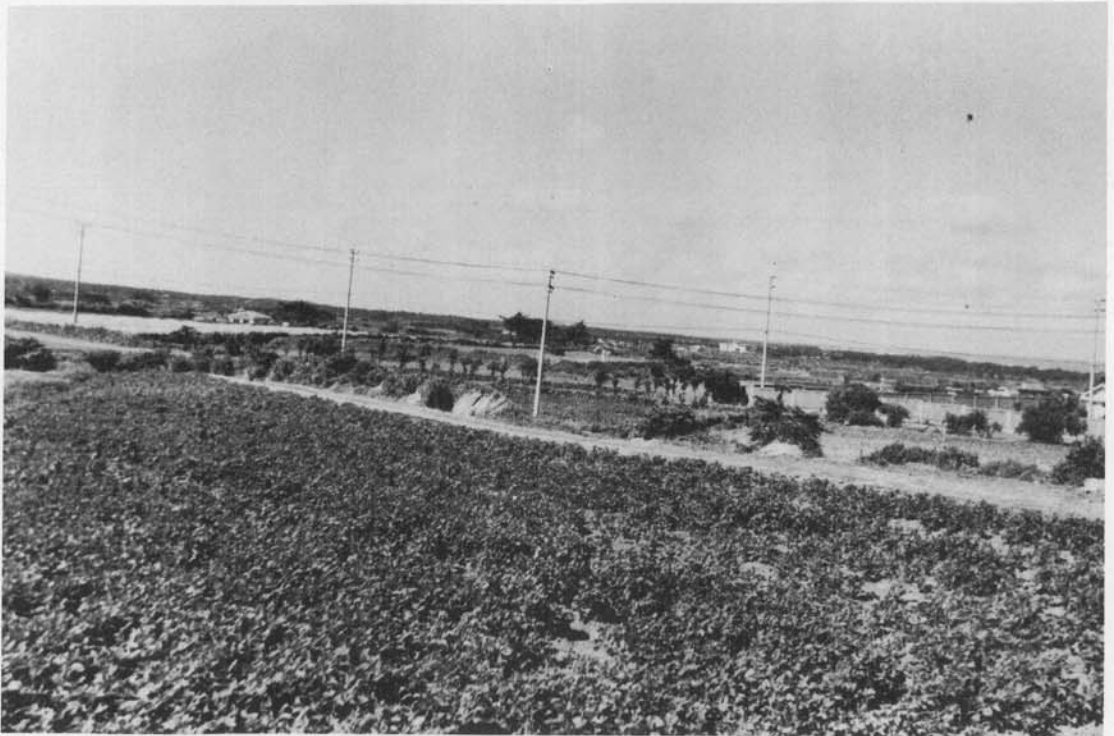


84. 高内里 유물산포지(2)



85. 高内里 유적 출토 유물

사진 56



86. 翰林里 유물산포지 원경



87. 翰林里 유물산포지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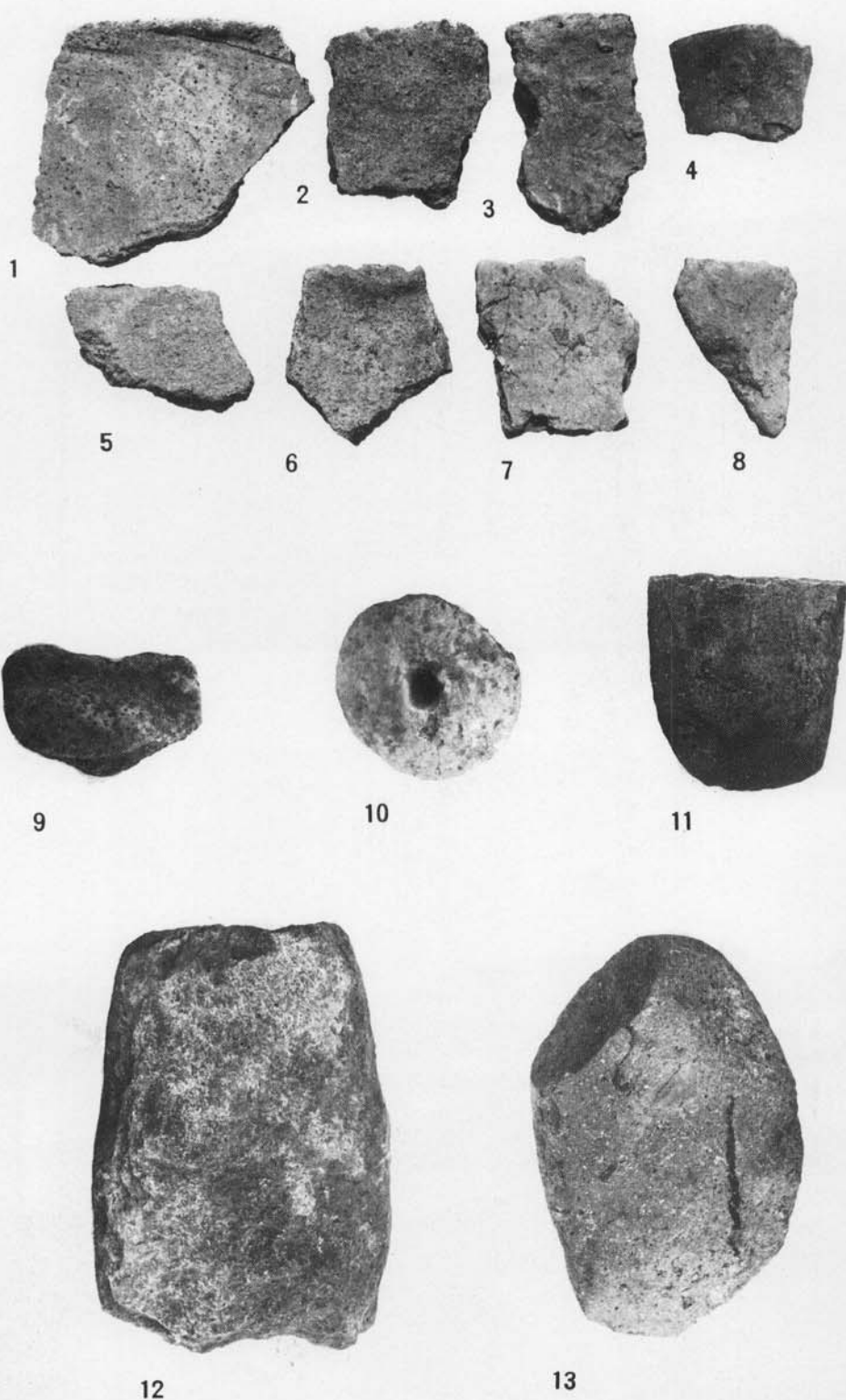


사진 58



89. 明月里 유물산포지 원경



90. 明月里 유물산포지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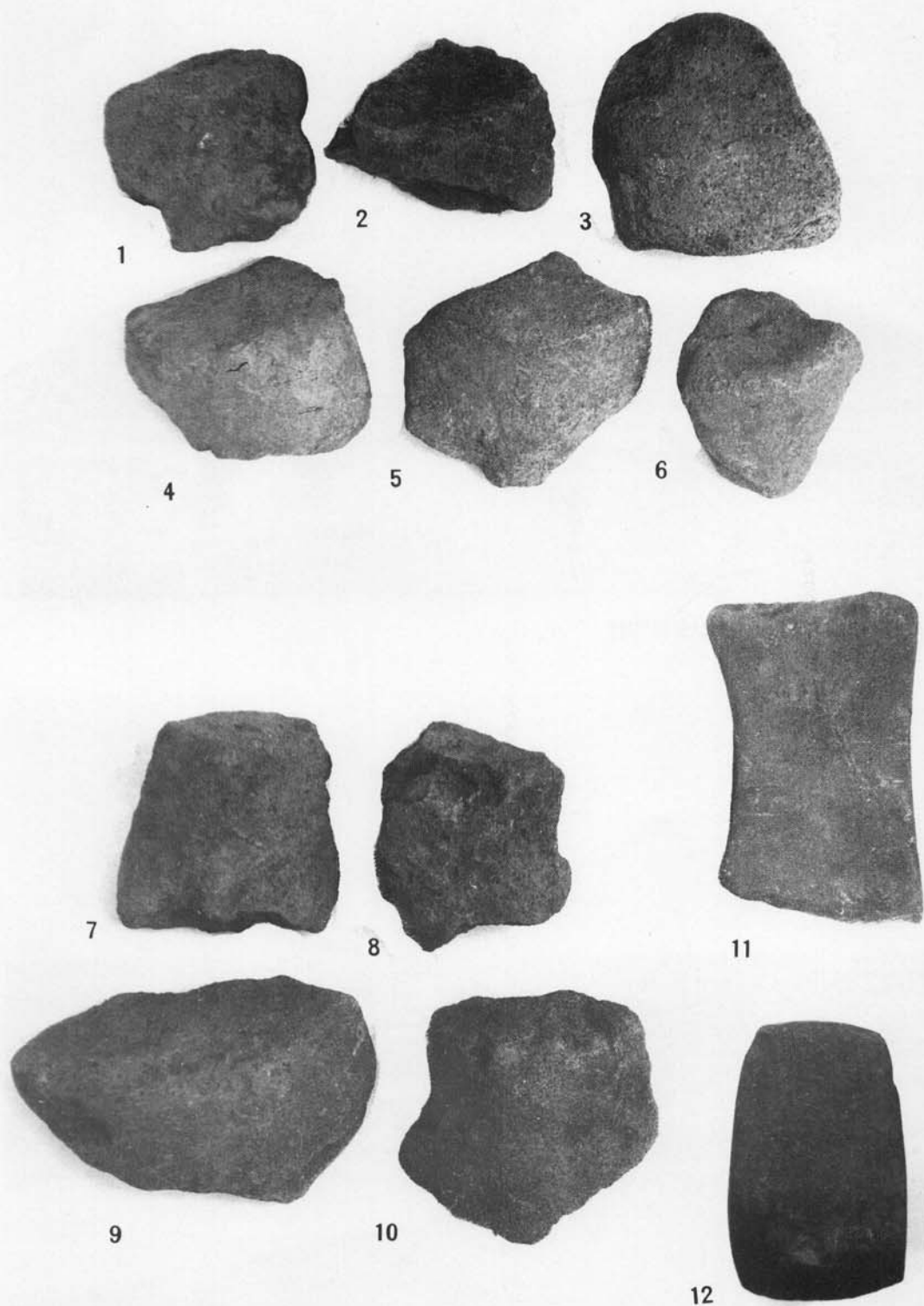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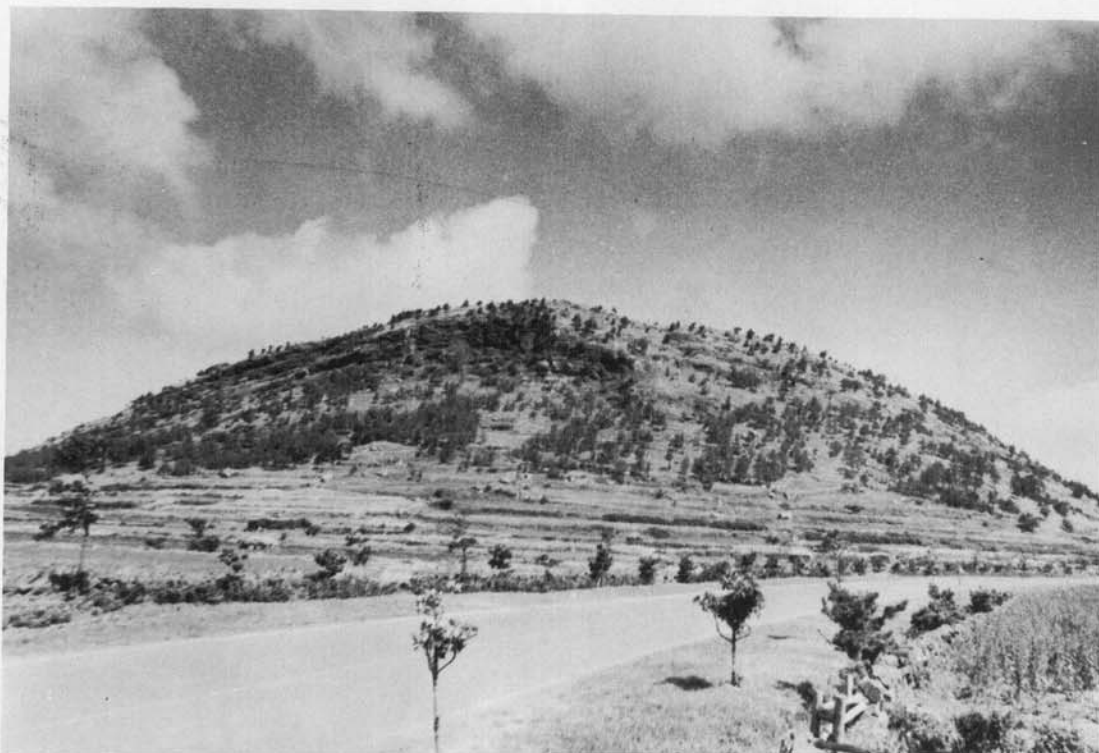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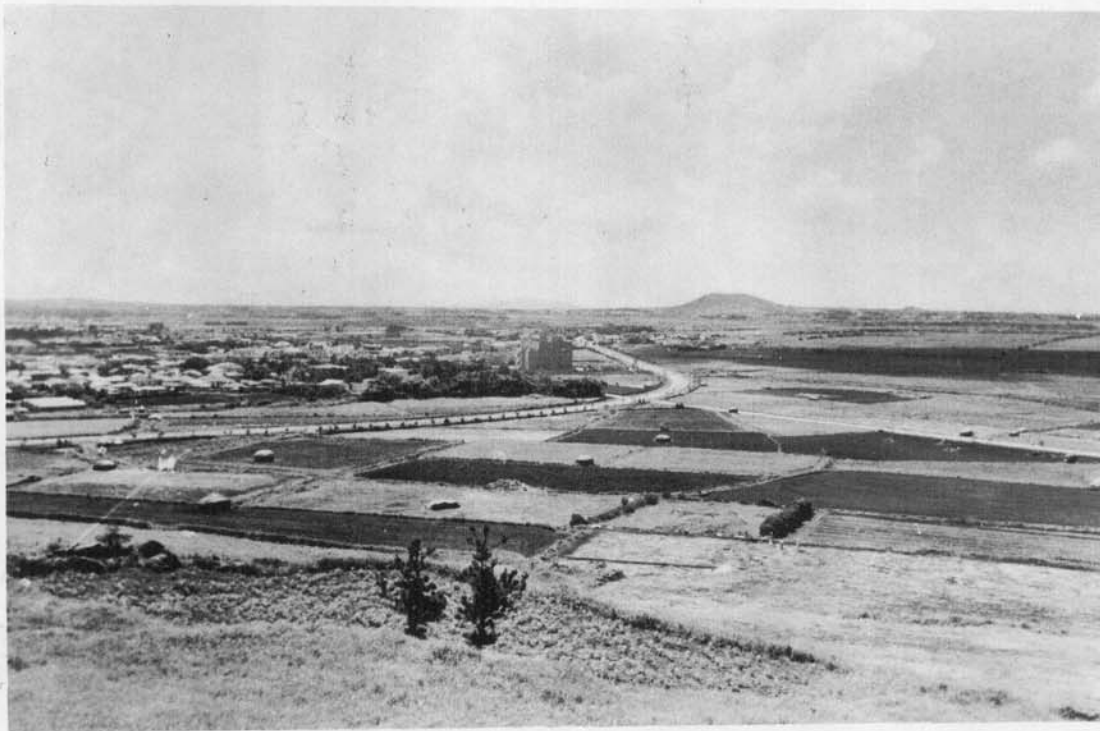


사진 60



92. 高山里 唐山峰 유물산포지 원경



93. 唐山峰에서 바라본 高山里유적 주변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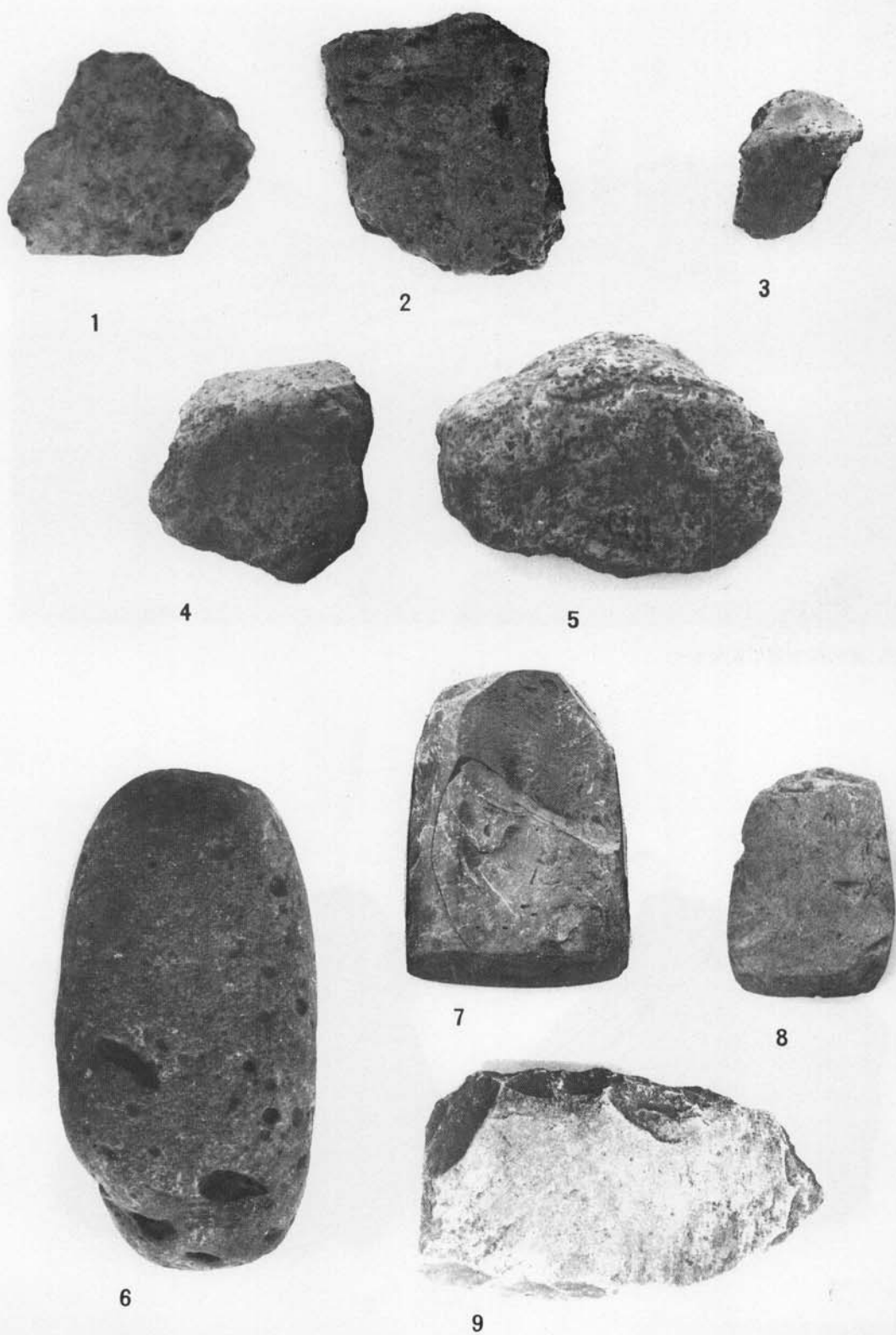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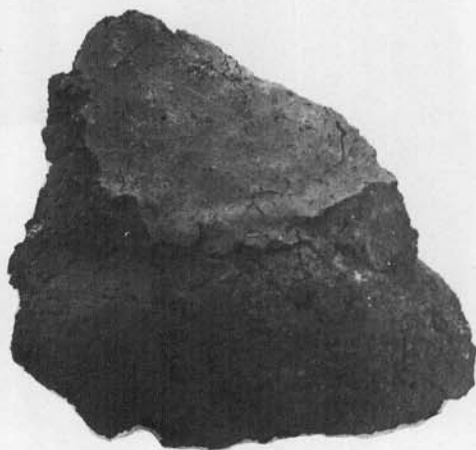
사진 62



95. 猯來洞 유물산포지 원경



1



2

96. 猯來洞 유적 출토 무문토기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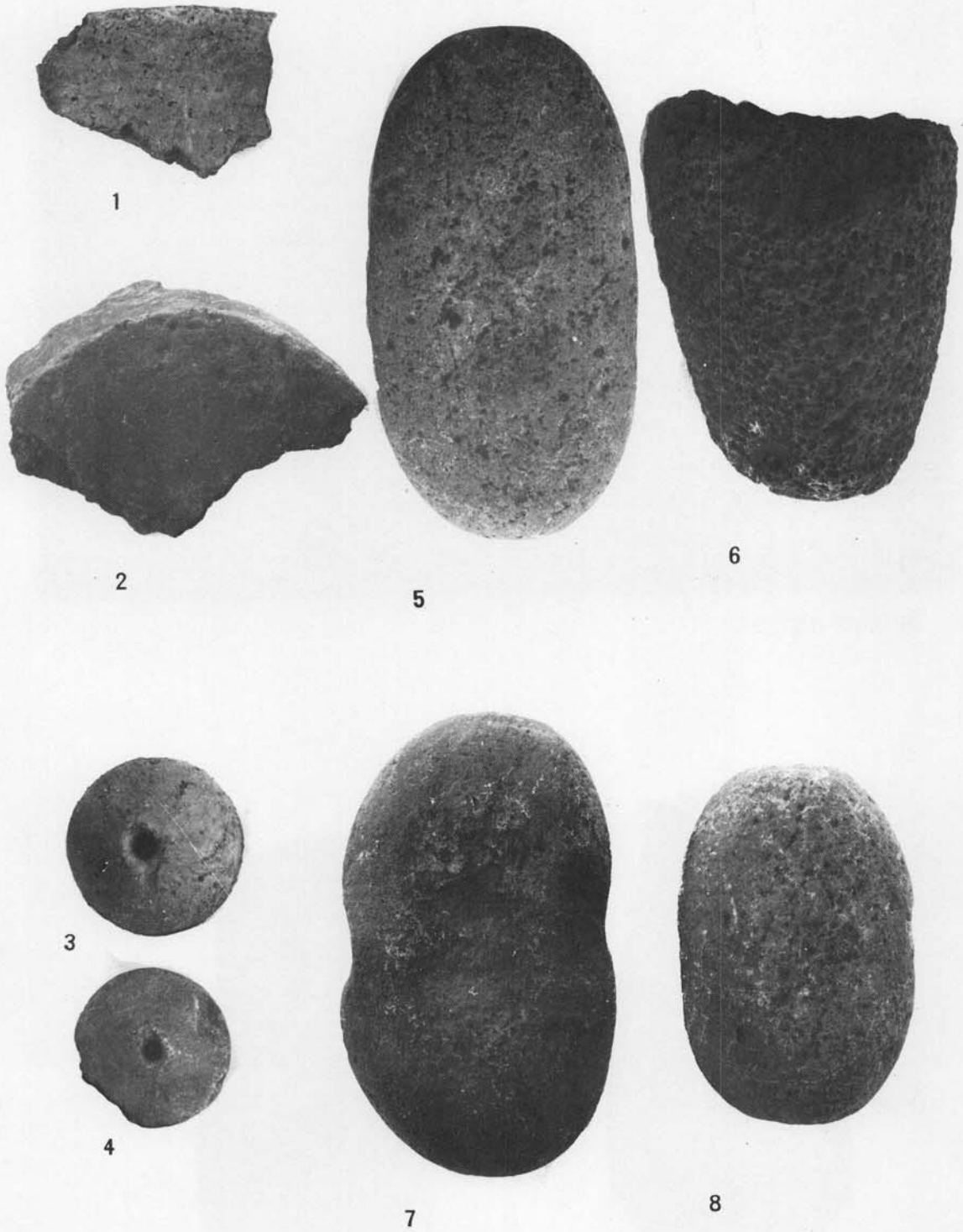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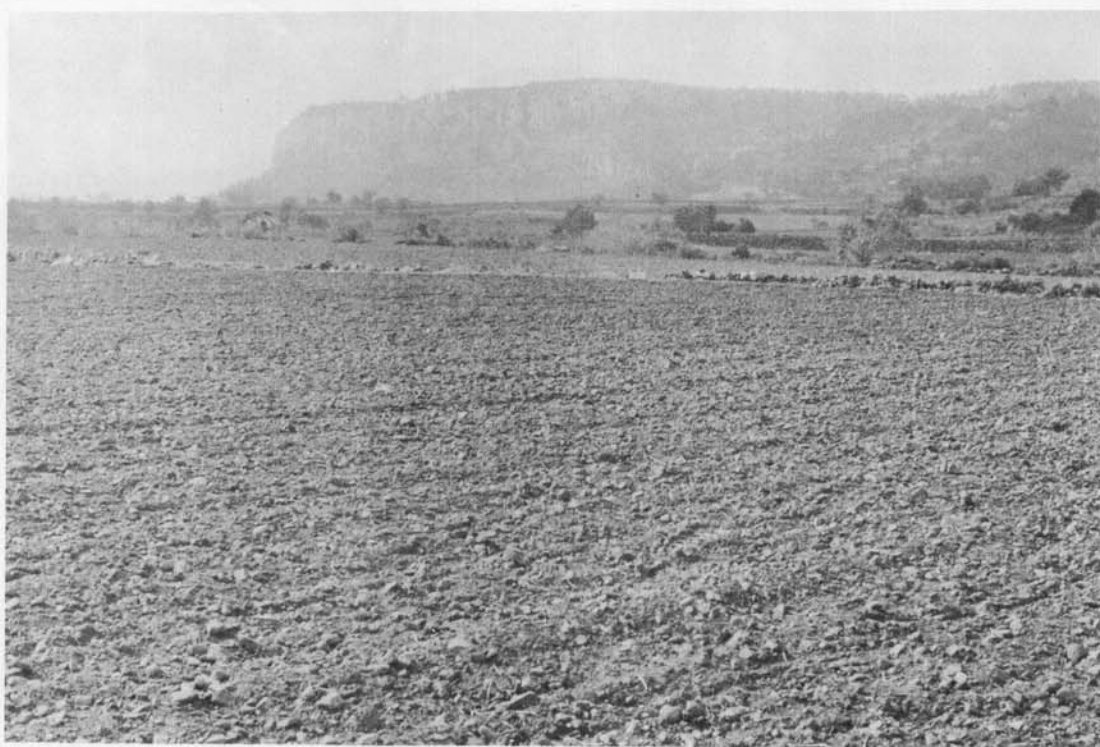


사진 64



98. 大坪里 유물산포지



1



2

99. 大坪里유적 출토 돌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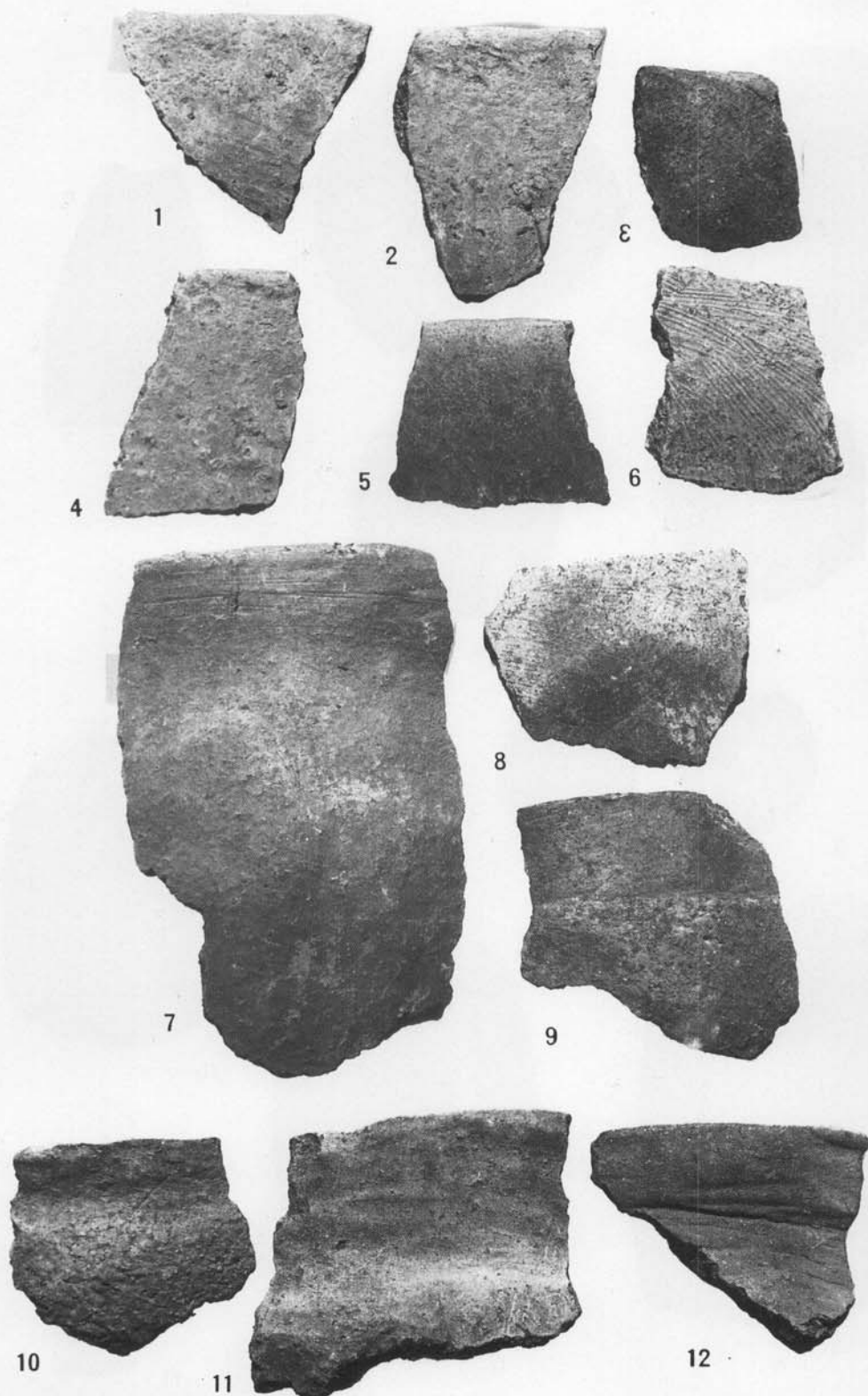


100. 龍潭洞 1985년 발굴 고인돌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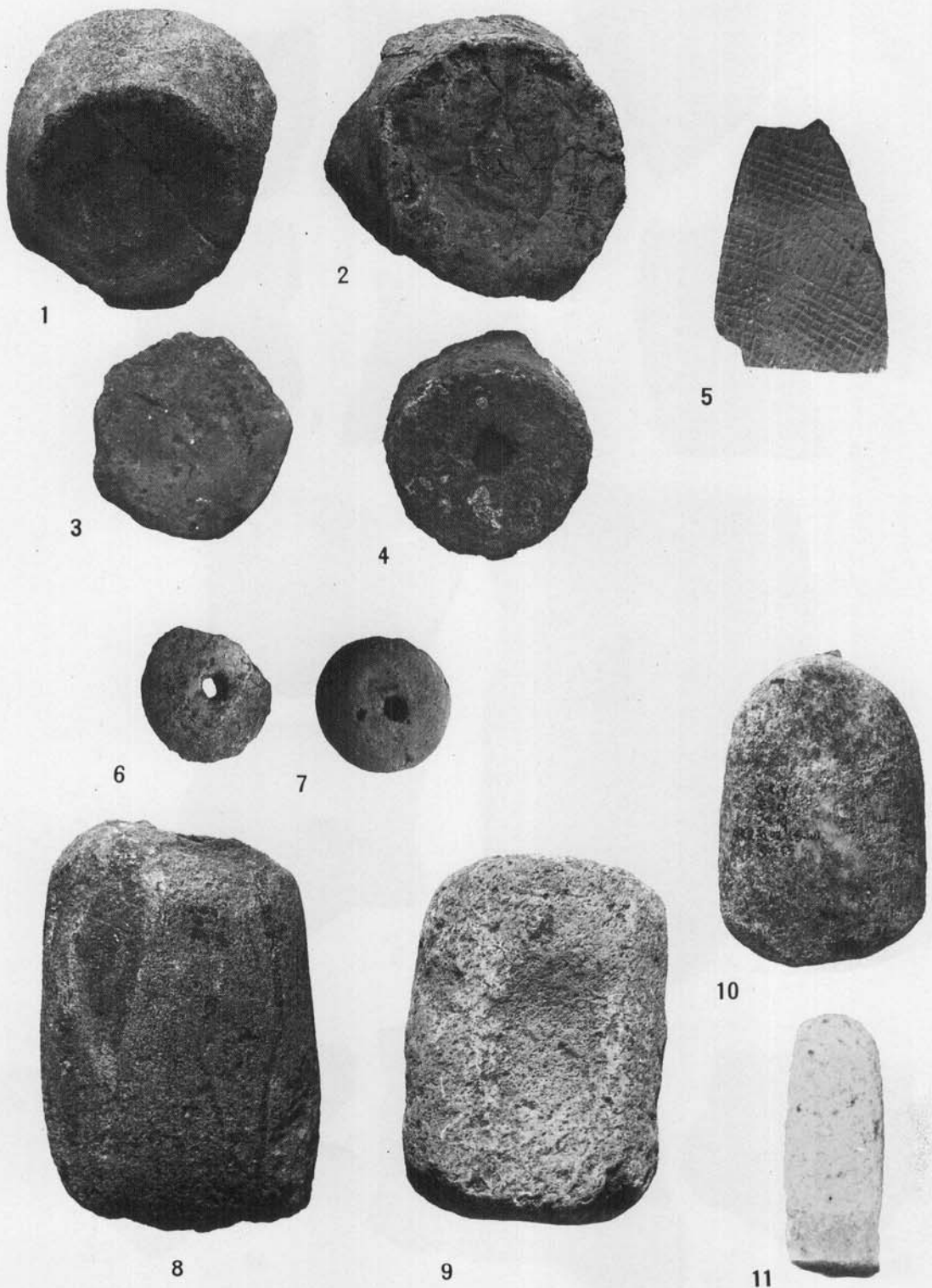
101. 龍潭洞 1985년 발굴 고인돌 뒷면





103. 龍潭洞 발굴 고인돌 출토 유물(1)

사진 68



104. 龍潭洞 발굴 고인돌 출토유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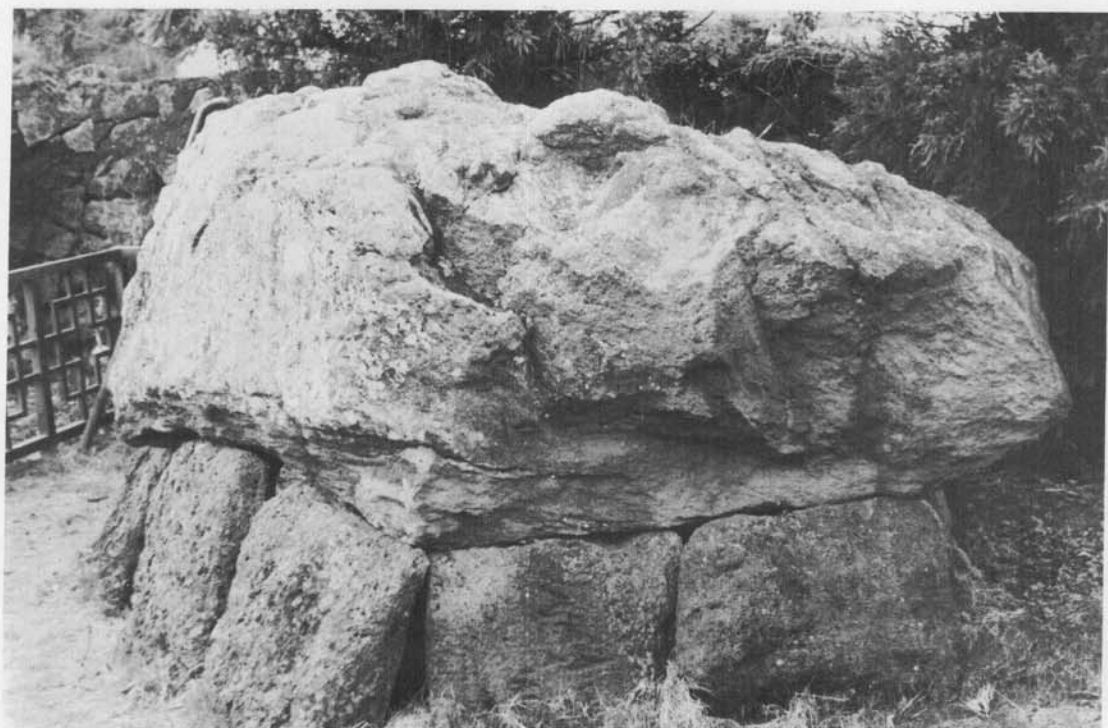
105. 道南洞 고인돌



106. 吾羅洞 고인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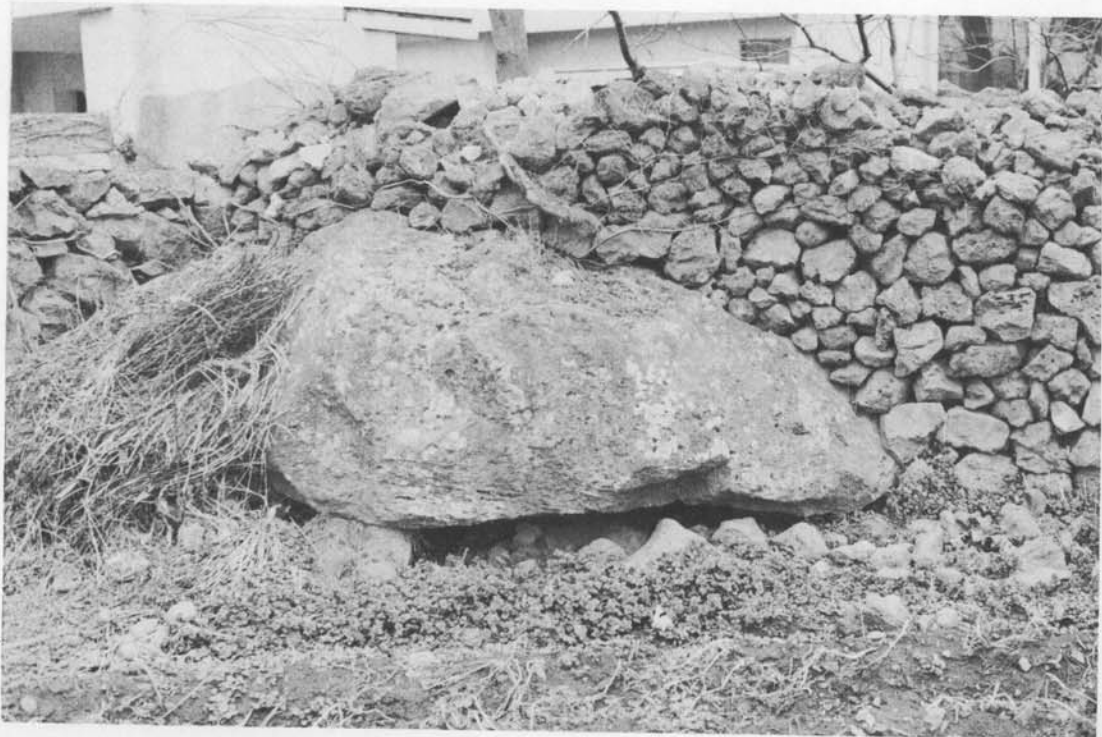
107. 吾羅洞 고인돌(2)



108. 龍潭洞 고인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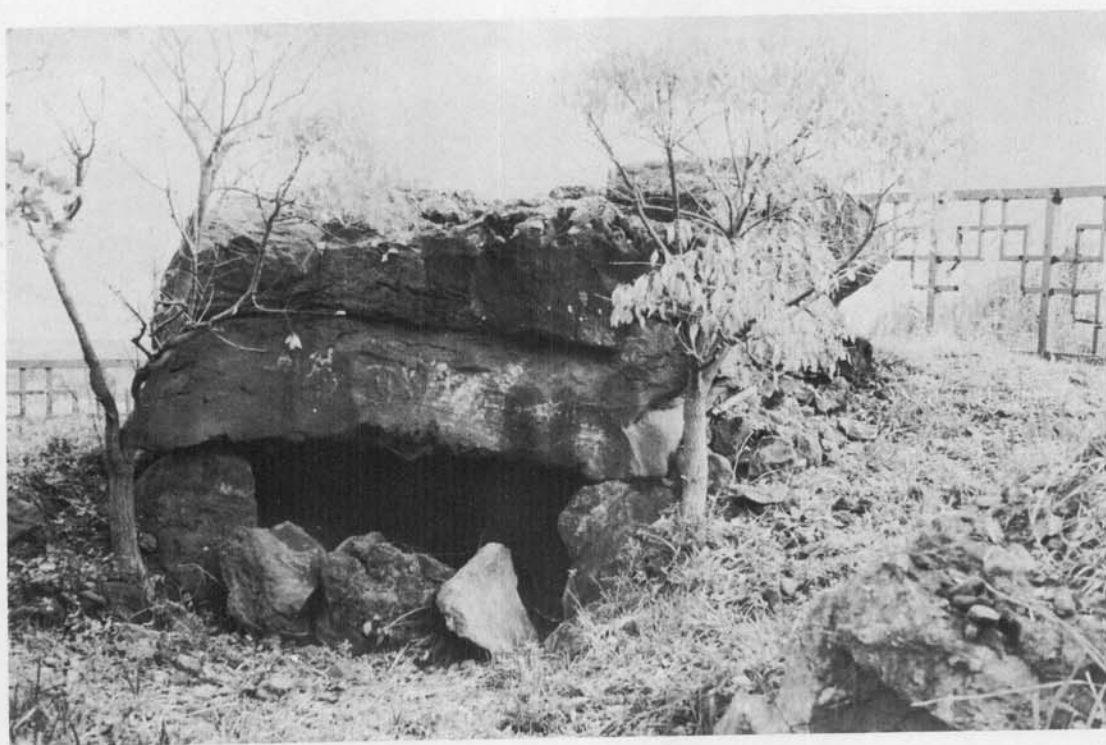
109. 龍潭洞 고인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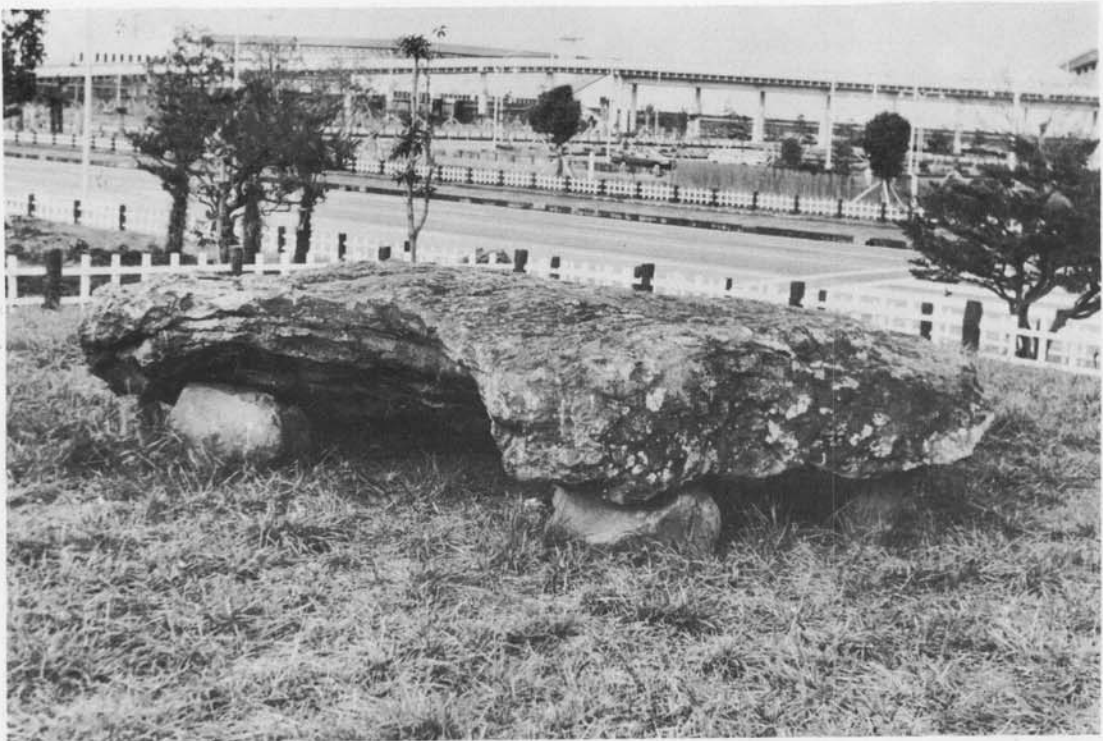
110. 龍潭洞 고인돌(3)



111. 龍潭洞 고인돌(4)



112. 龍潭洞 고인돌(5)



113. 濟州국제공항 입구 이전 고인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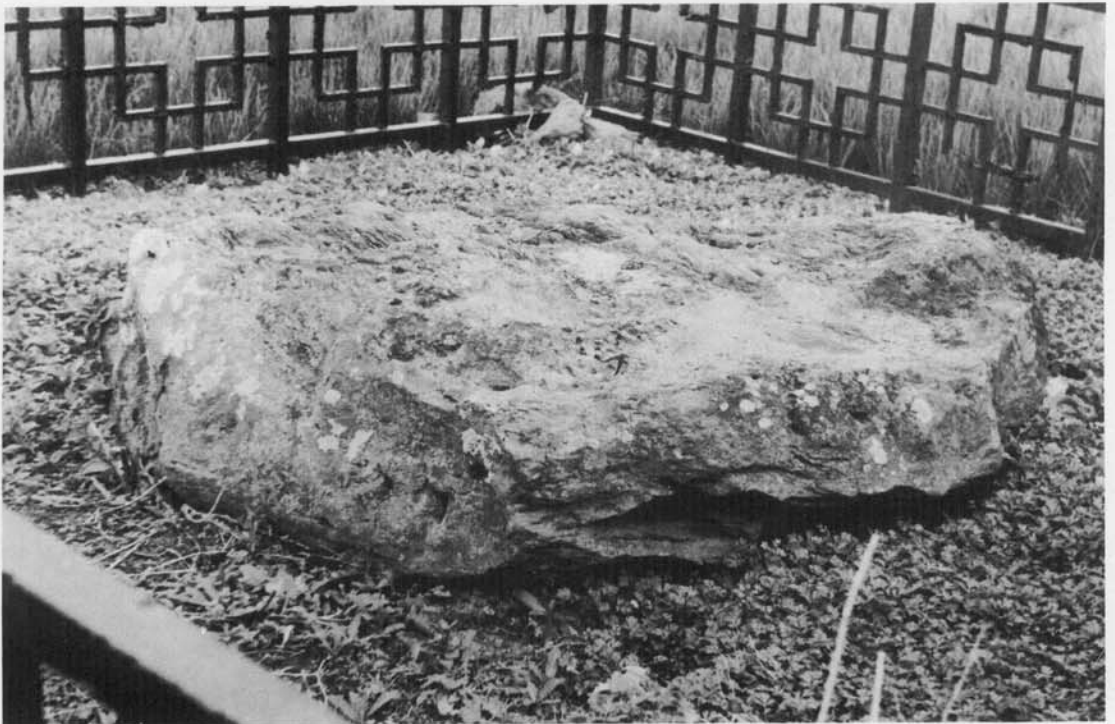


114. 濟州국제공항 입구 이전 고인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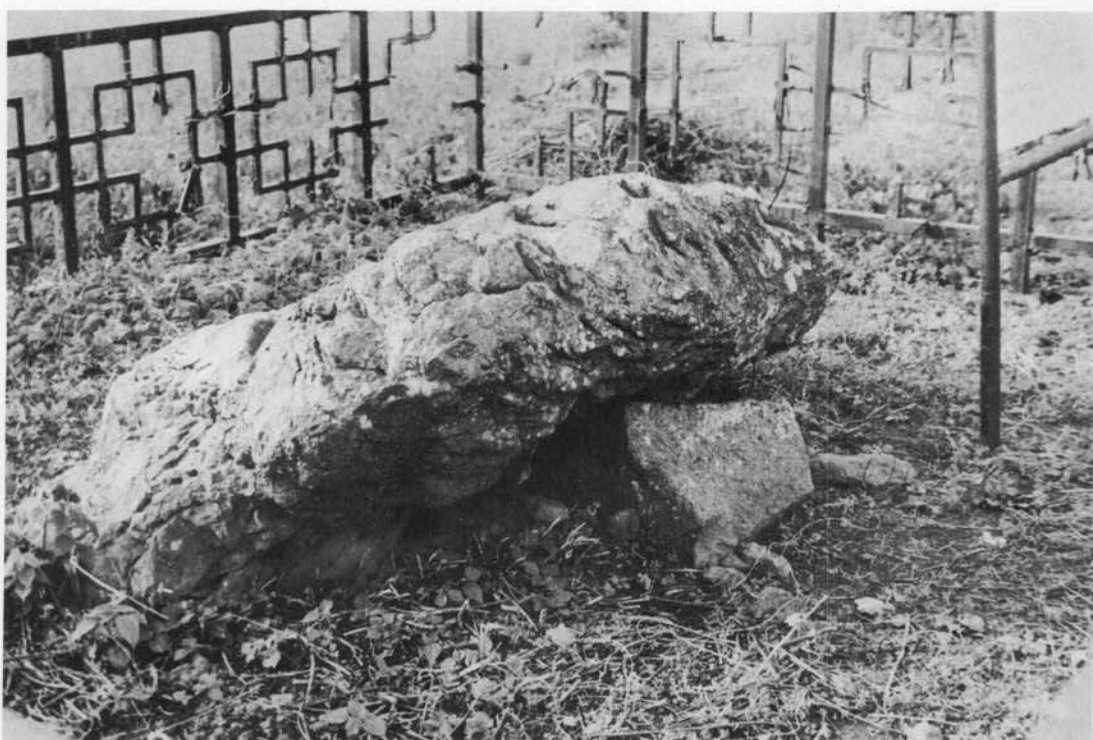
사진 74



115. 三陽洞 고인돌(1)



116. 三陽洞 고인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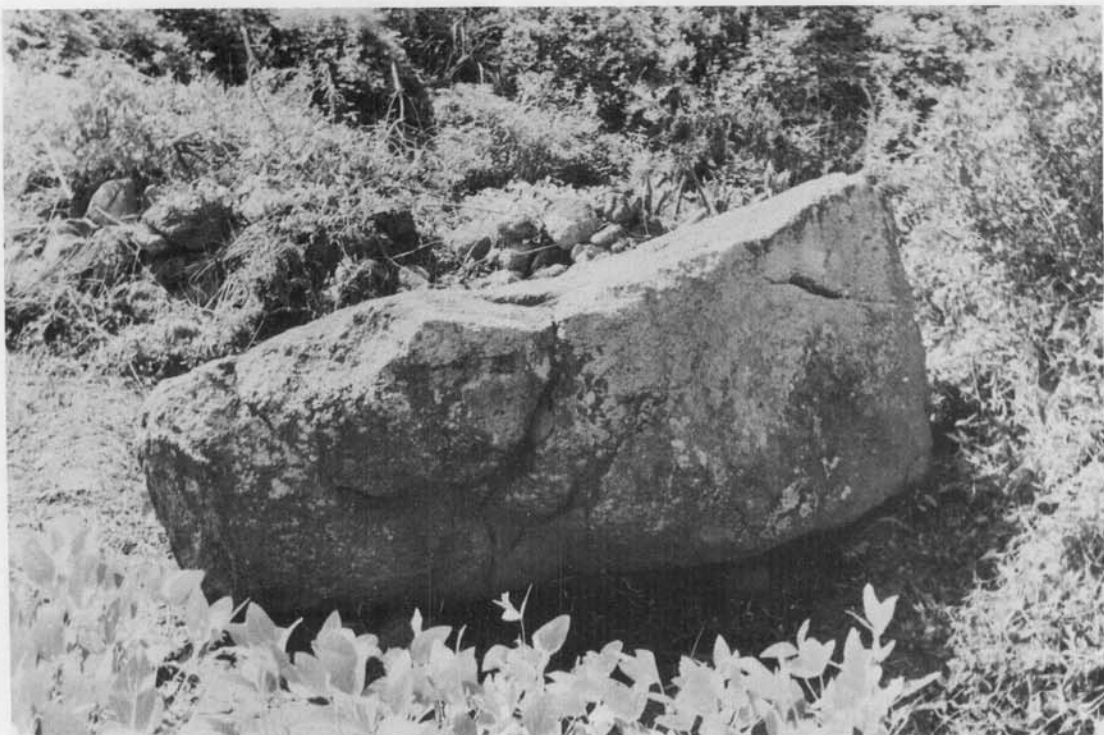


117. 三陽洞 고인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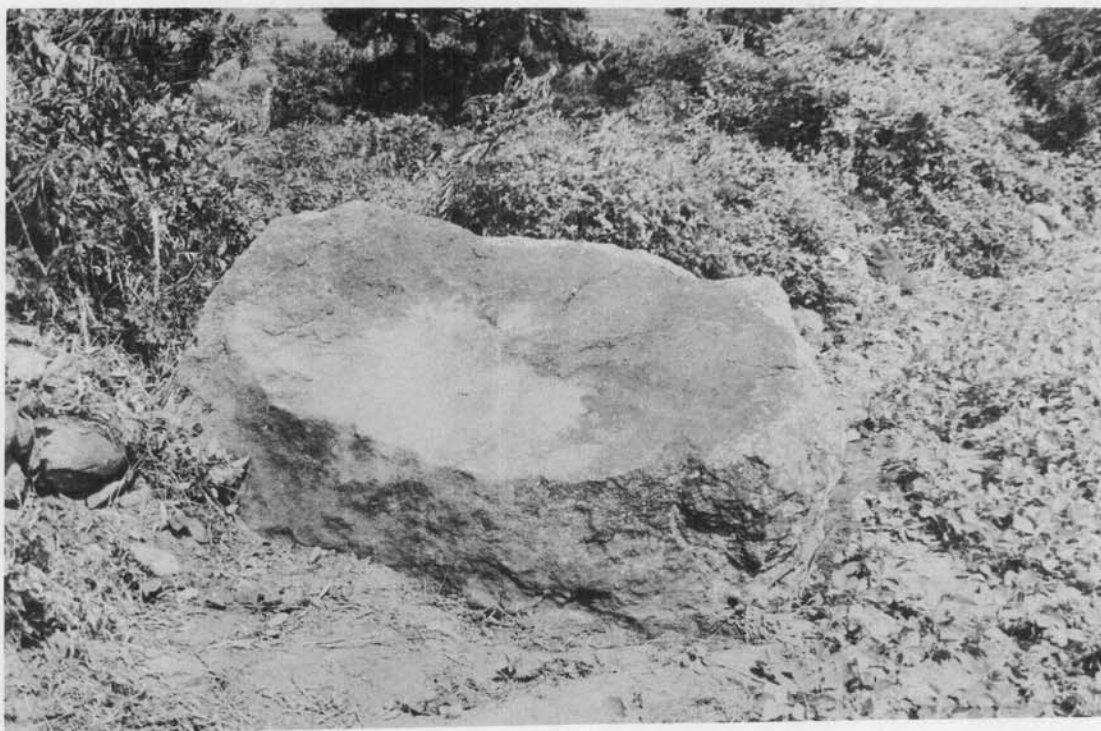


118. 道蓮洞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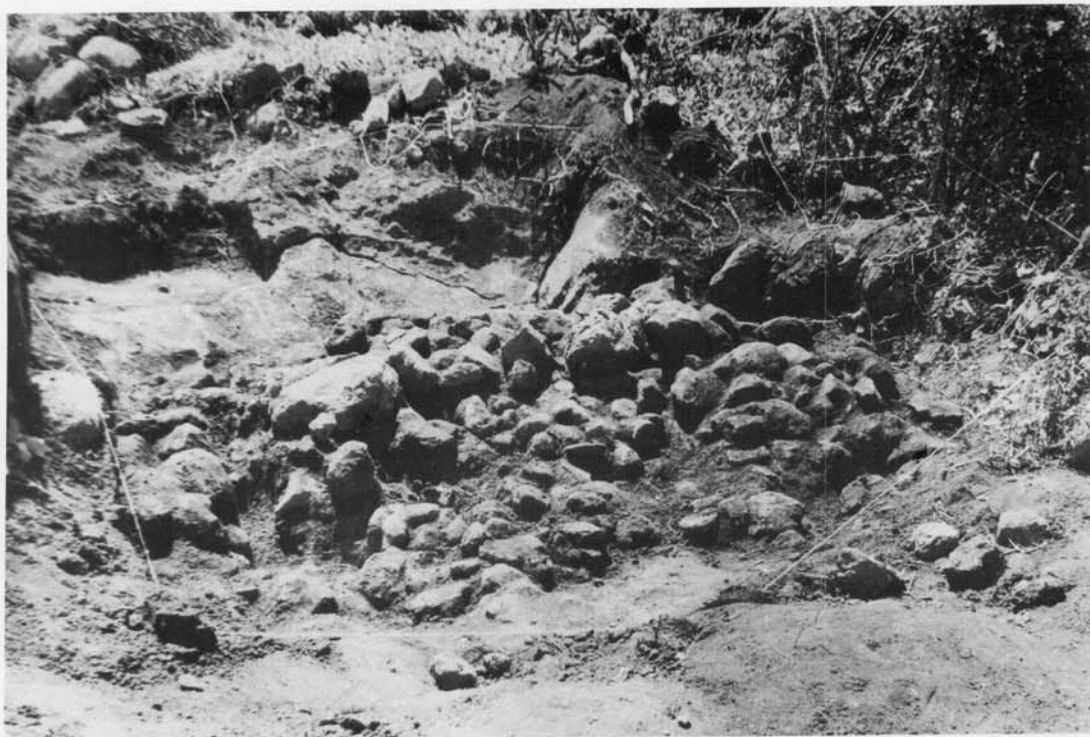
사진 76



119. 外都洞 발굴 고인돌 上石 (북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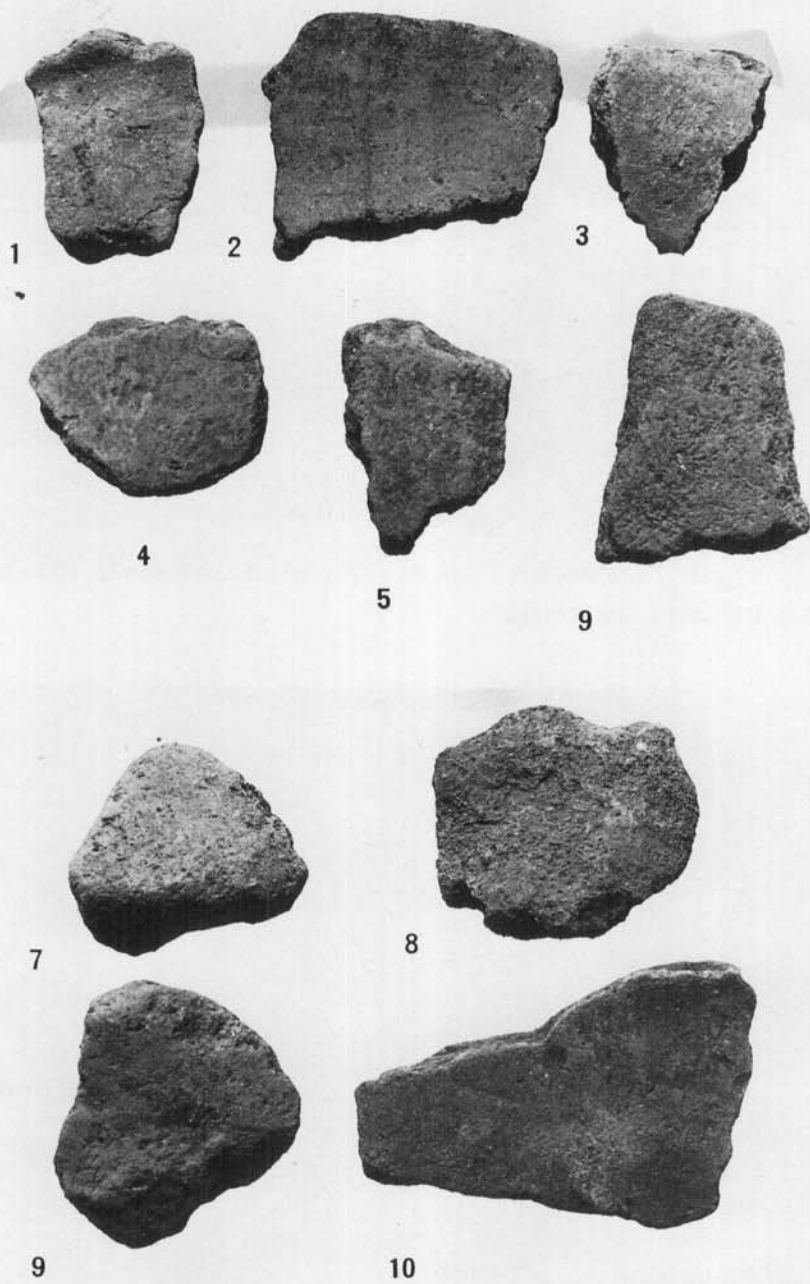
120. 外都洞 발굴 고인돌 上石 (남쪽에서)



121. 外都洞 발굴 고인돌 하부 적석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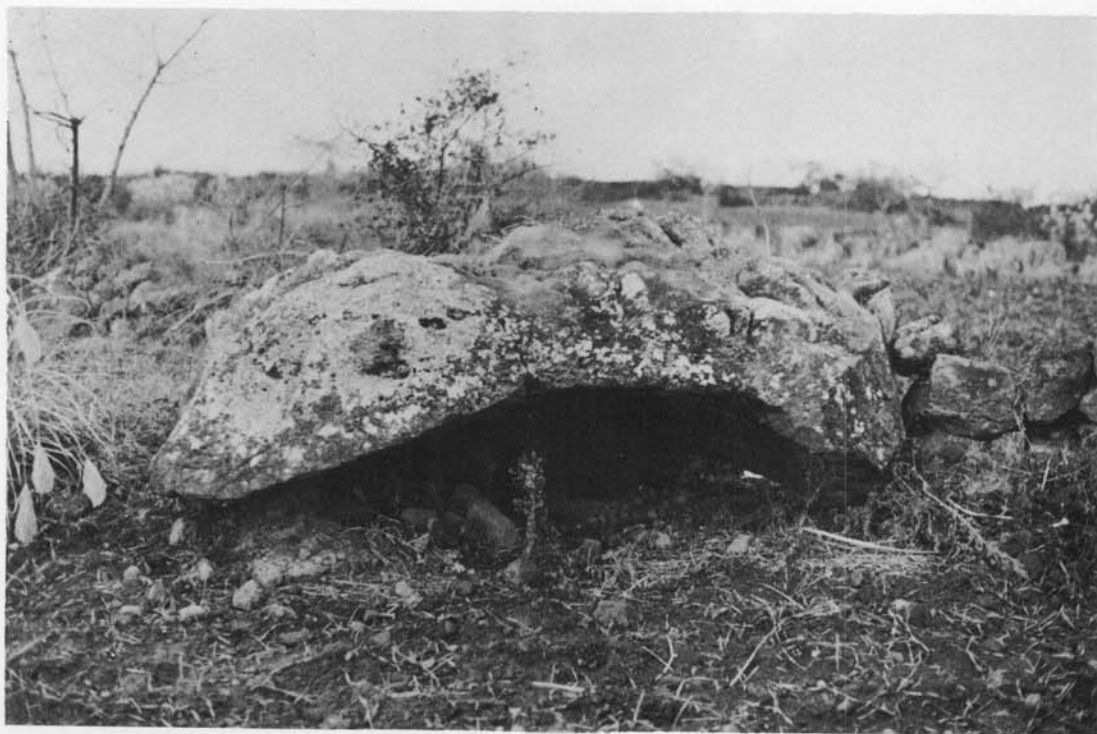


122. 外都洞 발굴 고인돌 지하 석곽시설





124. 外都洞 고인돌(1)



125. 外都洞 고인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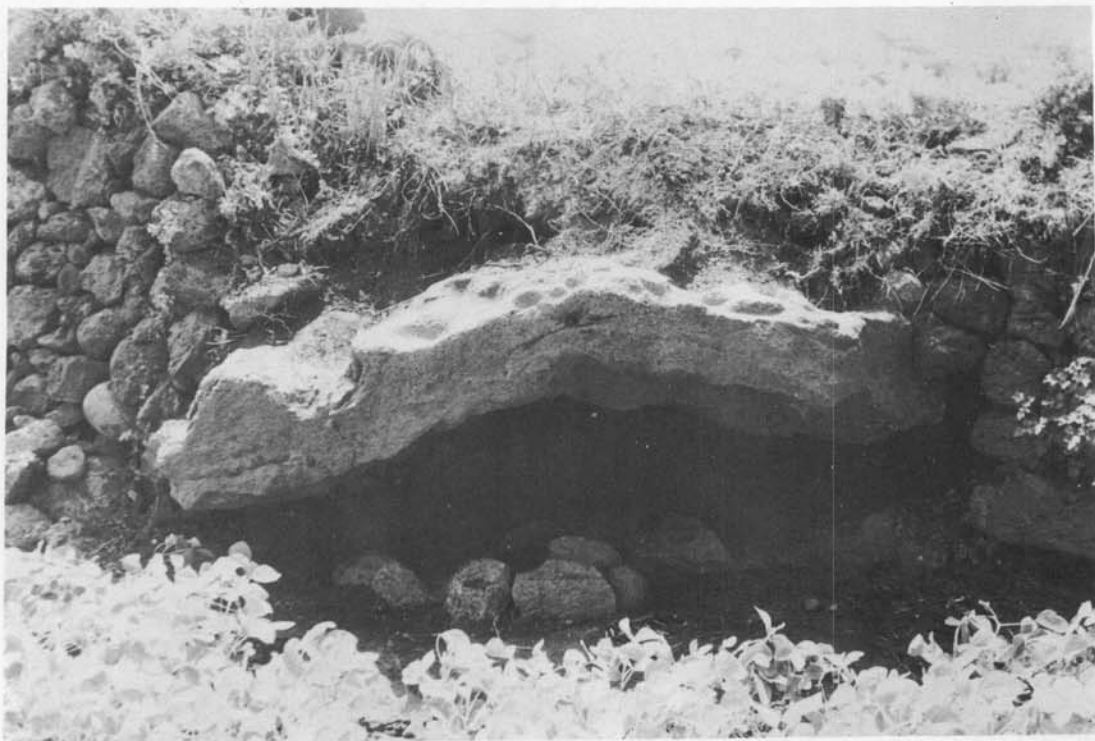
사진 80



126. 外都洞 고인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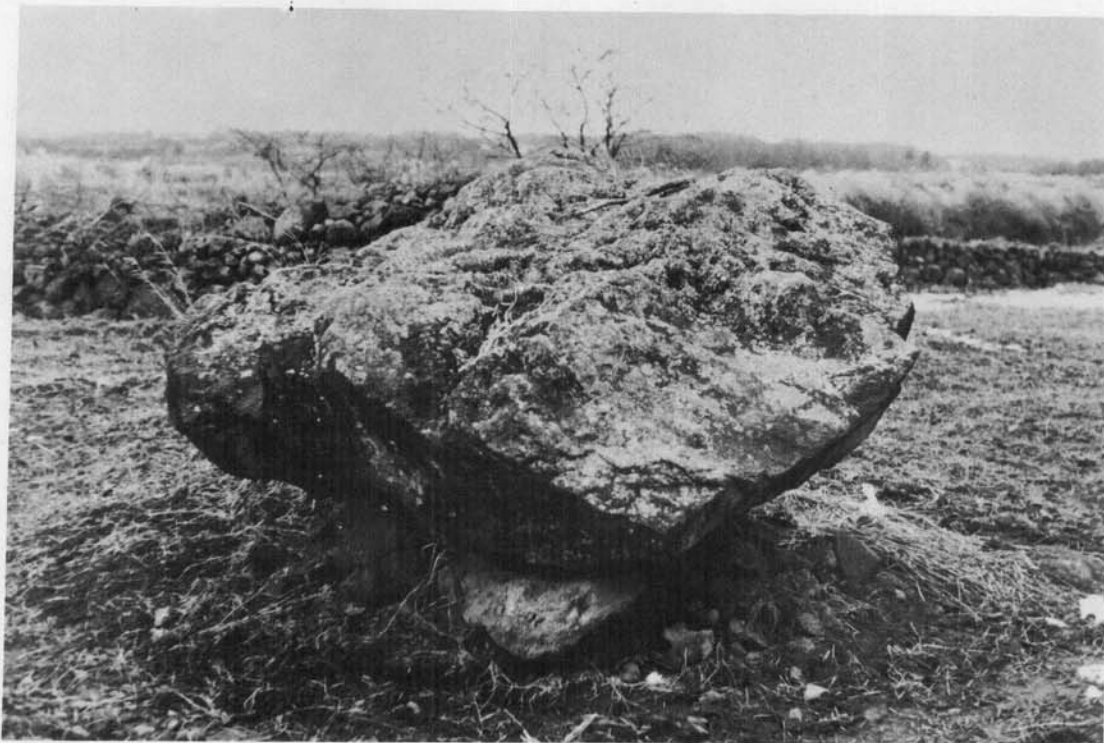
127. 外都洞 고인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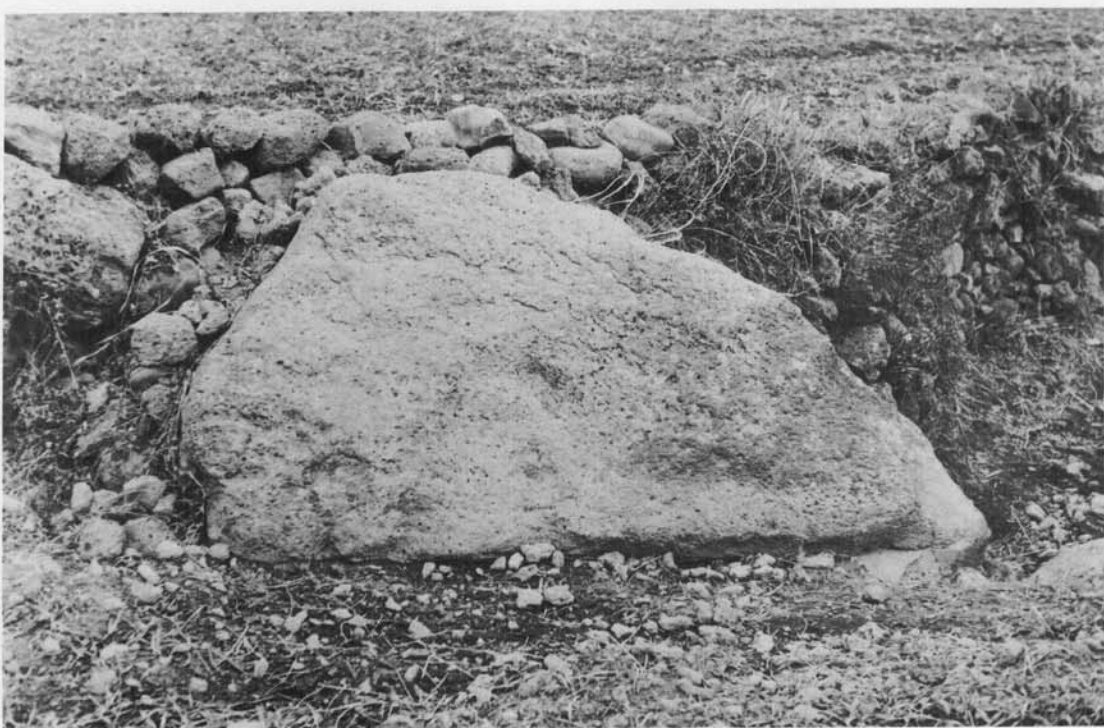
128. 外都洞 고인돌(5)



129. 外都洞 고인돌(6)



130. 外都洞 고인돌(7)



131. 光令里 고인돌(1)



132. 光令里 고인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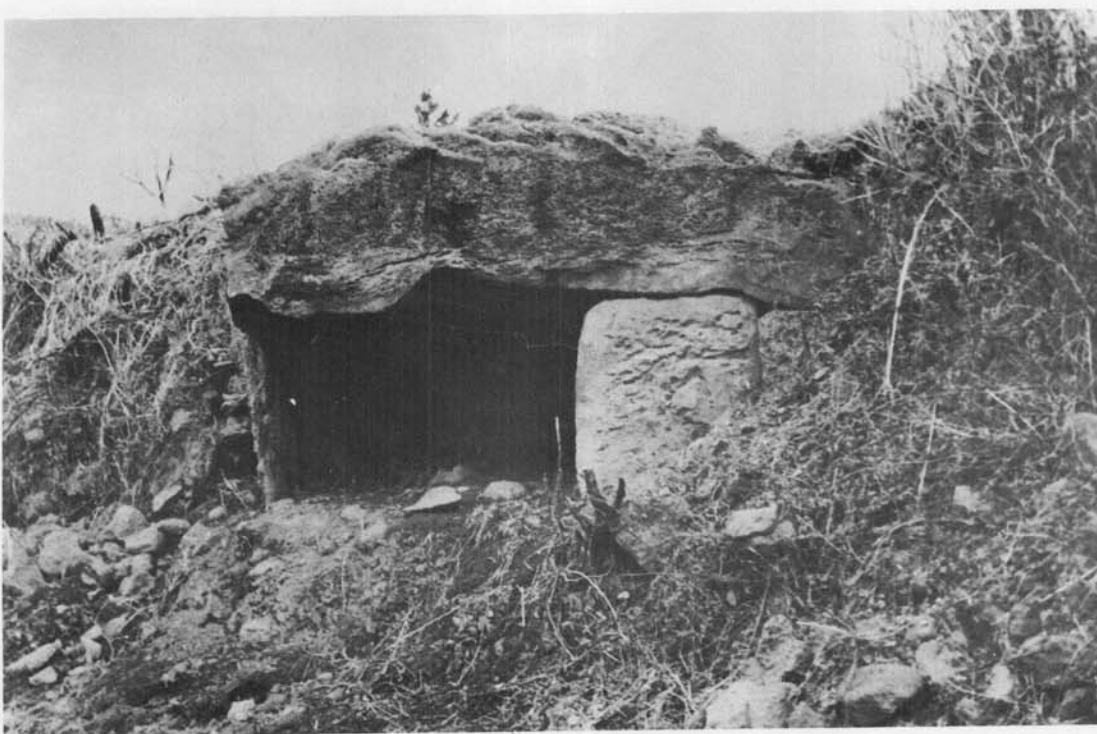


133. 光令里 고인돌(2)의 上石 性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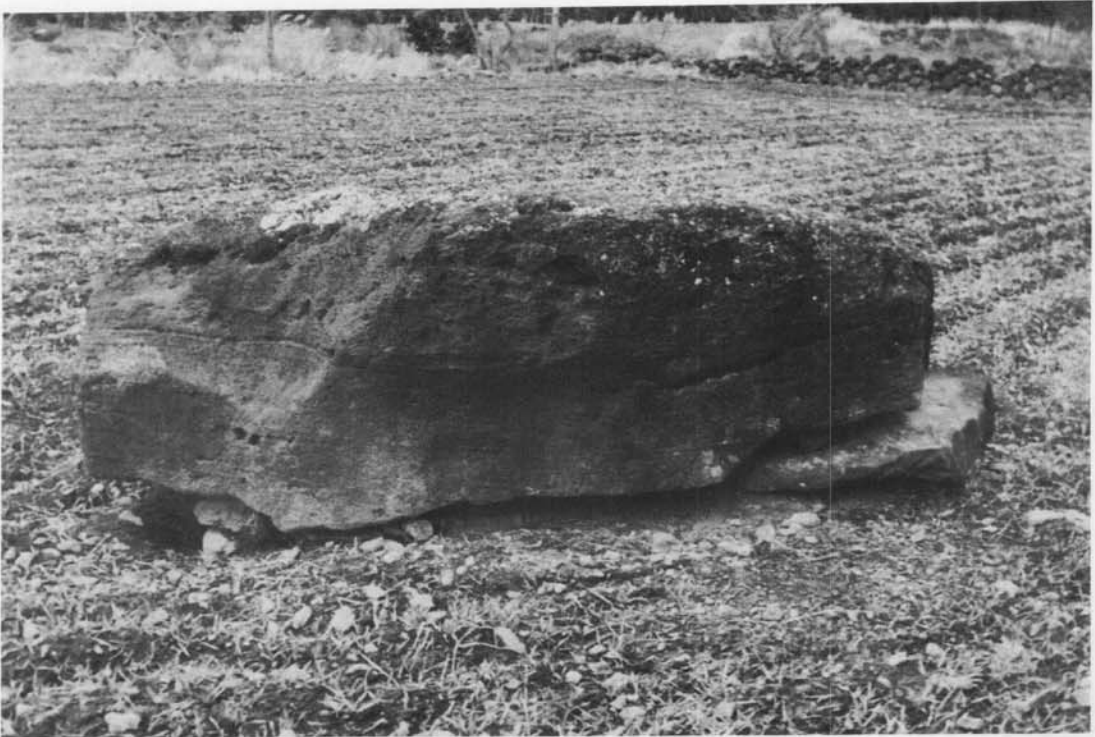
사진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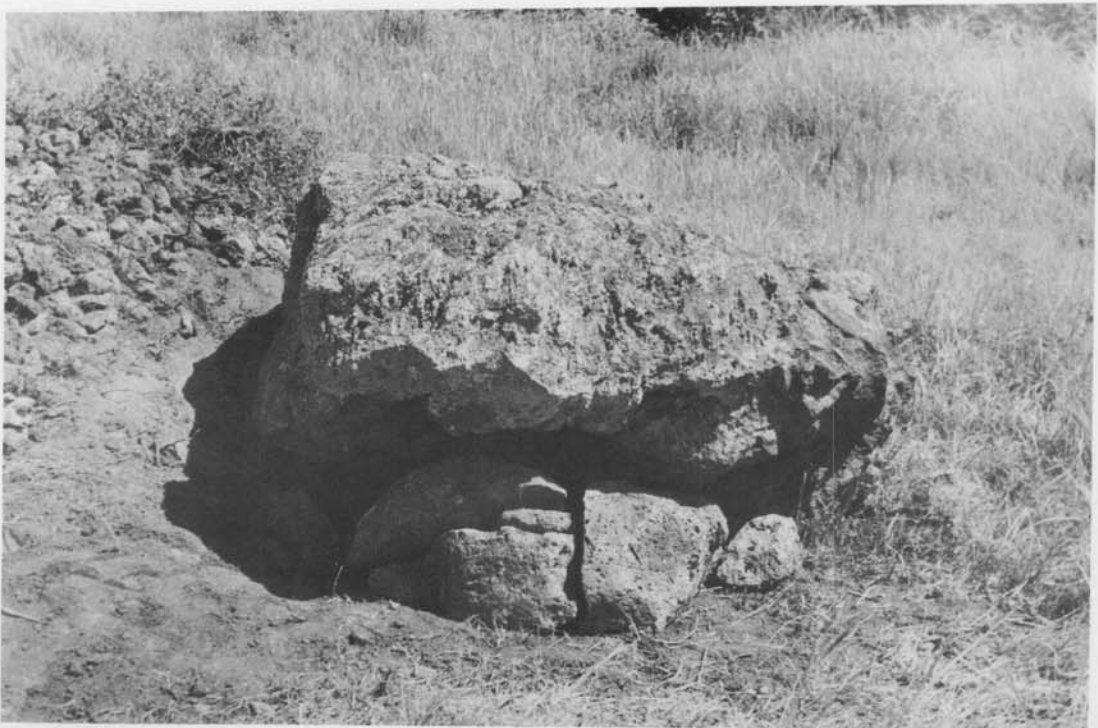
134. 光令里 고인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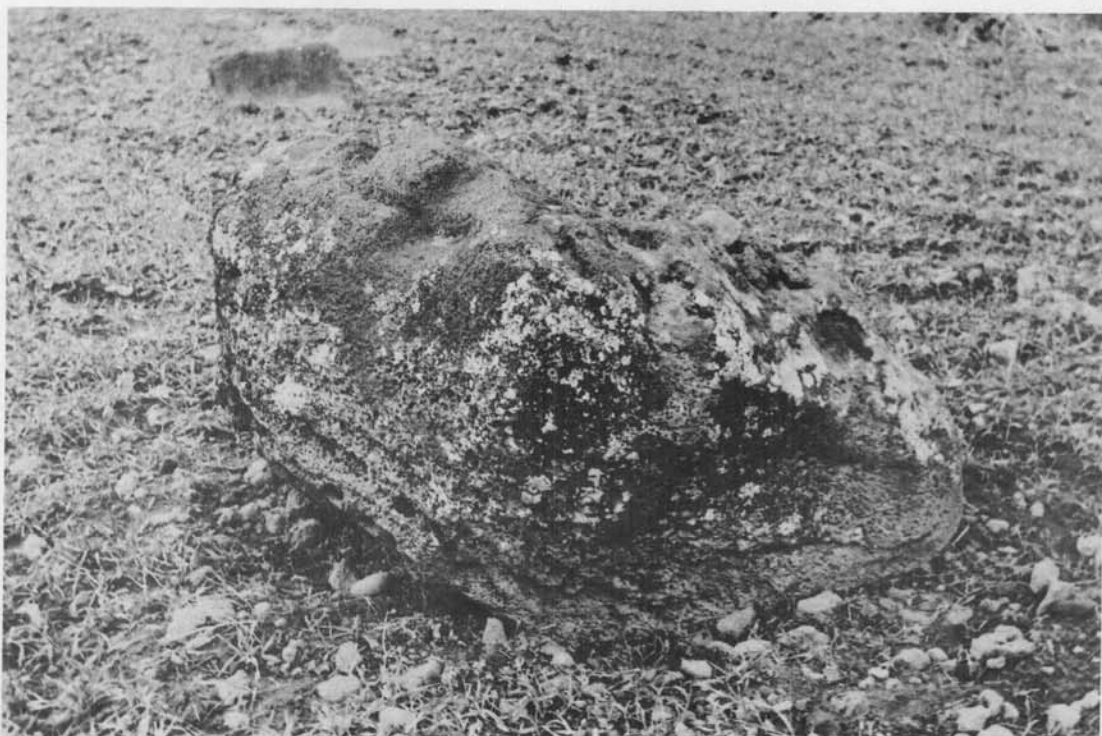
135. 光令里 고인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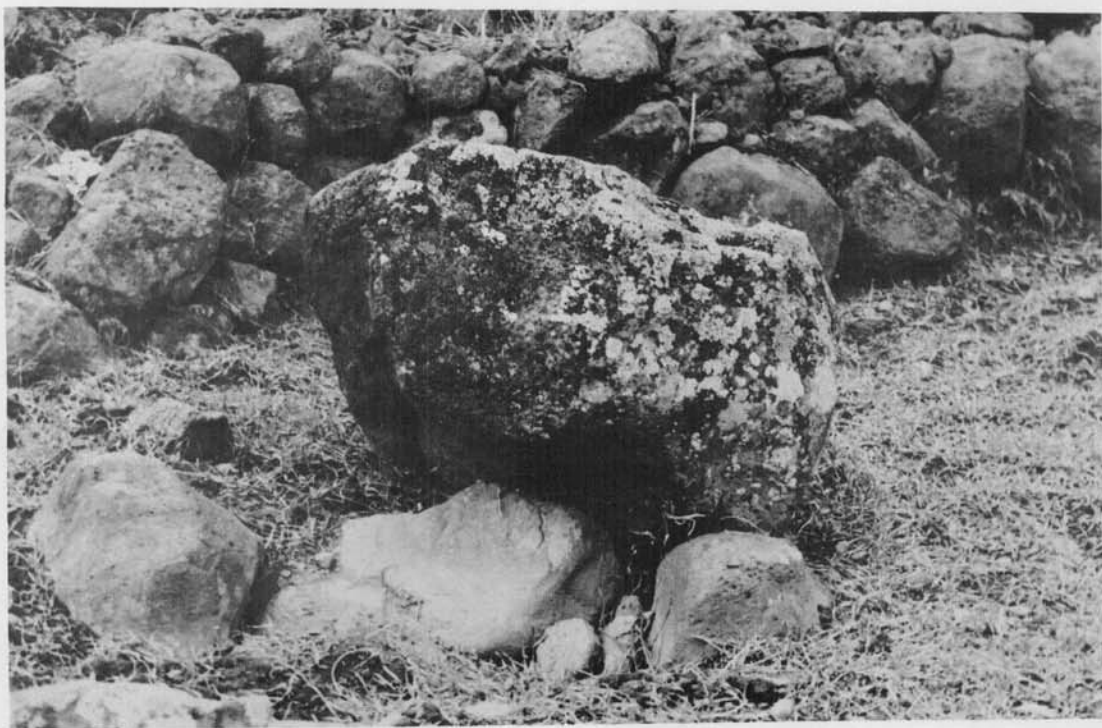
136. 光令里 고인돌(5)



137. 光令里 고인돌(6)



138. 光令里 고인돌(7)



139. 光令里 고인돌(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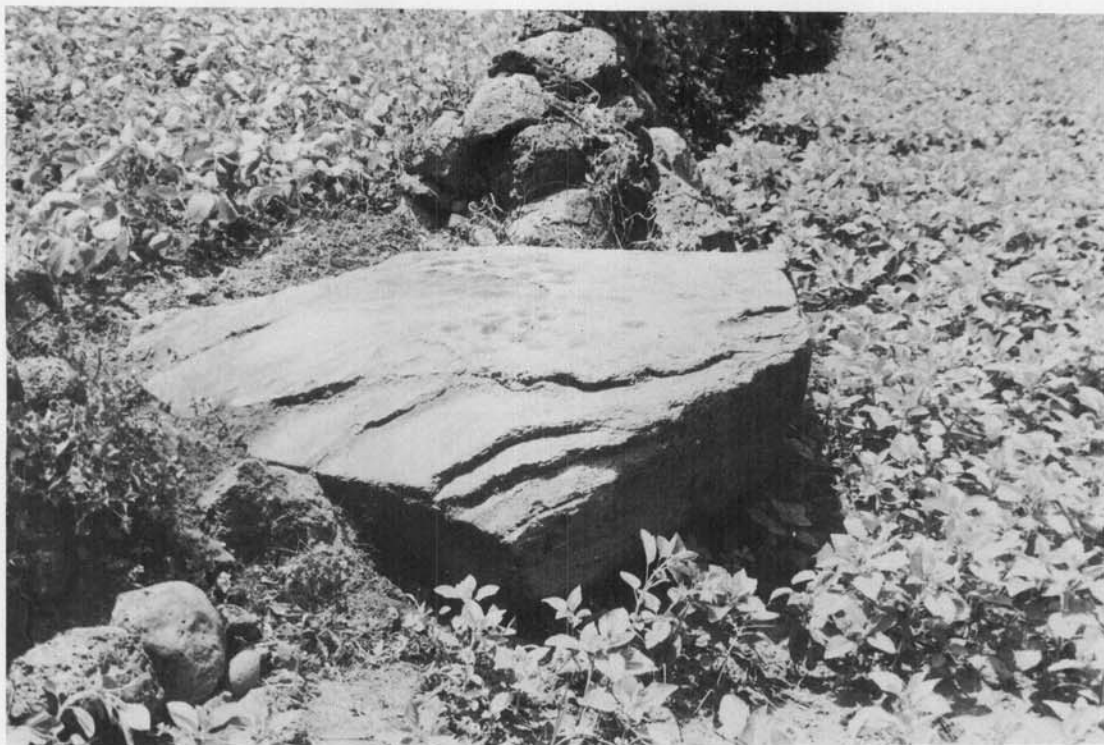


140. 光令里 고인돌(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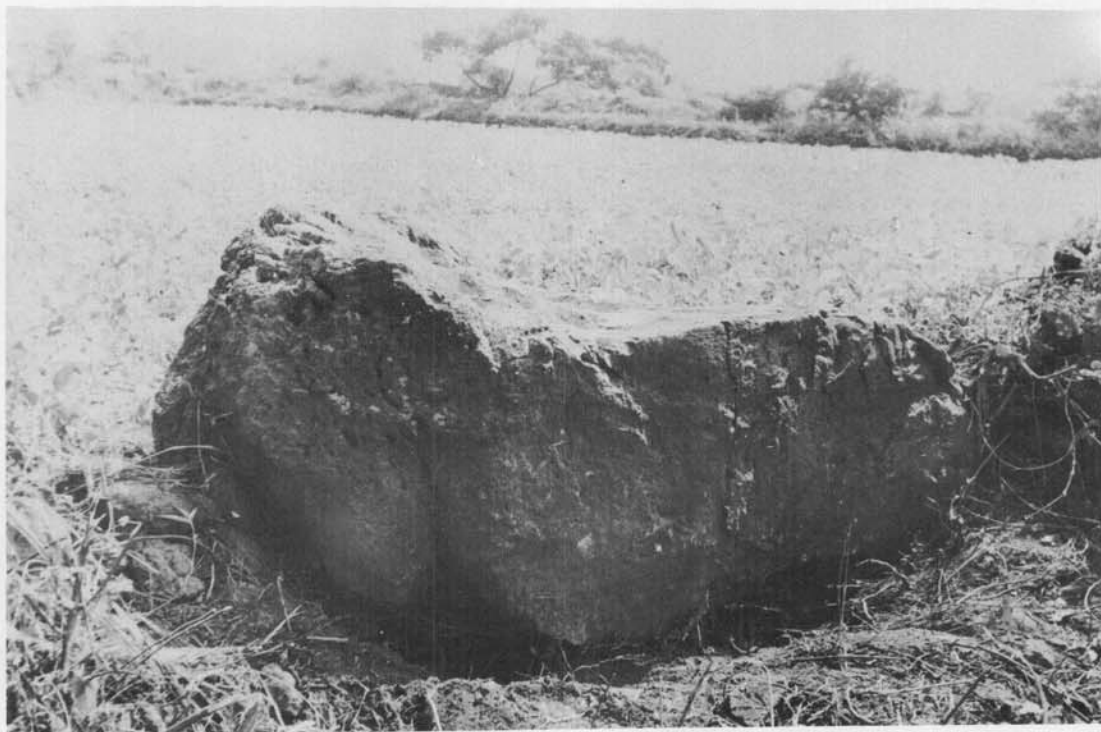


141. 光令里 고인돌(10)

사진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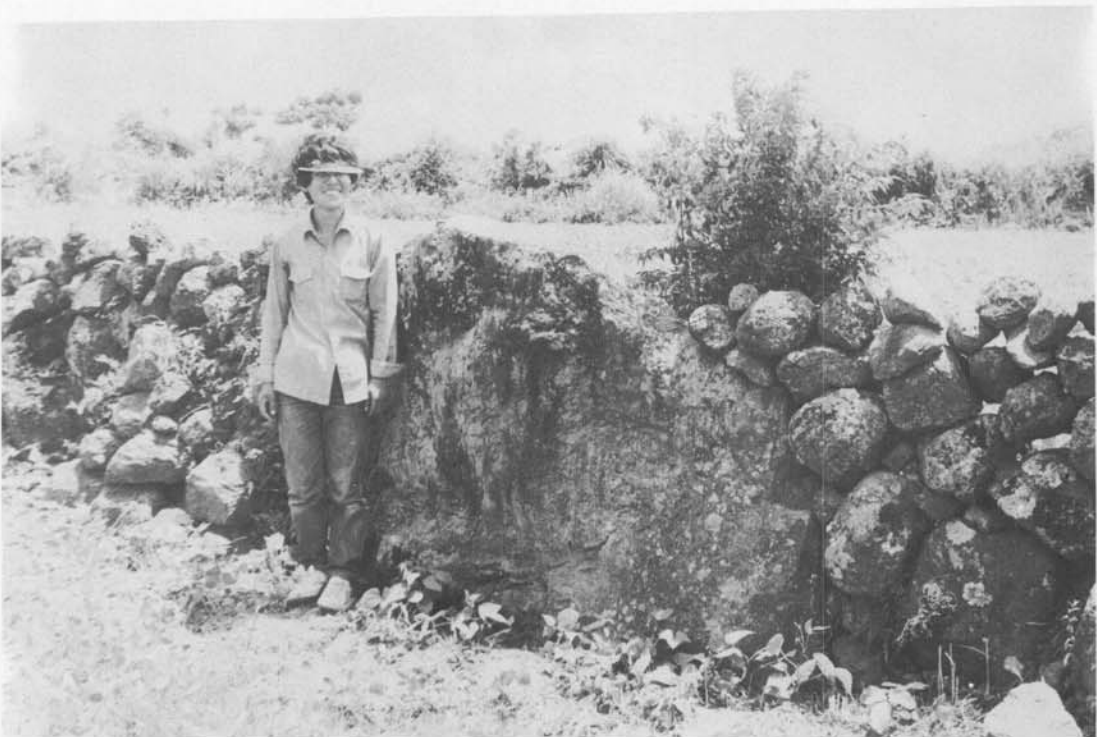
142. 光令里 고인돌(11)



143. 光令里 고인돌(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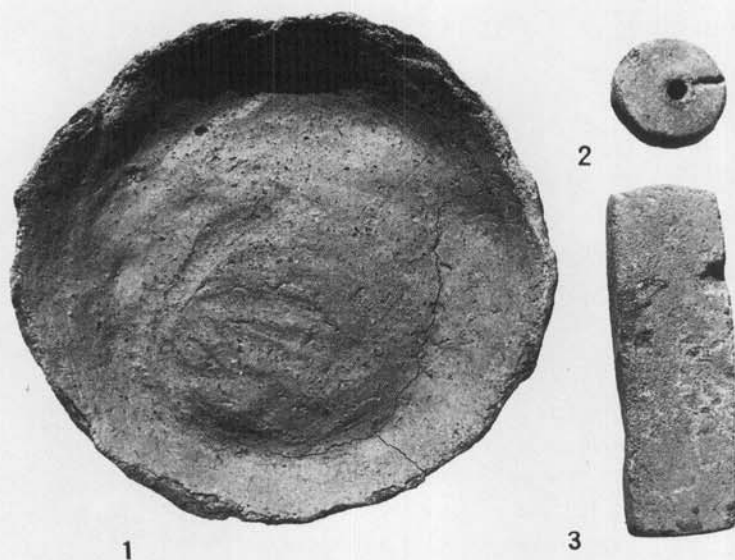
144. 光令里 고인돌(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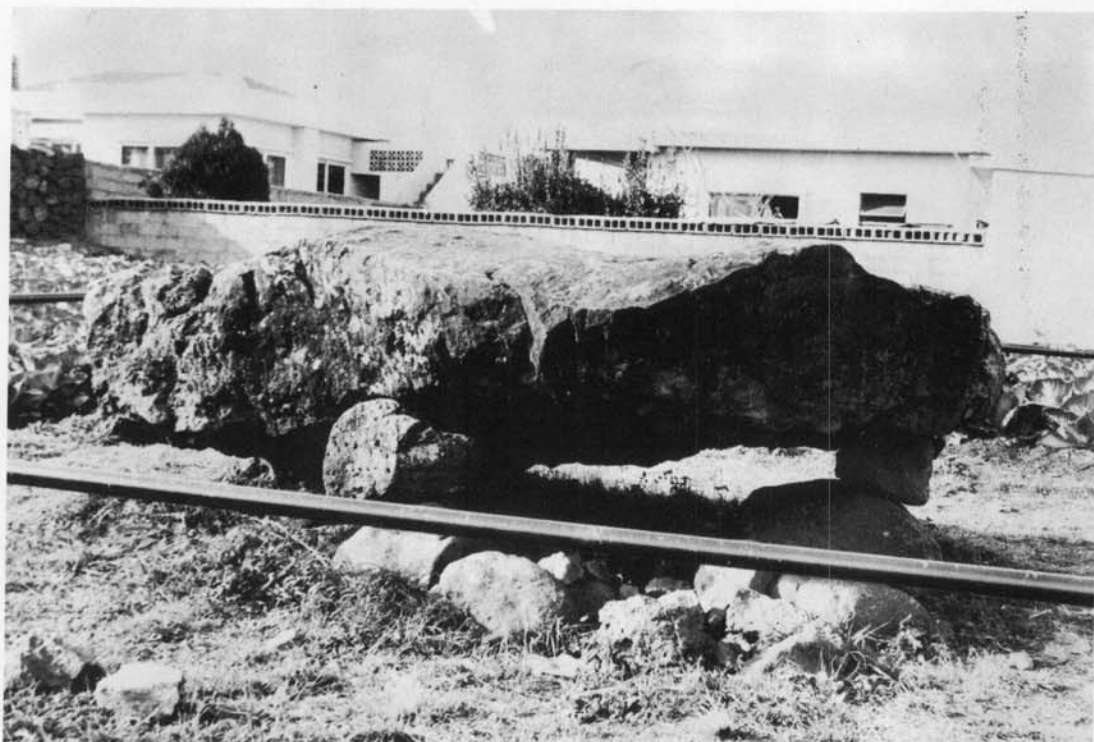
145. 光令里 고인돌(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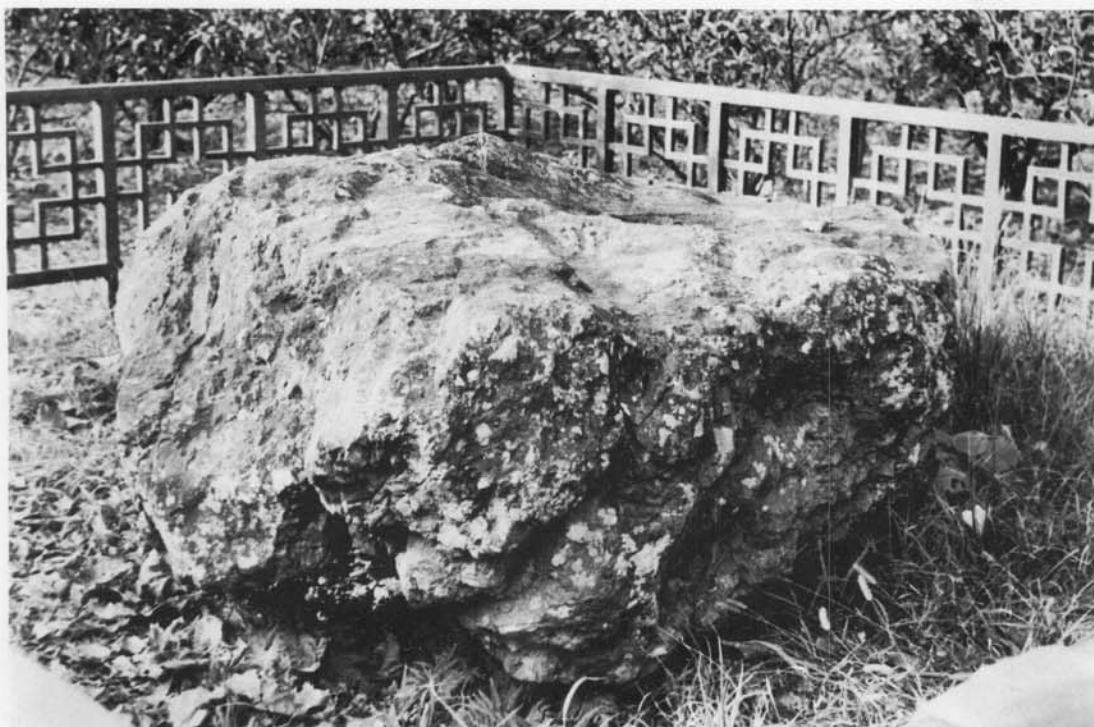
146. 光令里 고인돌(15)



147. 光令里 고인돌(15)의 출토유물



148. 貴日里 고인돌(1)



149. 貴日里 고인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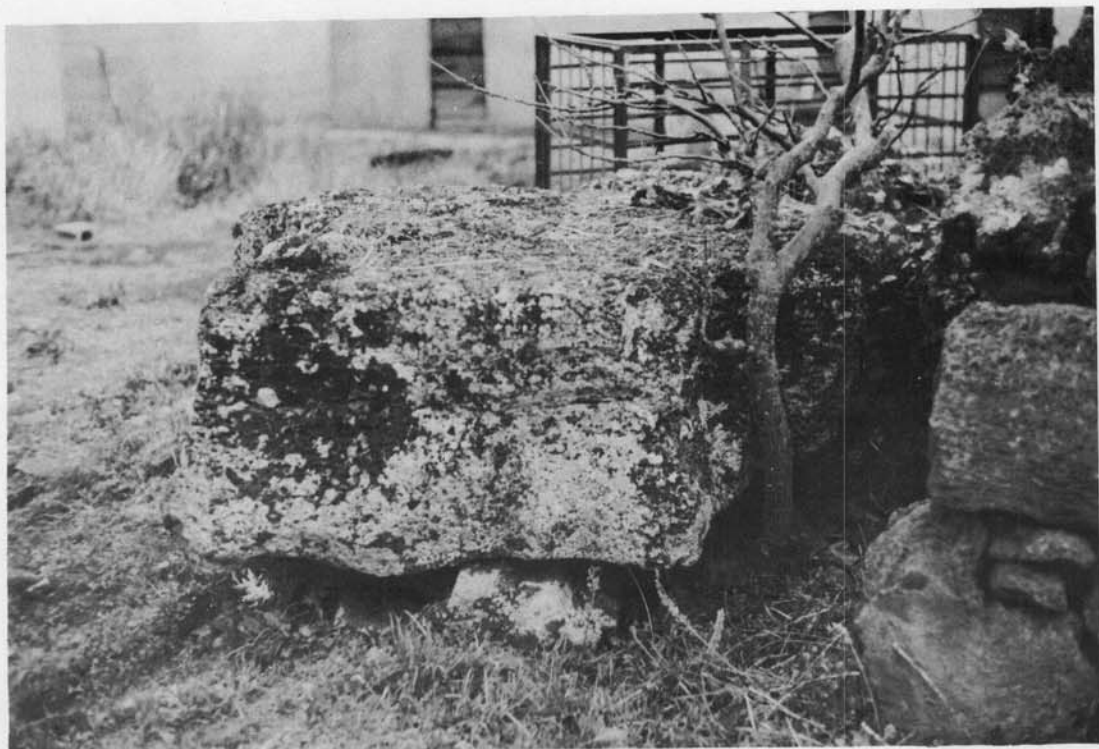
사진 92



150. 貴日里 학원동 고인돌



151. 高内里 고인돌



152. 瓮浦里 고인돌



153. 日課二里 고인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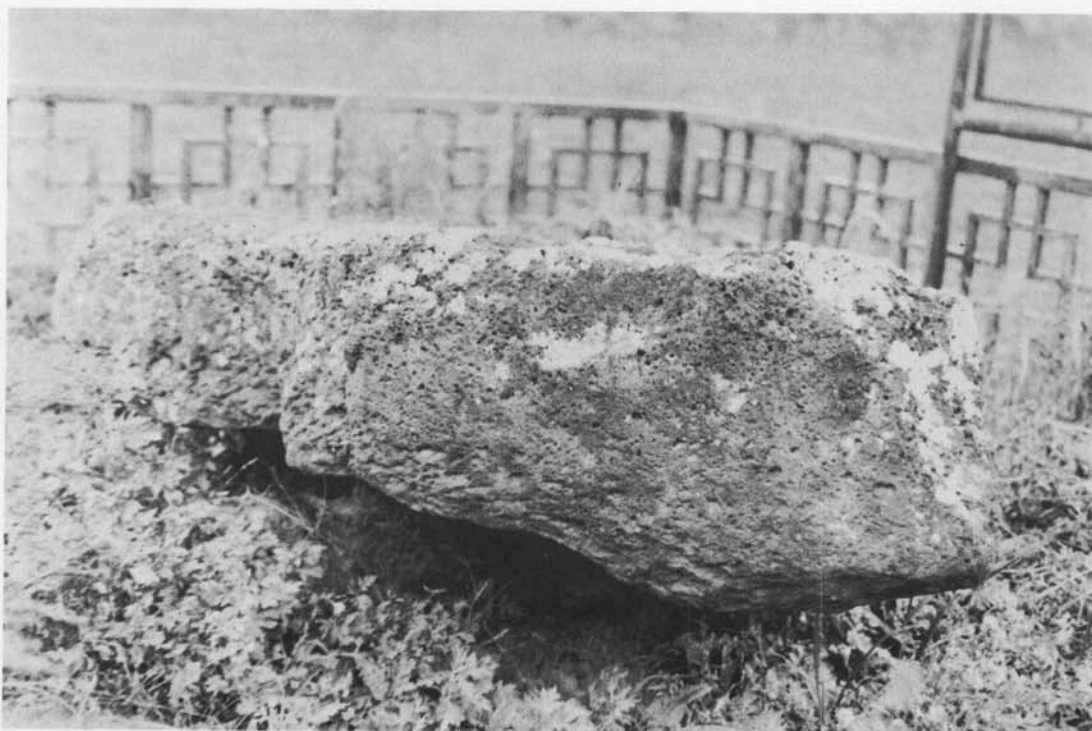
154. 日課二里 고인돌(2)



155. 日課二里 고인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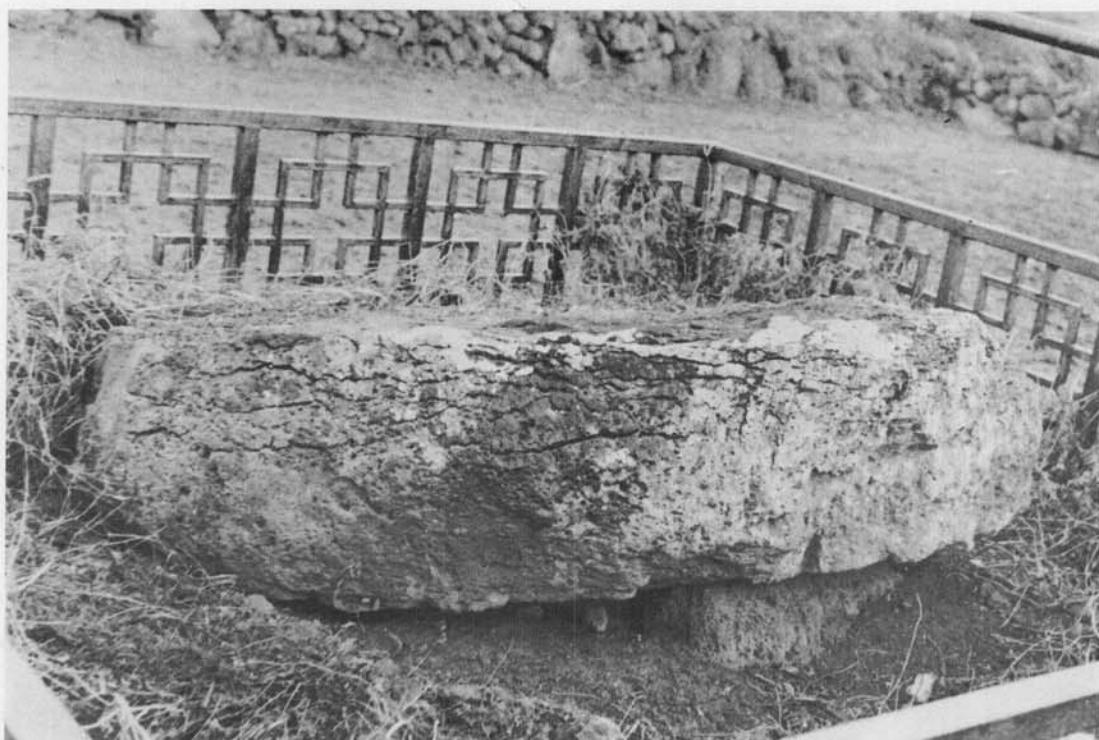


156. 日課二里 고인돌(4)



157. 日課二里 고인돌(5)

사진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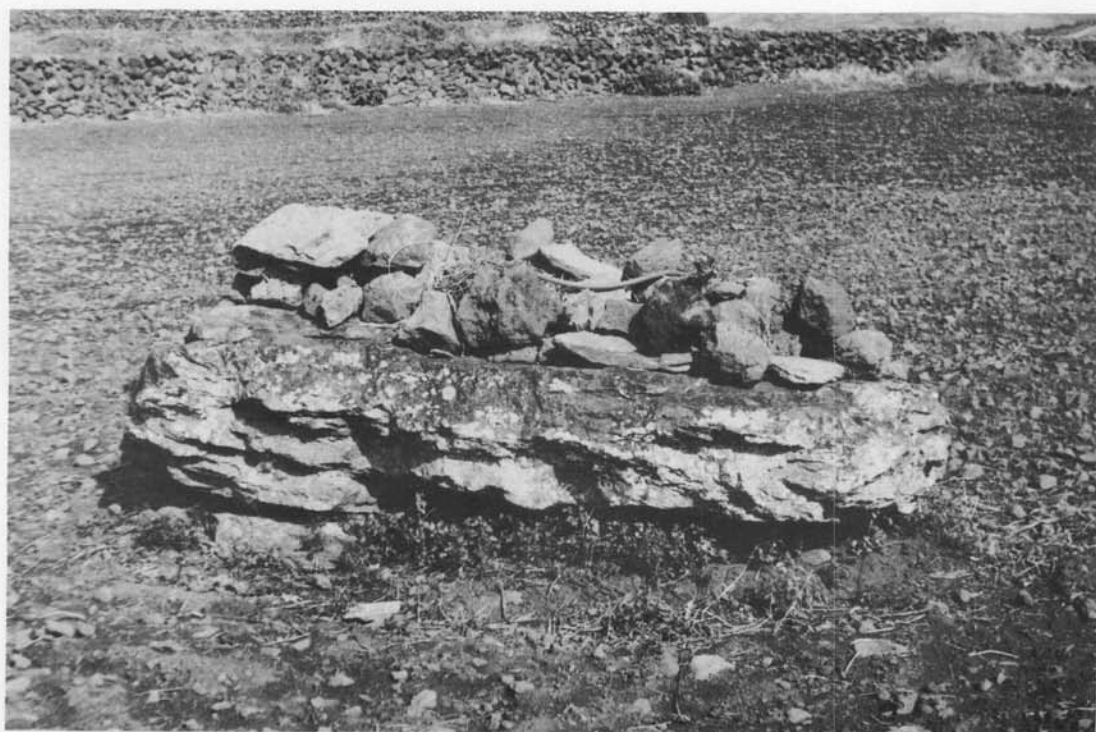
158. 東日里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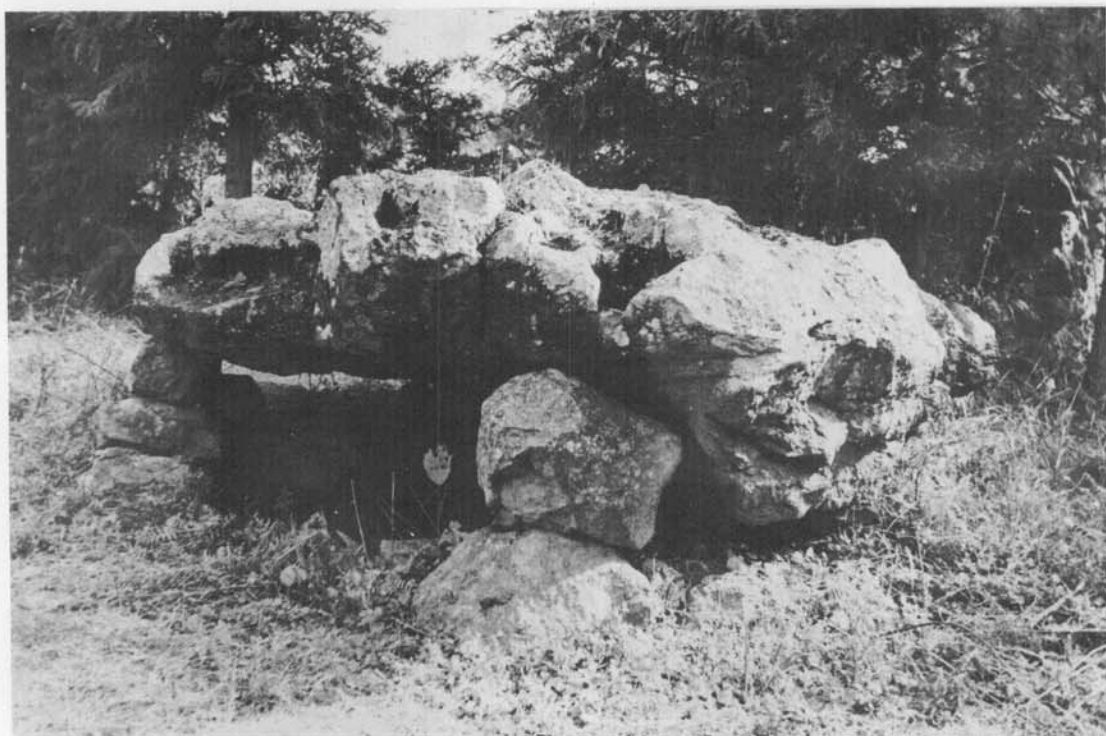
159. 下幕里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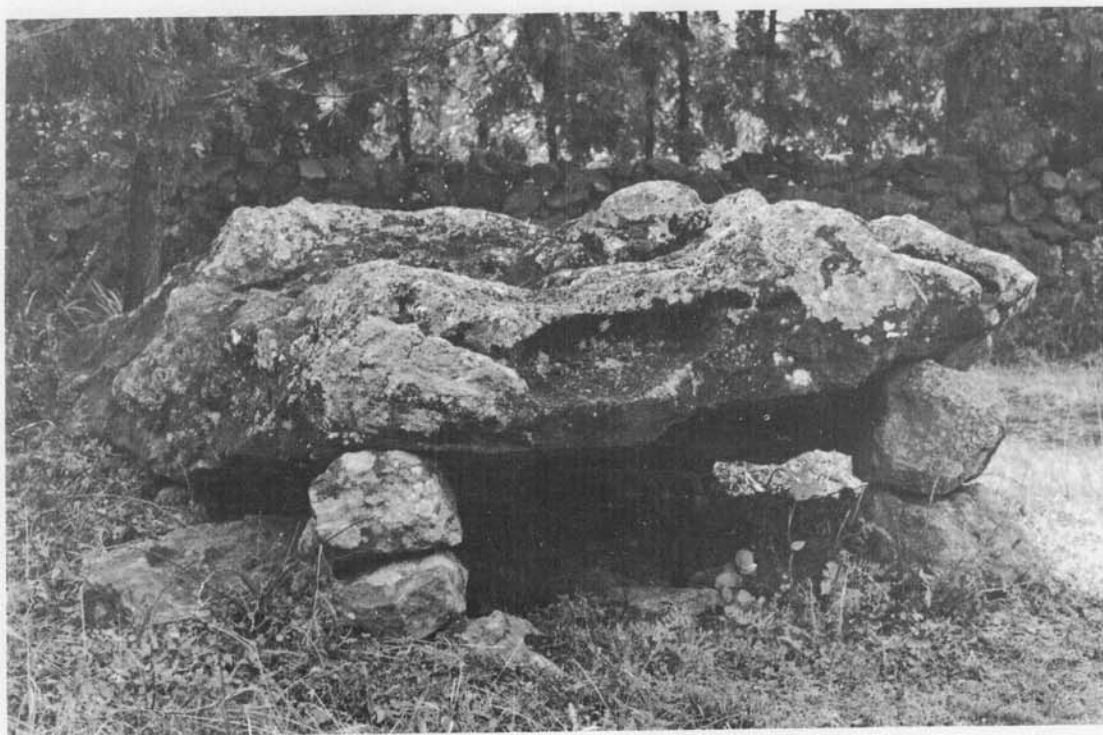
160. 大坪里 고인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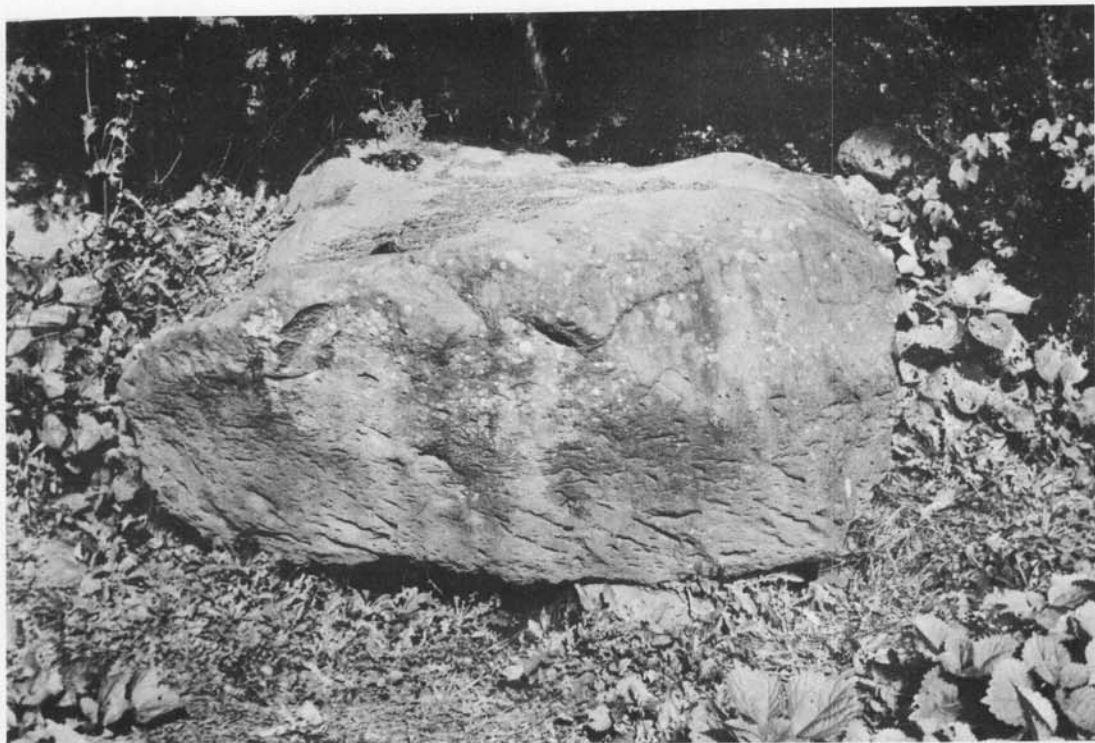
161. 大坪里 고인돌(2)



162. 檣達洞 고인돌 (서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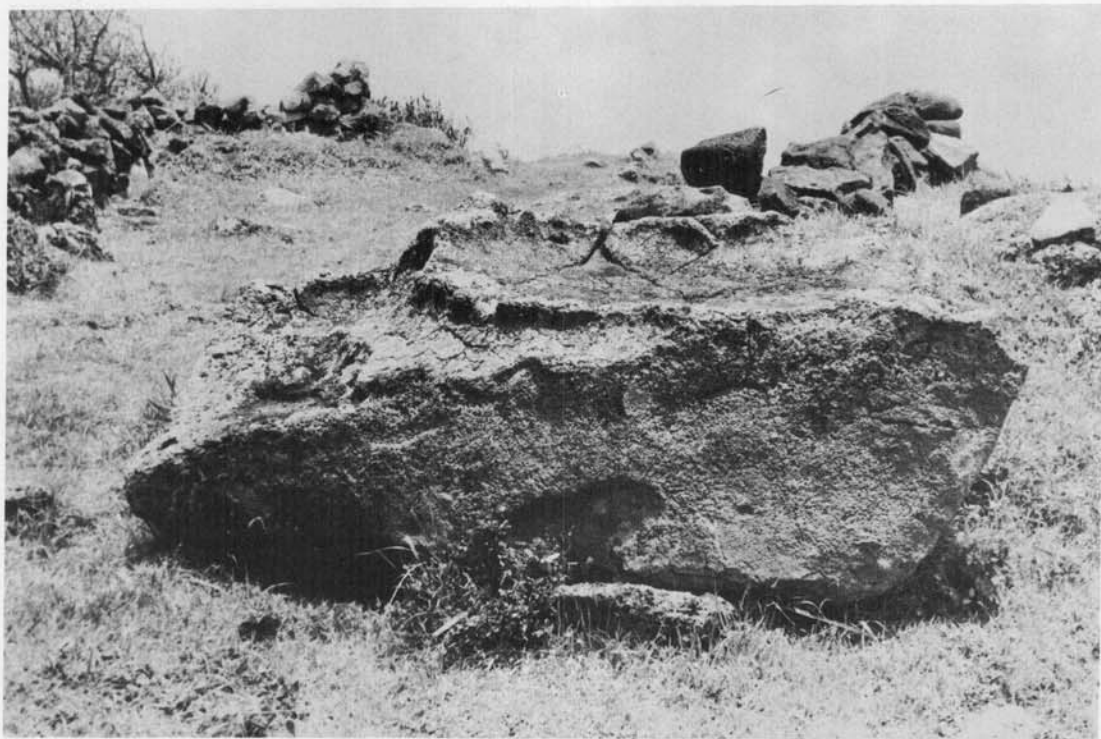
163. 檣達洞 고인돌 (동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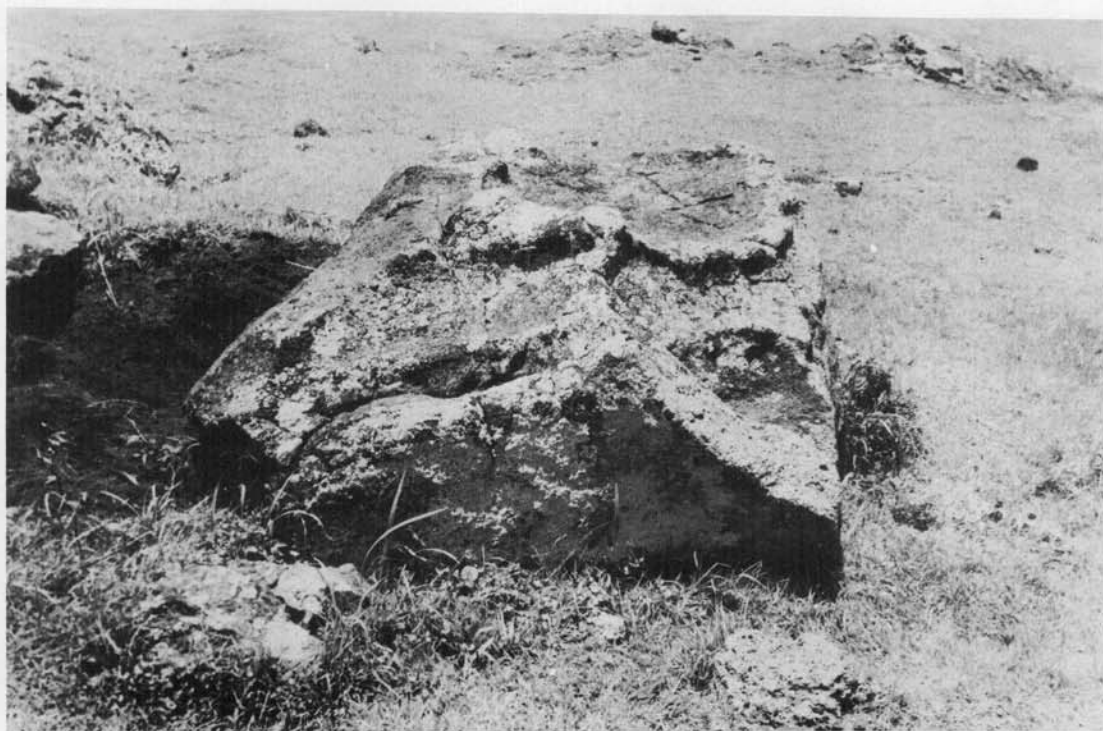
164. 新禮里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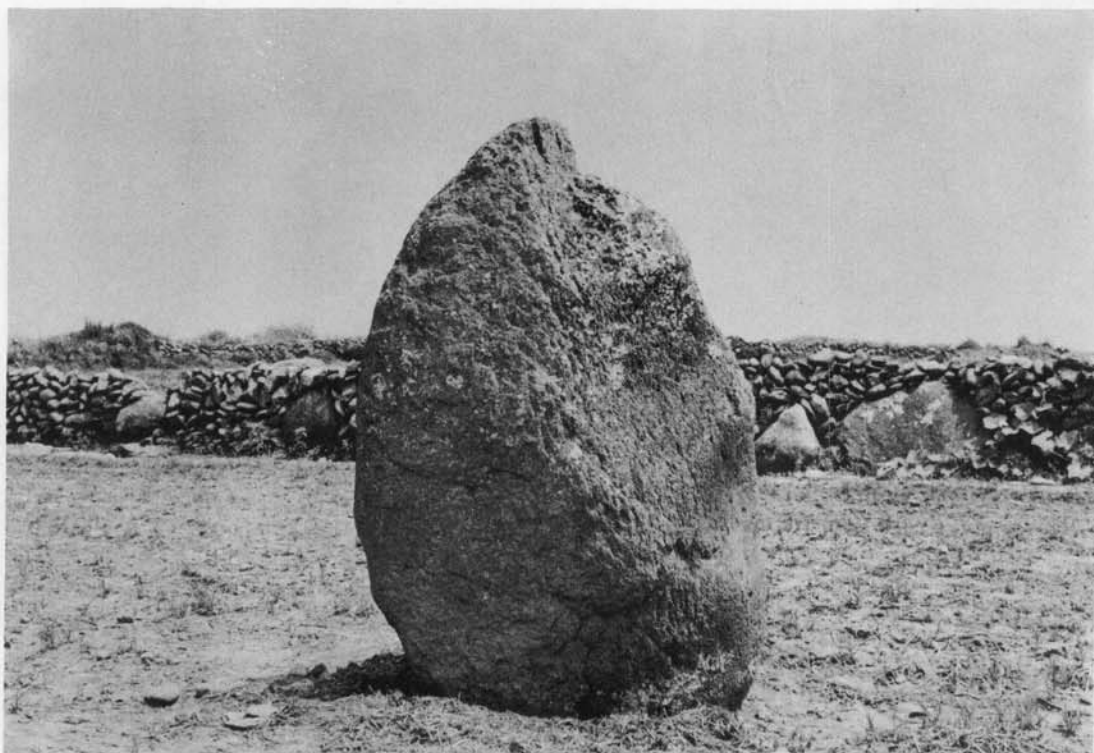
165. 新山里 고인돌



166. 牛島 고인돌 (북쪽에서)



167. 牛島 고인돌 (동쪽에서)



168. 加波島 선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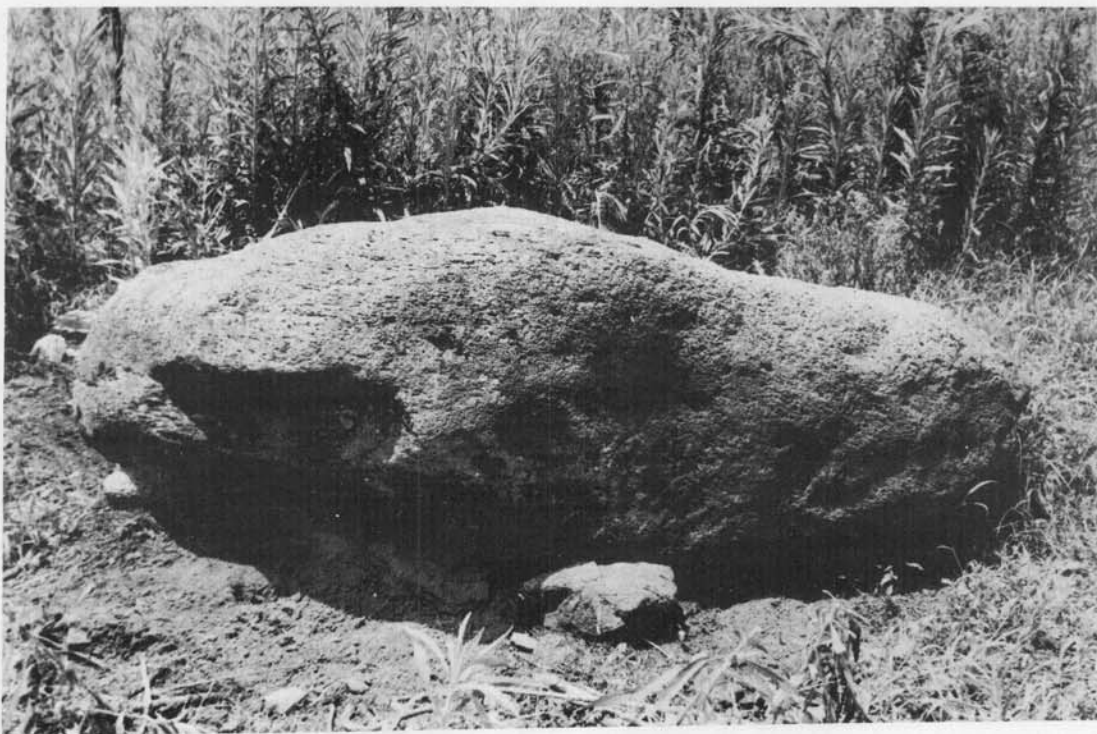


169. 加波島 고인돌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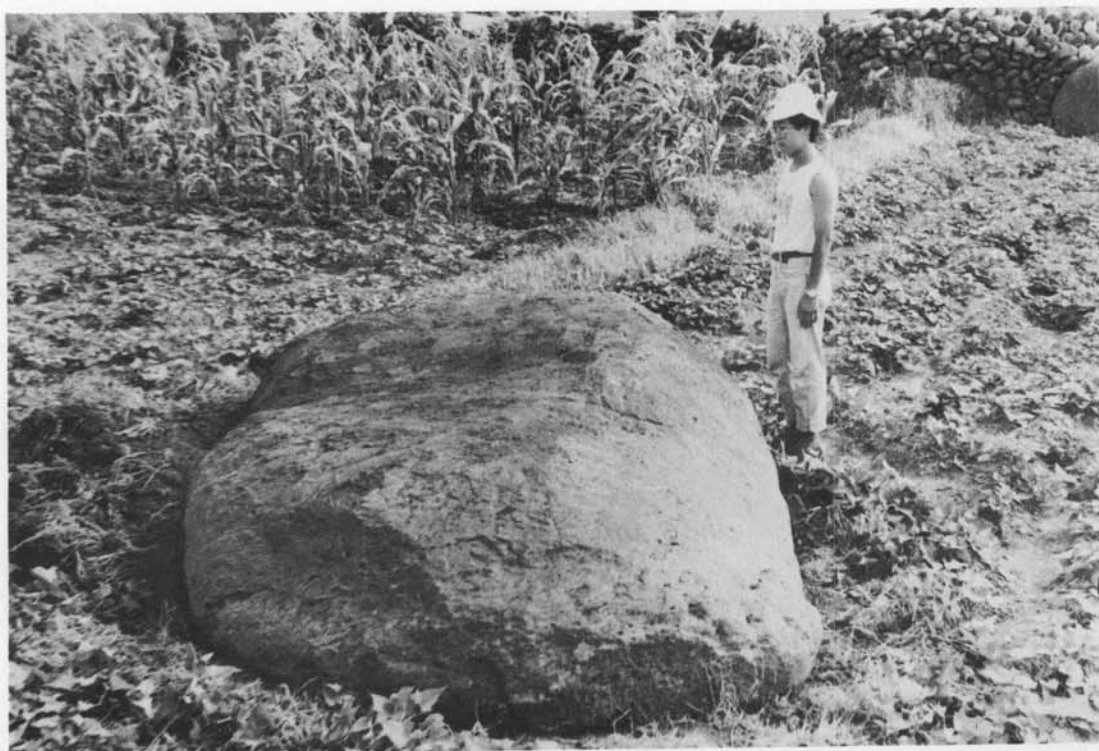
사진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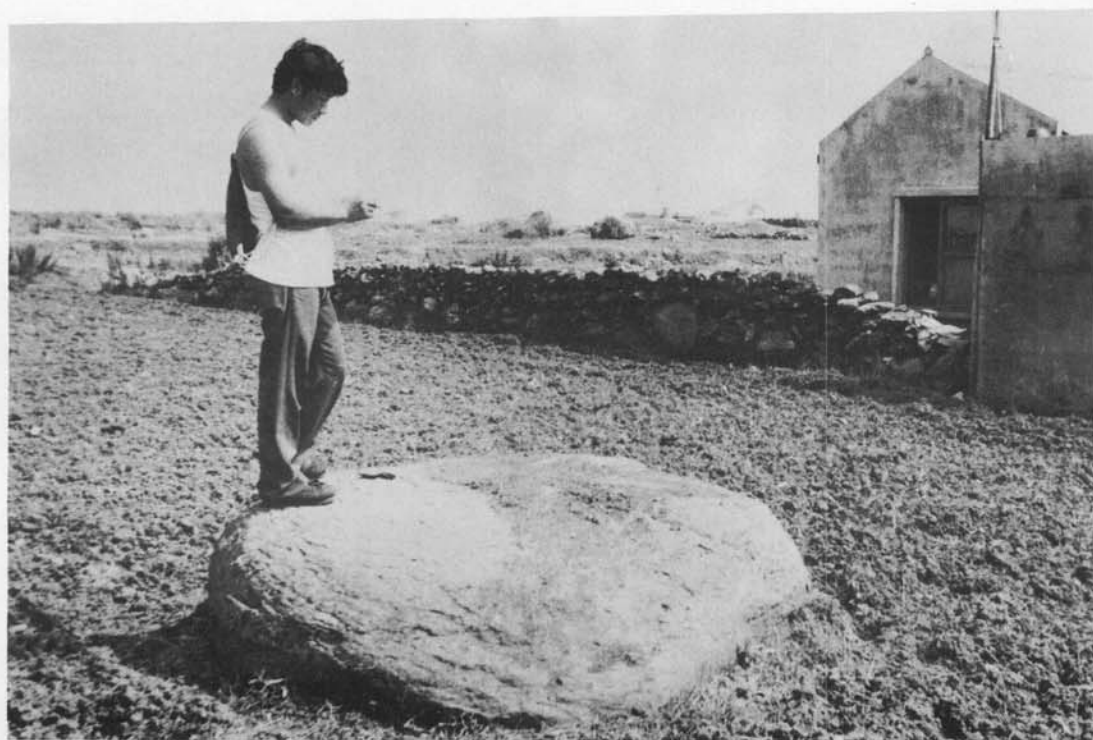
170. 加波島 고인돌(1)



171. 加波島 고인돌(2)



172. 加波島 고인돌(3)



173. 加波島 고인돌(4)



174. 加波島 고인돌(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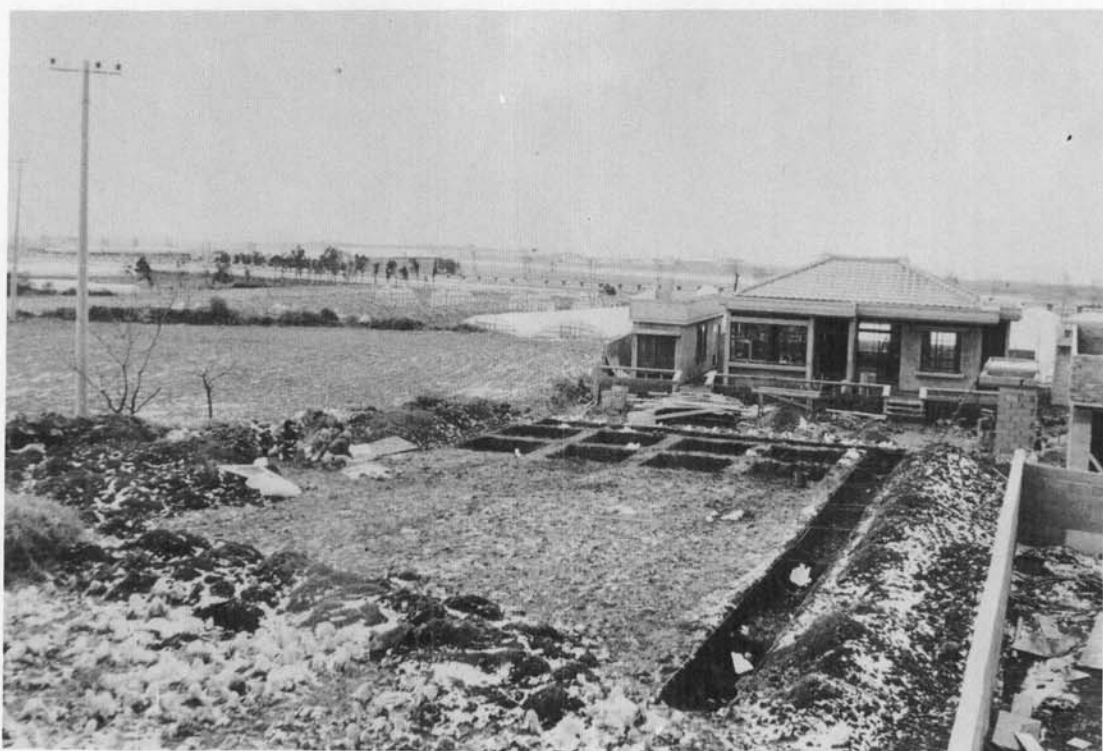
175. 加波島 고인돌(6)



176. 加波島 고인돌(7)



177. 加波島 고인돌(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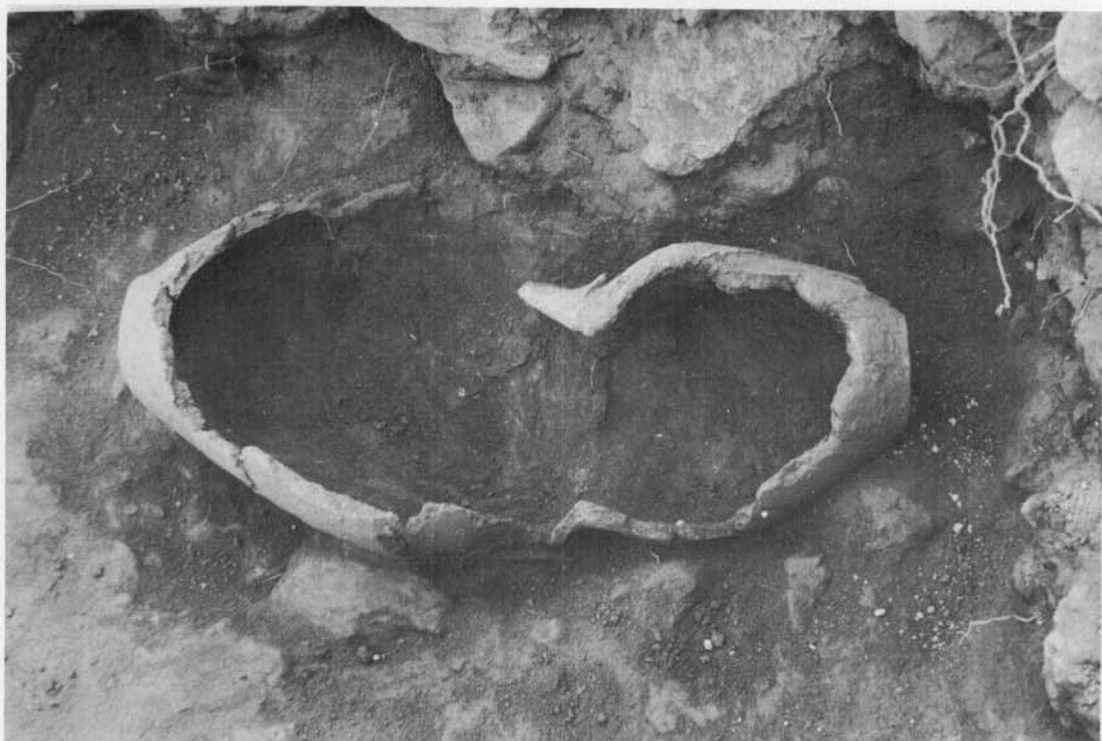
178. 龍潭洞 1984년 발굴 古墳 주변 경관



179. 龍潭洞 古墳 발굴 상황



180. 龍潭洞 古墳 前景



181. 龍潭洞 古墳의 甕棺(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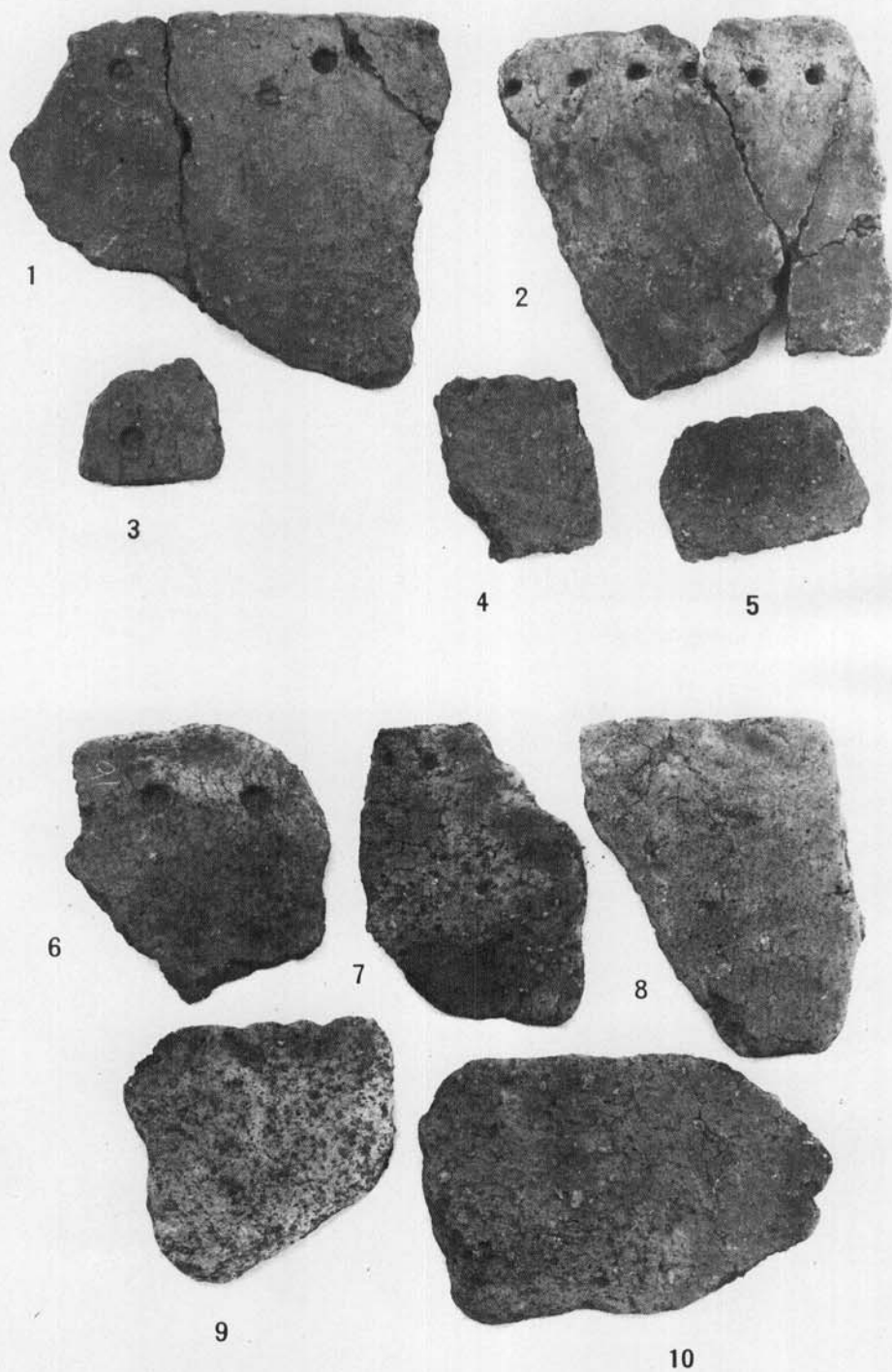
182. 龍潭洞 古墳의 甕棺(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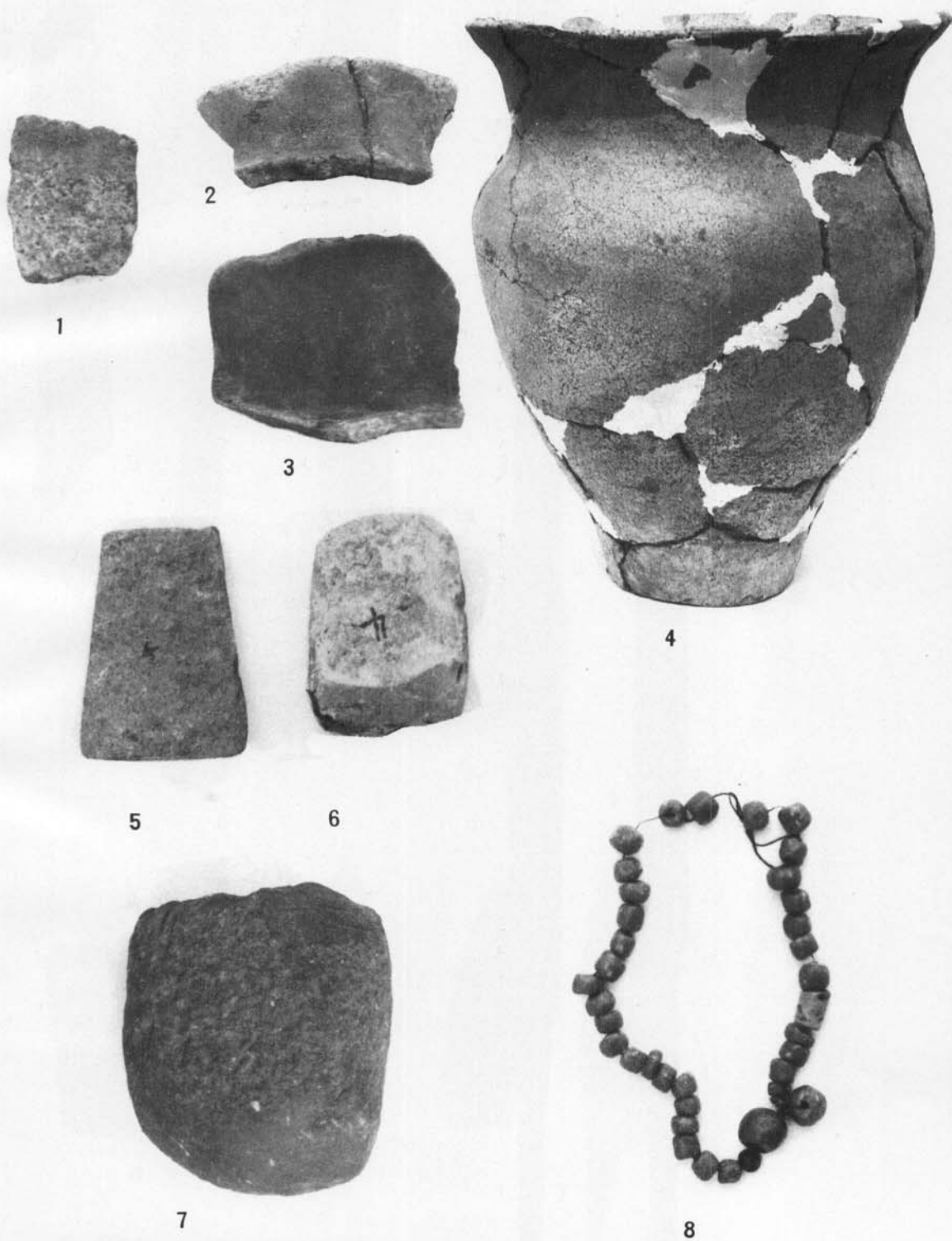


183. 龍潭洞 古墳의 石槨墓 뚜껑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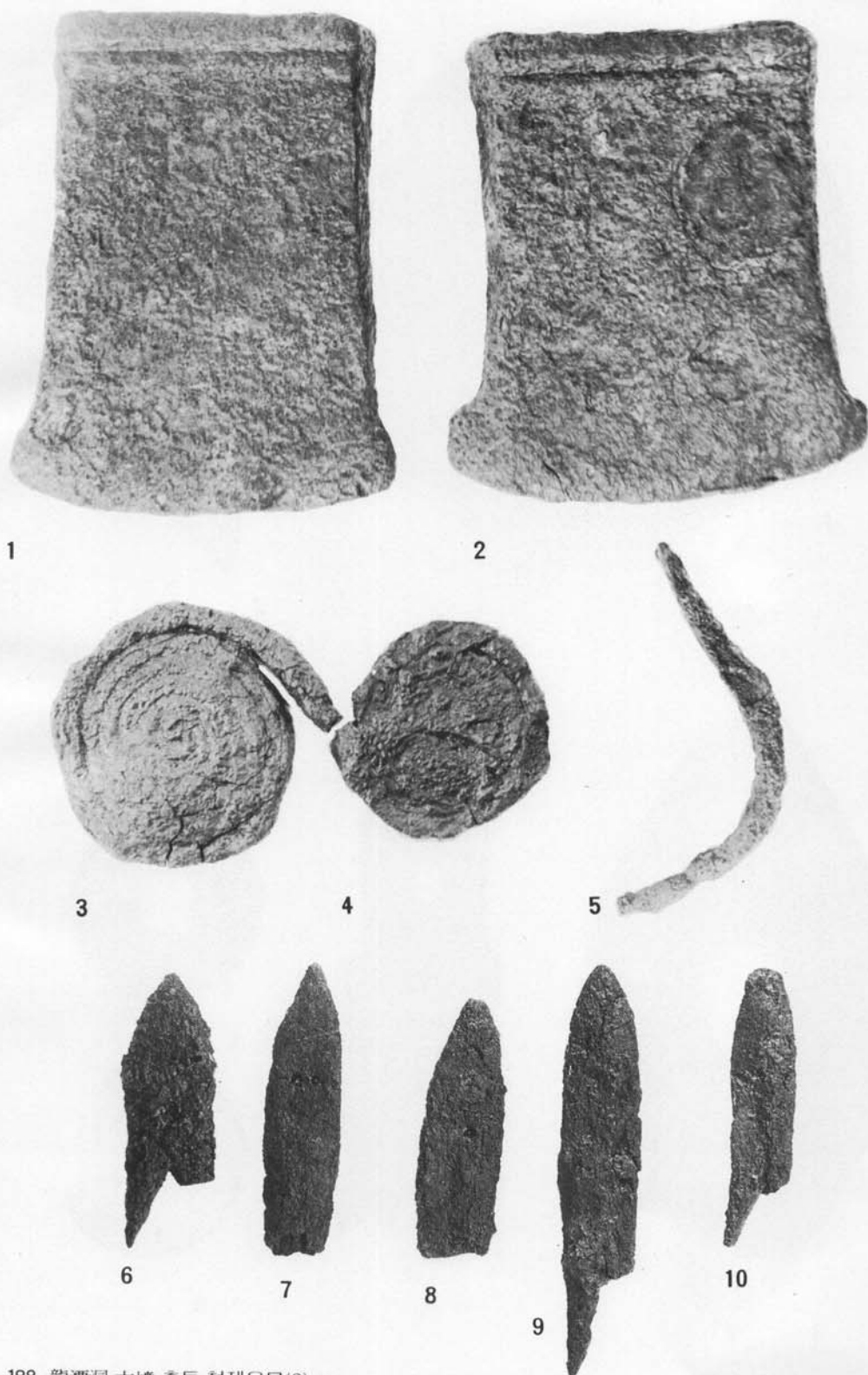
184. 龍潭洞 古墳의 石槨墓 (뚜껑을 들어낸 후)







187. 龍潭洞古墳 출토 철제유물(1)



188. 龍潭洞 古墳 출토 철제유물(2)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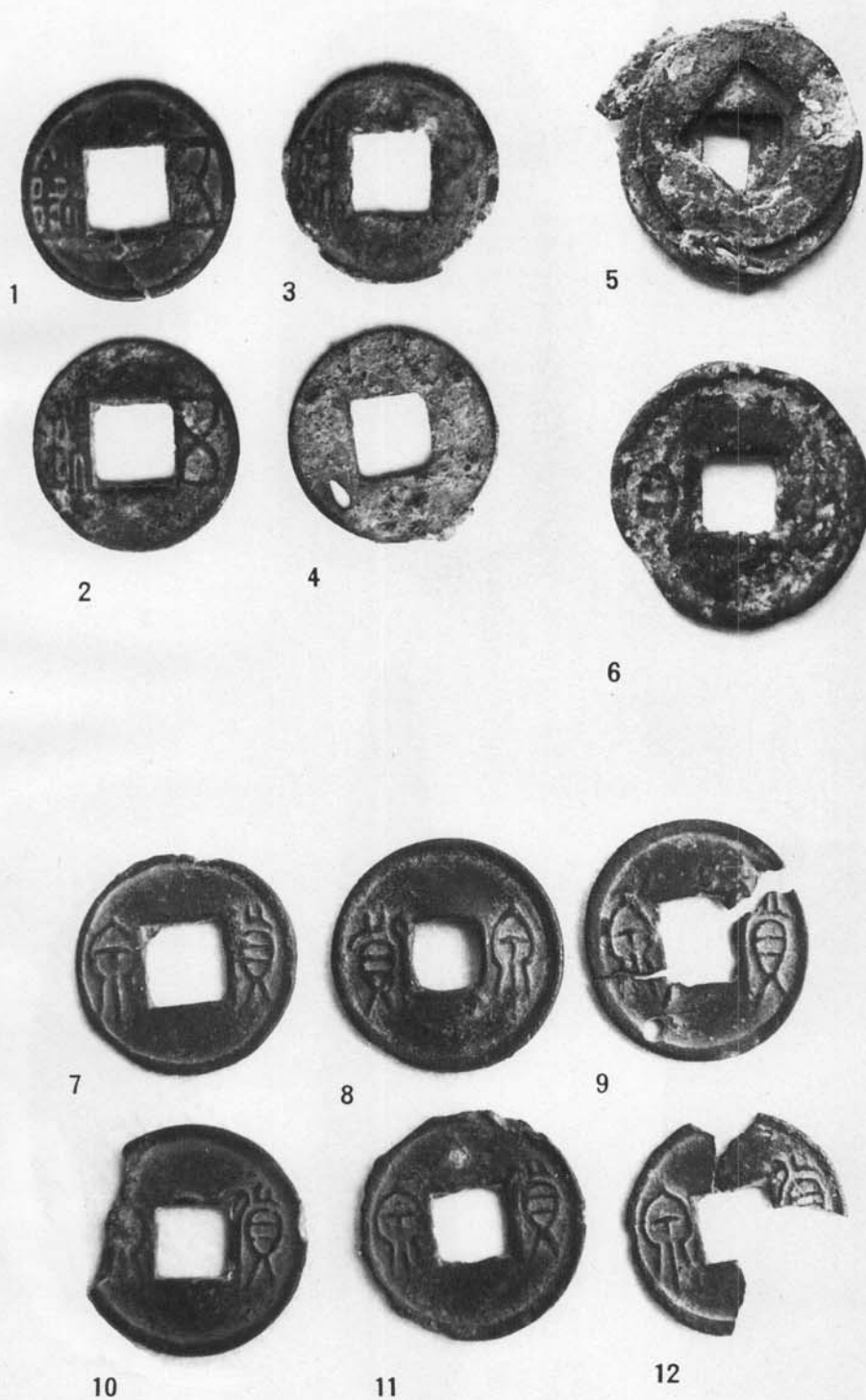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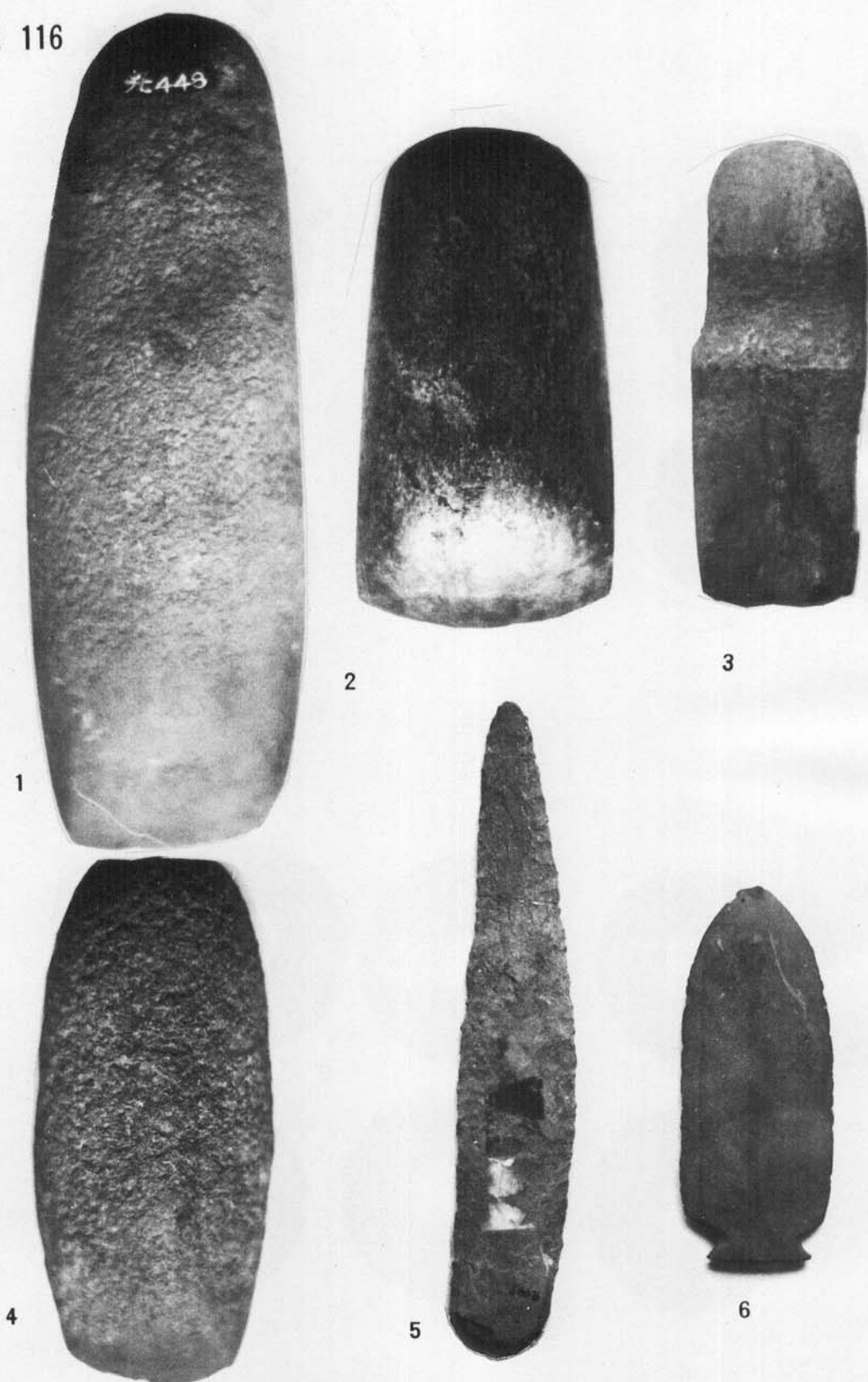


5



6







192.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소장 석기유물 (日課里 출토)

사진 11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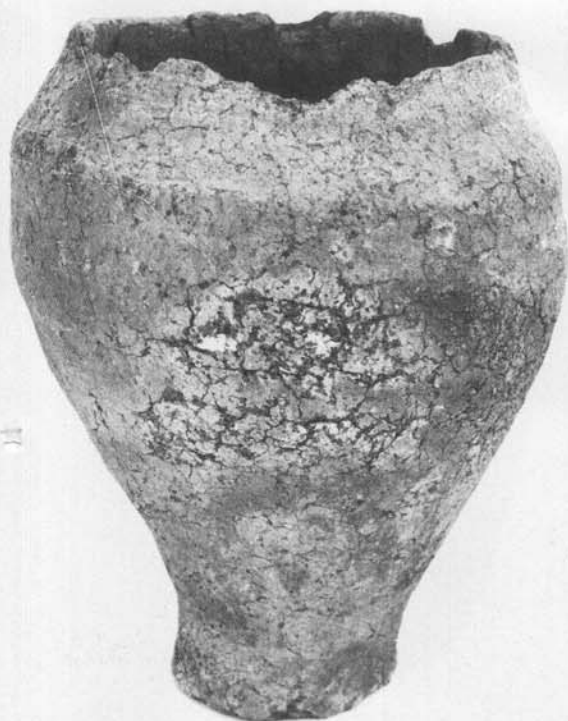


2

193.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소장 무문토기 (郭支里 출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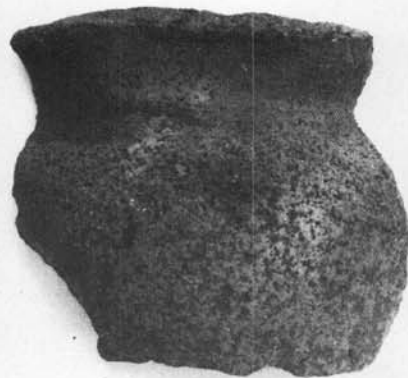


2

194. 濟州大博物館 소장 무문토기 (岳羅洞 출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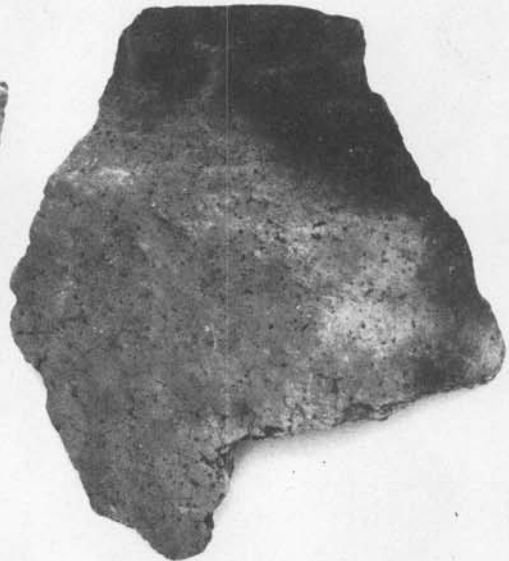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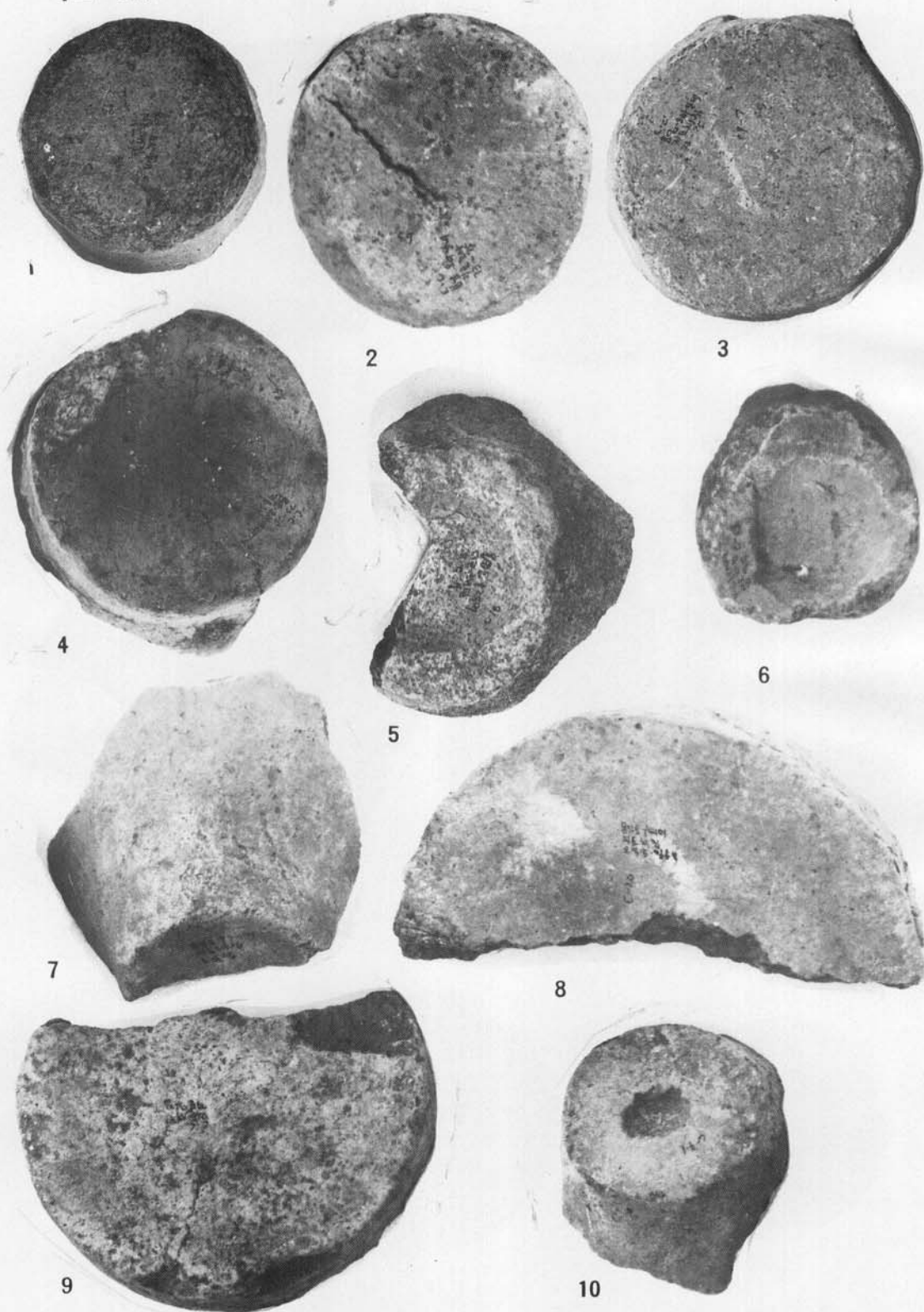


7



8

사진 120



196. 濟州大博物館 수습 토기편(2)



1



2



3

197. 濟州大博物館 수집 토기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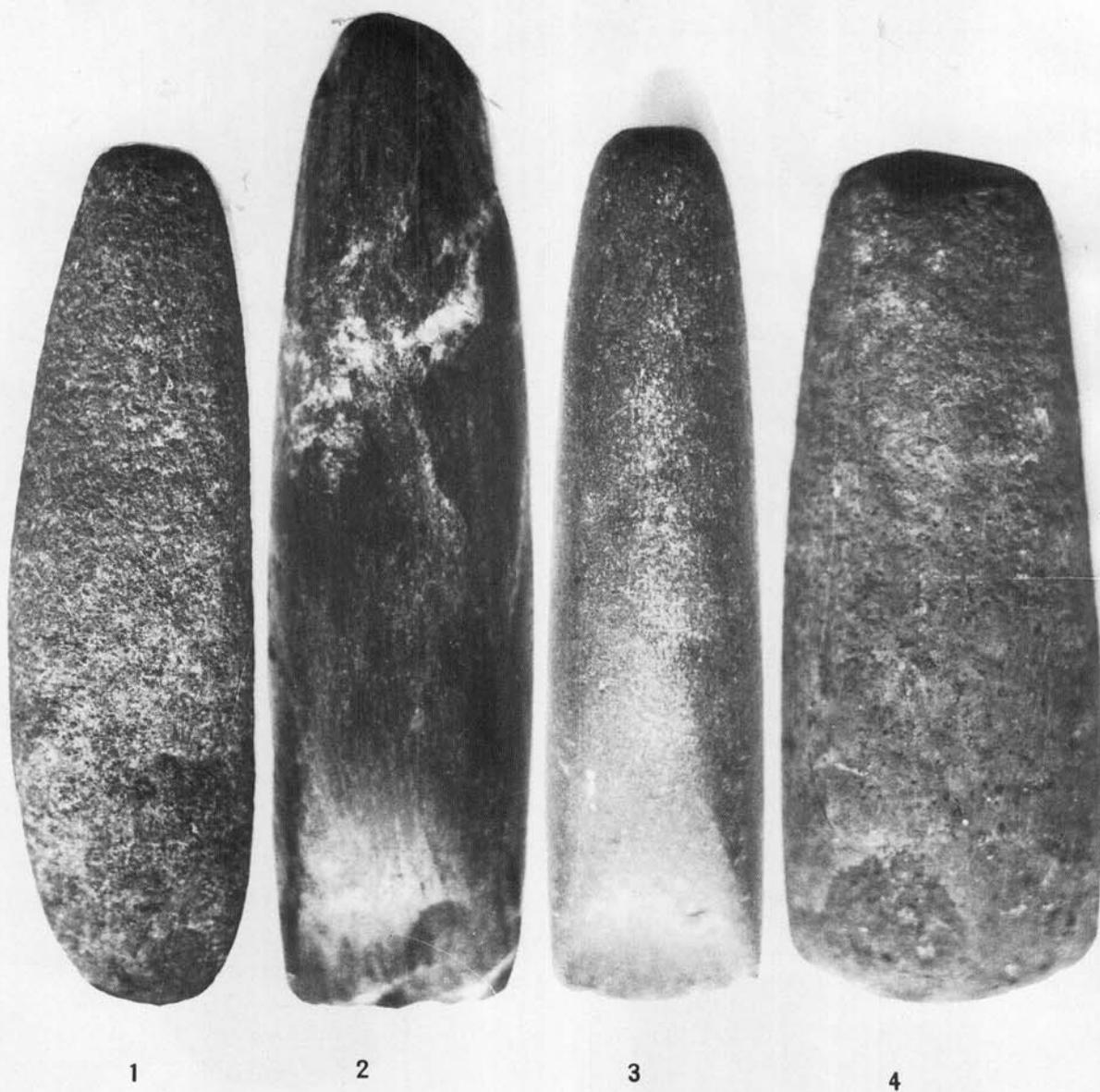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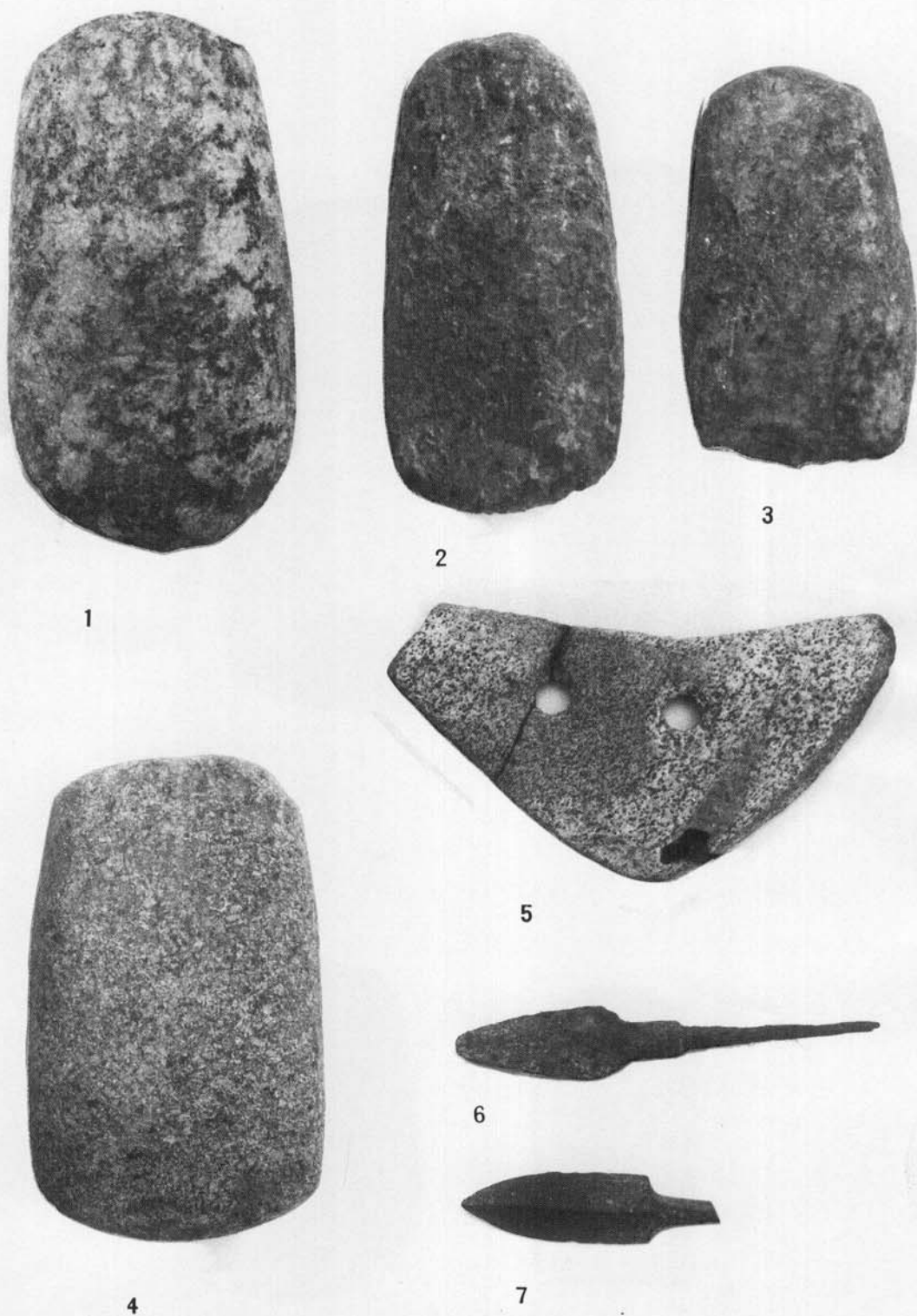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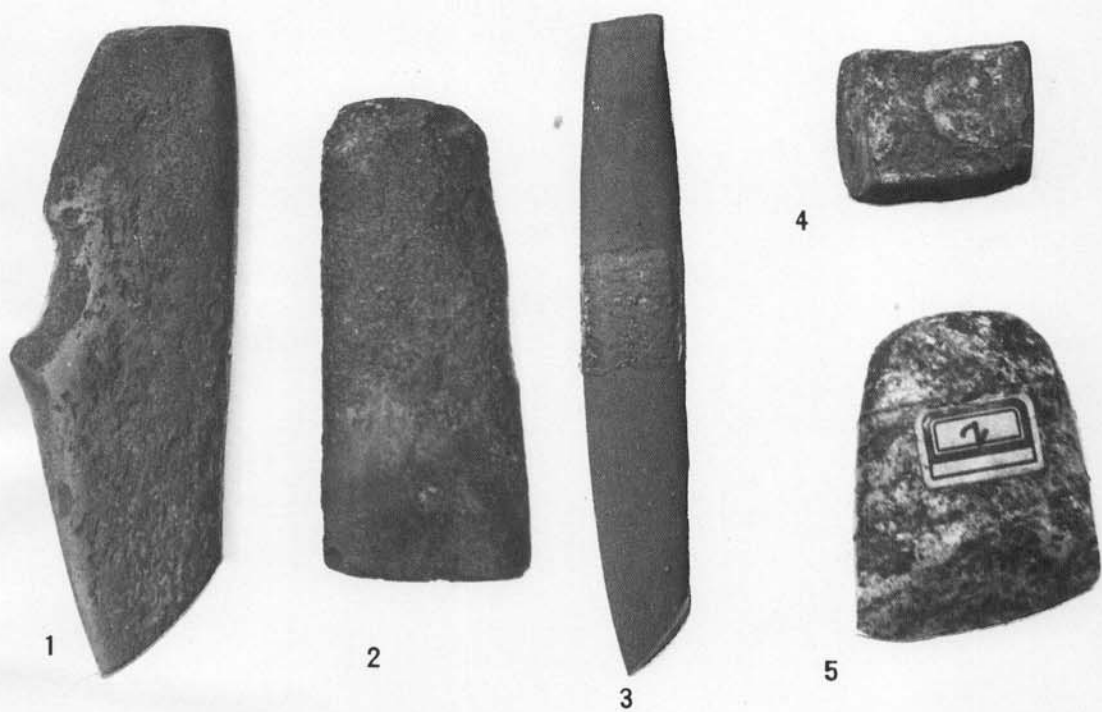
2

198. 濟州大博物館 소장 마제석기(1)









202. 文益信 소장 석기유물 (翰林里 동방굴 출토)